미 국 장 로 교
헌 법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U.S.A.)

Part I
Book of Confessions

제 I 부

신 앙 고 백 서

공식 한국번역판
총회사무처 발행

미국장로교
헌 법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U.S.A.)

Part I
Book of Confessions

제 I 부

신앙고백서

공식 한국번역판
총회사무처 발행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머 리 말

미국장로교 헌법 제 1부 "신앙고백서"의 한국말 번역 출판을 총회 산하 300여 한인교회와 함께 축하하며 기뻐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고백(마 16 : 16)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신앙고백의 공동체이다. 미국장로교는 기독교의 고전적 신앙고백들인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으로부터 출발하여 종교개혁시대의 스코틀랜드, 독일, 스위스, 영국 등 여러 민족 교회가 채택한 개혁신앙에 입각한 신앙고백들과 히틀러의 권력에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언한 바르멘 신학선언, 그리고 미국 사회의 격동하는 변혁 속에서 화해의 복음을 강조한 1967년 신앙고백과 남북 장로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서 채택한 간추린 신앙고백 등 모두 열한 개의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다.

신조와 신앙고백의 목적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교회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하고 밝히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교리와 신앙생활의 지침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각각 그 시대가 지니고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신앙의 고백과 증언을 해왔으며 이 신앙고백들은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 진리를 나타내면서도 그 시대에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다. 미국장로교는 분명한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개혁신앙의 공동체로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구세주 되심을 계속 선포하고 증언하는 신실한 교회이다.

이 신앙고백서의 한국말 번역 출판을 통해 미국장로교 안의 한인교회들이 더욱 신앙의 뿌리가 깊고 견고해지며 이 시대 속에서 개혁신앙의 선포와 증

언에 힘쓰는 신앙고백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바란다.

신앙고백서의 출판은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재정이 소요된 방대한 작업이었다. 신앙고백서의 한국말 출판을 총회 사무처에 건의하여 어려운 번역과 편집의 과정이 마무리되어 출판되기까지 3년의 긴 세월이 걸렸다.

한국말 신앙고백서의 출판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지원과 노력이 있었다. 미국장로교 총회 서기 제임스 앤드류스(James Andrews) 목사와 총회 사무처 출판 담당 메기 휴스턴(**Maggie Houston**)여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아니었더라면 이 귀한 문서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신앙고백서를 훌륭하게 번역해 주신 전 장로회신학대학 학장 박창환 박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앙고백서의 출판을 위해 세심한 정성을 다해 주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국장로교출판사 대표 김봉익 목사와 직원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이 역사적인 한국말 신앙고백서가 총회 산하 모든 한인교회에서 널리 사랑을 받으며 개혁신앙의 훈련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정을 불붙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93년 10월 30일

김 춘 자
미국장로교 총회 회중 목회부
한인교회 교육자료 개발 담당

차 례

페이지를 매기고 색인을 만드는 데 대한 요령

이 「**신앙고백서**」는 **1.1－.3** 이라는 숫자가 적힌 페이지에 나타난 **니케아신조**를 비롯하여 열한 개의 고백적 진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난외에 있는 굵은 글자로 된 관주는 소수점을 기점으로 그 왼쪽의 것이 고백의 번호를 가리키고 오른쪽의 수는 단락의 번호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한글판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체 페이지를 난하에 표시하였다.

사도신경은 **2.1－.3** 이라고 매긴 페이지에 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3.01－.02**라고 매긴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매겨진 페이지에 제1장과 제2장이 나타난다. 굵은 글자로 된 난외의 관주는 소수점을 기점으로 그 왼쪽은 그 신앙고백의 번호를 가리키고, 오른쪽은 장의 번호를 가리킨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4.001－.003**이라고 매겨진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굵은 글자의 난외 관주는 소수점을 기점으로 그 왼쪽은 그 고백의 번호를 가리키고, 오른쪽은 질문의 번호를 가리킨다.

제2스위스 신앙고백은 **5.001－.003**이라고 매겨진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굵은 글자로 된 난외 관주는 소수점을 기점으로 그 왼쪽이 그 신앙고백의 번호를 가리키고, 오른쪽이 단락의 번호를 가리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6.001－.011**이라고 매긴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굵은 글자로 된 난외 관주는 소수점을 기점으로 그 왼쪽이 그 신앙고백의 번호를 가리키고, 그 오른쪽이 단락의 번호를 가리킨다.

소요리문답은 **7.001-.011**이라고 매긴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굵은 글자로 된 난외 관주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그 왼쪽이 그 신앙고백의 번호를 가리키고, 그 오른쪽이 질문의 번호를 가리킨다.

대요리문답은 **7.111-.118**이라고 매긴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굵은 글자로 된 난외 관주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그 왼쪽이 그 신앙고백의 번호를 가리키고, 그 오른쪽이 질문의 번호를 가리킨다.

바르멘 신학선언은 **8.01-.04**라고 매긴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굵은 글자로 된 난외 관주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그 왼쪽이 그 신앙고백의 번호를 가리키고, 그 오른쪽이 단락의 번호를 가리킨다.

1967년 신앙고백은 **9.01-.05**라고 매긴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굵은 글자로 된 난외 관주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그 왼쪽이 그 신앙고백의 번호를 가리키고 그 오른쪽이 단락의 번호를 가리킨다.

간추린 신앙고백은 **10.1-.3**이라고 매긴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굵은 글자로 된 난외 관주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그 왼쪽이 그 신앙고백의 번호를 가리키고, 그 오른쪽이 단락의 번호를 가리킨다.

색인 참조는 난외의 숫자를 가리킨다. 예컨대 하나님의 형상 항에 대한 참조는 **3.03, 4.006, 4.115, 5.034, 6.023, 7.010, 7.035, 7.127, 7.185**이다. 그 참조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의 제 3 장,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 6 문과 제 16 문, 제 2 스위스 신앙고백의 제 34 단락, 소요리문답의 제 10 문과 제 35 문, 대요리문답 제 17 문과 제 75 문을 지적하는 것이다.

서 문

합중국 장로교회(PCUS)의 제123회 총회(1983)와 미합중국 연합장로교회(UPCUSA)의 제195회 총회(1983)는 합동하여 미국장로교회(PCUSA)를 만드는 계획을 승인하고 규정하였다.

그 통합을 좌우하는 합의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규정했다 :

1. 앞서 있었던 두 교회의 신앙고백 문헌들은 통합된 교회의 신앙고백 문헌들이 된다.

2. 가능하다면 '간추린 개혁 신앙고백'을 마련하여 신앙고백서에 삽입한다.

3. 1962년에 합중국 장로교회의 제102회 총회가 그 교회의 역사적 교리개요로 채택한 '간추린 신앙고백' (Brief Statement of Belief)은 통합된 교회에 의해서 '간추린 개혁 신앙고백'이 고려될 때까지, 성경에 나타나고 미합중국 장로교회의 신앙고백들 속에 내포된 역사적 기독교 교리의 개혁교회적 이해의 개요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교회의 신앙고백 문헌을 수정하는 입헌적 과정을 통해서 「신앙고백서」의 한 부분이 된 '간추린 신앙고백' (Brief Statement of Faith)은 제203회 총회(1991)의 최종적 제정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간추린 신앙고백' (Brief Statement of Faith)이 출판됨으로써, 1983년 이래 「신앙고백서」의 부록으로 인쇄되어 오던 '간추린 신앙고백' (Brief Statement of Belief)은 삭제되

었다.

정치형태 제1장, 제5절(G-1.0500)은 헌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미국장로교(PCUSA) 헌법은 「신앙고백서」와 「규례서」로 구성된다.

1. 「신앙고백서」는 다음 고백들을 포함하고 있다: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스위스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바르멘 신학선언
   1967년 신앙고백
   미국장로교회 간추린 신앙고백

2. 「규례서」는 다음 것들을 포함한다:

   정치형태
   예배모범
   권징조례

이 책은 헌법의 첫 부분인 「신앙고백서」이며, 신앙고백적 문헌들의 공적 본문들을 포함한다. 헌법의 제2부, 즉 「규례서」는 별도로 출판되었다.

1991년 7월 1일
제임스 E. 앤드류스
미국장로교총회 총무

1

니케아 신조

(본 문)

니케아 신조

처음 3 세기 동안은 교회가 적대적(敵對的)인 환경 속에 있었다. 그때는 히브리적, 유대-크리스천적 맥락속에서 발전된 복음의 언어를 헬라-로마 세계와 연결시켜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었다. 또 한 편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성경적 증언과 상치되는 사상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았다.

321년에 콘스탄틴(Constantine)은 밀비안 브리지(Milvian Bridge)전투에서 로마제국을 장악했다. 그는 그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 때문이라고 본 나머지 기독교를 승격시켜 그의 제국에서 특혜적(特惠的) 존재가 되게 했다.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신앙, 한 교회, 한 제국, 한 황제" 가 그의 표어가 되었다. 그 황제는 "한 신앙과 한 교회" 가 신학적 논란 때문에 깨어졌다는 것을 곧 발견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오래 동안 논점이 되어 서로 상충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사제인 아리우스는 신 적인 그리스도, 만물을 존재케 하신 "말씀" 이신 그분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격은 하나님의 신격과 유사하되 동질(Same essence)은 아니라는 것이다. 감독 알렉산더는 그의 동료이자 후계자인 아타나시우스와 더불어 아리우스를 반대했다. 그들은, 그리스도 즉 아들의 신격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신격과 동일한 실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다신론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神)지식이 궁극적 신지식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고 그들은 말했다.

교회 안에서 점점 넓어지는 균열을 막기위해서 콘스탄틴은 325년에 니케아에 협의회를 소집했다.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우스의 입장을 반영하는 신조를 작성하였고, 감독들의 대다수가 이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두 파는 논쟁을 계속했다. 381년에 두 번째 협의회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였다. 그러나 그 회의는 325년 신조를 개정 확충하여 채택했다. 그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다.

니케아 신조는 가장 에큐메니칼한 신조이다. 미국장로교회(PCUSA)는 동방정교회, 로마카톨릭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개신교와 더불어 이 신조를 확인한다. 그러나 서방교회들은 동방정교회와는 달리, 성령이 성부에게서 발원(發源)하실 뿐 아니라, 성부와 성자(라틴어로 Filioque)로부터 발원하신다고 말한다.

동방의 교회들에게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 두분으로부터 발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위(位)의 특이성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서방교회들에게는 Filioque가 삼위일체신의 통일성을 수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는 에큐메니칼 대화에 있어서 아직도 미해결의 것으로 남아있다.

1

니케아 신조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자다. 1.1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며, 빛의 빛이시며, 참하나님의 참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고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실체를 가지셨다. 그는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매장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는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1.2

그리고 우리는 주이시며 생명의 공여자이신 성령을 믿는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그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죄를 사해 주는 하나의 세례를 인정한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고대한다. 아멘. 1.3

2

사도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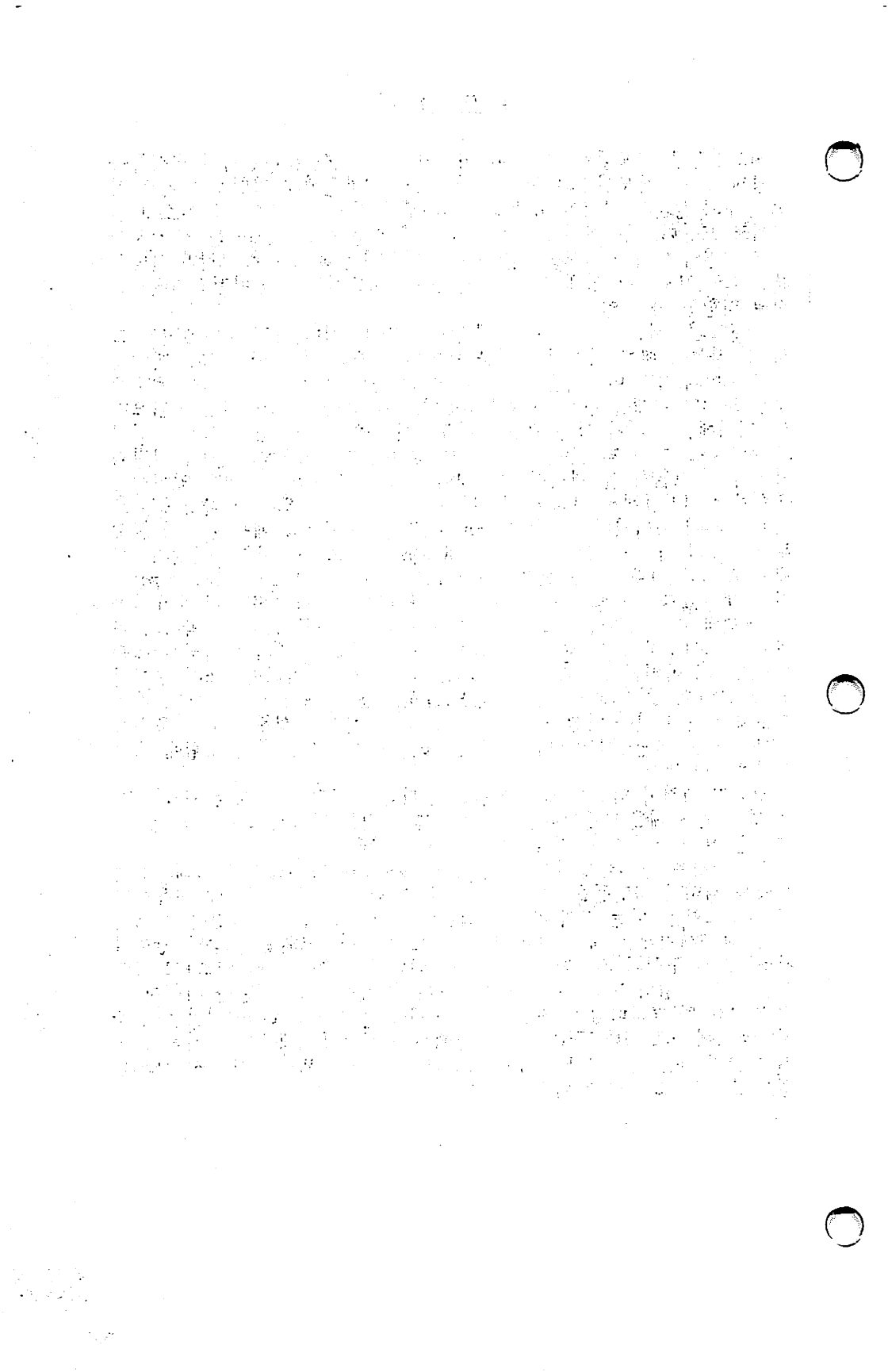
(본 문)

사 도 신 경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니지만, 제 1세기의 신학적 공식들을 반영해 준다. 사도신경의 구조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을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명령에 기초한 것일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크리천들이 문맹(文盲)이었을 때에는,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더불어 사도신경을 구두로 반복하는 일이 서방교회의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 사도신경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전혀 역할한 바가 없다.

초대교회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주 되심에 대한 성경적 맥락을 언제나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제 2세기에 로마에 살던 마르시온(Marcion)이라는 크리스천은 주 되시는 예수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한층 더 위협하였다. 마르시온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는 하자가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포악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가 믿기는, 구약의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예수가 사랑과 자비의 선신(善神)을 계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르시온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선포된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구약성경은 도대체 성경이 아니었다. 그는 기독교 "성경"을 누가복음(예수탄생 사화(史話)와, 그의 생각에 유대적 사상을 표현했다고 보이는 다른 부분들을 삭제한 누가복음)과, 그가 반유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울서신들로 국한할 것을 제한했다. 마르시온의 견해는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하여 수세기동안 계속되었다. 180년경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마르시온을 반박하기 위하여 사도신경의 초기 양식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본디오 빌라도때에 십자가형으로 죽으셨고, 매장 되셨고, 죽은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거기서 성부와 함께 통치하신다는 것을 언명(言明)했다. 그들은 또한 성령, 교회,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언했다.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장기간의 도덕적, 교리적 교육을 받은 연 후에 세례를 받을 때에 자기들이 믿는 바를 진술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들은 이 신조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대답하였다.

사도신경은 좀 더 발전을 보았다. 제 2세기와 제 3세기의 박해기간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회는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라는 조항을 첨가했다. 제 4세기와 제 5세기에는 북 아프리카의 크리스천들이, 교회란 소수의 영웅적 사람들로서 구성된 배타적인 분파인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포괄적인 교회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토론한 나머지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보편적인(Catholic-universal)이라는 말을 첨가하기에 이르렀다. 골(Gaul) 지방에서는 제 5세기에 "그가 지옥에 내려 가셨다"라는 말이 사도신경에 삽입되었다. 제 8 세기에 비로서 사도신경이 오늘의 그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2

사도신경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2.1

또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셔서 매장되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2.2

나는 성령을 믿는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아멘. 2.3

3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본 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신앙고백서(The Book of Confession)에는 종교개혁 시대의 세 개의 문헌이 수록되어 있는 바, 그 셋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생겨났다. 즉 스코틀랜드, 독일, 그리고 스위스에서이다. 이 세개의 종교개혁 중심지들은 오늘까지도 개혁사상과 장로교 사상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고장이 되어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스코트랜드국(國) 역사의 전환점에서 작성되었다. 1560년경에 섭정(攝政)황후인 가이즈(Guise)의 메리(Mary)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을 때,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귀족들은 에딘벅 조약에서 스코틀랜드의 국권을 영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있어서는 불란서 군(軍)의 후원을 받은 메리와의 내전에서 얻은 그 유리한 귀결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적 구출이라고 여겨졌다. 스코틀랜드 국회는 스코틀랜드를 하나의 개신교국으로 선포한 다음, 성직자들로 하여금 신앙고백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존 녹스(John Knox)를 포함한 여섯 명의 목사들이 4일 동안에 그들의 작업을 완료했다. 1560년에 이 문서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로 국회에서 인준되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헌신할 것을 서약하는 말로 시작하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의 처음 열한 장은 성경 역사에 있는 사건들 속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섭리적 행위들을 서술한다. 현재와 미래의 교회는 아담에게까지 소급되는 하나님의 백성교회의 연속이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성경이야말로 교회가 그 자신을 판단하는 규범이라고 확언하는 동시에, 또한 성경을 하나의 거룩한 역사로 보고,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시간까지 그 역사에 동참한다고 본다. 하나님의 섭리적 구출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실재라고 본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참되고 신실한 교회의 세 가지 표시를 제시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설교하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성례전을 바르게 행하는 일." 그리고 "교회의 권징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악이 억제되고 덕이 함양되는 일"이다.

이 문서의 주요 낱말들은 "고수(固守)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신뢰한다"등이다. 스코틀랜드의 신앙고백은 그 소란스러운 시대에 처한 백성에게 활동을 환기하는 글로서, 그들이 직접 경험한 기적적 구출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한다는 정신을 반영해준다.

3

스코틀랜드 신앙고백[1]

제1장 하나님

3.01 우리는 한 하나님만 고백하고 인정한다. 그분만을 우리는 고수해야 하며, 섬겨야 하며, 예배해야 하며, 의지해야 한다. 그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전능하시나 볼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실체를 가지시나, 세 분(persons)으로 구별된다. 그에 의해서 우리는 그의 영원하신 지혜와 선하심과 정의가 지정한 그러한 목적과, 또한 그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로써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고 존재로 존속하고, 또한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믿는다.

제2장 인간의 창조

3.02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 즉, 그는 우리의 시조 아담을 그 자신의 형상(image)과 모양

1. 이는 1560년에 제정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의 재판이다. G.D. 헨더슨이 서론을 쓰고 편집하였으며, 제임스 볼록이 현대 영어로 옮긴 것, 에딘버러의 성 안드루 출판사에게서 사용허가를 얻음(1960, pp. 58-80).

(likeness)에 따라 창조하셨고, 그에게 지혜와 주권과 정의와 자유의지와 자의식을 주셔서, 사람의 전본질 안에 불완전함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셨다. 이 위엄과 완전성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같이 타락했다. 여자는 뱀에게 속임을 당했고, 남자는 여자의 말에 복종하여 다같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반대했다. 하나님은 만약 그들이 감히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그들은 죽을 것이라고 미리 분명히 경고하셨다.

제3장 원 죄

3.03 보통 원죄로 알려져 있는 이 범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안에서 완전히 더럽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빠지게 되었고, 사단에 대해서는 노예가 되었고, 죄에 대해서는 종이 되었다. 그래서 아직 위로부터 오는 중생을 체험한 일이 없고, 현재에도 체험하지 않고, 장래에도 체험하지 않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영원한 죽음이 권력과 주권을 가졌고 장래에도 가질 것이다. 중생은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일으킨다.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안에서 약속된 은총과 축복과 함께 이해한다.

제4장 약속과 계시

3.04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고 떠나버린 저 무섭고 두려운 일을 저지른 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아담을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견책하시고 그의 죄를 선고하시고 마지막에는 그에게 가장 기뻐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믿는다. 즉,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그가 악마의 일을 파괴한다는 뜻이다. 이 약속은 때때로 반복되었고 더 분명하게 되었으며,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신자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함없이 받아들여졌다. 율법 아래 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의 날을 보았고 기뻐했다.

제5장 교회의 계속, 증가, 보존

3.05 아담 이후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으로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가르치시고 번성케 하시고 칭찬하시고 존중하셨다.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 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조상의 나라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가르치시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놀랍게 그를 보존하시고, 더 놀랍게도 그의 자손들을 바로의 멍에와 학대에서 구출해 주셨다. 그들에게 그의 율법과 규례와 의식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사사들과 그 후 사울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왕으로서 다윗을 주셔서, 그의 허리의 열매가 영원토록 그 왕좌에 앉을 것을 약속해 주셨다. 바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예언자를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옳은 길을 기억나게 하셨다. 그들은 때때로 우상을 섬기면서 이 길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의를 경시하는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이미 모세의 입을 통하여 경고되었던 것이다. 결국 거룩한 도성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나라 전체가 70년 동안이나 황무지가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써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켰다. 거기서 도성과 성전은 재건되었다. 그들은 약속대로 메시야가 올 때까지 사단의 모든 시험과 공격을 견디었다.

제6장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3.06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지혜요, 그 자신의 영광의 실체인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인 한 여인의 실체로부터 인성(the nature of humanity)을 받으셨다. 이와 같이 '다윗의 정당한 씨'요, '하나님의 크신 사려(counsel)의 천사'요,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야가 나셨다. 우리는 그를 임마누엘이요, 참하나님인 동시에 참사람이요, 완전한 두 본성이 한 분 안에 하나가 되어 결합되었다고 고백하고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아리우스와 말시온과 유티크스와 네스토리우스와 같은 가증스럽고도 유해한 이단들을 저주하는 동시에 그의 신성의 영원성이나 그의 참된 인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혼돈하거나 분리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제7장 중보자가 참하나님과 참사람이어야 하는 이유

3.07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신성과 인성의 이 놀라운 통합은 우리의 모든 구원이 유래하고 근거하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경할 수 없는 신의(decree)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한다.

제8장 선 택

3.08 세계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우리의 머리와 형님과 목자와 그리고 우리 영혼의 위대한 감독으로 임명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와의 대립이 심하여 어떠한 육체도 그 자체로써는 하나님께 도달할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을 스스로 입으시고, 우리의 살과 같은 살과 우리의 뼈와 같은 뼈를 취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어 그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것은 그가 친히 "내가 나의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에게, 나의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신 말씀대로이다. 이 가장 거룩한 형제결연 안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버림받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창조된 것이 아닌가). 실은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형님으로 주셨으며, 그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은총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야와 구속자는 참하나님과 참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죄값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와 불복종을 위한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으로써 죽음의 창시자인 자를 정복하셨다. 그러나 신성만으로는 죽음을 당할 수 없으며, 인성 역시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 둘을 한 분 안에 결합시켜서, 인성의 약함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예속되게 하고(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이었다.), 신성의 무한하고 무적한 권능이 승리하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자유와 항구적인 승리를 획득케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

하며 조금도 의심없이 믿는다.

제9장 그리스도의 죽음, 수난, 매장

3.09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자의적인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다. 그는 죄인들의 반대를 받으셨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고 고역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흠없는 깨끗한 양이신 그는 세상의 판사의 목전에서 정죄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언도에 의하여 저주받은 십자가의 잔악한 죽음을 당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마땅히 죄인이 받아야 할 그의 아버지의 진노를 얼마 동안 받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가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충분한 속죄를 하기 위하여 몸과 영혼이 고난을 받으신 고뇌와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아버지의 단 하나의 큰 사랑을 받은 축복된 아들이었다는 것을 공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를 위한 희생은 더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또한 공인한다. 만약 누가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와 그것에 의해서 획득된 영원한 속죄에 대한 모독자라는 것이다.

제10장 부 활

3.10 죽음의 슬픔이 생명의 창시자를 구속해 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매장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그리고 죽음의 창시자를 파멸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과 그 죽음의 멍에를 메고 있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없이 믿는다. 그의 부활은 그의 원수들의 증언에 의하여, 그리고 죽은 자들의 묘가 열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시내의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부활에 의하여 확인된 것을 우리는 안다. 그것은 그의 천사들의 증언과 또한 그의 부활 후에 그와 대화를 했고 같이 먹고 마신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의 느낌과 판단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제11장 승 천

3.11 동정녀에게서 나신 바로 그 몸이 십자가에 못박히셨고, 죽으셔서 매장되셨고, 다시 사셨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 가셨으며, 거기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받으시고,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는 것과, 그가 우리의 단 한 분의 변호자요,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영광과 영예와 특권을 그의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홀로 차지할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원수들이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는다. 바로 그 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보이신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이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돌아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보상할 때가 올 터인데, 처음부터 의를 위하여 폭행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약속된 행복스러운 불멸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집이 많고 순종치 않고 잔악하게 박해를 하던 사람들과 치사스럽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으로 믿음을 가지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완전한 암흑의 구렁텅이에 던지움을 받을 것이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시행될 심판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 정욕을 억제하는 재갈이 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즉, 그 위로는 측량할 수 없으리 만큼 커서, 세상의 왕들의 위협이나 현재 당하는 위험에 대한 공포나 일시적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머리와 유일의 중보자로 모시면서 같이 회원이 된 그 축복된 공동체를 부인하거나 버릴 만큼 위협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그를 약속된 메시야요, 그의 교회의 유일한 머리요, 우리의 의로운 법제자(Lawgiver)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변호자요, 중보자임을 고백하고 언명한다. 그의 영예와 직무에 대하여 사람이나 천사가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지고무쌍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독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한다.

제12장 성령에 대한 믿음

3.12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확실성은 혈육, 즉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를 하

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동등하시다고 고백한다. 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 그가 없이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 있었을 것이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나도 죽어 있고 눈이 어둡고 사악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영이 죽은 것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어둠을 제거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쳐서 그의 축복된 뜻에 복종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찔림을 받아도 느끼지 못하고, 빛이 비칠 때에도 그 빛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도 그것에 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존재치 않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의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성령은 우리에게서 어떤 공적이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그것이 중생 이전에 나타나든지 후에 나타나든지 그러한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성화하시고 중생케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한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 자신의 창조와 구속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영예와 영광도 차발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중생과 성화에 대해서도 자진하여 영예와 영광을 포기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단 한가지의 선한 생각도 할 수 없고, 다만 우리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그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선을 행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분에 넘치는 은혜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제13장 선한 일의 원인

3.13 선한 일의 원인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주 예수의 영이라고 우리는 고백한다. 그는 참된 믿음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라고 준비하여 주신 그러한 일들을 자아낸 그리스도가 성화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우리는 극히 담대하게 언명한다. 그러므로 살인자나 압박자나 잔악한 핍박자와 음행자나 불결한 사람이나 우상숭배자나 주정뱅이나 도적이나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불의한 가운데 있기를 고집스럽게 계속한다면, 그들은 참믿음을 가지지 못하며, 주 예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주저함없이 확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참된 믿음으로써 받아들인 주 예수의

영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점유하는 즉시로, 그는 그를 중생케 하고 새롭게 해주시어, 그 사람은 전에 그가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전에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영과 육의 계속적 전투가 있는 것이다. 육과 자연인은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쾌하고 쾌락적인 것을 탐내고, 역경 가운데서도 질투하고 번영하면 교만해질 뿐 아니라, 매순간 하나님의 위엄을 침범하기 일쑤이며, 또한 침범하기에 재빠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에게 증언해 주는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불결한 쾌락에 항거케 하고, 이 부패의 멍에로부터의 해방을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이기게 해서, 그 죄가 우리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립을 같이 가지지 못한다. 그들은 쉽게 죄를 좇고 그것에게 굴복하며, 그것을 후회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마귀와 그들의 부패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에 대항하여 투쟁한다. 그들이 유혹을 받아 악을 행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에는 슬피 울며 애통한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면, 성실하고 거짓이 없이 회개하며 다시 일어난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권능에 의해서 한 것이다. 주 예수를 떠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14장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들

3.14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법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한다. 그 법 안에서는 그의 신성한 존엄성을 불쾌하게 하거나 또는 거슬리는 모든 일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고 또는 그가 보상을 약속한 그러한 일은 권장되어 있다. 이러한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하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둘은 다같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보증이 된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그를 예배하고 존경하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에게 부르짖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의 거룩한 성례전에 참예하는 것 등이 첫째 유에 속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왕과 지배자와 위에 있는 권세를 존경하는 일,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그들의 명령

이 하나님의 계명에 배치되지 않는 한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며, 죄없는 사람을 구해 주고, 포악한 사람을 견제하고, 압박을 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고, 침착하고 절제있는 생활을 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정당하게 대하며, 끝으로 이웃을 해롭게 하려는 어떤 욕구도 견제하는, 이러한 모든 일은 둘째 유에 속하는 선행이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그의 마음에 드는 것들이다. 이와 반대되는 행동은 죄다.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노엽게 한다. 우리가 궁지에 있을 때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일, 그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 일, 오히려 그것을 저주하고 무시하며 우상을 모시거나 예배하는 일, 또는 우상숭배를 보존하고 변호하거나,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례전을 더럽히고 그릇되게 사용하고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세워 주신 집권자가 그들의 직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복하거나 항거하는 일, 살인하거나 그것을 용인하는 일, 증오하거나 우리가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노엽게 한다. 결론적으로 첫째와 둘째 종류에 속하는 어떤 다른 계명이든지 그것을 어기는 것이 곧 죄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확인한다. 그 죄에 의해서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불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선한 일이란 곧 믿음 안에서 행해진 것만을 가리키며, 그의 율법을 통하여 그가 기뻐하실 일을 정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여진 일만을 말한다고 우리는 확언한다. 반대로 악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행해진 일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사람의 조작물이며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증이 된 것을 그대로 행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확언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거부하셨다. 그것은 "사람의 교리와 계명을 가르치니 그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한 예언자 이사야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대로이다.

제 15 장 율법의 완전성과 인간의 불완전성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공정하고 평등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여 그것을 완전하게 행할 때 그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있고, 인간을 영원한 복락으로 3.15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약하고, 불완전하여, 우리가 율법이 시키는 일을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인정한다. 우리가 중생한 후에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율법의 마지막이요, 완성이시며, 우리가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되는 것도 그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율법의 모든 부분을 실천하지 못한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튼튼히 붙잡는 일, 즉 그의 의와 속죄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의로써 우리의 불완전한 복종을 완전한 것처럼 용납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오점으로 더럽게 되어 있는 우리의 행위를 덮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율법의 위치는 이미 우리가 인정했다.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지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를 제외하고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에의 복종을 실천했거나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엎드려야 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거짓없이 고백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행위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쌓은 공덕(supererogation)을 믿는 사람은 실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며, 가증한 우상숭배를 의지하는 것이다.

제16장 교 회

3.16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우리는 처음부터 한 교회가 있었고 현재도 있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을 굳게 믿는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한 단체와 무리인데,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며 그를 모시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유일의 머리인바 교회는 그의 몸이요, 신부이다. 이 교회는 보편적이며, 이를테면 우주적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시대와 지역과 국민과 언어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유대인에 속했거나 이방인에게 속했거나를 막론하고, 성령의 성화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

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속인들의 교제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의 교제라고 부른다. 그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사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즉, 한 하나님과 한 주 예수와 한 믿음과 한 세례를 가진다. 이 교회 밖에는 생명도 영원한 복락도 없다. 그러므로 무슨 종교를 신봉하든지 공평과 정의에 따라서 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독을 우리는 전적으로 싫어한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생명도 구원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신 그 사람들과 제때에 그에게 오고 그의 가르침을 고백하고 그를 믿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우리는 믿는 부모의 자녀들을 그 속에 포함시킨다.). 이 교회는 불가견적이어서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이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아시고, 택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승리적 교회, 아직 살면서 죄와 사단을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후에 살 사람들을 다 포함하신다.

제17장 영혼의 불멸

3.17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화평 중에 있으며 그들의 노고를 벗어나 쉬고 있다. 어떤 열광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들이 잠자고 있고 망각 속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공포와 고통에서 구출되었고, 우리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생에 있어서 당면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유혹에서 구출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유혹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투쟁하는 교회라고 부른다.). 그 반면에 버림을 받고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번민과 고통과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가진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다같이 아무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유와, 강도에 대한 그의 말씀과, 제단 아래에서 절규하는 영들의 말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공명정대하시나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피값을 갚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기다리시겠나이까?"라고 한 것들이 이것을 증명해 준다.

제18장 참 교회와 그릇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표와

누가 교리의 심판자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3.18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의 악독한 회당을 꾸미려고 애를 썼고, 가인이 아벨에게,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에서가 야곱에게, 유대인의 모든 제사장들이 그리스도 예수 자신과 그 뒤에 그의 사도들에게 한 것처럼 사단은 잔악한 살인자들을 부추겨서 참된 교회와 그 회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아서 이것과 저것을 혼동하여 받아들이고 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저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참된 교회는 분명하고 완전한 표시에 의하여 불결한 회당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언명한다 :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를 끔찍한 매음부, 즉 그릇된 교회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표와 징후와 확실한 증거는 옛스러움이나, 횡령한 칭호나, 전통의 계승이나, 지정된 자리가 아니며, 또한 사람의 수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오를 입증하는 것이다. 연령과 칭호를 본다면 가인은 아벨과 셋보다 먼저 있었으며, 지상의 모든 다른 지역보다 예루살렘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루살렘에는 아론의 계보를 계승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교리를 성실하게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위에서 말한 것 중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다고는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시라고 믿고 고백하고 공언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설교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글이 선포하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례전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성례전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확인 또는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동반해야 한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대로 교회권징을 정직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서 악독이 제재되고 덕행이 배양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시가 보이고 언제나 계속되는 곳에 수가 완전하든지 못하든지 의심할 여지도 없이 거기에 참된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는 그의 약속대로 그 안에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말한 그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특정한 교회들을 말한다. 즉, 고린도나 갈라디아나 에베소나 또는 바울에 의해서 목회가 시작된 다른 곳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스코틀랜드의 지역 안에 사는 주민인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의 도시와 동네와 개혁교회의 지역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우리의 여러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 즉 본래부터 정경이라고 인정된 책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리 때문이다. 이 책들 안에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이 충분히 표명되어 있다고 우리는 확인한다. 성경해석은 한 개인에게나 어떤 공적 인물에게 소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한다. 그리고 개 교회든지 지방적으로든지, 그것이 다른 교회들보다 월등한 탁월성이 있다거나 먼저 생겼다는 것 때문에 성경해석권이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한다. 오히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에 속한다.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대한 논쟁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오용(abuse)을 개혁하는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선진 중 누가 이미 무슨 말을 했다든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물어 보기보다도, 성령이 성경의 본체 안에서 무엇을 통일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자신이 무엇을 행하셨고 명령하셨는가를 물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자가당착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합치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나 교회의 해석이나 의견이 성경의 다른 구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반대될 때에는, 가령 어떤 회의나 지역이나 나라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해도 그것은 성령의 참된 이해와 뜻은 아니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주요한 점에 반대되거나, 성경의 어떤 다른 분명한 본문에 반대되거나, 또는 사랑의 규칙에 반대되는 해석은 그 어느 것이든지 우리는 감히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가 없다.

제19장 성경의 권위

3.19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고 완전하게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천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하고 공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로부터 받은 권위 밖에는 다른 권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요, 참된 교회에 대해서는 해독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확언한다. 참된 교회는

언제든지 그 자신의 신랑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복종한다. 그리고 자기를 지배할 다른 여왕을 모시지 않는다.

제20장 총회, 총회의 권한, 권위, 총회 소집의 이유

3.20 선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총회로 모여서 우리에게 정해 준 것을 우리는 성급하게 비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총회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선포된 것을 무엇이든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중의 더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오를 범하였고 중대하고 요긴한 일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의회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의해서 그 교령들(decrees)을 확인하는 한 그만큼 우리는 그것을 존중히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의회의 이름 아래 우리를 위한 새로운 신앙 조항들을 위조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귀들의 교리요, 우리의 영혼을 한 하나님의 음성에서 꾀어 내어 사람의 교리와 교훈을 따르게 하려는 것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을 부인하여야 한다. 총회가 소집된 이유는 하나님이 전에 제정하시지 않은 어떤 항구적인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또는 우리의 신앙을 위한 새 조항들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려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총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거룩한 뜻에 의하여 전에 표명되지 않았던 참된 성경 해석이 되게 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총회가 소집된 이유는 우선 적어도 그런 이름을 붙여 합당한 회의라면, 이단을 거부하는 일과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신앙의 공적인 고백을 주려는 것이었다. 신앙고백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그들의 수가 많았으니 과오를 범할수 없었다고 하는 어떤 의견이나 특권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판단에 의하면 이것이 총회가 모인 주요 이유이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서처럼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정중하고 질서있게 행해지는 것이 마땅하기에, 교회 안에서 좋은 정책과 질서가 제정되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정책이나 의식의 순서가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디서든지 통용되도록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 고안한 의식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것들이 교회를 개발하기보다 미신을 조장할 때는 그것들이 변경될 수 있고 또는 변경되어야만 한다.

제21장 성례전

3.21 율법 아래 있던 선조들은 실제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 이외에 두 가지 주요 성례전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할례와 유월절이 그것이다.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시대에 있어서 두 가지 성례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이 두 가지만 주 예수께서 제정하셨고, 그의 몸으로 간주될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용될 것을 명령하셨다. 즉, 세례 그리고 만찬 또는 주 예수의 식탁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그의 몸과 피의 교제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이 성례전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계약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사이에 가견적 구별을 짓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이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인신 그리스도 예수와 갖는 가장 복스러운 연합과 일치와 공동생활에 대한 확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인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전을 맹랑하고 단순한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허무한 생각을 전적으로 정죄한다. 성례전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죄는 가려지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만찬은 그것이 옳게 집행된다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결합되어 그가 우리의 영혼의 참된 영양과 양식이 되는 것이다. 떡의 실체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든가, 포도주의 실체가 변하여 그의 육체의 피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교도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것은 못된 일이며, 그렇게 믿어 온 것은 잘못된 일이다. 실은 우리가 성례전을 옳게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함께 가지게 되는 이 일치와 연합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은 참된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모든 보이는 것과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보다 높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자라나게 하신다. 그 몸과 피는 우리를 위하여 한 번 상하고 흘리신 것이며, 지금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존전에 나타나신다. 하늘에 있는 그의 영화된 몸과 지상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친교이며, 우리가 축복하는 잔은 그의 피의 친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식탁을 옳게 사용할 때 신자들은 주 예수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는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고 믿는다. 그것들이 그의 살 중의 살이 되고 그의 뼈 중의 뼈가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썩고 죽을(mortal)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생명과 불멸성을 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고백하고 믿는다. 이러한 효과는 성찬을 받는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성찬 자체의 힘과 효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주의 식탁을 옳게 사용할 때, 신자는 자연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합일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언한다. 그뿐 아니라 신자는 부주의와 인간적인 허약성에 의하여 방해를 받아, 성만찬을 받는 그 순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그만큼의 유익을 다 받지 못한다 해도, 나중에 그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살아 있는 씨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언한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정당한 제도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성령이 그 신비스러운 행동의 열매를 신자들에게서 박탈하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하는 참된 믿음에서 온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성찬을 우리 안에서 효력이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우리가 성례전을 상징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확언하거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중상한다면 그들은 비방자요, 분명한 사실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다. 다른 한편 우리는 영원한 실체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와 떡과 포도주 사이에 구별을 둔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한다. 따라서 그 성찬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 대신에, 그 떡과 포도주를 예배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열심히 반성한다. 그것은 사도의 입을 통하여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기 때문이다.

제22장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

3.22 성례전을 옳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로, 성례전

은 합법적인 사역자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이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권능을 주셨으며, 어떤 교회가 합법적으로 청빙한 사람들이다. 둘째로, 성례전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요소들(떡과 포도주)과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례전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로마교회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 성례전에서 물러서는 이유가 여기 있다. 첫째로, 그들의 사역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이다(사실 그들은 여자까지도 허용하는데, 성령은 그들이 회중 안에서 세례를 받도록 설교할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그들은 그 두 가지 예전에다가 그들 자신의 첨가물을 가지고 심하게 섞음질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래의 행위가 그 본래의 간결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기름, 소금, 침 따위를 첨가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첨가이다. 성찬을 숭배하거나 존경하기 위해서 행렬을 지어 거리와 동네에 가지고 다닌다든가, 특별한 상자 속에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찬을 옳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오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이 말과 명령으로써 그는 떡과 포도주를 그의 거룩한 몸과 피의 예전이 되도록 성화했으며, 따라서 떡은 먹고 포도주는 다 마셔야 한다. 로마교회가 하듯이 그것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남겨 두거나 하나님처럼 존경해서는 안 된다. 그뿐 아니라 성찬의 일부(축복된 잔)를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성물 절취죄를 범했다. 만일 성례전이 정당하게 사용되려면 그것들을 제정하신 목적과 의도를 목사뿐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을 받는 사람이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구약 제사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예전이 옳게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어떤 교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증스러운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면, 성례전이 하나님 자신의 예식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바르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 까닭은 악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로마교회 안에서 집행되는 성례전에 대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언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주 예수의 모든 행동이 형식과 목적과 의미에 있어서 섞음질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셨고, 또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복

음서와 성 바울의 글에서 분명하다.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 사용하게 하신 그 제도의 목적과 의도는 다음과 같은 말에 제시되어 있다. 즉,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미사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그들 자신의 학자들과 교훈으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해보자. 미사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중보자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죄를 사유하기 위한 제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독하는 것이요, 그의 유일한 제사의 충족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단 한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성화되어야 할 모든 사람을 깨끗이 하셨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로마교회의 교리)을 싫어하며 부인한다.

제23장 성례전은 누구에게 해당하는가?

3.23 세례는 나이가 들고 사리 분별력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큼 또한 그들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믿음과 이해력을 가지기 전에 세례받는 것을 거부하는 재세례파의 과오를 우리는 정죄한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믿음의 가족에 속한 사람,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와 이웃에 대한 의무에 관하여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저 거룩한 식탁에 앉아 믿음이 없이 먹고 마시거나, 그들의 이웃에 대한 화평과 선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가치하게 먹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목사들이 주 예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공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이유이다.

제24장 공무원

3.24 제국, 왕국, 자치령, 그리고 도시는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정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한다. 그 속에 있는 권세와 권위, 즉 제국에 있어서의 황제와 그들의 왕국내의 왕과 자치령내의 군주와 제후들과 도시의 행정관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과 모든 사람들의 이익

과 복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칙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누구든지 정당하게 수립된 정권에 반항하거나 그것을 전복시키려고 음모하는 사람은 단지 인류의 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사람이다. 또한 권세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두려워함을 받고 최고의 존대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그들의 회의장소에 하나님이 친히 앉아 계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변호해 주며 드러난 모든 행악자들을 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칼을 받은 재판장과 제후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를 보존하고 순결케 하는 일이 왕과 제후들과 지배자와 행정장관들이 해야 할 특별한 의무라고 우리는 언명한다. 그들은 일반 행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참 종교를 유지하고, 모든 우상숭배와 미신을 제지하기 위하여 임명되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다윗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그 외에 그런 일을 위하여 열의를 가진 자로 높이 평가된 여러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최고 권세자들이 자기들의 영역에서 행동하고 있는 한, 그들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칙령에 항거하는 것이고 무죄하다 할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공언한다. 제후나 지배자들이 주의 깊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누구든지 그들을 돕지 않거나 조언을 하지 않거나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덧붙여서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은 그의 대리자에 의해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간청하신다.

제25장 교회에게 거저 주신 선물

3.25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권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확실하고도 틀림없는 표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무리 안에 있는 모든 개개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회원이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많은 잡초와 가라지가 곡식 가운데 뿌려져서 그 가운데서 무성하게 자라난다는 것이며, 버림받는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 발견될 수 있으며, 말씀과 성례전이 지닌 은사에 그들과 함께 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시적으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하고 끝까지 계속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

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열매를 같이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주 예수를 성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담대하게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확실히 그의 선물들을 받을 것이다. 첫째로, 이 생에 있어서 그들은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써만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죽을 몸에 남아 있고 계속해서 존속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간주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용서되고 가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대심판 때에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육체의 부활을 주실 것이다. 바다는 죽은 자들을 그 속에서 내어 놓을 것이며, 땅은 그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내어 놓을 것이다. 그렇다, 영원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손을 흙 위에 뻗을 것이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 썩지 않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꼭 같은 실체를 가지고 그들의 행함에 따라 영광 혹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현재 허무한 것과 잔인한 것과 부정한 것과 미신이나 우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다. 현재 가장 가증스럽게 마귀를 섬기는 자들은 육과 영으로 영원토록 그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영광과 영예와 불멸성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믿는다. 그의 선민들은 그가 다시 나타나서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그의 아버지께 바칠 때, 다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화된 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영원히 축복받을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영원히 그렇게 계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그리고 성자와 성령께 모든 영예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오 주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로 하여금 당황케 하소서. 당신의 신성적 이름을 미워하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어전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힘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당신의 참된 지식을 고수하게 하소서. 아멘.

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본 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종교개혁은 단일적 운동이 아니었다. 루터가 95개 명제를 내 걸자마자 개혁운동은 구라파 도처에서 터져나왔다. 루터의 사상이 넥카(Neckar)강을 따라 움직여 내려간 것 처럼, 개혁사상은 라인(Rhine)강을 따라 뻗어 올라갔다. 그것들이 하이델베르크에서 합류했다. 그 곳은 독일에서 가장 낡은 대학이 자리잡은 곳이며, 팔라티네이트(Palatinate)라는 도(道)의 수도이기도 하다. 루터파 크리스천들과 개혁파 크리스천 사이의 긴장은 팽팽하였다. 개혁파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속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파 사람들은 개혁파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모독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 논쟁을 멈추게 할 방도로서, 팔레티네이트도의 통치자였던 선제후(選帝侯) 프레데릭(Frederick)은, 하이델베르크의 두 젊은이, 신학교수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와 그 도시의 설교가 카스 파르 올레비아누스(Kaspar Olevianus)에게 칭하여, 양 편이 다 수락할 수 있는 요리 문답을 준비하게 했다. 그들은 우르시누스가 일찌기 쓴 요리문답을 개정하였고, 그 초기 요리 문답의 골짜와 90여개의 질문과 대답을 전용(轉用)하였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2년에 완성되었고 그 다음해 정월에 발표되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의 우리의 위안에 관한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한다. 우리의 유일한 위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이 요리문답의 나머지 부분의 윤곽을 이룬다. 바울은 롬 7:25에서,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부르짖었다. 이 요리문답의 세 부분은 각각이 이 귀절의 노선에 상응한다. 3-11문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취급하며, 12-85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자유케하시는 방도를 취급한다. 그리고 86-129문은 우리가 그 구속에 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할 것인가를 다룬다.

이 요리문답의 매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 곧 "당신" 에게 하는 질문이다. 매 대답은 가능한 한 성경언어로써 표현되었다. 이요리문답의 신학은 그 호소에 있어서 보편적이요 세계적인 동시에 복음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요리문답은 루터파와 개혁파 크리스천들의 평화로운 공존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지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자체가 된다는 것을 부정하였고, 이 가견적 표징과 서약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의 참 된 몸과 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확언하였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교회의 설교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독일, 오스트리아, 화란, 헝가리, 동부 유럽 여러 부분, 스코틀랜드, 카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감지되고 있다.

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

제 1 주일

제1문 :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4.001

답 :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 곧 몸과 영혼이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피를 희생하여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고, 악마의 지배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나를 잘 지켜 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그의 목적에 반드시 부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에 의해서 그는 또한 영생을 나에게 보장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뜻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언제나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해주십니다.

제2문 : 당신이 이 위로의 축복 가운데서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입니까? 4.002

답 :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죄가 커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그 비참한 결과에서 해방되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는 그러한 구속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

1. *The Heidelberg Catechism, 1563–1963. 400th Anniversary Edition.* Copyright 1962. United Church Press. 허가를 얻어 여기에 전재함.

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 1 부 인간의 비참에 대하여

제 2 주일

4.003 제3문 : 당신의 죄와 비참한 결과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답 : 하나님의 율법에서입니다.

4.004 제4문 :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 : 37-40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눅 10 : 27 참조).

4.005 제5문 : 당신은 이것을 다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 아닙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3 주일

4.006 제6문 :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악하고 못되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그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즉, 참된 의와 거룩함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옳게 알아서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 가운데서 살면서 그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4.007 제7문 :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 본성의 부패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 :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범한 타락과 불복종에서 왔습니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 인간 생명은 너무나도 오염되어 모두가 죄의 상태에서 잉태되고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4.008 제8문 : 우리는 모두가 다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악한 일만 하도록 부패해 버렸습니까?

답 : 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제4주일

제9문 :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의 율법을 통하여 사람에게 요구하시니,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4.009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선동에 빠져 고의적으로 불복종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속였고 이 모든 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10문 : 하나님은 사람이 그러한 불복종과 결함을 가지고 지내도록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4.010

답 :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본유적인 죄악성과 실죄(actual sins)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며, 그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시간 속에서와 영원 속에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가 선포하신 대로입니다.

제11문 :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4.011

답 :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지고하신 존엄에 대하여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극상의 처벌, 즉 몸과 영혼에 대한 영원한 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2부 인간의 구속

제5주일

제12문 :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마땅히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으며, 다시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4.012

답 : 하나님은 그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완전하게 갚아야만 합니다.

제13문 : 우리 자신이 이 지불을 할 수 있습니까? 4.013

답 :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빚은 매일 늘어갑니다.

4.014 제14문 : 피조물에 불과한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하여 그 변상을 할 수 있습니까?

답 :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사람의 부채를 위하여 다른 어떤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것은 어느 것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부터 구속할 수 없습니다.

4.015 제15문 :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중보자와 구속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 그는 참사람인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인 동시에 참하나님이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6주일

4.016 제16문 : 어째서 그가 참사람과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답 : 하나님의 의는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배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017 제17문 : 어째서 그가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 그가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의 신성의 권능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의와 생명을 회복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반환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4.018 제18문 : 참하나님이신 동시에 참사람이며,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신 이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답 :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완전한 구속과 의를 위하여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십니다.

4.019 제19문 : 어디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답 :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

에 에덴동산에서 나타내셨고, 후에는 거룩한 족장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옛 계약의 희생 제물과 다른 의식들을 통하여 미리 암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 자신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아들을 통하여 완성하신 것입니다.

제 7 주일

4.020 제20문 :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패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까?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합체되고 그의 모든 혜택을 받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4.021 제21문 :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 참 믿음이란 우선 일종의 지식인바, 그것으로써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전심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복음이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 때문에 순전한 은총에 의해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4.022 제22문 : 그러면 크리스천이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개요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우리의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의 조항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4.023 제23문 : 그 조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답 :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또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매장되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그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아멘.

제8주일

4.024 제24문 :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 :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4.025 제25문 : 단 한분의 신적 존재가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세 분에 관해서 말합니까?

답 : 하나님이 그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즉, 분명하게 구별된 이 세 분이 하나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제9주일

4.026 제26문 :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의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로써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지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바로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연고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가 육과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많은 이 삶에 있어서 어떤 악을 나에게 주시더라도 그는 그것을 오히려 나에게 선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고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미쁘신 아버지이신고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10주일

4.027 제27문 : 하나님의 섭리란 말에서 당신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 하나님은 그의 항존하시는 권능으로써 과거에 그 자신의 손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아직도 하늘과 땅과 또한 모든 피조물을 유지

하시고, 또한 지배하셔서 나뭇잎과 풀, 비와 한발,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병, 부와 빈곤, 기타의 모든 것이 우연으로가 아니라, 그의 부성적 손길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게 하십니다. 섭리란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항존하시는 권능을 깨닫습니다.

제28문 :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정함으로써 오는 유리한 점이 무엇입니까? 4.028

답 : 우리가 역경에서 참아야 하고, 축복 가운데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의 뜻이 없이는 그들이 움직일 수조차 없으므로,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장래의 일에 관해서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제 11 주일

제29문 :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4.029

답 :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을 구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30문 : 자기들의 구원과 행복을 성인들에게서, 혹은 자기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찾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입니까? 4.030

답 :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속해 있다고 자랑할지라도, 사실 그들은 그러한 행동들로써 유일한 구주요, 구속자이신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이 구주를 참된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든지, 그 어느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제 12 주일

제31문 :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031

답 :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세워지셨고,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인 바, 우리의 우두머리 예언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하신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몸의 일회적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셔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역할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의 말씀과 영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으로써 우리를 변호하시고 지탱하시려는 것입니다.

4.032 제32문 :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 믿음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부음에 참여하며, 따라서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에 대한 살아 있는 감사의 제물로 나 자신을 바치며, 이생의 끝까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악과 싸우며, 장차는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13 주일

4.033 제33문 :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하나님의 은총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4.034 제34문 : 당신이 그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 그가 금으로나 은으로써가 아니라 그의 피값으로써 우리의 육과 영을 죄와 악의 모든 지배에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바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 14 주일

4.035 제35문 : 그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계속 그러하신 분이신데, 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우리의 참인성을 스스로 취하셨고, 그 결과 역시 다윗의 참씨가 되

시고, 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동료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6문 : 당신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어떠한 혜택을 얻습니까? 4.036

답 :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것과 내가 잉태될 때부터 입었던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그의 순결과 완전한 거룩으로써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 15 주일

제37문 : 당신은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4.037

답 : 그의 지상 생활 전체와 특히 그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그는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으로 감당하셨고, 그 결과 단 한번의 속죄적 희생으로서의 그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의와 영생을 획득하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제38문 : 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038

답 : 그는 무죄하시지만 세상의 심판자에게 정죄를 받으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가장 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39문 : 그가 다른 어떤 죽음을 당하시는 것보다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것이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4.039

답 : 그렇습니다. 이 죽음에 의해서 그는 나에게 부어진 저주를 자신이 취하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제 16 주일

제40문 : 그리스도가 '죽음' 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040

답 : 하나님의 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041 제41문 : 그가 '장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그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042 제42문 :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우리가 또 죽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다만 죄에 대하여 죽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043 제43문 :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에서 우리가 그 이상 얻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답 : 그의 권능으로써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그와 함께 매장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죽을 육체의 악한 정욕이 더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4.044 제44문 : '지옥에 내려가시사' 라는 말을 첨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 나의 가장 심한 고난 중에서도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와 그 이전에 당하신 형언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통해서, 나를 지옥적인 번민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 17 주일

4.045 제45문 :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에서 얻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답 : 첫째로, 그의 부활로써 죽음을 극복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의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요 둘째로, 우리도 그의 권능에 의해서 새로운 삶에로 일으킴을 받았으며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축복된 부활에 대한 틀림없는 보증이 됩니다.

제 18 주일

4.046 제46문 : '하늘에 오르사' 라는 말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의 눈앞에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리우셔서, 그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머무신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제47문 :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4.047

답 : 그리스도는 참사람이요, 참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가 이미 지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존귀와 은총과 성령 안에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48문 : 만약 신성이 있는 곳에는 인성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성은 이와 같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4.048

답 :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사람이 감지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든지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취한 인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사실이며, 동시에 언제든지 그 인성 속에 임재하시며, 그 인성에게 몸소 결합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49문 :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우리가 얻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4.049

답 : 첫째로, 그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머리 되시는 그가 그의 지체인 우리도 역시 그에게로 끌어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하늘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가 우리에게 그의 영을 하나의 역보증(counterpledge)으로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써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즉 위에 있는 세상의 것을 구하고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제 19 주일

제50문 :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을 첨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050

답 :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를 통하여 성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제51문 :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영광에서 어떤 혜택을 얻습니까? 4.051

답 : 첫째로, 그가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들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그의 권능으로써 우리의

모든 원수에게 맞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052 제52문 :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답 :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나에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셨으니 나는 모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머리를 높이 들고 하늘에서 오시는 참심판자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원수와 나의 원수를 영원한 처벌에 던져넣으실 것이며, 그가 택하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를 그 자신에게로 데려다가 하늘의 기쁨과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 령

제 20 주일

4.053 제53문 :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답 : 첫째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주어져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혜택에 참여하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과 그가 나를 위로하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21 주일

4.054 제54문 : 당신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답 :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인간의 모든 종족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영과 말씀에 의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회중을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참된 믿음의 일치 가운데 두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지금 그 교회의 산 회원이며 또 영원히 그러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4.055 제55문 : 당신은 '성도의 교제'라는 말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답 : 첫째로, 신자들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배와 선물의 동참자로서 한 교제를 함께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가 주시는 선물들을 다른 회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값없이 기쁨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56문 : 당신은 '죄의 용서'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4.056

답 : 그리스도의 화해사업의 연고로 하나님은 내가 평생 붙들고 씨름해야만 했던 나의 죄와 죄악성을 이 이상 더 기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고맙게도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나누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절대로 유죄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22주일

제57문 : '몸의 부활'이 당신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4.057

답 : 이 생명이 끝난 후에 나의 영혼은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들려올라간다는 것과 나의 이 육체는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아 영혼과 다시 합해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신 몸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58문 : '영생'에 관한 조항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4.058

답 : 현재 나는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생명이 끝나면 나는 완전한 축복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의식할 수 없는 것인 바, 나는 그것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23주일

제59문 :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4.059

답 :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과 또한 영생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제60문 :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습니까? 4.060

답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거슬러 무서운 죄를 범하였고, 내가 그 계명의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한다는 사실과, 현재도 그냥 악한 모든 것에 기울어질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자신의 공로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불문하시고, 순전한 은총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혜택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내가 단 한가지의 죄도 범하지 않거나, 죄적인 성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

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수행하신 모든 복종을 나 자신이 성취한 것처럼, 나에게 그의 의와 거룩함을 전가해 주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내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총애를 수락하는 일입니다.

4.061 제61문 : 어째서 당신은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 나의 믿음의 값어치의 덕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족한 배상과 의와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 이외에는 아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24주일

4.062 제62문 :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거나 적어도 그것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의는 절대로 완전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생에서 우리가 행한 최선의 일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에 의해서 더럽게 되어 있습니다.

4.063 제63문 : 이생에 있어서나 내생에 있어서 어떤 선행에 대하여 보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때에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습니까?
답 : 그 보상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4.064 제64문 : 그러나 이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무관심과 범죄를 조장하지 않겠습니까?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례전

제25주일

4.065 제65문 : 만약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혜택에 동참케 한다

면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답 : 거룩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창조하시고, 성례전을 사용하여 그것을 확고하게 합니다.

제66문 : 성례전이란 무엇입니까? 4.066

답 : 성례전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견적인 거룩한 신호요, 확증의 표인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분히 나타내시고 확증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한번의 희생의 연고로, 하나님은 고맙게도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생을 주신다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제67문 : 말씀과 성례전 이 둘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단 한번의 희생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믿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까? 4.067

답 :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리스도의 한번의 희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은 복음에서 가르치시고 성례전을 통하여 확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68문 : 그리스도는 신약성경에서 몇 가지 성례전을 제정하셨습니까? 4.068

답 : 두 가지입니다. 즉, 거룩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거룩한 세례

제26주일

제69문 :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한번 당하신 희생이 당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거룩한 세례가 어떻게 당신에게 생각나게 하며 확신을 줍니까? 4.069

답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스도가 물로써 외부적인 것을 씻는 이 제도를 제정하시고, 물이 나의 몸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 버리는데 사용되어 내가 외적으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의 피와 영으로써 내 영혼의 불결과 나의 모든 죄에서 분명히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그것으로써 약속하셨습니다.

제70문 :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070

답 :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연고로,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성화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성별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71 제71문 :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음을 받는 것과 같이 그의 피와 영으로 틀림없이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답 :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세례 제정의 구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물' 또는 '죄의 씻어 버림'이라고 부르고 있는 대목에서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제 27 주일

4.072 제72문 : 단순히 물로써 외적으로 씻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씻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4.073 제73문 : 그렇다면 어째서 성령이 세례를 '중생의 물' 또는 '죄의 씻어 버림'이라고 부릅니까?

답 : 큰 이유가 없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이 몸의 더러운 것을 없게 해주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신령한 보증과 표로써 우리의 몸이 물에 의해서 씻음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죄에서 참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를 원하십니다.

4.074 제74문 :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유아들도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계약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로부터 구속을 받는 일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부모에게 약속된 것과 못지 않게 그들에게도 약속되어 있으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로서의 세례에 의해서 교회에 합체되어야 하며, 불신자들의 자녀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것을 대치하기 위하여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성만찬

제 28 주일

제75문 : 십자가 위에서 한번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혜택에 당신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성만찬을 통하여 상기하고 확신합니까? 4.075

답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에게와 모든 신자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떡조각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의 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제공되어 찢어지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빵이 나를 위하여 찢어지고, 그의 잔을 내가 함께 마시는 것을 내가 직접 나의 눈으로 보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확실한 표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빵과 잔을 목사의 손에서 받아 실지로 먹는 것처럼 그는 그의 못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확실히 먹이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76문 : 그리스도의 못박히신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076

답 : 그것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괴로움과 죽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의 축복된 몸에 점점 더 연합되어, 그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 중의 뼈가 되어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언제든지 한 영에 의해서 살고 주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77문 : 신자들이 분명히 이 빵을 떼어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의 몸과 피로써 신자들을 먹이고 양육하실 것이라고 약속하 4.077

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 : 성만찬 제정의 말씀 안에 있는바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예수는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신 후에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같은 방법으로 또한 식사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를 통하여 맺어진 새 계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주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약속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잔'을 성별하여 마실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빵을 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단 하나의 빵 덩어리가 있기에 아무리 우리의 수가 많다 해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빵 덩어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다 그것을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제 29 주일

4.078 제78문 : 그 빵과 포도주가 실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됩니까?

답 : 아닙니다. 세례에 있어서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으며, 그것으로써 죄를 씻어 버리는 일이 되지 않고, 다만 사죄에 대한 신적인 표와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만찬에 있어서도 그 성별된 빵이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례전의 본질과 용법에 따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울 뿐입니다.

4.079 제79문 :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그 빵을 자기의 몸이라고 부르고, 그의 잔을 그의 피 또는 그의 피로 맺은 새 계약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방편'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 뚜렷한 이유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이 세상의 일시적 생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그의 못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는 영생을 얻기 위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을 그것으로써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보이는 표와 보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를 기

념하는 이 거룩한 상징을 확실하게 받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고난과 그의 죽음이 마치 우리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속에 만족을 이룩한 것과도 같이 확실히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30 주일

4.080 제80문 : 주님의 만찬과 천주교의 미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2]

답 : 주님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단 한번에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 한번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 자신의 참된 몸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 속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가 다시 신부들에 의해서 매일 그들을 위하여 바쳐지지 않는 한,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육적으로 빵과 포도주 모양으로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 안에서 예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희생과 고난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4.081 제81문 : 주님의 식탁에 나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과, 그들의 남은 약점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가리움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믿음을 점점 더 강화하고 삶을 개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회하지 않고 가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심판을 먹고 마십니다.

4.082 제82문 : 자기의 고백과 생을 통하여 스스로를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적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만찬에 허용할 수 있습니까?

답 : 아닙니다. 만약 허용한다면 하나님의 계약이 더럽힘을 받게 되고,

---

2. 이 물음은 제2판에서 부분적으로 처음 나타났다. (　)안에 있는 것은 제3판에 첨가된 것이다.

전체 회중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정해 주신 법도에 따라 그들이 자기들의 생을 고치기까지는, 기독교회의 그 열쇠의 직능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1주일

4.083 제83문 : 이 열쇠의 직능은 무엇입니까?

답 :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기독교적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 방편에 의해서 하늘의 왕국이 신자에게는 열려지고, 불신자에게는 닫혀집니다.

4.084 제84문 : 어떻게 해서 하늘 왕국이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써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까?

답 :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합니다.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들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사역의 연고로 하나님에 의해서 참으로 용서된다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에 하나님의 왕국은 열립니다. 그와는 반대로 불신자와 위선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모든 불신자와 위선자들 위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생에 있어서나 내세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 증언에 따르는 것입니다.

4.085 제85문 : 하늘 왕국이 어떻게 크리스천 권징에 의하여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까?

답 :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서도 교리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사람에게는 우정에서 나오는 충고를 주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과오와 악한 길을 버리지 않을 때에는 이 일을 교회에게나 혹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가 주어진 후에도 그들이 고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례전에 참석치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교회의 교제에서 제외되며,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을 하고 진심으로 고친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

체로 받아들여집니다.

제3부 감사할 일

제32주일

제86문 :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무 공로도 없이 다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으로 우리의 죄와 그 무서운 결과에서 구속함을 받았는데, 어째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까? 4.086

답 :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도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확실하게 되고, 우리의 경건한 생활에 의해서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87문 : 감사와 회개가 없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4.087

답 : 물론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 "불의한 자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고 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왕국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제33주일

제88문 : 사람의 진실된 참회 혹은 회개에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까? 4.088

답 : 두 부분이 있습니다. 옛 자아가 죽는 일과 새 자아의 출생입니다.

제89문 :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4.089

답 :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점점 더 미워하고 그것을 피하는 일입니다.

제90문 : 새 자아의 출생이란 무엇입니까? 4.090

답 :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기뻐하고, 모든 선한 일

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염원을 말합니다.

4.091 제91문 :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을 가리킵니다.

제34주일

4.092 제92문 :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답 :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 6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7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 8 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 9 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10 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제93문 :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4.093

답 :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네 계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섯 계명으로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제94문 : 제 1 계명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094

답 :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우상숭배, 마술, 요술, 성자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며, 겸손과 인내로 모든 선을 그에게서만 기대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모든 피조물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95문 :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4.095

답 : 그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자리에, 또는 그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신뢰할 어떤 대상을 생각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5주일

4.096 제96문 :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 하나님이 그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양식 이외의 어떤 다른 양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097 제97문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답 :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그릴 수는 없으며, 또 그려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사실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예배하기 위해서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목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그것들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4.098 제98문 : 교회에 있어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책 대신에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까?

답 :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생명없는 우상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말씀의 살아 있는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슬기로워지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36주일

4.099 제99문 :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 우리가 저주나 위증이나 필요없는 맹서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결국 무언 중에 동의를 함으로써 그러한 무서운 죄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존경심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정당하게 고백하고 정당하게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4.100 제100문 : 그러므로 저주나 맹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는 너무나도 중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노하신다는 것입니까?

답 :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보다 더 큰 죄는

없으며, 그 이상 더 그의 진노를 초래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죽음에 처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37 주일

제 101 문 : 경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101

답 :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웃의 안녕을 위하여 관리들이 백성에게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밖에도 충성과 진리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맹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맹서를 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제 102 문 : 성자나 다른 피조물을 두고 맹서해도 좋습니까? 4.102

답 : 안 됩니다. 합법적인 서약은 마음을 통찰하시는 유일하신 분, 즉 진실에 대하여 입증하시고 또 만약 내가 거짓으로 맹서한다면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중에는 아무것도 그러한 영예를 받아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제 38 주일

제 103 문 : 제 4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103

답 : 첫째로, 복음의 사역과 기독교교육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회에, 특히 주일에 열심히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전에 참석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찾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삶의 모든 날에 있어서 나쁜 행실을 끊고 주님으로 하여금 그의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활동케 하며, 이렇게 하여 이생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 39 주일

제 104 문 : 제 5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104

답 :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리고 나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존경과 사랑과 성실성를 보여 줄 것과, 그들의 모든 주의 깊은 가르침과 훈육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할 것과, 그들이

잘못할지라도 나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40주일

4.105 제105문 : 제6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 행동으로는 물론이고 생각으로나 말로나 몸짓으로나 나 자신이 하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나의 이웃을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되고, 모든 복수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위험에 내주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권자들이 살인 방지의 도구로서 무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106 제106문 : 이 계명은 살인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입니까?
답 : 하나님은 살인을 금함으로써 그가 살인의 뿌리인 시기와 미움과 진노, 그리고 복수심을 싫어하신다는 것과, 그는 이러한 모든 것을 숨은 살인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4.107 제107문 :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들로써 이웃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다는 것입니까?
답 :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기와 미움과 진노를 정죄하실 때,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평화와 온유와 자비와 우정을 나타내어 가능한 한 그에게 미칠 해를 방지하고,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41주일

4.108 제108문 : 제7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 모든 정숙치 못한 행동은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것과,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미워하며, 거룩한 결혼생활에 있어서나 독신생활에 있어서, 순결하게 살고 규모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109 제109문 : 하나님은 이 계명에 있어서 간음과 그와 같은 무거운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금지하지 않습니까?
답 : 우리의 몸과 영은 둘 다 성령의 전이므로 이 둘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정숙치 못한 행

동, 표정, 말, 생각, 염원,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부추겨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다 금하십니다.

제42주일

제110문 :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110

답 : 하나님은 민정 당국이 처벌하는 절도나 강도 행위만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든지 공정의 미명하에서든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이웃의 물건을 취하려고 애쓰며 사용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음모, 예컨대 저울을 속이는 일, 측량을 속이는 일, 거짓 광고, 혹은 속여서 파는 일, 위조 화폐, 터무니없는 이자, 기타 하나님이 금하신 수단 등을 하나님은 모두 도둑질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탐심과 남용과 그의 선물을 낭비하는 일을 금하십니다.

제111문 : 그러면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111

답 :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것이라면 어디서든지 나의 이웃에게 유익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줄 것을 기대하는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해주며, 또한 내가 나의 일을 잘 해서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43주일

제112문 :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112

답 : 누구에 대해서든지 거짓 증거를 하거나, 객담으로든지 중상으로든지 남의 말을 왜곡하거나, 들어 보지도 않고 남의 말을 가볍게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거짓말이나 속이는 일은 마귀 자신의 행위로 알아 그것들을 피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하심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일이나 그외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참으로 나는 나의 이웃의 명예를 옹호하고 증진시켜 주어야 합니다.

제44주일

제113문 :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113

답 :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가장 적은 의향이나 생각이라도 우

리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과, 죄는 언제든지 마음을 다해서 미워하고, 모든 의에 있어서 만족과 기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114 제114문 :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중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이생에 있어서는 복종의 적은 시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르려는 진지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4.115 제115문 : 아무도 이생에 있어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렇게도 엄격하게 선포하도록 하십니까?

답 : 첫째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성을 점점 더 느끼게 되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더 열심히 추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충실한 완전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 도

제45주일

4.116 제116문 :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은 끊임없는 기도로써 진지하게 그를 찾는 사람과 그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이러한 은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117 제117문 :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답 : 자신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우리더러 구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진지하게 호소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악한 상태를 철저히 인정함으로써 그의 위엄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우리 주 덕택으로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제118문 :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4.118
답 : 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포함시키신 것으로서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제119문 : 주님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4.119
답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제46주일

제120문 :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120
답 : 우리의 기도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경과 확신을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존경과 확신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그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세상의 것을 우리가 구할 때 거절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더욱 더 거절하시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121문 :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첨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121
답 : 하나님의 신성한 위엄에 대하여 지상적인 개념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권능으로부터 기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7주일

제122문 :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4.122

답 :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입니다. 즉, 먼저 당신을 옳게 알도록 해주시고, 당신의 전능과 지혜와 선과 의와 자비와 진리를 나타내는 당신의 모든 사역을 보며, 당신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찬미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힘을 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고, 오히려 언제든지 존대와 칭송을 받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생활 전체를 정리하여 주십시사 하는 것입니다.

제 48 주일

4.123 제 123 문 :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입니다. 즉, 당신의 말씀과 영으로써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자신을 당신에게 바치도록 하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유지하고 흥하게 하옵소서. 악마의 일이나, 당신에게 대항하는 모든 권세나,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거슬러 고안된 모든 사악한 계획을, 당신의 왕국이 완전히 임하여 당신이 모든 것 중의 모든 것이 되시는 때까지 파괴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 49 주일

4.124 제 124 문 :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즉, 우리와 또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당신의 뜻만이 선하시기에 불평없이 그것에 복종하게 하시고, 따라서 각자가 마치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기꺼이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와 소명을 수행하도록 해주십시사 하는 것입니다.

제 50 주일

4.125 제 125 문 :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즉, 당신이 기꺼이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는 것과, 당신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걱정이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당신의 은사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가졌던 우리의 의존을 버리고, 당신에게만 의지하

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제51주일

제126문 :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4.126

답 :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즉, 제발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많은 잘못과 아직도 우리에게 붙어 있는 악에 대한 값을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도 이러한 당신의 은총의 증거, 즉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진실된 의도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52주일

제127문 :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4.127

답 :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즉,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서 있을 수가 없으며, 또한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와 악마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죄가 간단없이 우리를 공격하오니, 제발 당신의 성령의 힘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대항하여 굳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최후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 영적 투쟁에 있어서 패배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제128문 : 이 기도를 어떻게 매듭짓습니까? 4.128

답 :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입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구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서 만물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므로,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129문 : '아멘'이라는 짧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4.129

답 : '아멘'이란 것은 이것이 참되고 확실히 되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그로부터 받고 싶다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5

제2스위스 신앙고백

(본 문)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본래는 헬베틱(Helvetic)신앙고백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스위스를 라틴어로 헬벧(Helvet)라 하기 때문이다. 제 2 스위스 신앙고백은 스위스―독일 개혁적 개신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531년 전투에서 대 개혁자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가 죽은 후,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가 츠빙글리의 후임으로 츄리히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불링거는 개혁교 목사의 표본이었다. 그는 설교자로서 한 주간에 적어도 두 번 성경강해를 하였다. 그는 학자로서 구약성경의 많은 책에 대한 라틴어주석을 썼고, 신약성경에서는 계시록을 제외한 기타 모든 책의 주석을 썼다. 그는 교육가로서 츄리히를 위하여 학교제도를 창시했으며, 카롤리움(Carolium)이라는 신학교의 학장이었다. 그는 에큐메니칼한 관심과 정치적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교개혁 지도자들과 또는 전 구라파의 통치자들과 교통하고 있었다. 그는 목사로서, 자기 집을 찾아드는 종교적 피난민들을 환영하였다. 1564년에 전염병이 츄리히를 휩쓸었을 때, 그는 감염되어 죽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꾸준히 병자들을 돌보아 주었다.

1561년 불링거는 후에 제 2 스위스 신앙고백으로 알려진 문서를 작성했다. 그는 그것을 츄리히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고백에 첨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그것은 곧 공적무대에 나타나게 되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발표는 그것을 준비하도록 지령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루터파 사람들은 그것이 정신에 있어서 너무 개혁적이라고 생각했고, 팔라네이트 도지사인 선제후(選帝侯) 프레데릭을 이단재판에 붙일 것을 요구했다. 신학자가 아닌 프레데릭은 불링거에게로 돌아섰고, 불링거는 이 신앙고백을 프레데릭에게 제공하여 변호의 기반을 삼게했다. 독일의 통치기구인 국회가 1566년에 재판을 위해 소집되었을 때, 프레데릭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 동안에 스위스 교회들은 불링거의 신앙고백을 그들의 새 신앙고백으로 채택했다. 그것이 곧 전 구라파와 또 바깥에서까지 널리 수락되고 있음을 알고, 불어, 영어, 화란어, 폴란드어, 항가리어, 이태리어, 아라비아어, 터키어로 번역하였다.

제 2스위스 신앙고백은 개혁교회들의 신학적 성숙성을 반영하고 있는바, 그 논조가 온건하고 정신에 있어서 보편적이다. 초두의 문단에서부터 이 신앙고백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와 그것의 생활이다. 그리고 교회의 통치와 개혁을 위하여 성경의 권위를 천명한다. 예정에 관한 조항을 넣음으로써 이 신앙고백은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회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선택을 믿도록 요구한다. 동시에 이 신앙고백은 모인 공동체의 실제적 생활, 예배의 세목(細目), 교회의 질서와 알력, 목회, 성례전, 결혼에 관해서 언급한다.

5

제2스위스 신앙고백[1]

제1장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성경에 관하여

정 경.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한 예언과 사도들의 경전적 글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며, 사람에게서 받은 권위가 아니라 그것들 자체가 지닌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또한 고백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족장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아직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5.001

그리고 이 성경 안에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용납될 수 있는 삶의 구조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완전한 설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책에 첨가하거나, 거기서 삭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다. 5.002

성경은 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참된 지혜와 경건과 교회의 개혁과 정치기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또한 신앙생활의 모든 의무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서 나온다고 판단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교리에 대한 확증과, 모든 오류에 대한 거부, 5.003

1. 아서 코크레인(Arthur C. Cochrane)이 쓴 「16세기 개혁주의 신앙고백」이라는 책에서 재수록한 것임. 판권소유 : W. L. 젠킨스. 웨스트민스터 출판사, 1966. (허락을 받아 여기에 수록한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에…… 유익하다."(딤후 3 : 16-17)라는 사도의 말씀에 떠오르는 모든 권고가 이 책에서 온다고 판단한다. 다시 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딤전 3 : 14-5)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다시 같은 사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살전 2 : 13)라고 했다.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내 아버지의 영이시니라."(마 10 : 20), 그러므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마 10 : 20, 눅 10 : 16, 요 13 : 20)고 하셨기 때문이다.

5.004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에 의하여 교회 안에서 지금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어 신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이 말씀 이외에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발명되거나,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설교된 말씀 자체를 존중할 것이고, 설교한 목사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는다. 왜냐하면 가령 그 설교자가 악한 사람이요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참되고 선하기 때문이다.

5.005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설교를 헛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참된 종교에 있어서의 가르침은 성령의 내적 조명에 매여 있기 때문이며, 기록된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웨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다 나를 앎이니라."(렘 31 : 34)고 했으며, 또한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 : 7)고 했기 때문이다. 비록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요 6 : 44)고 하셨으며, 성령이 내적으로 그를 비추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의 말씀이 외적으로도 설교되어야 한다는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에 의해서나 천사의 역사에 의해서, 즉 성베드로의 역사가 없이도 사도행전의 고넬료를 가르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

로를 언급하셨으며 베드로에 대해서 천사는 "네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가 가르쳐 주리라."고 말한 것이다.

내적 조명이 외적 설교를 배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어 그를 내적으로 조명하시는 바로 그분이 명령의 형식을 통하여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주장사인 루디아에게 외적으로 말씀을 설교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내적으로 열어 주셨다(행 16:14). 그리고 바로 그 바울이 그의 생각을 아름답게 발전시킨 후에, 로마서 10:17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5.006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을 통하지 않고도 그가 원하시는 사람에게, 또 원하시는 때에 조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은 그의 권능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계명과 예화들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통상적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다. 5.007

이단들. 그러므로 우리는 알테몬(Artemon)과 마니교도와 발렌티누스파와 케르돈(Cerdon)과 마르키온파의 이단자들을 미워한다. 그들은 성경이 성령에게서 나온 것을 부인하거나, 성경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첨가도 하고 고치기도 했다. 5.008

외 경. 구약성경의 어떤 책을 고대의 학자들이 외경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다른 어떤 학자들은 교회서(Ecclesiastical)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교황에게 읽히기까지 했으나, 그것에다 믿음의 기초를 둘 수 있을 정도의 권위가 있는 것으로 높이지는 않았다. 어거스틴도 그의 「신국론」(*De Civitate Dei*) 18권 38장에서 논평하기를 "열왕기에는 어떤 예언자들의 이름과 책들이 인용되었다."고 했으며, 다시 첨가해서 말하기를 "그 책들이 정경에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신앙생활에 충분하다."고 했다. 5.009

제2장 성경 해석과 교부와 회의와 전통에 관하여

참된 성경 해석.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경은 사사로이 풀이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벧후 1:20).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해석을 다 허용하 5.010

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의 생각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 해석, 즉 로마 교회의 옹호자들이 분명하게 지지하는 바, 모든 사람들에게 수락을 강요해야 한다고 하는 그 해석을 우리는 참된 해석이라든가 순수한 해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 자체에서 집약된(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의 본질에서, 또한 그것이 구성된 정황에 따라서, 그리고 비슷한 구절과 전연 다른 구절과, 더 분명한 여러 구절에 비추어서 얻는) 성경 해석을 정통적이고 순수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법칙에 합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많은 공헌을 하는 해석을 정통적이고 순수하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5.011 거룩한 교부들의 해석.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헬라 교부들이나 라틴 교부들의 해석을 멸시하지 않으며, 성스러운 일에 관한 그들의 논쟁이나 논설들도 성경과 조화가 되는 한, 우리는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정경과 다르거나, 전적으로 반대되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드러날 때에는, 우리가 겸손히 그것에 반대를 표명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같이 그들의 글을 경전적 글들과 동등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글이 어느 정도로 경전과 일치되는지, 또는 일치하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할 것이고, 일치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일치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5.012 회 의. 우리는 또한 같은 서열에다가 여러 회의의 지령과 교회법을 둔다.

5.013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나 믿음에 관한 일로 논쟁을 할 때, 우리의 주장을 교부들의 의견이나 회의의 명령에만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지 않는다. 물려받은 관습이나,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의 수가 많다거나, 또는 오랫동안 사용된 법규라고 해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더욱더 안 될 일이다. 누가 재판관인가? 우리는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재판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성경을 통하여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그릇되며,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며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끌어낸 판단에 동의한다. 예레미야와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려고 세워진 제사장의 모임을 격렬하게 정죄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자기들이 창안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탈한 교부들에게 귀를 기울이거나,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부지런히 권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5.014 인간의 전통. 인간의 전통들은 사도들의 산 음성에 의해서 교회에게 주어졌고, 또 이를테면 사도적 사람들의 손을 거쳐 뒤따르는 감독들에게 전하여졌다고 하지만, 성경과 비교해 볼 때 합치하지 않으며, 또 그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것들이 전혀 사도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그것들이 마치 신성하고 사도적인 것인 양 과장된 명칭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 전통들을 거부한다. 그것은 사도들이 교리에 있어서 스스로 모순을 저지르지 않았듯이 사도적인 사람들도 그 사도들과 반대되는 것은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그 사도들이 산 음성을 가지고 그들의 기록들과 반대되는 무엇을 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악한 일일 것이다. 바울이 명백히 확언하기를, 자기는 모든 교회에게 꼭 같은 것들을 가르쳤노라고 했다(고전 4 : 17). 그는 다시 말하기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고후 1 : 13)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에서 그가 문안하기를 자기와 자기 제자들, 즉 사도적 사람들은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함께 했다(고후 12 : 18)고 했다. 그뿐 아니라 옛날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들을 가졌었지만, 이 전통들은 주님에 의해서 엄하게 거부당하였다. 즉,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방해한다는 것과, 그러한 전통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헛 것이 된다(마 15 : 1 이하, 막 7 : 1 이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3장 하나님과 그의 통일성과 삼위일체성에 관하여

5.015 하나님은 한분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또는 본성적으로 한분이시며, 스스로 생존하시며, 스스로 완전히 충족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의 창조자이시며, 최선이시며, 살아 계시며, 만물을 살리시고 보전하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슬기로우시며,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정의롭고, 참되시다고 우리는 믿고 가르친다. 진실로 우리는 많은 신들을 매우 싫어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백하게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야웨니라"(신 6 : 4). "나는 야웨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모시지 말라"(출 20 : 2-3). "나는 야웨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야웨가 아니냐? 나 밖에 다른 신이 없지

않느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구주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 45 : 5, 21). "야웨라 야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라" (출 34 : 6).

5.016 하나님은 셋으로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고 가르친다 : 즉, 무한 유일의 나누일 수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위(person)에 있어서 서로 분리할 수도 없고 혼동함도 없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된다. 성부가 영원부터 성자를 낳으셨으니, 성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발생에 의하여 낳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성령은 참으로 그 두 분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의 일이며, 그는 성부 성자와 더불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5.017 이와 같이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실체를 같이하고, 영원성을 같이하고, 동등성을 같이하는 세 위가 있는 것이다.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서열에 있어서 구별이 있으며, 한 위가 다른 위를 앞서지만 동등성을 잃은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그들은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한 하나님이며, 신적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이다.

5.018 성경은 삼위의 명백한 구분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많은 말씀 중에도 천사가 그 축복받은 동정녀에게 한 말이 있지 않는가 :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눅 1 : 35).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 3 : 17)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성령은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요 1 : 12). 그리고 주님이 친히 사도들에게 세례 베풀 것을 명령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 28 : 19) 세례를 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리라." (요 14 : 26) 고 말씀하셨고, 또다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요 15 : 26) 고 말씀하셨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받는데, 그것은 사도신경이 참믿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기 때문이다.

5.019 각종 이단.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스럽고 찬양할 만한 삼위일체신을 모독하는 유대인들과 모하메드 교도들과 기타 모든 사람들을 정죄한다. 또한 성자와 성령은 이름에 있어서만 하나님이라 하고, 또는 삼위일체신 안

에는 어떤 분이 창조되고 보조적 위치에 있거나, 다른 위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하며, 또는 삼위일체신 속에는 어떤 분은 크고 어떤 분은 작고 이렇게 불동등성이 있으며, 물질적인 것 혹은 물질적으로 잉태된 것이 있으며, 성격이나 뜻에 있어서 다르고 마치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과 소유들인 것처럼 보아 혼합되거나, 혹은 단독적인 어떤 것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즉, 군주신론자, 노바티스주의자, 푸락세아, 성부수난설자, 사벨리우스, 사모사다의 바울, 아에투스, 마케도니우스, 신인동형론자, 아리우스 등이 이런 생각을 하는 바 우리는 그 모든 이단들과 이단자들을 정죄한다.

제 4 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우상이나 초상에 관하여

하나님의 화상. 하나님은 영이셔서 본질상 사람이 볼 수 없고, 무한하신 분이시므로 어떤 미술 또는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없이 하나님의 형상들은 순전한 거짓이라고 선언한다. 성경도 그렇게 선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의 우상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형상들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초상, 그리스도가 이성을 취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각가나 화가들에게 모델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율법과 예언자를 폐하려고"(마 5 : 17)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셨다. 그래도 율법과 예언자들은 형상 만드는 일을 금지하였다(신 5 : 15, 사 44 : 9). 그는 몸으로 세상에 계시는 것이 교회를 위해 유익하리라는 것을 부정하셨고, 그의 영으로써 영원토록 우리와 가까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요 16 : 7). 그러므로 그의 몸의 그림자나 초상이 성도들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고후 5 : 5) 그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고전 3 : 16).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 6 : 16). 성자들의 초상, 하늘에 있는 복된 영들과 성인들은 그들이 여기 땅 위에서 살 때 자기들을 예배하는 것을 일체 거부했고(행 3 : 12-13, 4 : 11 이하, 계 14 : 7, 22 : 9) 초상들을 정죄했으니, 하늘의 성인들과 천사들이 그들의 초상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밖의 존경을 표시할 때 그 초상을 기뻐할 것이라고 볼 사람이 있겠는가?

5.021 오히려 주님은 종교에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적 사물과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방편으로 해서 평신도를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설교하도록 명령하셨다(막 16 : 15). 그뿐 아니라 그는 성례전을 제정하셨을 뿐 어디서도 초상을 세워 주시지는 않으셨다. 평신도의 성경, 또한 우리가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하나님의 살아 있는 참피조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들을 잘 관찰하게 되면(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이 만든 모든 초상이나 헛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고 죽은 그림보다는 훨씬 생생한 인상을 관찰자들에게 준다. 그런 초상에 대해서 예언자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시 115 : 5)고 한 것은 맞는 말이다.

5.022 락탄티우스. 그러므로 고대 문필가의 하나인 락탄티우스가 "초상이 있는 곳에는 결코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우리는 그 판단을 인정한다. 에피파니우스와 제롬. 또한 축복된 감독 에피파니우스가 어떤 교회당 문에 그리스도나 또는 어떤 성자라고 가상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한 수건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찢어서 치워 버렸는데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매달린 사람의 그림을 보는 것은 성경의 권위에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후부터 우리의 종교에 어긋나는 그러한 수건들을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에다 매달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앙있는 백성에게 있어서 무가치한 그러한 문제의 사물들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그뿐 아니라 참종교에 관한 성어거스틴의 견해를 우리는 인정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 "사람들의 작품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를 위한 종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만드는 예술가들 자신이 오히려 더 훌륭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De Vera Religione*, 「참된 종교」 제 55장).

제5장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숭배, 예배, 기원에 관하여

5.023 하나님 홀로 숭배와 예배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홀로 숭배와 예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 : 10)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이

영예를 다른 존재에게는 결코 드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일하신 참하나님께만 숭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낯선 신들에게 드릴 때마다, 모든 예언자들은 그들을 참으로 엄준하게 책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신령과 진리로"(요 4 : 23-24)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즉, 미신적으로 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사 1 : 12, 렘 6 : 20) 하고 따지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울도 역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행 7 : 25) 등의 말을 한 것이다.

5.024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기원을 드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의 모든 위기와 시련에 있어서 하나님 한분에게만 호소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이시며 조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서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 : 15)라는 말씀으로 명백히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가장 너그러운 약속을 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가 너희에게 주시리라."(요 16 : 23),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 : 28). 그리고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롬 10 : 14)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니 우리는 확실히 그만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 2 : 5)고 했으며, 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 : 1) 등등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5.025 성자는 숭배나 예배나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자나 다른 신들을 숭배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들에게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우리의 조정자나 중재자로 인정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중재자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분과 그의 아들에게만 마땅히 드릴 영예를 다른 존재들에게 드리지 않는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2 : 8)고 명백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또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 : 15), 즉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동의한 자들은 그리스도밖에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5.026 성자들에게 드려야 할 응분의 영예. 동시에 우리는 성자들을 멸시하거나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산 지체들이며 하나님의 친구들로서, 육체와 세상을 영광스럽게 이겨낸 자들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여겨 사랑하며 존경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이건 예배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존경스러운 생각을 하고 단지 그들을 칭송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모방한다. 우리는 열렬한 동경심과 애원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과 덕의 모방자가 되기를 진실로 바라며, 그들과 함께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며, 하나님 어전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즐기기를 진실로 바란다. 이 점에 있어서 「참된 종교」(*De Vera Religione*)에 나온 성어거스틴의 의견을 우리는 승인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의 종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교가 되지 않도록 하라. 만일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이 그런 존대를 추구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공로들을 누리는 동료 종들이라는 것을 즐겁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을 원한다. 그러므로 모방을 받는 방식에 의해서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어떤 종교적 양식으로 숭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5.027 성자의 유물. 우리는 성자들의 유물이 숭배를 받고 존중되야 한다고는 더욱더 믿지 않는다. 옛 성자들은 그들의 영이 높이 오른 후, 그들의 유해가 정중히 땅에 묻힐 때 그들의 죽음이 충분히 존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 조상들의 가장 고상한 유물들도 그들의 덕과 교리와 믿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들을 칭송할 때 이 '유물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만큼 땅 위에 살아 있을 동안 그들을 본따려고 애쓴다.

5.028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서함. 이 옛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정해 준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야웨의 이름으로밖에는 맹서하지 않았다. 이

렇게 낯선 신들의 이름으로 맹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으로(출 23 : 13, 신 10 : 20) 우리에게 요구되는 맹서를 하되 성자들을 향해서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성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돌리는 교리를 거부한다.

제6장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지혜롭고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전되고 통치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다윗이 증언하며 말한다 : "야웨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야웨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느니라." (시 113 : 4 이하), 그리고 "당신은 나의 길과 ……을 감찰하시며…… 야웨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 139 : 3-4). 바울도 증언하며 선포한다 :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행 17 : 28),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롬 11 : 36).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싸움」(*De Agone Christi*) 제 8장에서 아주 진실되게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10 : 29)고 하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없이 보는 사물도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원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들도 그가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그가 입히신다고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신다(마 6 : 26 이하)고 하셨기 때문이다. 5.029

에피큐리안들. 그러므로 우리는 에피큐리안들을 정죄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일에 바쁘셔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사건들을 보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으신다고 모독적인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정죄한다. 고귀한 다윗도 이것을 정죄하며 이렇게 말했다 : "야웨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지껄이며 말하기를 야웨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 5.030

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 94 : 3, 7-9)

5.031 방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이룩하시려고 사용하시는 방편들을 무용하다고 물리치지 않으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천거되어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그것들에게 적응시켜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만일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처리된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공연한 것이다. 우리가 매사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리하에 맡기면 충분할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경솔한 진술을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바울은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행 23 : 11)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위에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머리터럭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행 27 : 22, 34)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항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선원들이 배를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바울이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행 27 : 31)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사에 그 목적을 지정해 주신 분으로서, 그것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시작과 그 수단을 설정해 놓으셨다. 이방인은 사물들을 맹목적 요행과 불확실한 우연에 돌린다. 그러나 성야고보는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리라." (약 4 : 13)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라." (약 4 : 15)는 말씀을 덧붙여 주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사람들 보기에 우연적으로 자연 속에서 공연히 일어나는 매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Enarrationes in Psalmos* 148)라고 했다. 이와 같이 사울이 그의 아버지의 나귀들을 찾아다니다가 예언자 사무엘을 뜻밖에 만났을 때, 그 일이 순전히 우연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이미 그 예언자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벤야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라." (삼상 9 : 16)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제 7 장 만물의 창조, 즉 천사, 마귀, 인간 창조에 관하여

5.032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이 영원하신 그의 말씀에 의하여 만물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같이 영원하신 그의 영에 의하여 그것들을 보전하신다. 그것은 다윗이 "야웨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지음을 받았다."(시 33 : 6)고 말하며 증언한 대로이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하나가 매우 좋고 사람의 이득과 사용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하나의 시작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마니교도들과 마르키온주의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마니교도들과 마르키온주의자들을 정죄한다. 그들은 두 가지 실체와 본질이 있다고 하는 불경건한 생각을 한다. 하나는 선한 것 하나는 악한 것이라고 하며, 시작도 두 가지가 있고 신(god)도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즉 하나는 선한 신, 또 하나는 악한 신이 있다고 주장한다.

5.033 **천사와 마귀에 관하여.** 모든 피조물 중에서 천사와 사람이 가장 탁월하다. 천사에 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언명한다 : "하나님은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시 104 : 4). 성경은 또 말한다 :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히 1 : 14) 마귀에 관해서는 주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 8 : 44)고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천사는 꾸준히 복종하였으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으로 선정되었고, 반대로 다른 천사들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타락하였으므로 파멸에로 던져져서, 모든 선한 존재와 성실한 존재 등의 원수가 되었다고 우리는 가르친다.

5.034 **사람에 관하여.** 이제 사람에 관해서는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2]을 따라 선하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그를 낙원에다 두셨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창 2)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명백하게 말한 내용이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에게 아내를 주셨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우리가 또한 확언하는 것은 사람은 한 인격이 두 개의 다른 실체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그 불멸의 영혼으로서 몸에서 분리되었을 때 자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할 몸인데 그것은 그러나 최후 심판 때에 죽은 자들로부

2. *Ad imaginem et simulitudinem Dei*

터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전인(the whole man)으로서 생명 속에서 영원히 남든지 아니면 죽음 속에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5.035 분 파(sects).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을 비웃든가 교묘한 논쟁으로 그것을 의심하게 한다. 혹은 영혼이 잠을 잔다든가 그것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정죄한다. 간단히 말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창조와 천사와 마귀와 사람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사도적 교회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 준 바에서 이탈된 의견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의견도 다 정죄한다.

제8장 인간의 타락, 죄, 죄의 원인에 관하여

5.036 인간의 타락.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게, 선하고 올바르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은 뱀의 선동과 자신의 잘못에 의하여 선과 의를 버렸고, 그때에 그는 죄와 죽음과 각종 재난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그 타락으로 인해서 당한 일, 즉 죄와 죽음과 각종 재난을 겪게 되는 일은 그의 후손된 모든 사람이 다같이 당하는 일이다.

5.037 죄. 죄라는 것은 우리의 시조로부터 우리 모두 속에 파생되거나 전파된 선천적 부패라고 우리는 이해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 가지 사악한 욕심에 빠져들고 모든 선을 대항하면서, 온갖 악을 저지르는 경향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악, 불신,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미움이 가득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심지어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게다가 우리가 점점 늙어 가는 것처럼 사악한 생각과 말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범한 죄로 말미암아 악한 나무에서 마땅히 맺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마 12 : 33 이하). 이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그리스도 곧 그 구출자가 우리를 복구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을 것이다.

5.038 죽 음. 죽음이란 것은 우리들 모두가 죄 때문에 한번 겪어야만 하는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우리가 죄와 부패 때문에 받아야 하는 영벌이라고 우리는 이해한다.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엡 2 : 1 이

하)고 하셨으며,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 : 12)고도 하였다.

5.039 원 죄. 그러므로 모든 사람 속에 원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자범죄(Actual Sins), 원죄로부터 일어나는 기타의 모든 죄는 그것을 어떤 명칭으로 부르든지 간에 죄라 부르고, 또 참으로 우리는 죄라고 인정한다. 죽을 죄라고 하든지 사면할 만한 죄라 하든지, 또는 성령을 거슬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막 3 : 29, 요일 5 : 16)라고 하든지 그것들이 다 죄이다. 또한 우리는 죄가 다 동등하지는 않다고 고백한다. 비록 그것들이 부패와 불신앙이라고 하는 같은 바탕에서 생기는 것일지라도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는 도시가 당할 벌보다는 소돔이 받을 벌이 가벼울 것이다(마 10 : 14-15, 11 : 20 이하).

5.040 분파들. 그러므로 이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정죄한다. 특히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과 스토아주의자들과 함께 모든 죄를 동등하다고 보는 요비누스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성어거스틴은 성경에서 그의 견해를 끌어냈고 또 방어했는데,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관해서 그와 뜻을 같이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훌로리누스와 블라스투스를 정죄한다. 이레네우스도 그를 공격하는 글을 썼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여기는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5.041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다. 그가 어느 정도까지 완악하게 만드신다고 되어 있는가? 명백하게 기록된 바에 의하면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이가 아니시니 그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시 5 : 4 이하)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마귀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 8 : 44)고도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는 충분한 죄악성과 부패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혹은 좀더 크게 사특한 마음을 우리 속에 주입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완고케 하시고, 어둡게 하시고, 타락한 마음에로 팽개쳐 버리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정의로운 심판자와 복수자로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끝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악을 행하신다고 하거나 그런 것같이 보일 때마다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정당한 판단에 의하여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방지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그것을 방지하실 수 있으며, 또는 사람의 악을 선으로 돌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범죄의 경우에 그리하시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은 죄가 적정선 이상으로 터져 나오거나 창궐하지 못하도록 죄를 어거하시기 때문이다. 성어거스틴은 그의 「신앙편람」(*Enchridion*)에 다음과 같이 썼다: "그(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은 그의 뜻을 떠나서 생기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기이하고 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본의 아니게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선하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선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악이 행해지도록 허용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글을 썼다.

5.042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들.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의도하셨는가? 또는 아담을 선동하여 타락하도록 하셨는가? 또는 어찌하여 그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는가 등등의 유사한 다른 질문들을 우리는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으로 간주한다. (아마도 이단자들과 기타 야비한 사람들의 악독이, 우리도 부득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사실 교회의 경건한 교사들이 그렇게 이단을 반박해 온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주께서 사람에게 그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고, 그의 범죄를 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무슨 일이든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능력의 관점에서 볼 때 악하지 않으며, 사단과 우리의 뜻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을 안다.

제 9 장 자유의지와 인간의 능력에 관하여

5.043 이 문제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많은 충돌을 일으켜 왔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세 가지 상태 혹은 신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타락 이전의 사람, 사람이 처음에 즉 타락하기 전에는 올바르고 자유로워서 선 가운데 존속할 수도 있었고 악에로 기울어질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태가 있다. 그러나 사람은 죄에로 기울어졌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자신과 인류 전체가 죄와 죽음에 얽히게 되었다. 타락 후의 사람, 처

음에는 우리가 타락 후의 인간이 어떤가를 고려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사람에게서 이성이 제거된 것이 아니며, 의지가 박탈된 것도 아니며, 완전히 변하여 돌이나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도 사람은 너무도 변하고 약해져서 타락 이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해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자유로웠던 의지가 노예상태의 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것이 죄를 섬기는데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한다. 참으로 그것을 의지라 부른다. 본의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3]

5.044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써 악을 행한다. 그러므로 악이나 죄에 관해서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이나 혹은 마귀에게 강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악을 행한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최악의 범죄와 구상이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방지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때 이것이 악을 행하는 인간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능력으로써 사람이 자유롭게 달리 계획한 것을 방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자유롭게 결정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는 못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딴 것이 좋게 보였었기 때문이다.

5.045 사람은 도대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선이나 덕에 있어서 사람의 이성은 그 자체로서 신적인 일에 관하여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복음서나 사도들의 글은 우리들 중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중생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얻은 첫번째 출생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한다. 바울이 말하기를 "신령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전 2 : 14)고 했다. 또 그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스스로는 어떤 선도 생각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고후 3 : 5). 마음 혹은 지성은 의지의 길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다면 그 길잡이가 눈이 멀었을 때 의지가 어디까지 가겠는가 하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으며 선한 것을 행할 힘이 없는 것이다. 주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다 :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 8 : 34).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

3. *Etenim voluntas, non noluntas dicitur.*

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 8 : 7)고 했다. 그러나 지상적인 일에 있어서는 타락한 사람도 이해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5.046 예술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자비를 베푸셔서 인간에게 지능이 남아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물론 타락 이전에 사람에게 있던 지능과는 크게 다른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연적 재주를 계발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러면서 재질과 성공을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모든 예술에 있어서 조금도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성경은 모든 예술의 유래를 하나님께 돌린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술의 기원을 찾되 그것을 창작한 신들에게까지 추적해 가는 것이 사실이다.

5.047 중생한 사람들의 능력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그들의 의지는 어떤 식으로 자유로운가? 끝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중생한 자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중생에 있어서 이해력은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신비와 뜻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의지 자체가 성령에 의하여 변화될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을 의도하고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이 갖추어진다(롬 8 : 1 이하).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부정하게 될 것이며, 법적 속박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렘 31 : 33, 겔 36 : 26-27)고 하셨다. 복음서에서 주님도 말씀하셨다 :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 8 : 36). 바울 역시 빌립보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빌 1 : 29)고 했다. 다시금 그가 말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 : 6)고 했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빌 2 : 13)고 하였다.

5.048 중생한 자들은 수동적으로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관찰하도록 가르친다. 첫째로 중생한 자들은 선을 택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으로만 아니고 능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적절한 말을 인용한 바 있다. 그런데 마니교도들은 사람에게서 모든 활동을 박탈하고 사람을 한낱 돌이나 한 조각의 나무와 같이 만들어 버렸다.

5.049 **중생한 자들 속에 있는 자유의지는 약하다.** 둘째로, 중생한 자들 속에도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 있고 중생한 자들 속에서도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육체가 성령을 거슬러 투쟁하고 있으니까, 만사에 있어서 그들이 계획한 바를 쉽게 성취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로마서 7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그 자유의지는 낡은 아담의 잔재와 우리 생의 끝까지 우리 속에 남아 있을 본유적인 인간 부패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 힘이 약하다. 그러나 육체와 낡은 인간 잔재의 능력들은 이제 별로 효력이 없어서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소멸시키며, 그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들의 자유의지를 결코 칭송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도들은 언제나 성어거스틴이 사도의 말을 따라 그렇게도 여러 번 타이른 바를 마음에 간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도의 말은 이렇다 : "너희가 받지 않고서 가진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이 선물이 아닌 양 자랑하는 것은 어찜이냐?" 여기서 그는 첨가하기를 우리가 계획한 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까닭은 사물의 발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의 여행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다(롬 1 : 10). 이것이 또한 자유의지가 약하다는 이유다.

5.050 **외적인 일에 있어서 자유가 있다.** 그뿐 아니라 외적인 일에 있어서는 중생한 사람이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자유의지를 즐긴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산 피조물과 더불어 어떤 것을 하려고 마음 먹고, 또 어떤 것은 하지 않기로 마음 먹는 이러한 본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사람은 다른 생물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할 능력이 있고 또는 침묵을 지킬 능력이 있다. 자기 집에서 나갈 능력이 있고 또는 집에 남아 있을 능력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알아차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발람이 그가 바라는 만큼 갈 수 없었던 것과(민 24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지 못한 것이(눅 1장)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

문이었던 것이다.

5.051 이단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마니교도를 정죄한다. 그들은 사람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악을 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펠라기우스파를 정죄한다. 그들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이단을 다 공박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셨다."고 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 8 : 36).

제10장 하나님의 예정과 성도의 선택에 관하여

5.052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값없이 순전히 자신의 은총에 의해서 사람의 낯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의도하신 성도들을 예정 혹은 선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엡 1 : 4)는 사도의 말씀대로이다. 또 그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느니라"(딤후 1 : 9-10).

5.053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혹은 예정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직접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신 일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지금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도 선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사도의 말씀대로 제외되었다. 그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후 13 : 5)고 말했다.

5.054 우리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었다. 끝으로 성도들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그 목적을 사도 자신이 설명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

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총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 : 4 이하)고 하였다.

5.055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선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누가 당신의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며, 여기저기에 적은 수가 선택된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잘 될 것을 희망해야 하며,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고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모두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 전체에 대해서 말한다.), "그것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빌 1 : 3 이하)고 했기 때문이다.

5.056 소수만이 선택되었는가?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적겠는가고 주님께 물었을 때, 그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소수든지 다수든지 구원을 받거나 멸망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그는 매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눅 13 : 24)고 권고하셨다. 그것은 그가 마치 "네가 할 일은 이런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곧은 길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5.057 이 일에 있어서 정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소수가 선택되었고, 또 나는 그 소수 중에 들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즐기겠다."고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고 선택되었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구원은 이미 확실히 나를 위해서 작정되어 있는 것이니, 아무도 나를 방해하여 구원받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내가 버림받은 자들의 수효 속에 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결정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떤 신앙이나 회개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리와 권고가 다 소용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불경건한 언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라! 사도의 말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상반된다 : "마땅히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

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딤후 2:23 이하).

5.058 구원이 선택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권면이 공연한 것은 아니다. 어거스틴 역시 보여 주기를 "거저 주시는 선택과 예정의 은총과 또 건전한 권면과 교리는 다 설교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Lib. de Dono Perseverantiae*, "견인의 은사에 관하여" 14절 이하).

5.059 우리는 과연 선택되었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그들이 선택되었는가?[4],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들에 관해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하는 바를 우리는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 1:9~10에 있는 사도의 말씀으로 내가 방금 보여 준 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예정의 영원한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는가를 그 무엇보다도 더 가르치고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바,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마 11:2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요 3:16), 그리고 "이 소자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마 18:14)고 부르짖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한다.

5.060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거울로 삼아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정을 명상하도록 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진다면 우리가 생명책에 새겨지고, 참믿음 안에서 그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충분하고도 명백한 확실한 증언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5.061 예정에 관한 유혹. 예정에 관한 유혹보다 더 위험한 유혹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정에 관한 유혹이 있는 중,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눅 11:9-10)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전체 교회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 6:9) 하고 기도한다. 그것은 먼저 세례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

4. 1568년 판에는 "그들이 영원 전부터 선택됐는가?"라고 되어 있다.

스도의 몸속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이며, 또 우리는 그의 교회 안에서 종종 영생을 위하여 그의 살과 피를 받아 먹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힘을 얻으며, 바울의 훈시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다.

제 11 장 참하나님이시며 참사람이시며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5.062 그리스도는 참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서 영원 전부터 세상의 구주로 예정되었다고 우리는 믿으며 또 그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으신 때뿐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뿐 아니라, 영원 전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출생되셨다고 믿는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사 53 : 8)라고 하지 않았는가? 또 미가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 : 2)고 말했다. 그리고 요한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 : 1). 그러므로 신성으로 말하면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며 같은 실체를 가지신다. 그리고 명칭상으로나 결연의 관계에서나 혹은 어떤 공로에서 뿐 아니라, 실체와 본성에 있어서도 참하나님이시다(빌 2 : 11). 그것은 사도 요한이 종종 말한 대로이다. 그가 말하기를 "이는 참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요일 5 : 20)라고 했다. 바울 또한 이렇게 말했다 :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히 1 : 2–3).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주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 : 5)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또 복음서 다른 곳에는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요 5 : 18)라고 기록되어 있다.

5.063 분파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는 아리우스와 아리우스주의자들의 불경건한 교리를 혐오한다. 그리고 특히 스페인 사람 미가엘 세르베투스와 그의 모든 추종자들을 미워한다. 그들의 언사는 이를테

면 사단이 그들을 통하여 지옥으로부터 끌어내다가 너무도 뻔뻔스럽게 그리고 불경건하게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5.064 그리스도는 참사람으로서 실제로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게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그것은 에베온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한 남자의 성교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주의 깊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와 같이(마 1장) 성령에 의하여 가장 순결하게 잉태되고, 항상 동정을 지킨 마리아에게서 탄생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가르친다. 바울도 말하기를 "그는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본성을 취하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육신은 발렌티누스와 마르키온이 잘못 생각한 것처럼 공상적인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끌어내린 것도 아니다.

5.065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성적 영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폴리나리스가 생각한 대로 감각과 이성을 잃은 영혼을 가지셨던 것이 아니고, 또 유노미우스가 가르친 것처럼 영혼이 없는 육신을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이성이 있는 영혼과 감각이 있는 육신을 가지셨으며, 따라서 그가 수난을 당하시던 때에는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셨다. 예수는 친히 그것을 증언하시며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마 26 : 38)고 하셨고 "지금 내 영혼이 민망하다."(요 12 : 27)라고도 말씀하셨다.

5.066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 그러므로 우리는 한분이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두 가지 본성 혹은 두 가지 실체, 즉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있음을 인정한다(히 2장). 그리고 이 둘은 흡수되거나 혼동되거나 혼합되지 않으면서, 한 위 속에 함께 연합 혹은 연결되어 그 본성들의 특성들이 손상되지 않고 영구적인 것으로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서로 얽히고 연합되어 있다고 우리는 말한다.

5.067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그리스도 곧 주님을 예배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는 한 분이신 참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시다. 그의 신성으로 말하면 성부와 실체가 같으시고, 인성으로 말하면 우리들 인간과 실체가 같으시다. 그리고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들과 같으시다(히 4 : 15).

5.068 분파들. 따라서 우리는 한 그리스도를 둘로 만들고 그 의의 통일성을 와해시키는 네스토리안파의 교리를 몹시 싫어한다. 그와 같이 또한 우리

는 예수의 인성이라는 특성을 파괴하는 유티쿠스와 단의론자(Monothelites)들 또는 단신론자(Monophysites)들의 미친 행동을 철저히 저주한다.

5.069 그리스도의 신성은 수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의 인성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이 수난했다거나 그리스도가 그의 인성을 따라 아직도 이 세상에 계시고, 따라서 어디에나 계신다고는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그의 영화 후에는 참된 몸으로 존재하기를 멈추었다거나, 혹은 신격화했다고도 우리가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 인성이 신격화하여 몸과 영혼으로서의 특성을 버리고 변하여 전적으로 신성이 되어 단지 하나의 실체가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나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말이다.

5.070 분파들. 그래서 우리는 슈벵크휄트와 또 그와 유사한 궤변가들이 억지로 꾸며 낸 혼란하고도 모호하고 교활한 생각들과 그들의 자가당착적인 논거를 우리가 결코 인정하거나 수락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슈벵크휄트주의자들이 아니다.

5.071 우리 주님은 참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벧전 4: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육신으로써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주님의 수난을 비난하는 야곱주의자들과 터키 사람들의 가장 불경건한 광적 생각을 혐오한다. 동시에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고전 2:8)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5.072 고유성의 분여(Impartation of Properties). 우리는 경건하게 그리고 공손히 고유성의 분여를 수락하고 사용한다. 고유성의 분여란 성경에서 파생된 것이며, 분명히 상반되는 구절들을 설명하고 화해시키는 일에 있어서 모든 옛 어른들이 사용한 것이다.

5.073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참으로 되살림을 받으셨다.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참육체를 가지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혔던 그 육체 말고 다른 육체가 되살림을 받았거나 그 육체 대신 하나의 영이 들려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진짜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이 주님의 영을 본 것으로 생각할 때 그는 그들에게 못자국과 상처로 표가 나는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게다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39)고

말씀까지 하셨다.

5.074 그리스도는 참으로 승천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채 모든 보이는 하늘들 위로 올라가 최고의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니,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 축복받을 자들의 거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이다. 비록 그것은 영광과 위엄에 동등하게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러 가노라."(요 14 : 2)고 하지 않았는가?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 두리라."(행 3 : 21)고 하였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바로 그리스도가 돌아오셔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야말로 세상에 악이 극도에 달하고, 적그리스도가 참된 종교를 부패케 하여 사사건건 미신과 불경건으로 가득 채우고, 피 흘리는 일과 화염으로 교회를 잔인하게 폐허로 만들어 버리게 될 때이다(단 11장).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당신 자신의 것을 도로 찾으시고, 그의 재림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를 파멸하시고,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행 17 : 31).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살전 4 : 14 이하) 그날에(그날은 어느 피조물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막 13 : 32) 살아 있는 사람들은 '눈 깜박하는 사이에' 변화될 것이며 믿는 자들은 모두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된 거처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고전 15 : 51—52). 그러나 불신자들과 경건치 못한 자들은 마귀들과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 영원히 불타며 결코 고통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마 25 : 46).

5.075 분파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실제로 부활한다는 것을 부인하거나(딤후 2 : 18), 제롬이 반박하는 글을 쓴 바 있는 예루살렘의 요한처럼 몸의 영화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정죄한다. 우리는 또한 마귀와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언젠가는 구원을 받는다든가, 벌에도 끝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정죄한다. 왜냐하면 주께서 명백하게 선언하시기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 9 : 44)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 심판날 전에 땅 위에 황금시대가 올 것이라든가 경건한 자들이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원수들을 정복한 후 땅의 모든 나라들을 소유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꿈을 정죄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누가복

음 18장에 있는 복음적 진리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3장과 4장에 있는 사도적 교훈은 아주 다른 것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5.076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 일보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그의 수난과 죽음과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때문에 하시고, 또 참아내신 사건사건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늘 아버지께 화해시키시고, 죄에 대한 속죄를 하시고, 죽음을 무장해제하시고, 파멸과 지옥을 정복하시고,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생명과 부활을 다시 찾고 회복하셨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의와 생명과 부활이시며,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충만이요, 완전이시며 구원과 완전한 충족이시기 때문이다. 사도가 말하기를 "그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으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골 1, 2장)고 하지 않았는가?

5.077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구주시며, 기다리던 참메시야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인류와 또 온 세계의 유일하시고도 영원하신 구주이심을 우리는 가르치고 또 믿는다. 율법이 있기 전이나 율법 아래에서나 복음 아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모두 그분 안에서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으며, 아무리 많더라도 세상 끝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가르치며 또 믿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나는 양의 문이라."(요 10 : 1, 7)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복음 다른 곳에서 그가 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요 8 : 56)고 하셨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말하기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는다(행 4 : 12, 11 : 43, 15 : 11). 왜냐하면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전 10 : 3-4)고 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요한이 말한 것도 우리가 읽는데 그는 "그리스도는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계 13 : 8)라고 했으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요 1 : 29)고 증언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설교한다 :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구속자요 구주이시며, 왕이요 대제사장이시며, 참된 대망의 메시야이시며, 온갖 형태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이 예시하고 약속한 바 그 거룩하고 축복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그를 지정하셨다가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우리는 이제 다른 분을 찾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남은 일은 다만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그를 믿고 오직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삶에 있어서 모든 다른 도움들을 멸시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한분 외에 어떤 다른 곳에서 구원을 추구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고, 자기들에게 그리스도는 헛되고 공연한 존재로 여긴 것이기 때문이다(갈 5 : 4).

5.078 네 개의 교회회의의 신조들을 받아들임. 많은 것을 몇 마디로 간추려 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에 관해서 성경으로부터 정의된 것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세돈에서 모였던 가장 탁월한 첫 네 대회의 신조와 교령(decrees)과 또 축복받은 아타나시우스[5]의 신조와 모든 유사한 신조로서 요약된 것들을 모두 우리는 진지한 마음으로 믿으며, 입을 열어 자유롭게 고백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들과 반대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정죄한다.

5.079 분파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적, 보편적 신앙을 온전하게 그리고 손상됨이 없이 보유한다. 위에 언급된 신조들 속에 포함된 것은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과 신앙에 대한 진지한 해설을 해주지 않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제12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5.080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나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 무엇이 악하고 옳지 않은지를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설명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다고

5. 소위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하는 것은 아타나시우스가 쓴 것이 아니고, 제 9세기에 생긴 것이다. 그것을 Quicunque라고도 하는데 라틴어역의 첫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서 유래하였다.

고백한다.

자연법. 그리고 이 율법이 한때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되었고(롬 2 : 15),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모세의 율법이 두 개의 돌비에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때에 율법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두 돌판에 새겨졌으며, 그것이 모세의 책 속에 유창하게 해설되어 있다(출 20 : 1 이하, 신 5 : 6 이하).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 혹은 두 개의 돌비에 들어 있고, 모세의 책에서 해설되어 있는 도덕법과 의식들과 하나님 예배를 결정하는 의식법을 정치적, 가정적 사건에 관계되는 재판법과 구분한다. 5.081

율법은 충실하고 완전하다. 하나님의 뜻 전체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모든 필요한 교훈을 이 율법 속에서 배울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에다 아무것도 더하거나 거기서 빼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율법 앞에서 곧은 길을 가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다(신 4 : 2, 12 : 32). 5.082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가르쳐 주는 바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죄와 유죄선고를 알고 우리의 힘에 대하여 절망을 느끼며, 믿음으로 개종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가르친다. 왜냐하면 사도가 분명히 선언하기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롬 4 : 15, 3 : 20), 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성경(즉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 3 : 21 이하)고 하였기 때문이다. 5.083

육신은 율법을 성취할 수 없다. 육신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거나 성취할 수 없었고, 또 오늘도 그러하다. 그것은 우리가 숨질 때까지 우리 속에 붙어서 남아 있는 육신의 연약성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는 다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하셨다."(롬 8 : 3)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 5.084

성이며 우리 대신의 율법 성취이시다(롬 10 : 4). 그는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저주가 되셨다(갈 3 : 13). 이렇게 해서 그의 율법 성취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의 의와 복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

5.085 율법이 어느 정도 폐기되었을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더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진노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된 셈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값을 청산하셨다. 따라서 실체가 왔을 때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진리와 모든 충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율법을 경멸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마 5 : 17)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율법 안에는 덕과 악의 모형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기록된 율법은 복음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때 교회에게 유용하다는 것과 따라서 율법을 읽는 일을 교회에서 없애버려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리워졌었지만, 사도는 말하기를 그 수건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워지고 폐지되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분파들, 우리는 고금의 이단들이 율법을 반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정죄한다.

제 13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 영과 의문에 관하여

5.086 옛날 사람들도 복음적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다. 복음은 참으로 율법에 반대가 된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자아내고 저주를 선언하는데, 복음은 은혜와 축복을 전하기 때문이다. 요한이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 : 17)고 하였다. 그렇지만 아주 확실한 것은 율법 이전에 있던 사람이나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도 복음을 전혀 못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상한 복음적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과 같은 실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창 3 : 15),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창 22 : 18), "권세의 막대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그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창 49 : 10), "야웨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신 18 : 15, 행 3 : 22) 등등.

5.087 **두 종류의 약속.** 두 종류의 약속이 옛 어른들에게와 또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 같은 현재적이며 지상적인 것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신령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으로서, 신적인 은총, 죄의 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영생 등이 바로 그것이다.

5.088 **옛 어른들은 육적 약속뿐 아니라 영적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외적이고 지상적인 약속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령하고도 영적인 약속들도 가지고 있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벧전 1 : 10)고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다."(롬 1 : 2)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이 온전한 복음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5.089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말해 보자.**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예언자들의 글 속에 나타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사실이지만, 바로 말해서 복음이란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서, 첫째로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다음에는 그리스도 주님 자신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는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선포된 것인 바, 하나님께서 세상 태초부터 약속하신 바를 지금에 수행하셨고,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그 안에서 성부와의 화해를 주시고 죄의 사면, 모든 충만, 영생을 주셨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네 복음서에서 묘사된 역사, 즉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성취되었는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르치시고 행하셨는가 하는 것과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충만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 역사야말로 복음이라 불러 마땅하다. 사도들의 설교와 기록들은 성부께서 어떻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과 생명과 영생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들이 바르게 말하면 복음적 교리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것이 진지하게 선포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그 화려한 칭호(복음)를 잃지 않을 것이다.

5.090 **영과 의문(儀文)에 관하여.** 바로 그 복음 선포를 사도는 '영' 또는 '영의 사역'이라고도 불렀다.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귀에, 아니 신자들의 마음속에 효과를 가져오며 살아 있게 되기 때문이다(고후 3 : 6). 의문이란 영과는 대립되는 것으로서, 무엇이나 외적인 것을 가리킨다. 특히 산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의 마음속에 영과 믿음과는 무관하게 분노를 일으키고 죄를 부추기는 율법의 교리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사도는 그것을 '죽음의 사역'이라고 불렀다. 이와 관련해서 "의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준다."는 사도의 말은 꼭 맞는 말이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율법이 없이는 구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과 율법을 섞음으로써 썩은 복음을 선포하였다.

5.091 분파들. 에비온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단자 에비온에게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전에는 미네안파라고 불리던 나사렛주의자들이 그 일종이다. 우리는 이들을 모두 정죄하며 믿는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영[6]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순수한 복음과 가르침을 우리는 전파한다. 이 일에 대한 좀더 세밀한 해설은 칭의라는 제목하에서 곧 따라 나오게 될 것이다.

5.092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새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랜 교리이다.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처음으로 전파되었을 때,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하나의 새 교리처럼 보였지만(예레미야도 그 새 계약에 관해서 예언한 바 있다.), 사실은 그것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하나의 낡은 교리일 뿐 아니라(오늘도 교황주의자들은 그들 가운데서 지금 수락된 가르침과 비교할 때 그것을 새로운 것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옛 것 중에도 옛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고, 그의 이 예정과 영원한 계획을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이다(딤후 2 : 9-10). 그래서 복음의 종교와 가르침은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고, 장차 있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복음의 종교와 가르침이 근자에 생긴 것이라 하며, 겨우 삼십 살밖에 안 되는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는 불명예스럽게도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들먹이지만 실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그들에게야말로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해당된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던 그들은 화 있을진저"(사 5 : 20)라고 했다.

6. 원본에는 '영' 대신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다.

제14장 회개와 사람의 회심에 관하여

5.093 회개의 교리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으로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눅 24:47).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1)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움을 받고, 참된 믿음에 의하여 영접됨으로써, 죄인 속에 올바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죄인이 즉각 자기의 생래적 부패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2) 그 부패와 죄를 마음으로부터 비통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감정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회하며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이며, (3) 그뿐 아니라 분개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몹시 싫어하고, (4) 이제는 그의 길을 수정할 것을 열심히 고려하고, 온 여생을 양심적으로 무흠하고 덕있는 삶을 살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이다.

5.094 참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개심이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회개인데 이를테면 하나님과 모든 선에로 진지하게 돌아서는 일, 그리고 악마와 모든 악으로부터 진정으로 돌아서 떠나는 일이다. 1.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우리는 이 회개가 우리의 힘으로써 하는 일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한다. 왜냐하면 사도가 신실한 사역자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지도 모르니"(딤후 2:25),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2. 지은 죄를 탄식한다. 자기 눈물로써 주님의 발을 씻은 그 죄있는 여인과 주님을 부인한 일을 통절히 여기며 울고 통곡한 베드로(눅 7:38, 22:62)는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지은 죄를 어떻게 진지하게 탄식해야 하는가를 밝히 보여 준다. 3.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 그뿐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그 탕자와 세리는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가장 알맞는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 탕자가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눅 15:8 이하) 하였다. 그리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눅 18:13)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용납되어 은혜를 입게 되었을 것을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요일 1:9-10)고 하였기 때문이다.

5.095 사제 제도에 의한 고해와 용서. 홀로 하나님께 행한 진지한 고백은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서 내밀하게 했든지, 혹은 일반적인 죄 고백을 하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든지를 막론하고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과, 사죄를 얻기 위해서 아무나 그의 죄를 사제의 귀에 속삭이며 고백하고, 또 사제가 손을 얹으면서 주는 사죄를 받아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에 대한 계명이나 실례가 없기 때문이다. 다윗이 증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웨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시 32:5)라고 하였다. 또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치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마 6:12)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화나게 했으면 그와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고백에 관해서 사도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약 5:16)고 말하였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죄의 짐과 난처한 유혹에 압도되어, 교회의 목사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교훈을 받은 어떤 다른 형제에게서 사사롭게 조언, 교훈, 위안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가하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위에서 지적한 대로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를 위한 모임에서 말하는 일반적, 공개적 죄 고백도 그것이 성경과 합치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십분 승인하는 것이다.

5.096 천국열쇠에 관하여. 주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천국열쇠에 관해서 많은 사람이 놀라운 것들을 지껄여 대며, 또 그것들로부터 검과 창과 왕의 막대기와 왕관을 지어내기도 하고, 최대의 왕국을 다스리는 완전한 권세와 아니 영과 육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빚어 낸다.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면, 정당하게 교역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모두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열쇠 혹은 그 사용권을 소유하며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즉, 사역자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백성을 훈련함에 있어

서 가르치고 권고하고 위안하고 책망하고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열쇠를 가지고 행사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5.097 (그 나라를) 열고 닫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들이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열어 주고, 불복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닫는 것이다. 주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들에게 이 열쇠들을 약속했으며,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죄를 사해 주라는 명령를 내리실 때, 즉 요한복음 20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열쇠들을 주신 것이다.

5.098 화해의 사역.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주님이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화해의 사역을 주셨다고 말하였다(고후 5 : 18 이하).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화해를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설명하면서 더욱 명백하게 첨부하기를, 마치 하나님이 친히 사역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권고하면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신실한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화해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들을' 설득하여 믿게 하고 회개케 할 때 열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킨다.

5.099 교역자들이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그들은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그들은 천국을 열고 신자들을 그리로 이끌어 들인다. 그들은 복음서에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눅 11 : 52)고 말씀하신 그들과는 매우 다른 사람들이다.

5.100 교역자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가? 그러므로 교역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또 그것으로써 사죄를 선포할 때 정당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무죄를 언도하는 것이다. 그 사죄는 각자가 세례를 받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 각자에게 약속된 것이다. 그리고 사죄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관계되는 것임을 교역자들이 증언할 때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사죄가 어떤 사람의 귀에다 대고 소근거린다든가,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하나씩 속삭임으로써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로써 얻는 사죄는 열심히 선포되어야 하고, 죄의 용서가 각자에게 관계된다는 것을 매 사람에게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5.101 부지런히 생활을 새롭게 할 것.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실례들은 회개한 자들이 얼마나 깨어서 부지런히 삶의 갱신을 노력하고, 낡은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에로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왜냐하면 주님에 의해서 중풍병을 치유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5 : 14)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풀어 주신 그 음탕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 : 11)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 틀림없다. 그는 단순히 부지런함과 조심스러운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하여 빠져 나온 죄에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육신과 세상과 악마에게 정복당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기도로써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받아들여 총애를 입게 한 세리 삭개오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눅 19 : 8). 그러므로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하는 일, 동정을 베푸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까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교한다. 그리고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권고한다 :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롬 6 : 12-13).

5.102 그릇된 생각. 그러므로 복음 설교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을 했다느니, 사죄는 쉬운 일이라느니,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무슨 해가 되느냐는 등 회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한 발언들을 우리는 정죄한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모든 죄인에게 열려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성령을 거슬리는 죄 외에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다(막 3 : 29)고 우리는 항상 가르친다.

5.103 분파들. 그러므로 우리는 신 · 구 노바티우스주의자와 카타리주의자들을 정죄한다.

5.104 교황의 면죄부. 우리는 특히 참회에 관한 수지맞는 교리를 정죄하며,

그의 성직매매와 성직매매적인 면죄부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시몬에게 내린 심판의 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행 8 : 20-21).

5.105 만족설. 우리는 또한 자기들 자신이 만족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범한 죄를 고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그의 죽음이나 수난에 의해서 모든 죄에 대한 만족, 화해, 속죄가 된다고 우리는 가르치기 때문이다(사 53장, 고전 1 : 30). 그래도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우리는 육신을 죽여야 할 것을 쉬지 않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육신을 죽이는 일이 죄를 위한 어떤 만족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만족케 함에 의해서 얻어진 구원과 완전한 만족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복종으로써 겸손하게 수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덧붙여 가르친다.

제15장 믿는 자들의 참된 칭의에 관하여

5.106 칭의란 무엇인가? 사도(바울)가 칭의를 다룬 것에 의하면, 칭의란 죄를 용서하는 것, 죄과와 벌을 사면하는 것, 용납하여 총애를 입게 하는 것, 사람에게 옳음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그 사도가 말하기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롬 8 : 33)라고 했기 때문이다. 칭의한다는 것은 정죄한다는 것의 정반대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가 진술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행 13 : 38-39)고 했다. 율법에 그리고 예언서에서도 우리는 이런 말을 읽지 않는가.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신 25 : 1)는 말씀과 이사야 5장에 "화 있을진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들이여"라는 말씀이다.

5.107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본성적으로 죄인이요, 불경건한 자요,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서 불경건한 자라는 판결을 받고 죽음에 해당하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를 위한 고려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즉,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말한 것 이상 더 명료한 것이 없다. 그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 : 23-24)고 했다.

5.108 전가된 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스스로 맡아 지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화를 푸시며 그 죄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씻음을 받아 깨끗해지고 거룩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죄와 죽음과 정죄에서 사면을 받았으므로 마침내 의롭고 영생의 후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함을 주신다.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

5.109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우리가 이 칭의를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받기 때문에,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도와 함께 가르치며 또 믿는다. 그 사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롬 3 : 28)라고 했으며, 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 4 : 2 이하, 창 15 : 6)고 했다. 다시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 : 8-9)고도 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돌리기 때문에 칭의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어서 우리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5.110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풍족하게 보여 준다. 거기에 보면 주께서 먹는 일을 믿는 일과 대치하시고, 또는 믿는 일을 먹는 일과 대치하셨다. 우리가 먹음을 통하여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믿는다는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동참하는 것이다. 칭의의 한 부분을 그리스도에게나 믿음에 돌리고 또 한 부분은 우리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한 부분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한 부분은 우리 자신, 우리의 사랑, 우리의 행함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칭의를 돌린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행함은 불의한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참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씌우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신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위해 의로 여기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사도(바울)는 "계명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딤전 1 : 5)고 말하면서 아주 명백하게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고 지적하였다.

5.111 야고보와 바울을 비교해 보자.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가공적이고 공허하고 게으르고 죽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 믿음, 살리는 믿음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의 산 믿음이다. 그리고 산 믿음이라고 불린다. 그 까닭은 그것이 생명이시며 살아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살아 있는 행함에 의해서 그것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의 이 교리에 있어서 조금도 대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자랑하는 공허하고 죽은 믿음을 가리키고, 자기들 속에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약 2 : 14 이하). 야고보는 행함이 의

롭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사도(바울)와 대립되지는 않았다(대립되었다면 거부를 당했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행함에 의해서 자신의 산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을 증명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모든 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의 행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 다시금 사도(바울)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까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7]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0-21).

제16장 믿음과 선행에 관하여, 그것들의 보상에 관하여, 사람의 공로에 관하여

5.112 믿음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의견이나 인간적 신념이 아니라, 성경과 사도신경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진리와 또한 최대의 신이신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진리, 특히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진리와 모든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가장 굳건히 신뢰하고 마음으로 명확하게 꾸준히 수긍하고, 또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5.113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원하실 때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정도로 주시고자 하는 분량대로 그의 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순전한 선물이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꾸준한 기도를 방편으로 해서 성령에 의하여 믿음을 주신다. 믿음의 증가, 이 믿음은 또한 증가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사도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눅 17:5)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말한 모든 것은 우리를 앞선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휘포스타시스(ὑπόστασις), 곧 확실한 실체요, 엘렝코스(ἔλεγχος), 즉 명확하고 확실한 이해이다"(히 11:1). 다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이며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고후 1:20)이라고 했다. 그리고 빌립보인들에게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졌다고 했다(빌

7. 라틴어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

1 : 29).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배정하셨다(롬 12 : 3)고 했으며, "모두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두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살후 3 : 2, 롬 10 : 16)고 말했다. 누가 역시 증언하여 말하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 : 48)고 말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또한 믿음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믿음'이라고 불렀다(딛 1 : 1).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 : 17)고도 했다. 다른 곳에서 그는 종종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5.114 **효과적이고 활동적인 믿음.** 같은 사도(바울)가 믿음을 가리켜, 사랑을 통하여 효과를 나타내며 활동하는 것이라고 불렀다(갈 5 : 6). 믿음은 또한 양심을 잔잔케 하며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길을 연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유용하고 필요한 것을 그로부터 얻게 된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와 우리의 이웃에게 빚진 바 봉사를 꾸준히 하도록 하며, 역경 속에서 우리의 인내를 강하게 하며, 참된 고백을 형성하고 만든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온갖 선한 열매와 선행을 산출한다.

5.115 **선행에 관하여.** 참으로 선한 행위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산 믿음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의 뜻, 혹은 통치에 따라 신자들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우리는 가르친다. 자,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있지 않은가 : "너희가 더욱 힘을 써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공급하라"(벧전 1 : 5 이하). 그러나 우리는 이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인 그의 율법이 우리를 위해서 선행의 모형들을 처방해 준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도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살전 4 : 3 이하)고 하였다.

5.116 **인간이 선택하는 행위.** 우리들이 임의로 택하는 행위나 예배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바울은 텔레이오트레스케이아스(스스로 고안한 예배, θλεέοθρησκείας, 골 2 : 23)라고 불렀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마 15 : 9)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위탁에 의해서 행하는 일들을 인정하고 권장한다.

5.117 **선행의 목적.** 이러한 선행도 그것들에 의하여 우리가 영생을 벌려는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도가 말한 대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거부하셨다. 또한 마태복음 23장에서 역시 거부하신 대로 이득을 위하여 해서도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소명을 장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보이기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 : 16)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엡 4 : 1),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 : 17), 또 "각각 자기의 이익을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돌보라."(빌 2 : 4),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고 매우 긍핍한 경우들을 돕기 위하여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딛 3 : 14).

5.118 선행은 거절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어떤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와 더불어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기로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창조되거나 중생된 것은 게으름을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지 않고 선하고 유용한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마 12 : 33)고 하셨으며, 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낸다."(요 15 : 5)고 하신 것이다.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 : 10)고 했고, 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딛 2 : 14)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멸시하는 자들과 그것들을 쓸데없다든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지껄이는 사람들을 모두 정죄한다.

5.119 우리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선행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거나, 선행은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어서 그것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

각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총애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행함은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구원을 행함에다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은혜에다 돌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잘 알려진 사도의 말이 있지 않은가 : 즉, "만일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행위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롬 11 : 6)는 말씀이다.

5.120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인정해 주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행해지는 선행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왜냐하면 성베드로가 말하기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느니라."(행 10 : 35)고 했으며, 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한다."(골 1 : 9-10)고 했기 때문이다.

5.121 우리는 참된 덕를 가르치고, 거짓되고 철학적인 덕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참된 덕을 가르치고, 거짓되고 철학적인 덕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참된 선행과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봉사를 가르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모든 사람에게 그것들을 권장하는 동시에, 입으로는 복음을 칭송하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불미스러운 삶으로 인해서 복음을 욕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만과 위선을 비난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위협을 제시하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과 관대한 보상을 제시한다. 즉, 권고와 위로와 책망을 주는 바이다.

5.122 하나님은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라.……네 일에 갚음을 주실 것이다."(렘 31 : 16, 사 4장)라는 예언자의 말대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후한 상을 주신다. 또한 주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 5 : 12)고 하셨고, 또 "누구든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 10 : 42)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주시

는 이 상을, 그것을 받는 사람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시면서도 그의 신실한 예배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관대하심, 진실하심에 돌린다. 그가 상을 주시는 것은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성자들의 행위 속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것이 많으며 불완전한 것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여 은총을 베풀고 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의 보상을 허락하신다. 다른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에다 비교할 수 있다(사 64 : 6). 그리고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할지니라."(눅 17 : 10)고 하셨다.

5.123 인간의 공로는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상을 주신다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공로에 왕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물에다 왕관을 씌운다고 가르친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가르쳤다. 따라서 우리는 말한다. 우리가 받는 상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 역시 은혜이며, 상이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선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뇨?"(고전 4 : 7)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축복된 순교자 키프리아누스가 이 구절에서 결론을 내린 바가 이것이다. 즉, 아무것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우리 속에 있는 아무것도 뽐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공로를 옹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자들을 정죄한다.

제17장 하나님의 보편적 거룩한 교회에 관하여, 그리고 교회의 유일한 머리에 관하여

5.124 교회는 언제나 존재하였으며 또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딤전 2 : 4) 교회가 언제나 있어야만 했고, 지금도 있어야 하고, 세상끝까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사뭇 있는 것이다.

5.125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혹은 모아진 신도의 모임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의 단체, 이를테면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참하나님을 알고, 옳게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의 단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어진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의 단체이다. 한 국가의 시민들, 그들은 동일한 주님 아래서 살며, 동일한 법 아래 있으며,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누리며, 동일한 친교를 가지는 한 도시의 시민 전체이다. 사도가 그들을 두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 : 19)고 불렀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거룩하게 된 지상의 신자들을 성도라고 불렀다(고전 4 : 1).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조항이 전적으로 이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5.126 모든 시대에 있을 단 하나의 교회. 언제든지 하나님은 한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가 한분, 즉 메시야이신 예수, 온 양무리의 유일한 목자, 이 몸의 머리가 하나이며, 또 결론적으로 영이 하나, 구원이 하나, 믿음이 하나, 계약이 하나이니, 필연적으로 교회도 단 하나인 것이 마땅하다. 보편적 교회(공회=Catholic church),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보편적 교회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적이고 세상 모든 부분에 산재해 있으며,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이어서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프리카의 어느 구석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교회를 국한해서 말하는 도나티스트들을 정죄한다. 또한 근자에 로마 교회만을 가톨릭(보편적)이라고 선전하는 로마 교직자들을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5.127 교회의 부분 또는 형식. 교회는 여러 부분 또는 형식으로 구분된다. 그것은 그 자체 안에서 구분된다든가 갈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있는 회원들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구별이 되기 때문이다. 투쟁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하나는 투쟁하는 교회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승리한 교회라 부른다. 전자는 지상에서 아직 전쟁을 하며, 육과 세상과 이 세상 통치자 곧 마귀를 대항하여, 즉 죄와 죽음과 맞서 전투한다. 그러나 후자는 이제 이미 임무를 끝내고 그 모든 일을 극복하자마자 하늘에서 개선하고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러나 그 둘은 교제를 가지며 서로 연합되어 있다.

5.128 개 교회. 그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투쟁하는 교회는 언제나 많은 개체

교회들을 가졌다. 그래도 이 모든 교회들은 그 보편적 교회의 통일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투쟁적 교회가 율법 이전에는 족장들 가운데서 다르게 세워졌었고, 모세 밑에서는 율법에 의하여 다르게 세워졌었고,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다르게 세워졌다.

5.129 두 백성.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백성을 계수하는 것이 보통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고, 혹은 유대인 중에서 불러모은 자들과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가리킨다. 또한 두 개의 계약, 즉 낡은 계약과 새 계약이 있다. 낡은 백성과 새 백성이 같은 교회를 이룬다. 그래도 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하나의 교제, 한 메시야 안에 있는 한 구원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다. 한 메시야 안에서 한 머리 아래 있는 한 몸의 지체들로서 다같이 동일한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 꼭 같은 영적 양식과 음료를 같이 받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대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약속되고 또 나타난 그리스도의 기호들(signs)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의식들이 폐지되면서 광명이 더욱 밝게 우리에게 비쳐 오며, 축복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며, 더 충만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한다.

5.130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른다. 교회는 살아 있는 신령한 돌로 지었고,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그 기초는 다른 누구도 놓을 수 없는 것이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딤전 3 : 15)라고 불린다. 교회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머물러 있는 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교회는 때때로 홀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저버리니, 그럴 때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신부요 처녀인 교회, 이 교회는 또는 그리스도의 처녀 또는 신부라고 불리고, 심지어 홀로 사랑받는 자라고도 한다.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고후 11 : 2)라고 하지 않았는가. 양의 무리로서의 교회, 교회는 에스겔 34장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대로 한 목자 그리스도 밑에 있는 양떼라고 불린다. 몸으로서의 교회, 신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밑에 있는 그리스도의 산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불린다.

5.131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 몸에 있어서 으뜸은 머리이며 그것으로부터 온몸이 생명을 받는다. 머리의 영에 의해서 몸은 만사에 있어서 통치를 받으며, 또 그것으로부터 몸은 증식을 얻어 성장한다. 또한 몸에

는 머리가 하나이며 그것이 몸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머리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의 영적인 몸인 것같이 그것에 조화가 되도록 또한 하나의 영적인 머리를 가져야만 한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 외에 어떤 다른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골 1 : 18)고 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이신 교회의 머리이시며,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엡 5 : 23)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엡 4 : 15-16)고도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성직자의 교리를 찬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에 있는 교황을 전세계의 목자로 삼고 여기 지상에 있는 투쟁적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로 삼으며, 따라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행자이며(그들의 말대로 하면) 교회에 있어서 충만한 능력과 주권적 권위를 가진 자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목자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유일하신 세계적 목자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그가 친히 감독이나 목자로서 세상끝까지 모든 의무를 수행하신다고 우리는 가르친다. 대리(vicar) 또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 분의 대리자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교회와 함께 계시고 그가 바로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는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교회에는 월등한 자가 없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으뜸되는 자리나 지배권을 가지지 말라고 엄격히 명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명백한 진리와 상치되고 반대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언한 바 있는 그런 자들의 수에 든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2장에서,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20 : 2, 고린도 후서 11 : 2,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예언하지 않았는가?

5.132 **교회 안에 무질서는 금물.** 그러나 우리가 로마 교회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혼란이나 무질서를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전해 준 교회 정체가 교회를 적절한 질서 속에 유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황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가 그러한 어떤 우두머리가 없던 시초에도 무질서하거나 혼란 속에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로마 교회의 우두머리는 실로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인 그의 포학과 부패를 그대로 유지하고, 동시에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힘을 가지고 마땅한 교회 개혁을 방해, 항거, 저지한다.

5.133 교회 안에 있는 불화와 싸움. 우리 교회들이 로마 교회에서 분리한 이래 우리 교회들 속에 여러 가지 불화와 다툼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을 받는다. 따라서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 로마 교회 안에는 결코 어떤 분파도 없고, 종교에 관한 어떤 논쟁이나 다툼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논쟁이나 싸움이 백성 한가운데 있는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만큼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고전 14 : 33)라고 사도가 말한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한 너희는 육에서 난 자들이 아니냐?"고도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 시대의 교회에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 말다툼과 불화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참된 교회였다는 사실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인 베드로를 꾸짖었다(갈 2 : 11 이하).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과 결별했다. 누가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한 대로 한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중에, 즉 안디옥 교회 안에 큰 논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느 시대에나 큰 논쟁들이 있었고, 교회의 가장 탁월한 선생들도 중대한 일들에 관해서 그들끼리 의견을 달리했지만, 이러한 논쟁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를 멈춘 일은 없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화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진리를 예증하고, 옳은 사람들 편에 있는 자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전 11 : 19).

5.134 참교회의 특징 혹은 표징.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교회의 다른 머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자기가 참교회라고 떠벌리는 교회를 참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다. 참교회는 그 안에서 참교회의 표징 혹은 표적이 발견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히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책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진지하게 선포되는 일이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

에게 영생을 주노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요 10 : 5, 27, 28).

5.135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 믿음과 한 영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그만을 예배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만을 사랑하며, 유일한 중보이시며 조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만 기도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 밖에서는 의와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와 기초로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로써 자신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거짓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과 결합되어 화평과 거룩한 통일의 결속을 유지함으로써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낸다.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제정해 주시고 그의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성례전에 참여한다. 성례전을 사용하되 그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대로 하고 결코 다른 식으로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즉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고전 11 : 23 이하)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터이다. 따라서 어떤 교회가 감독의 계승, 통일성, 오래됨 등을 아무리 많이 자랑하더라도 우리가 사도에게서 들은 대로의 마땅한 교회가 아닐 때, 그런 교회는 모두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동떨어진 수상한 교회로 치고 우리는 그것들을 정죄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우상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전 10 : 14, 요일 5 : 21),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리고 그녀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재앙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거든 그녀와의 교제를 가지지 말라(계 18 : 4, 고후 6 : 17)는 명령을 받았다.

5.136 하나님의 교회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와의 친교를 매우 높이 존중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의 친교 관계를 가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떠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노아의 방주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선택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즐기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확실한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가르친다.

5.137 교회는 그것의 표징에 매인 것이 아니다. 위에서 (참교회의) 표징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적어도 자진해서가 아니고, 멸시하는 마음에서가 아니고, 다만 불가피하여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성례전을 기권하거나 금지를 당한 사람이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전적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약해진 사람이나, 또는 연약함 때문에 불완전함이나 과오 등이 발견되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 밖에 있다고 가르칠 만큼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도 좁게 제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세상에도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할 때 거기서 70년간 제사드리는 일을 박탈당한 일 등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자기 선생님을 부인한 성베드로에게 생긴 일과 하나님의 선민과 믿는 백성이 곁길로 가고 연약할 때 날마다 어떤 일을 당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사도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우리는 안다. 즉, 사도가 그것들 안에 있는 많은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흠을 잡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라고 불렀다(고전 1 : 2, 갈 1 : 2).

5.138 교회는 때때로 멸절된 것으로 보인다. 실로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운 심판 중에 그의 말씀의 진리와 그 보편적 신앙과 정당한 신(god) 예배가 매우 흐려지고 또는 전복되어서 교회가 거의 멸절하고 마치 우리가 알기에 엘리사 시대와 기타 시대에 생겼던 것처럼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같이 보이도록(왕상 19 : 10, 14) 허용하시는 일이 때때로 생긴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흑암 중에서도 그의 참예배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도 소수가 아니라 칠천 명 이상이나 가지시고 계신다(왕상 19 : 18, 계 7 : 3 이하). 왜냐하면 사도가 외쳐 말하기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딤후 2 : 19)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로 소집된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만 알려져 있어서 때때로 비밀리에 인간의 판단을 피하기 때문이다.

5.139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교회의 회원으로 계속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니며, 교회의 산 회원은 아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적으로 성찬을 받고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같이 보이고, 그리

스도를 그들의 유일한 의로 고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자선을 베푸는 의무를 행하는 것 같고, 얼마 동안은 불행을 인내로 견디는 것같이 보이는 위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들이 내적으로는 성령의 내적 조명과, 믿음과 마음의 진지함과, 끝까지 견디는 참을성이 결핍되어 있다.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성격이 대개의 경우 폭로될 것이다.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있지 않은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요일 2 : 19)고. 그리고 비록 그들이 경건한 척하고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닐지라도 마치 한 국가의 반역자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시민으로 계수되는 것처럼, 그리고 가라지나 독보리나 쭉정이가 밀 속에 발견되는 것처럼, 그리고 건전한 신체 속에 종기와 종창이 발견되는 것처럼, 그들이 참된 지체이기보다는 도리어 병이요, 보기 흉한 것인데도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물고기를 잡은 그물과, 밀과 가라지가 같이 발견되는 밭에다 비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마 13 : 24 이하, 47절 이하).

경솔하게 혹은 미숙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제외하거나 거절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과 우리가 제거하다가는 반드시 교회에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때가 되기 전에 판단한다든가 제외하거나 거부하거나 잘라내는 일을 감행하지 말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반면에 경건한 자들이 코를 고는 동안 악랄한 자들이 지반을 닦고 교회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만 한다. **5.140**

교회의 통일은 외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경솔하게 교회 안에 분열을 자극하거나 고취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진리와 통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의하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친다. 통일은 외적인 의식이나 예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편적 신앙의 진리와 통일에 있는 것이다. 보편적 신앙은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의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대 작가들의 글에서 의식이 형형색색이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들이 자유로웠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의 통일이 와해됐다고 생각해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읽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조화를 구성하는 것은 교리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고 조화있게 설교하는 데 있으며, 주께서 명백하게 전해 주신 의식에 있다고 우리는 가르친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그 사 **5.141**

도의 말을 강조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자" (빌 3 : 15-16).

제18장 교회의 교역자들과 그들의 제도와 의무에 관하여

5.142 하나님은 교회을 세우는 데 교역자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모으거나 설립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유지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교역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땅위에 남아 있는 한 그들을 사용하시고 또 언제나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을 처음으로 세우고, 그 제도와 직무를 내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오랜 옛날부터 경영하신 것이고 사람들이 만든 새 것이 아니다. 교역자의 제도와 그 기원,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방편이 없이도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불러 자기에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그는 사람들을 다룸에 있어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시기를 더 좋아하셨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사람의 구원을 달성하시는 만큼, 그들 자신만에 의한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

5.143 교역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종과 훈육에 관한 일을 성령의 비밀한 능력에 돌리고, 교회의 교역자는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언제나 사도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말하기를 "저희가 듣지도 못한 이름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롬 10 : 14, 17)고 했다. 그리고 주께서도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이 있다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요 13 : 20). 그와 같이 또한 바울이 아시아에 있을 때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은밀하게 권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행 16 : 9)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 : 9)고 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교역자들과 그 사역에 너무 큰 공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역시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이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요 6 : 44)고 하셨다. 사도가 한 말도 기억해야 한다. 그가 말하기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고전 3 : 5 이하)라고 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쳤는데, 외적으로는 그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내적으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성령에 의하여 감동시켜 믿게 하신다는 것을 믿자. 그러므로 이 모든 은총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믿자. 그러나 이 문제는 이 해설의 제 1 장에서 이미 취급되었다. 5.144

교역자들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교역자들을 세상에 주셨는가? 하나님은 세상 시초로부터 온 세계를 위하여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비록 그들이 세상적 지혜나 철학에 있어서는 단순하였을지라도 참된 신학에 있어서는 뛰어난 자들이었다.). 즉, 족장이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과 빈번히 대화하셨다. 족장들은 그들의 시대에 예언자 혹은 교사들로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여러 세기 동안 사는 것을 원하셨다. 이를테면 그들이 세상의 족장들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을 뒤이어 온 세상에 잘 알려진 모세와 예언자들이 나타났다. 5.145

교사이신 그리스도. 이들 이후에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교사이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으며,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단순하고 가장 완전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다. 이들은 온 세상으로 나가 각처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들을 모았고, 세상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목사들 혹은 교사들[8]을 임명했으며, 그들의 후계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 날까지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려 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옛 백성에게 족장들을 주시고 모세와 더불어 예언자들을 주셨던 것과 같이 또한 그의 신약 백성에게 그의 독생자와 그와 더불어 사도들과 5.146

8. *Ordinarunt pastores, atque doctores.*

교회의 교사들을 보내셨다.

5.147 **신약성경의 교역자들.** 그뿐 아니라 새 백성의 교역자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진다. 그들을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감독, 장로, 목사, 교사라고 불렀다(고전 12 : 28, 엡 4 : 11). 사 도, 사도들은 어떤 특정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계에서 여러 다른 교회들을 모아 놓았다. 일단 교회들이 설립되었을 때에는, 거기에는 이제 사도가 사라지고 목사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각각 자기 교회를 지키는 것이었다. 예언자, 옛날에는 예언자들이 선견자였고 미래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성경을 해석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발견된다. 복음 전도자, 복음의 역사를 쓴 자들을 복음 전도자라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령(heralds)이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일을 하라."(딤후 4 : 5)는 명령을 하지 않았는가? 감 독, 감독은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사람이며 교회생활의 양식과 요구들을 관리한다. 장 로, 장로들은 나이 먹은 자들로서 이른바 교회의 원로요, 어버이시며 건전한 권고로써 교회를 다스린다. 목 사, 목사는 주님의 양무리를 지키는 일과 그들의 요구를 공급하는 일을 한다. 교 사, 교사들은 참된 신앙과 경건을 일러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의 교역자들을 감독, 장로, 목사, 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5.148 **교황제도.** 그후에 교회 교역자의 더 많은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에 도입되었다. 어떤 사람은 총대주교(patriarchs)로 임명되고, 어떤 사람은 대주교(archbishops)로 임명되고, 또 어떤 이는 보조주교(suffragans)로 임명됐다. 그밖에 대감독(metropolitans), 부주교(archdeacons), 부제(deacons), 부조제(subdeacons), 시제(acolytes), 축마사(exorcists), 선창자(cantors), 수문(porters) 등이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것들, 예컨대 추기경(cardinals)이니, 학장(provosts)이니, 소수도원장(priors)이니 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높고 낮은 신부들과 높고 낮은 계급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전에 어떠했고 또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런 직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역자에 관한 사도적 교리로서 충분하다.

5.149 **수도사에 관하여.** 수도사들과 또 수도사의 직제나 분파는 그리스도가 제정한 것도 아니요, 사도가 세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무용지물이요, 아니 오히려 유해한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친다. 왜냐하면 비록 전 시대(그들은 은둔하

는 자들로서 자기의 손으로 먹을 것을 벌고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고, 평신도와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교회의 목사에게 복종하던 시대)에는 용납이 되었지만, 지금은 전세계가 그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고 또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이 무슨 맹서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자기들의 맹서와는 아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들 중 최선을 다한 자라 하더라도 사도가 지적하여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살후 3 : 11)고 한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계수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내에 두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5.150 교역자는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아무도 교회 사역의 영예를 강탈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뇌물을 바친다든가 어떤 속임수를 쓴다든가, 또는 자기 자신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교회의 교역자들은 합법적이고 교회법인 선거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도록 하라. 이를테면 교회나 교역자 선발의 목적을 위하여 교회가 대표로 세운 자들에 의해서 어떤 소동이나 불화나 적대심이 없이 정당한 질서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선택하도록 하라는 말이다. 아무나 선택되어서는 안 되고 헌신적으로 학습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경건한 웅변과 단순한 지혜와 무엇보다도 온건함과 명예스러운 평판으로 출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선택되어야 한다. 즉, 사도(바울)가 디모데 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수립해 놓은 사도적 법칙을 따라서 해야 한다.

5.151 취임식. 선택을 받은 자들은 공개적 기도와 안수를 곁들여 장로들에 의해서 취임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되거나 파송을 받지 못하고, 또는 안수를 받지 못한 자로서 자발적으로 나서는 자들을 모두 우리는 정죄한다(렘 23장). 우리는 적합지 않은 교역자들과 목사로서 필요한 은사를 갖추지 못한 교역자들을 정죄한다.

5.152 초대교회의 어떤 목사들은 단순하면서도 남에게 해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단순성은 다각적이고 세련되고 결벽하고 남들을 배우는 데 좀 너무 심오한 사람들보다 종종 교회에게 더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사람들의 정직한 단순성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무지에서 오는 단순성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5.153 모든 신자의 사제직.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두 '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하나의 직책 때문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출 19 : 6, 벧전 2 : 9, 계 1 : 6). 그러므로 제사직과 교역(ministry)의 직분은 각각 매우 다른 것이다. 제사직은 방금 말한 바와 같이 모든 크리스천이 다같이 가지는 것이며, 교역의 직분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교황의 제사직을 추방했다고 해서 교회의 교역의 직분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

5.154 사제와 사제직. 그리스도의 새 계약 안에서는 옛 사람들의 시대에 있던 것 같은 제사직이 더이상 있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옛날에는 외적인 기름부음, 거룩한 복장, 그리고 아주 많은 의식들이 있었으니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들을 성취하심으로써 그것들을 모두 폐지하셨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친히 영원한 유일의 제사장으로 남아 계시며, 우리가 그를 조금이라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역자에게도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신약 교회에 있어서 제사장들을 임명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즉, 보조 주교로부터 권위를 받아 가지고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희생제물, 곧 주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를 바치는 제사장을 임명한 일이 없고, 단지 성례전을 가르치고 집례할 수 있는 교역자들을 임명하신 것이다.

5.155 신약 교역자들의 본질. 우리가 신약의 혹은 기독교회의 교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성격지어야 하는지를 바울이 단순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여길지니, 곧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니라."(고전 4 : 1)고 했다. 그러므로 그 사도가 우리에게 원한 것은 교역자를 일꾼으로 여기라는 것이다. 그 사도는 그들을 휘페레타스(ύπηρετας), 즉 노젓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눈을 키잡이에다가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살거나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이를테면 그들의 주인을 위해서 살며 주인의 명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각 교역자는 자기의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의 주님이 주신 계명 속에서 받은 것만 수행하고 자기 자신의 자유 선택에 빠져들지 않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주님이 누구인가가 명백히 선포된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교역자들은 교역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종속하는 것이다.

5.156 교역자는 하나님의 사역의 청지기. 그뿐 아니라 그 사도는 교역을 좀 더 충분히 설명할 목적으로 교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의 관리자와 청지기라고 덧붙였다. 이제 많은 구절에서, 특히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역자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것이다. 즉,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복음서 다른 곳에서 우리는 '진실하고 지혜있는 청지기'에 관한 말을 읽는데, "주인에게서 그 집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눅 12 : 42)고 되어 있다. 다시금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 한 사람이 외국으로 여행을 하려 할 때 집을 떠나면서 그의 재산과 거기에 대한 권위를 그의 종들에게 주고 각자에게 그의 일감을 준다고 되어 있다.

5.157 교회 교역자들의 권한.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교회 교역자들의 권한과 의무에 관해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권한에 관해서 어떤 이들은 열심히 논의하며, 땅에 있는 매사를 그 권위에 복종시키고, 최대의 것까지라도 거기에 복종시켰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지배하는 일을 금하셨고 겸손을 크게 권하셨는데(눅 22 : 24 이하, 마 18 : 3-4, 20 : 25 이하), 그들은 이렇게 주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일을 행했다. 실로 순수하고 절대적인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옳음의 권세라고 부른다. 이 권세에 따라 온 세상의 만물이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증언하신 대로인 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마 28 : 18)고 하셨고, 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계 1 : 18)고 했으며, 또한 "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으니 그것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계 3 : 7)고도 하셨다.

5.158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참된 권세를 보유하신다. 주님은 이 권세를 스스로 보유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넘겨 주시지 않는다. 즉, 그의 사역자들이 일하는 동안 구경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사야가 한 말이 있지 않는가?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라."(사 22 : 22), 또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사 9 : 6)고 했다. 즉, 그는 그 정사를 다른 사람의 어깨에 메우지 않

으시며, 자기 자신의 권세를 그대로 지키시고 사용하시며 만물을 지배하신다.

5.159 직무의 권한과 교역자의 권한. 충만하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직분 혹은 사역의 권한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이 권한은 지배라기보다는 봉사에 더 가깝다. 열 쇠, 주인은 자기의 권세를 자기 집 청지기에게 맡겨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에게 열쇠들을 준다. 그리하여 주인이 영접할 사람을 그가 영접하고, 주인이 제거할 사람을 그가 그 집에서 제거해 버린다. 이 권세의 덕택으로 교역자는 그의 직책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을 행한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하는 일을 확인하시고, 그의 종이 한 것이 마치 주께서 친히 하신 것처럼 간주되기를 원하신다. 아래와 같은 복음서의 구절들은 틀림없이 이것을 가리키는 것들이다 :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6 : 19), 그리고 "너희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 20 : 23). 그러나 만일 교역자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매사를 실천하지 않고 믿음의 한계를 범한다면, 주님은 확실히 그가 행한 것을 무효화하신다. 그러므로 교회 교역자들의 교회적 권세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기능을 말하는 것인 바, 그들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그의 말씀에 처방해 주신 대로 하는 것뿐이다. 그 일들을 다 마쳤을 때 신자들은 그것들을 주님이 친히 하신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열쇠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5.160 교역자들의 권한은 하나이며 동일하며 동등하다. 교회에 있는 모든 교직자들에게 유일하고 동등한 권한 혹은 기능을 주셨다. 틀림없이 맨 처음에는 감독들 혹은 장로들이 공동으로 교회를 다스렸다. 즉, 아무도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올려 세우지 않았으며, 그의 동료 감독을 지배하는 더 큰 권한 혹은 권위를 강점한 일이 없다. 그들은 "너희 중에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눅 22 : 26)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서로 섬김으로써 교회를 다스리고 보전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였다.

5.161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역자들 중 어떤 사람이 모임을 소집하고 거기에 문제들을 제기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했다. 간단히 말해서 아무런 혼란도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사람

의 힘이 닿는 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바와 같이 성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이 남보다 낫게 여겨지거나 여타의 사람들보다 더 큰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순교자 키푸리아누스가 그의 「교역자의 단순성」(*De Simplicitate Clericorum*)이라는 책에서 한 말은 옳은 것이었다. 그가 말하기를 : "다른 사람들도 영예와 권세의 교제를 같이 가지는 권한을 받고, 베드로가 지녔던 신분과 꼭 같은 신분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탁월성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통일성에서 유래하였다."고 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세움을 받았는가? 성제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을 주석하는 가운데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악마의 부축임에 의해서 종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애착을 두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교회들이 장로들의 공동적 의론에 의해서 다스려졌다. 그러나 각자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세례를 베푼 자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후에는 장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머지 사람들 위에 두고, 그 사람에게 전체 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지우고, 모든 분열의 씨앗들을 제거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성제롬은 이 법을 신적인 것이라고 추천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가 곧 첨부하여 이렇게 말했다 : "장로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라고 세워진 사람에게 종속한다는 사실을 교회의 풍속을 통하여 알고 있듯이, 감독들은 주님에 의해서 제정된 진리보다는 풍속에 따라서 장로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이 장로들과 더불어 교회를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제롬이 이만큼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옛날 법으로 돌아가는 일과 인간 풍속이 생기기 이전의 법을 의존하는 일을 금한다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으며 또 옳은 일이 아니다. 5.162

교역자들의 의무. 교역자들의 의무는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을 두 가지로 제한할 수 있는 바, 그 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며, 또 하나는 성례전을 바르게 집례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하나의 무리를 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모든 교리를 교회 돌보는 일과 교회의 용도에 적용함으로써 그 가르친 바가 듣는 자들의 이익이 되게 하고, 신자들을 육성하는 것이 교역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일과, 게으른 자들과 방황자들을 강권하여 주께로 가는 길에 발전이 5.163

있도록 하는 일이 교역자들에게 맡겨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마음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주어야 하고, 사단의 갖가지 유혹에 대항하도록 그들을 무장시키는 일과 범법자들을 책망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을 제 길로 회복시키고,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반대자들을 설득하며 주님의 양우리로부터 이리를 몰아내고, 악과 악인들을 슬기롭게 그리고 가차없이 책망하고, 큰 악에 추파를 던지거나 그것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성례전을 집례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장려하고, 건전한 교리로써 모든 사람을 가르쳐 성례전을 받는 준비를 시키고, 신자들을 하나의 거룩한 통일체로 보전하며, 분열을 저지하고, 무식한 자들을 학습시키고, 가난한 자의 궁핍을 교회에 의탁하고, 병자와 갖가지 유혹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방문하고, 삶의 길을 꾸준히 가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교역자들은 곤란한 때마다 공적 기도회나 간구회에 참석하고, 공동금식회 즉 거룩한 금욕행사에도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부지런히 교회들의 고요함, 화평, 안녕과 관계되는 일마다 돌보아야 한다.

5.164 그리고 교역자가 이 모든 것을 더 잘 수행하고 더 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신령한 독서에 열심을 내며 만사에, 그리고 언제나 경성하고 생활을 순결하게 가짐으로써 자신의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이 특히 요구된다.

5.165 권 징. 그리고 권징이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초대 교부 시대에는 한때 출교제도가 사용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교회재판이 있었으며, 그 재판에서 현명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 권징을 행사하였다. 그러니까 시대의 환경과 일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신도를 위한 이 권징을 규정하는 일이 또한 교역자들의 일감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양육을 위해서 매사 품위있게, 그리고 명예롭게 탄압이나 분쟁이 없이 행해져야 한다는 법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가 증언하기를 교회에 있어서의 권위는 주님이 그에게 주신 것으로서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을 위해서라고 하였다(고후 10 : 8). 그리고 주님은 친히 주님의 밭에서 잡초를 뽑아 버리는 일을 금하셨다. 그것은 잡초와 함께 밀까지도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마 13 : 29-30).

5.166 악한 교역자의 말이라도 들어야 한다.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은 교역자의 생활이 악하냐 선하냐에 따라서 성례전의 교리와 집례가 유효할 수도 있고 무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심히 역겨워한

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음성은 비록 악한 교역자의 입에서 나오더라도 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마 23 : 3)고 하시지 않았는가? 성례전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심과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무가치한 교역자들에 의해서 집례될지라도 경건한 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종 어거스틴이 여러 번 성경을 들어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을 논박했다.

5.167 **대 회**(Synods). 그러나 교역자들 사이에 적절한 권징이 있어야만 한다. 대회에서 교역자들의 교리와 생활이 주의 깊게 점검되어야 한다. 치유될 수 있는 범법자들은 장로들에 의해서 견책을 받고 옳은 길로 되돌려져야 하며, 만일 치유가 불가능할 때에는 마치 참된 목자들이 이리들을 주인의 양무리로부터 쫓아 버리듯이 물러나게 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거짓 교사들일 경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세계대회들(ecumenical councils)이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소집되는 경우, 그리고 교회의 파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녕을 위한 모임이라면 우리는 그 대회들을 반대하지 않는다.

5.168 **일꾼은 보수를 받아 마땅하다.** 성실한 교역자들은 모두 선한 일꾼들처럼 보수를 받아 마땅하며, 봉급을 받고 자신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전서 9장과 디모데 전서 5장과 또 다른 곳에서 사도가 보여 주기를, 이것들은 의당 교회에 의해서 지급되고 교역자들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사역으로써 벌어 먹는 교역자들을 정죄하고 중상하는 재세례파 사람들도 그 사도적 교훈에 의해서 논박을 받는다.

제 19 장 그리스도 교회의 성례전에 관하여

5.169 **말씀에 첨가된 성례전.** 그들은 어떤 것들인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게 그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다가 성례전들 혹은 성례전적 표징들을 첨가하셨다. 온 성경이 이것을 명백하게 증언해 준다. 성례전은 신비스러운 상징들 혹은 거룩한 의식들 또 혹은 거룩한 행동들인 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것이며, 그의 말씀과 표징들과 상징된 물건들로써 구성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

신바 그 위대한 혜택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때때로 그것을 회상하게 한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약속을 인치시고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며, 이를테면 그가 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수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 내 보이시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증가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하나님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를 다른 모든 사람과 종교로부터 구별하시며, 우리를 성별하여 전적으로 그에게 결속시키며,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신다.

5.170 어떤 성례전은 구약의 것이고 어떤 것은 신약의 것이다. 어떤 성례전들은 낡은 백성의 것이고 어떤 것은 새 백성의 것이다. 옛 백성의 성례전은 하례와 제물로 바쳐진 유월절 양이었다.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세상 처음부터 실시되었던 희생제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5.171 새 백성의 성례전의 수효. 새 백성의 성례전은 세례와 주님의 만찬이다. 새 백성의 성례전을 일곱 가지로 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들 중에서 우리는 고해, 교역자의 안수(물론 교황청의 안수가 아니고 사도적 안수를 가리킨다.), 그리고 혼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로서 유익하기는 하지만 성례전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견신례와 임종도유식(종부성사)은 인간이 창안한 것으로서, 교회가 폐지하더라도 아무런 손실이 없는 것들이며, 실로 우리 교회에는 그 예식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성례전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황주의자들이 벌리는 모든 상행위를 우리는 몹시 싫어한다.

5.172 성례전의 창시자. 모든 성례전의 창시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분이시다. 사람들은 성례전을 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례전은 하나님 예배에 관련된 것이며,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 예배를 지정하고 규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수락하여 보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상징들은 성례전에다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첨부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러니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혹은 편지와 같으며, 성례전은 봉인(seals)과 같은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봉인을 편지에 추가하신다.

5.173 그리스도는 아직도 성례전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성례전들의 창시자이신 것처럼 그는 또한 성례전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신다. 그래서 신자들이 교역자들에게서 세례와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의식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며, 따라서 그들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의 잘못은(비록 그것이 매우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성례전의 완전성은 주님이 그것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에 의거한다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5.174 성례전의 창시자와 교역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례전 집행에 있어서 신도들은 또한 주님 자신과 주님의 사역자들을 명백히 구별하며, 성례전의 실체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외적인 표징들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준다고 고백한다.

5.175 성례전의 실체 혹은 요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성례전에서 약속하시는 주요한 것,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경건한 자들이 그들의 주의를 쏟는 주요한 것은〈어떤 이들은 그것을 성례전의 실체와 질료(質料)라고 부른다.〉 구주이신 그리스도, 즉 유일하신 희생제물과 창세 때부터 도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조상들에게 물을 준 반석, 손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모든 선민에게 할례를 주고, 그들의 모든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참몸과 피로 양육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반석이다.

5.176 옛 백성의 성례전과 새 백성의 성례전의 유사성과 차이. 이제 성례전에 있어서 주요한 사물 자체를 두고 생각할 때, 양 백성의 성례전은 동등하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그 두 백성의 성례전의 주요 사물이요, 바로 그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한 하나님이 그들 두 백성의 성례전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의 표와 확인으로서 그 백성에게 주어졌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혜택들에 대한 기억을 마음에 되새기고 새롭게 하며, 신자들을 세상의 모든 종교들로부터 구별지으며, 끝으로 믿음으로 신령하게 수락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들을 받는 자들을 교회에 결속시키고 그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슷한 점에서 볼 때 양 백성의 성례전들은 외적인 표징들에 있어서는 다를지라도 서로 닮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그리고 외적 표징들을 두고 말할 때 우리는 큰 차이를 발견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들은 세상끝까지 결코 변하지 않을 것들인 만큼 더 확고하고 영구적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것들은 그 실체와 약속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혹은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증한다. 반면에 옛 성례전들은 성취되어야 할 것

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의 것들은 또한 보다 단순하고, 보다 덜 성가시고, 의식에 있어서 보다 덜 호화스럽고 덜 복잡하다. 게다가 그것들은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속하며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더 우월하며 성령에 의해서 보다 더 큰 신앙을 일으키고, 또한 더 풍성하게 성령을 체험하게 한다.

5.177 우리의 성례전들은 폐지된 낡은 성례전들을 계승한다. 그러나 이제 참 메시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은혜가 신약 백성에게 풍성하게 부어졌으니, 그 낡은 백성의 성례전들은 폐지되고 정지된 것이 확실하며, 그 대신에 신약의 상징들로 대치되었다. 즉, 할례 대신 세례가, 유월절 양과 희생제사 대신에 주님의 만찬이 자리를 잡았다.

5.178 성례전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옛날에는 성례전이 말씀과 표징과 상징된 사물로 구성되었듯이, 지금도 그것들은 예전과 같이 동일한 부분들로 구성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 성례전이 아니었던 것들을 성례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성례전의 설명, 왜냐하면 성례전들은 말씀에 의해서 성별되며, 그것들을 제정하신 이에 의해서 성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거나 봉헌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거룩한 용도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통의 일상적 용도에 사용되던 것을 가져다가 거룩한 용도에 쓰도록 지목한다. 성례전에 있어서의 표징들은 일반 용도, 곧 외적이고 가견적 사물들로부터 끌어온 것들이다. 세례에 있어서 그 표징은 물이라는 요소이며, 교역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가견적인 씻음이다. 그러나 상징되는 사물은 곧 중생과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일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에 있어서 외적인 표징은 빵과 포도주인 바, 고기와 음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 중에서 취한 것이다. 그러나 상징되는 사물은 우리을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의 피이며, 혹은 주님의 몸과 피의 친교이다. 그러므로 물, 빵, 포도주는 그것들의 본성으로 볼 때, 그리고 신적으로 제정되었다든가 거룩한 용도에 사용된다는 것을 떠나서 볼 때, 이름 그대로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물건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에게 첨가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원이 수반되고 그들의 첫 번 제정과 성별을 다시 되풀이할 때, 이 표징들은 성별되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성례전을 제정하시고 성별하신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언제나 그대로 유효하며, 따라서 주님이 친히 처음부터 제정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례전

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첫 번째의, 그리고 최고의 성별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례전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바로 그 말씀이 되풀이된다.

5.179 표징들은 상징되는 사물들의 이름을 지닌다. 그리고 이 표징들은 일반 용도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며, 그것들은 이제 거룩한 용도에 사용되면서 상징되는 사물들의 이름을 지닌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더이상 단순히 물이라든가 빵이라든가 포도주라고만 불리지 않고, 중생이라든가 물로 씻음이라든가 주님의 몸과 피 혹은 주님의 몸과 피의 상징 재생이라고 우리는 가르친다. 그것은 상징들이 변하여 그것들이 상징하는 그 사물들이 된다든가 그것들 자체의 본질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들은 상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것들이 단순히 상징되는 그 사물에 불과하다면 그것들을 표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180 성례전적 합일. 성례전의 표징들은 거룩한 사물들의 신비한 표들이고, 그 표징들과 그것들로서 상징된 사물들은 성례전적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표징들은 사물들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그것들이 연결 혹은 통합된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표의(表意)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례전을 제정하신 분의 목적 혹은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물과 빵과 포도주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표징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례에 있어서의 물은 신도들이 세례의 물로써 단순히 뿌림을 받도록 하려는 뜻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 제정자가 그것을 제정하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찬에 있어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도록 명령하신 분은 신도들이 자기들의 집에서 빵을 먹는 것처럼 아무런 신비성도 없이 그냥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들이 상징하는 사물에 영적으로 동참할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부터 참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는 것을 원하신다.

5.181 분파들. 그러므로 성례전의 성화를 성별된 사람이나 성별의 의사를 가진 자에 의해서 선언된 어떤 알 수 없는 특성과 법칙 혹은 말의 권세에 돌리고, 또는 그리스도도 사도들도 말씀이나 실례로써 우리에게 전해 준 일이 없는 다른 우연적인 사물에다 돌리는 자들을 우리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성례전을 단순한 보통 표징들이라고 말하며, 성화되고 효과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성례전의

불가견성을 강조하면서 그 가견적인 면을 무시하고, 따라서 메쌀리안(Messalians)파가 주장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물 자체를 이미 즐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표징들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5.182 상징된 사물은 그 성찬에 내포되거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와 상징된 사물들은 표징들 속에 매여 있고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적으로 그 표징들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내적으로도 그 은혜와 상징된 사물에 동참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5.183 그러나 우리가 교역자들의 가치성 혹은 무가치성에 의해서 성례전의 가치를 추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을 받는 자들의 상태에 의해서 그것을 추정하는 일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례전의 가치는 믿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진실성과 순수한 선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남아 있으며, 그것이 설교될 때 그 말씀 안에서는 단순한 말만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말씀 안에서 상징되거나 선포된 사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시된다. 비록 불경건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듣고 이해는 하면서도 상징된 사물들을 즐기지는 못한다 해도 말이다. 그와 같이 말씀에 의해서 표징들과 상징된 사물로 구성된 성례전도 참되고 신성한 성례전으로 그냥 남아서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제시된 사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신성한 사물들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심으로 인해서 상징된 사물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시된 것들을 사람들이 받지 않는 것은 그것들을 주시고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믿음없이 위법적으로 그것들을 받는 인간의 잘못이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성실성을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롬 3 : 3-4).

5.184 성례전 제정의 목적. 성례전이 제정된 목적은 우리의 해설을 시작하는 벽두에 성례전이 무엇이냐를 보여 주며 지나가면서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한번 말한 것을 반복함으로 지리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는 새 백성의 성례전을 몇 가지로 설명하기로 한다.

제20장 거룩한 세례

세례 제정. 세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성별하셨다. 맨 먼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요단강 물 속에 담갔다. 세례는 그로부터 사도들에게로 내려왔고 그들 역시 물로써 세례를 주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명백하게 명령하셨다(마 28 : 19).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를 묻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행 2 : 37-38)고 말했다.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께 성별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입문(入門)의 표라고 한다. 5.185

세례는 하나. 하나님의 교회에 세례는 오직 하나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오직 한번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한번 받은 세례는 평생 계속되며, 우리가 양자된 것에 대한 항구적인 확인(確印)이기 때문이다. 5.186

세례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계약과 가족의 명단에 오르고 그리로 들어가고 영접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업에 영입(迎入)되는 것이다. 그렇다, 그리고 이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닮은 이름을 가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다. 또한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씻음을 받는 것, 하나님의 다양한 은총을 받는 것, 그리하여 하나의 새롭고 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썩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위대한 은총을 상기하고 새롭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오염 속에서 나고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비가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값없이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입양하여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거룩한 계약에 의하여 우리를 자신에게 연결시키시며, 다양한 선물로써 우리를 부요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도록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세례에 의하여 확인된다. 왜냐하면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순결해지며 새로워지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물 속에서 그 최대의 선물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또한 세례로서 그 위대한 혜택들이 대표된다. 즉,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5.187

우리는 물로써 세례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물로써 세례를 5.188

받는다. 즉, 씻김을 받거나 뿌림을 받는다. 왜냐하면 물은 때를 씻어 버리고 덥고 피곤한 신체를 식히고 신선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혼을 위해서 이 일들을 수행하는 데 그것을 불가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행한다.

5.189 세례받는 자의 책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세례의 상징에 의해서 우리를 모든 낯선 종교와 백성으로부터 분리시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신에게로 성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하고 육신을 죽이고 삶을 새롭게 할 책임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세상과 사단과 우리 자신의 육신을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병역(兵役)에 징집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세례를 받아 교회의 하나의 몸에 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회의 모든 체제들과 더불어 하나의 종교와 상호적 봉사에 아름답게 협동하려는 것이다.

5.190 세례의 형식. 세례의 가장 완전한 형식은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형식과 사도들이 세례를 베푼 그 형식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고안에 의해서 후대에 첨가되어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세례를 완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중에는 축마(逐魔)의식, 타는 불, 기름, 소금, 침을 사용하는 일, 기타 많은 의식을 곁들여, 매해 두 번씩 세례식을 거행한다는 따위의 일이 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세례가 하나님의 첫 번 제정에 있어서 성별되었다고 믿으며,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성별되었으며, 하나님의 그 첫 축복의 덕으로 그것이 오늘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5.191 세례집례자. 우리는 교회에서 여자나 산파가 세례를 집례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인에게서 교회적 의무를 박탈하였고, 세례는 이것들과 상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5.192 재세례파. 우리는 재세례파를 정죄한다. 그들은 신자들의 갓난 아기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복음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영아)들의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계약 안에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의 계약의 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어째서 거룩한 세례에 의해서 입회(入會)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 재세례파 사람들과 그밖에도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들 나름의 특이한 여러 교리들을 주장하는데, 그 점에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한다. 그러

므로 우리는 재세례파가 아니며 그들과 공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21장 주님의 거룩한 만찬에 관하여

주님의 만찬.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주님의 식탁 또는 유카리스트, 즉 감사 드리기라고도 불린다.)은 보통 하나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지막 만찬에서 그 자신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아직도 그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만찬에서 신도들이 영적으로 양식과 음료를 얻기 때문이다. 5.193

성만찬의 창시자와 성별자(聖別者). 주님의 만찬의 창시자는 천사나 어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처음으로 그것을 자기의 교회를 위하여 성별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 성별과 축복은 주께서 제정하신 바로 그 만찬, 그리고 주의 만찬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만찬,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신앙에 의하여 그 한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만찬을 행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이것들을 받는데, 이를테면 교회의 교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5.194

하나님의 혜택의 기념. 이 거룩한 의식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죽을 인간에게 보여 주신 그 최대의 혜택, 즉 그의 몸을 주시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죽음과 악마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은 그의 살로써 우리를 먹이시고 그의 피를 음료로 주시고, 참신앙으로 신령하게 받으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는 그 혜택을 신선하게 기억하는 일이다. 그리고 주의 만찬이 행해질 때마다 그 위대한 혜택이 소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만찬은 또한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고 그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 확증하고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5.195

표징과 상징된 것. 성만찬은 교역자들을 통하여 외형적으로 이 성례전에 의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말하자면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제시되는 것인 바, 내적으로는 영혼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가시적으로 역사되는 것이다. 교역자가 가시적으로 빵을 내주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받아서 너희가 다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나 5.196

의 피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님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받으며 주님의 빵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신다. 동시에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은 또한 내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며 그것으로 자양분을 얻어 영생에 이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참양식이며 음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우리의 구주이신지라, 그 만찬에 있어서 그가 바로 근본 요소이며 그 자리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5.197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떻게 신자들의 양식과 음료이며 어떻게 신자들이 그것들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를 더 잘,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더 첨가하려고 한다. 먹는 일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물질적으로 먹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음식을 입에다 넣고 이로 씹고 삼켜서 배로 넣는 일이다. 과거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의 살을 이런 식으로 먹어야 하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 그들은 주님에 의해서 공박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을 물질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악명(惡名)과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찬은 배를 위한 양식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황의 칙령 중에 '나 베렌가리우스'라는 법규(성별에 관하여, 제2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건한 옛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몸을 물질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 입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5.198 주님을 영적으로 먹는 일.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는 일도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 자체가 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과 피가 그것들 자체의 본질과 성질대로 남아 있으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물질적인 방도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도로 되는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위한 주의 몸과 피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들, 즉 사죄, 구출, 영생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부여하신다. 그리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그 안에 산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믿음을 가지고 그를 받아들이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결국 그가 우리를 위한 영적 양식과 음료, 즉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다.

5.199 우리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 속에 붙드신다. 육체적 양식

과 음료가 우리의 몸을 신선케 하고 힘을 줄 뿐 아니라 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육체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신선케 하고 힘을 줄 뿐 아니라 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그것들을 먹고 마심으로써가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이다 :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요 6 : 51), 그리고 "육(즉 육적으로 먹는 것)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요 6 : 63),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 음식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음을 통하여 음식을 우리 몸속에 받아들여야만 하고, 우리 속에서 그것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음식이 우리 몸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가 우리의 것이 되고, 또 그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 : 35), 그리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요 6 : 56-57)고 하셨다. 5.200

영적 양식.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명백해지는 것은, 신령한 양식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공상적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 자체, 즉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신자들이 믿음에 의하여 영적으로 받는 그 몸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근거하여 구주 자신, 즉 그리스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5.201

먹는 일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렇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으로서, 그것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먹음과 마심은 또한 주님의 만찬을 떠나서도 생기며,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일어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어거스틴의 글귀가 적용될 것이다 : "어째서 너는 너의 이(齒)와 위(胃)를 위해서 공급하는가?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이미 먹었느니라." 5.202

주님을 성례전적으로 먹음. 보다 고등한 영적 먹음 외에 또한 주님의 5.203

몸을 성례전적으로 먹는 일이 있다. 거기서 신자가 영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주님의 참몸과 피에 정말로 동참할 뿐 아니라 주님의 식탁에 나옴으로써 외적으로도 주님의 몸과 피의 가견적 성찬을 받는 것이다. 신자가 믿었을 때 그는 먼저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받았으며 아직도 그것을 즐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가 성찬을 받을 때, 그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몸과 피 안에서 교통을 계속하는 중에 발전하며, 따라서 그의 믿음은 점점 더 불이 붙고 자라며, 영적 양식에 의하여 쇄신(刷新)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은 믿음이 계속해서 증가된다. 그리고 참신앙으로써 성찬을 외적으로 받는 사람은 그 표징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상징되는 사물 자체를 즐긴다. 그뿐 아니라 그는 주님의 그 제도와 계명을 복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구속과 또 온 인류의 구속을 감사하고, 자기가 그 몸의 한 지체로 속해 있는 교회 앞에서 증언을 한다. 또한 성찬을 받는 자들에게는 주의 몸을 주시고 그의 피를 흘리신 것이 사람 일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특히 신실한 수찬자(受餐者) 각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그에게 영생의 양식과 음료라는 확신이 주어진다.

5.204 불신자는 성찬을 먹음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믿음없이 주님의 이 거룩한 식탁에 나오는 사람은 단지 성찬을 받을 뿐 생명과 구원을 주는 성찬의 실체는 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식탁을 무가치하게 먹는 것이다. 누구든지 무가치한 방식으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을 것이며,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신다(고전 11 : 26-29). 왜냐하면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수치스럽게 하며, 따라서 자신에게 임할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5.205 만찬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빵 자체가 성례전적 방식 이외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든가, 그리스도의 몸이 물질적으로 그 빵 아래 숨겨져 있어서 빵의 모양 그대로 그것이 예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든가, 그 표징을 받는 사람은 또한 그 사물 자체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의 몸과 피를 그 빵과 포도주에다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서 성부의 우편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높은 곳으로 들려 올라가야 하며, 그 빵에다가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빵 안에서 주님이 예배를 받아서도 안 된다. 교회가 성찬식을 행할 때 주께서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태양은 우리

에게서 떠나 하늘에 있지만 효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 그렇다면 의(義)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는 비록 몸으로는 우리를 떠나 하늘에 계실지라도 얼마나 더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겠는가! 그것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그의 생생한 작동에 의해서 되는 일이며,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겠노라고 그의 마지막 만찬 때 친히 설명해 주신 대로이다 (요 14장, 15장, 16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성찬식을 가지지 않으며 동시에 보편적으로 옛 사람들이 부른 대로 하나의 피투성이가 아닌 신비한 만찬을 가지는 것이 된다.

5.206 주의 만찬의 다른 목적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체가 된바 그 몸을 잊지 말 것과 따라서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한마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악하고 괴이한 종교들로써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참된 신앙을 견지하고, 삶의 거룩함에 있어서 뛰어나려고 힘쓰라는 권고를 받는다.

5.207 성만찬을 위한 준비. 그러므로 우리가 만찬식에 나올 때 먼저 사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검토하는 일, 특히 우리가 가진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지, 또는 각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출되고 구원된 자들의 수에 들어 있다는 것을 믿는지, 또는 그가 자기의 악한 생활을 변하여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종교와 형제들과의 조화를 견지하고, 그가 구출된 데 대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리려고 결심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5.208 빵과 포도주 이 둘을 다 가지고 성찬식을 행할 것.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행하는 성찬예식의 방식 혹은 형식이 주님의 맨 처음 제도와 사도의 교리에 가장 가깝게 가는 가장 단순하고도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경건한 기도, 주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일, 즉 주님 자신의 행동과 그것의 반복으로써 구성된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일과 신실하게 감사드리는 일과 또는 교회의 몸의 통일 안에서 거룩하게 교제하는 일로써 구성된다.

5.209 그러므로 신도들에게 성찬의 한 부분, 즉 주님의 잔을 금하는 자들을 우리는 옳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희는 다 이것을 마셔라." 고 하신 주님의 제도를 몹시 어기고 있으며, 빵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5.210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선조들 간에 어떤 종류의 미사가 존재했는지, 그것

이 용납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토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온 로마 교회가 사용하는 미사는, 우리가 지금 간단히 줄이기 위해서 그 여러 이유들을 열거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의 그리고 매우 훌륭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폐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건전한 행동을 하나의 공허한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공로를 쌓는 수단을 삼고, 값을 받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 것을 승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또한 미사에 있어서 신부는 주님의 몸 자체를 좌우하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사죄를 위하여, 게다가 하늘에 있는 성자들의 영예와 존경과 기념을 위해서 실지로 주의 몸을 드린다는 말 따위를 우리는 승인할 수 없었다.

제22장 종교적, 교회적 화합에 관하여

5.211 예배를 위한 모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사사롭게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것과 참된 종교 안에서 가르치며 서로 교화(敎化)하는 것은 허락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적절히 선포되고 기도와 간구가 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와 교회의 경상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 혹은 교회적 회합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도적 원시 교회에 있어서는 모든 경건한 자들이 그와 같은 모임을 자주 가졌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5.212 예배를 위한 모임을 등한히 하지 말 것. 그런 모임들을 뿌리치고 멀리하는 사람마다 참종교를 멀리한다. 목사들이나 경건한 행정관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모임에 고집스럽게 결석하는 일을 삼가도록 강하게 권면해야 한다.

5.213 집회는 공개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수들의 박해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이는 일이 허락되지 않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이상 교회 모임은 비밀히 하거나 숨어서 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이어야 하고 잘 참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의 학정 밑에서 원시 교회의 집회들이 어떻게 비밀장소에서 행해졌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5.214 품위있는 집회장소. 그뿐 아니라 신도들이 만나는 장소는 품위가 있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므로 넓직한

건물 혹은 전당을 택해야 하며 교회에 합당치 않은 것은 다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것과 교회의 필수 사역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단정하게, 그리고 경건하고 품위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집회에는 정숙함과 겸손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사용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예배를 위해서 봉헌된 장소가 속되지 않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과 그 장소에 출석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 스스로 경건하고 얌전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215

성소의 참된 장식. 그러므로 모든 사치스러운 차림, 모든 자존심, 그리고 기독교적 겸손, 훈련, 조출함 등에 걸맞지 않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소와 기도처에서 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참된 장식은 상, 금, 그리고 보석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의 겸소함, 경건, 그리고 덕성으로써 구성된다.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점잖게 그리고 질서있게 행해지도록 하라. 그리고 끝으로 모든 것이 육성(育成, edification)을 의해서 행해지도록 하라. 5.216

통용언어로 예배할 것. 그러므로 예배를 위한 모임에서는 모든 낯선 언어는 침묵을 지키라. 그리고 모든 것이 그곳에 모인 백성이 이해하는 통용언어로써 발표되도록 하라. 5.217

제23장 교회의 기도, 노래, 그리고 정기 기도시간에 관하여

통용언어.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써 사사롭게 기도하도록 허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배를 위한 모임에서의 공중(公衆)기도는 모두가 아는 통용언어로 드려야 하는 법이다. **기도.** 신자들의 모든 기도는 믿음과 사랑에서 나와야 하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 놓아야 한다.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참종교는 하늘에 있는 성자들을 부르는 기원이나 그들을 중보로 사용하는 일을 금한다. 기도는 치안관, 왕, 그리고 권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과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모든 필요한 사항들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 재난을 당할 때 특히 교회가 재난을 당할 때 사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부단히 기도를 드려야 한다. 5.218

자유기도. 그뿐 아니라 기도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또는 어떤 보상 5.219

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또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미신적으로 국한된 한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공중기도가 형식과 시간에 있어서 모든 교회에서 꼭 같아야 할 필요도 없다. 각 교회가 자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그의 역사책에서 말하기를 "세상 모든 지역에서 기도가 전적으로 같은 두 개의 교회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교회사」 제22권 57)라고 했다. 이 차이를 만들어 낸 자들은 내 생각에, 특정 시대에 교회들을 책임맡고 있던 자들이다. 그래도 만일 그들이 합치한다면 그것은 높이 추천할 만한 것이며 남들이 모방할 만한 것이다.

5.220 **공중기도에 있어서 취해야 할 방법.** 무슨 일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공중기도에 있어서도 그것들이 과하게 길거나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표준이 있어야 한다. 예배를 위한 집회의 제일 많은 부분은 복음적 가르침에 할애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무 긴 기도로 인해서 회중이 싫증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회중이 복음 설교를 들어야 할 때 그 모임을 떠나가거나 기진맥진하여 그 모임을 아예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만하면 간단한 설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길어 보인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하나의 표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5.221 **노래부르기.** 예배모임에서 노래부르기가 실시되는 경우 역시 절제를 가져야 한다. 소위 '그레고리안 찬트'(Gregorian Chant)라고 하는 노래는 그 속에 어리석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교회가 그것을 거부한 것은 잘한 일이다. 만일 참되고 적절한 설교[9]가 있고 노래부르는 일이 없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노래부름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옛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잘 알려진 대로 노래부르는 풍속이 동방 교회에서는 매우 오래되었고, 그것이 서방에서 마침내 수용된 것은 뒤늦게 된 일이다.

5.222 **정기 기도시간.** 옛 사람들은 정기 기도시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즉 하루의 어떤 시간들을 기도시간으로 배정하여 교황주의자들이 그것들을 노래로 부르고 혹은 암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무일과표(聖務

---

9. 라틴어로는 orationem이며 그것을 '기도'라고 번역하였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아 통상적이고 고전적인 의미로 "speech"(연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日課表)와 많은 논쟁들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 역시 적지 않은 모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교회들이 그 대신 하나님의 전교회에게 유익한 것들을 대치하고 그것들을 생략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제24장 성일, 금식, 음식의 선택에 관하여

예배에 필요한 시간. 종교가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배열하는 일이 없이는 종교가 계발되거나 실천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각 교회는 자체를 위해서 공중기도를 위한 시간, 복음 선포를 위한 시간, 성례전 집행을 위한 시간을 선정한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교회가 정한 것을 엎어 버리는 일은 허용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의심할 나위도 없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사무를 위해서 종교를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5.223

주 일. 그래서 우리는 고대 교회들이 한 주간에 어떤 시간들을 모임을 위하여 지정했을 뿐 아니라, 사도 시대 이래 주일 자체도 그들을 위해, 그리고 거룩한 휴식을 위해서 떼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예배와 사랑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의해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처사이다. 5.224

미 신.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유대인의 관습과 미신에 양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믿지 않으며, 그 날에 쉬는 것이 하나님께 열납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데, 그것은 하나의 자유선택에 의한 준수이다. 5.225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축제. 그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자유에 의해서 교회들이 주님의 나심, 할례, 수난, 부활, 승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일 등을 기념하여 종교적인 축하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높이 인정한다. 그러나 사람들과 성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축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거룩한 날들은 율법의 첫째 돌비와 관계되는 것이며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끝으로 성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성일들, 즉 우리가 지키지 않는 성일들은 불합리하고 소용없는 것이 많이 들어 있으며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성자들에 대한 기념은 적당한 때와 장소에서 설교 가운데 백성들에게 장려해야 하며 그것은 유익한 것이라고 우 5.226

리는 고백한다. 그리고 성자들의 거룩한 본을 내보여서 모두가 모방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본다.

5.227 **금 식.**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폭식(暴食), 술취함, 그리고 온갖 종류의 탐욕과 방종을 심각하게 정죄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기독교적 금식을 우리에게 권장한다. 왜냐하면 금식은 경건한 자들의 금욕과 절제에 불과하며, 잠시 동안 필요에 의해서 행하는 육신적 훈련이며, 심로(心勞)이며, 매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며, 육체에게서 연료를 박탈함으로써 보다 더 기꺼이, 그리고 쉽게 영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게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만일 그들이 하루에 한번이라도 배를 채운다면 금식을 한고, 어떤 시간 혹은 처방된 시간에만 어떤 음식을 제한하면서 금식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언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한다. 금식은 성도들의 기도와 모든 덕을 위해서 하나의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책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악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금하는 유대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5.228 **공공한 금식과 사사로운 금식.** 공개적 금식과 사사로운 금식이 있다. 옛날에는 재난이 있을 때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공적인 금식을 행했다. 저녁까지 전혀 음식을 금하고 거룩한 기도와 하나님 예배와 참회로 모든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애도하는 일과 별로 다름이 없으며 예언서에, 그리고 특히 요엘 2장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 교회가 곤란을 겪을 때는 지금도 그런 금식이 행해져야 한다.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낄 때에는 사사롭게 금식을 한다. 왜냐하면 각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육신을 그것의 연료(燃料)로부터 격리시킨다.

5.229 **금식의 특징.** 모든 금식은 자유롭고 자의적인 정신과 순전한 겸손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사람들의 갈채나 총애를 얻고자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식을 공로로 해서 의를 얻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 사람이 금식하는 목적은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육신으로부터 연료를 박탈하려는 것이다.

5.230 **사순절.** 사순절 금식은 옛날부터 있던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사도들의 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도들에게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다. 옛날에는 금식의 다양한 형식과 습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가장 오랜 작가 이레네우스가 말하기를 "어떤 사

람은 금식을 하루만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틀, 어떤 사람은 더 오래, 또 어떤 사람은 40일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금식에 대한 다양성은 우리 시대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처음부터 전해진 것을 단순하게 지키지 않고 오히려 후에 태만이거나 혹은 무지 때문에 어떤 다른 습관에 빠진 자들에 의해서 우리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단편록」 3, Stieren의 편집, I. 824 이하)고 했다. 그뿐 아니라 역사가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 옛 기사를 조금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사도들이 이것을 각자의 판단에 맡겨 각각 두려움이나 강요당함이 없이 좋을 대로 하게 한 것이다."(「교회사」 22권, 40)고 했다.

5.231 음식의 선택. 이제 음식의 선택에 관해서는 금식에 있어서 육신을 건방지게 만드는 음식, 육신을 매우 즐겁게 하는 음식, 물고기나 수육이나 양념이나 진미나 고급 포도주 등 욕정을 자극하는 것 따위를 모두 입에 대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인간들의 사용과 인간을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며, 아무것도 차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적절한 절제하에 사용되어야 한다(창 2 : 15-16). 사도가 말하기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딛 1 : 15)고 했으며, 또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고전 10 : 25)고 했다. 같은 사도가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의 교리를 가리켜 '악마의 가르침'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딤전 4 : 1 이하)는 것이다. 같은 사도가 골로새서에서는 과도한 금욕으로 거룩하다는 평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책망했다(골 2 : 18 이하).

5.232 분파들. 그러므로 타티안(Tatian)과 엥크라티테스(Encratites)파 사람들과 유스타티우스(Eustathius)의 모든 제자들, 즉 강그리안(Gangrian) 대회가 소집되어 반대한 그들을 우리는 전적으로 옳지 않게 여긴다.

제 25 장 학습에 관해서, 환자를 위로하고 심방하는 일에 관해서

5.233 젊은이들을 경건하게 훈육할 것. 주님은 젊은이들을 어린아이 때부터

적절하게 훈육하도록 최대의 배려를 기울이라고 그의 옛 백성에게 당부하셨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가르칠 것과 성례전의 비의를 설명해 주도록 그의 율법 속에 명백히 명령을 내리셨다. 이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막 10 : 14)고 공공연히 증거하여 말씀하실 때, 그의 새 백성에 대해서 가지신 관심이 옛 백성에 대한 것보다 적지 않았다는 것이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들의 글을 통하여 잘 알려졌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들이 젊은이들을 어려서부터 주의 깊게 학습시키며 믿음의 첫 기초를 놓고 십계명,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례전의 교리, 기타 우리 종교의 원리와 주요 강령들을 해설해 줌으로써 우리의 기본 요소들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다. 여기서 교회는 자녀들을 학습시키는 일에 믿음과 열심을 보이고, 자녀들이 잘 훈육받도록 하는 것을 바라고 또 기뻐하여야 한다.

5.234 환자 심방. 사람들이 연약해서 애를 먹고 영과 육의 질병으로 앓고 연약해질 때는 어느 때보다도 무서운 유혹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들이 그러한 질병과 허약한 상태에 있는 양떼의 안녕을 위해서 더 주의 깊게 돌보는 것 이상 적절한 일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환자들을 곧 방문하고 환경이 요구한다면 좋은 때에 환자로 하여금 목사들을 찾아오도록 하라. 목사들은 환자를 위로하고 참된 신앙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지고 사단의 위험한 제안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 주라. 목사들은 집에서 환자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며 필요하다면 공개적인 모임에서도 환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들이 행복하게 이생을 떠나도록 돌보아야 한다. 교황주의자들은 환자를 방문하여 임종도유식(臨終塗油式)을 행하는데, 그것은 불합리하고 정경이 승인하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위에서 말한 바가 있다.

제26장 신자의 매장에 관하여, 죽은 자들을 위한 배려에 관하여 : 연옥과 영들의 나타남에 관하여

5.235 신체의 매장. 신자들의 몸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우리는 참으로 믿으며, 그것들은 성령의 전(殿)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미신스럽지 않고 영예롭게 땅에 묻히도록 하라고 성경은 명령한다.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이미 잠든 성도들을 영예롭게 언급할 것과 죽은 자들의 유족, 그들의 미

망인과 자녀들에게 가족적 경건의 모든 의무를 보이라고 명령한다. 우리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 이상의 또 다른 배려를 할 것이 있다고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유학자(犬儒學者)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들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일언반구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유족들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죽은 자들의 시체를 멸시하고 아주 경솔하고 경멸스럽게 땅에 던져 넣어 버리는 것이다.

5.236 죽은 자들에 대한 배려. 반면에 죽은 자들에게 과도하게 또는 불합리하게 주의를 쏟는 자들, 이방인들처럼 죽은 자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사람(데살로니가 전서 4 : 13에서 사도가 허용한바 중용적 애도를 우리가 책잡는 것이 아니며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판단하지만)이나, 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돈을 받고 어떤 기도를 중얼거리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죽어서 빠져 있는 고통으로부터 구출되고, 그러한 주문(呪文)에 의해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승인하지 않는다.

5.237 몸을 떠난 영혼의 상태. 신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후 곧바로 그리스도에게로 가며 따라서 죽은 자들을 위한 산 자의 찬사와 기도, 그리고 그들의 봉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당장에 지옥에 던져지며, 산 자들이 어떠한 봉사를 하더라도 악한 자들이 지옥을 빠져 나올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는다.

5.238 연 옥. 어떤 사람들이 연옥불에 관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나는 죄를 사하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기독교신앙과 배치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깨끗해진다는 신앙과도 어긋나며,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에로 옮겼느니라." (요 5 : 24),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리고 너희가 깨끗하니라." (요 13 : 10)고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반대가 된다.

5.239 영들의 출현. 죽은 자들의 영, 혹은 혼이 종종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산 자들에게 어떤 의무를 행하면 자기들이 해방을 받는다고 하며 애걸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혼백의 출현은 마귀의 웃음거리, 술수와 속임수라고 간주한다. 마귀는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시킬 수 있는 것처럼 참신앙을 전복시키든가 회의 속으로 몰아 넣으려고 애를 쓰는 자다. 구약성경에서는 주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진리를 찾는 것과

혼백들과의 어떤 교통도 금지하셨다(신 18 : 11). 실로 복음 진리가 선언하는 대로 고통 중에 있는 그 탐식가(貪食家)는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일을 허락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신탁(神託)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선포된 바 있지 않는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눅 16 : 29 이하).

제27장 의식(儀式), 예식(禮式), 무관심사(無關心事)

5.240 예식과 의식. 옛날 사람들은 학교교사나 가정교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일종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동안 어떤 예식이 주어졌다. 그러나 구출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고 율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믿는 우리들이 더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롬 6 : 14) 예식들은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사도들은 교회에게 아무런 부담도 지우기를 원치 않는다고 공공연히 증언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예식들을 붙들어 두거나 회복시키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옛 교회에 있던 풍습을 따라 그리스도 교회 안에 예식과 의식들을 증가시킨다면, 우리가 유대교를 끌어들이고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종류의 훈련으로 억제되는 것처럼 많은 다른 의식들로써 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결코 승인하지 못한다. 만일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식이나 의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賦課)하기를 원치 않았다면, 글쎄 똑똑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느 누가 사람이 고안한 발명품들을 그들에게 강요한단 말인가? 교회 안에 의식의 양이 늘면 늘수록 기독교적 자유로부터 멀어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또 그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할 것들을 예식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몇 가지의 수수하고 단순한 의식만 있으면 그것으로 경건한 자들에게 충분하다.

5.241 의식의 다양성. 교회 안에 의식의 차이가 발견된다고 하자. 아무도 이 이유 때문에 교회들이 합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 "여러 도시와 나라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의식들을 글로써 모아서 적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어떤 종교도 그 의식에 대하

여 같은 교리를 품고 있으면서도 꼭 같은 의식을 행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의식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교회사」 22권, 30, 62). 이렇게까지 소크라테스는 말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주님의 만찬과 기타의 어떤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의 교회들 안에 서로 상이한 의식을 가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리와 믿음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들의 통일성이나 친교가 그것 때문에 깨어지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은 언제나 그러한 의식들을 행함에 있어서 무관심사로 여기며 자유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오늘날 그와 마찬가지이다.

무관심사.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실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을 무관심사 속에 넣어서 간주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대신에 가지는 미사와 성상(聖像)사용을 무관심사로 여기는 버릇이 있지 않은가? 제롬이 어거스틴에게 편지하기를 "무관심사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서 그것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당신이 의롭지만 않고 불의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무관심사들이 신앙고백에 끼어들게 되면 그것들은 벌써 자유가 없어진다. 그것은 바울이 보여 준 대로이다. 사람이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었다는 것을 누가 그에게 일러주지 않는다면 그가 고기를 먹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일러준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사람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상숭배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고전 8 : 9 이하, 10 : 25 이하). 5.242

제28장 교회의 소유에 관하여

교회의 소유와 그것의 적절한 사용. 그리스도의 교회는 군주들의 선심을 통해서, 또는 신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교회에게 바치는 관대함을 통해서 재보(財寶)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원이 필요하며 옛날부터 자원을 가졌었다. 그런데 그 교회 재산의 참된 용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교와 종교집회에서의 교육을 유지하고 모든 예배, 의식, 교회건물 유지에 있다. 그리고 끝으로 교사, 학자, 교역자, 기타 필요한 것들을 유지하고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있다. 관 리(管理), 그뿐 아니라 교회 소유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슬기로운 사람으로서 가사 관리에 5.243

유명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5.244 교회 소유의 오용. 그러나 만일 불행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의 대담함과 무지와 탐심을 통해서 교회 재산이 남용되었다면, 경건하고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환수(還收)되어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 재산 남용은 최대의 성물(聖物) 모독으로서 눈감아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리, 예배, 도덕에 있어서 부패한 학교와 기관들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과 빈민 구제는 반드시 충성스럽게, 슬기롭게, 그리고 선한 믿음을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친다.

제29장 독신 제도, 결혼, 가사 관리에 관하여

5.245 독신자. 하늘로부터 독신생활의 은사를 받아서 마음으로부터, 혹은 온 영혼을 다하여 순결하고 자제심이 있고 정욕이 타오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받았다고 느끼는 한 그 소명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라. 그리고 자기들을 남들보다 높게 추켜 올리지 말고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섬기라(고전 7 : 7 이하).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한 가정의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산만한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일에 종사하기에 더 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다시금 그 은사가 사라지고 계속 불타는 정욕을 느낀다면 "타오르는 정욕을 가지기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고전 7 : 9)고 한 사도의 말을 회상하도록 하라.

5.246 결 혼. 결혼은(자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고치는 약이요, 자제 자체인 바) 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결혼을 가장 풍성하게 축복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질 수 없도록 결합되어 완전한 사랑과 화합을 가지고 같이 살기를 원하셨다(마 19 : 4 이하). 게다가 우리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히 13 : 4), 그리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다."(고전 7 : 28)라고 사도가 말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분파들, 그러므로 우리는 다처주의를 정죄하며 또한 둘째 결혼을 정죄하는 자들을 정죄한다.

5.247 결혼은 어떻게 맺어져야 하는가? 결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법적으로 맺어져야 하고, 근친상간(近親相姦)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몇 촌(寸)까지의 혈족은 금한다는 법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 결혼은 부모나 혹은 부모를 대리하는 사람들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주께서 결혼제도를 내실 때 가지셨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뿐 아니라 결혼은 결합된 자들이 극상의 성실성과 경건과 사랑과 순결을 가지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결혼은 다툼, 불화, 색정, 간음을 막아내야 한다.

5.248 결혼재판소. 교회 안에는 합법적인 재판소와 거룩한 판사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들이 결혼을 돌보고 모든 부정(不貞)과 수치스러운 일을 억제하고 그들 앞에서 결혼에 관한 싸움이 조정되어야 한다.

2.249 자녀의 양육. 자녀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사도가 한 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전 5 : 8) 한 것을 기억하며 자기들의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는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정직한 거래 또는 직업을 가르쳐 자립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이 없거나 너무 안전하거나 더러운 욕심 때문에 방종하고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게으르지 않게 하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심어 주어야 한다.

5.250 그리고 가장 분명한 것은 부모들이 가정적 의무를 행하고 집안을 관리하는 방식에 의해서 참된 신앙으로 행한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며 참으로 선한 일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이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 못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왜냐하면 사도가 서신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특히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가르쳤다. 그 사도와 더불어 우리는 결혼을 금하거나 그것이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한 것처럼 공공연히 혹평하거나 간접적으로 깎아 내리는 자들의 교리를 마귀들의 교리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5.251 우리는 또한 순결하지 못한 독신생활과 누구보다도 가장 음란하면서도 정숙(貞淑)한 척하는 위선자들의 은밀한, 그리고 때로는 공공연한 육욕과 음란행위를 혐오한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부자들이 경건하여 그들의 부를 잘만 사용한다면 우리가 부와 부자들을 안 좋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아포스톨리칼(Apostolicals)파 등을 거부한다.[10)]

---

10. 아포스톨리칼들은 파르마의 Gherardo Segarelli라는 종교적 광신자의 추종자들이며, Segarelli는 13세기에 사도생활의 가난을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제30장 치안권에 관하여

5.252 치안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종류의 치안권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어서 세상에서 우두머리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만일 치안관이 교회와 대립하면 교회를 매우 크게 방해하고 혼란하게 한다. 그러나 그가 교회의 친구요, 또는 회원까지 된다면 가장 유용하고 탁월한 회원이 되며, 교회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최고로 도움을 줄 수 있다.

5.253 치안관의 의무. 치안관의 주요 의무는 평화와 공중의 안정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적일 때 이상 이 의무를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백성의 가장 거룩한 왕들과 군주들의 모본을 따라 진리와 진지한 신앙의 선포를 장려하고, 거짓과 모든 미신과 아울러 모든 불경건과 우상숭배를 근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옹호할 때를 말한다. 종교를 돌보는 일은 특히 거룩한 치안관에게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가르친다.

5.254 그러므로 치안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 주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선한 법률을 가지고 다스리라. 그리고 백성을 훈련되고 의무를 수행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 재판권을 행사할 때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과부, 고아, 고난당하는 자를 보호하라. 죄수, 사기꾼, 야만인들을 벌하고 심지어 추방까지도 단행하라. 왜냐하면 치안관은 공연히 검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롬 13 : 4).

5.255 그러므로 치안관은 모든 악인, 선동자들, 도둑, 살인자, 압박자, 신성모독자, 위증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하고 심지어 사형에까지 처하라고 그에게 명령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검을 뽑으라. 하나님의 위엄을 끊임없이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파괴하기까지 하는 이단자들(그들이 참으로 이단자들일 때)을 억제하라.

5.256 전 쟁.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 백성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치안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행하라. 그가 우선은 백방으로 평화를 모색하지만 전쟁 외에 다른 방도로써는 도저히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을 때에 그러라는 것이다. 그리고 치안관이 믿음으로 이 일을 할 때

참으로 선한 바로 그 일들로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5.257 재세례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치안관의 직분을 맡는 것을 부정하는데, 그들은 또한 사람이 치안관에 의해서 정당하게 사형받는 것을 부정하며, 혹은 치안관이 전쟁을 수행한다든가 치안관에게 서약을 한다든가 하는 일 등등을 부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재세례파를 정죄한다.

5.258 국민의 의무. 하나님은 치안관에 의해서 자기 백성의 안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이를테면 치안관을 아버지 격으로 세상에 주셨다. 그러니 모든 국민은 치안관에게서 하나님의 이 은총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치안관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칭송하고 존경하라. 그를 자기들의 아버지인 양 사랑하고 호의를 보이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정당하고 공평한 명령들을 복종하라. 끝으로 백성들은 모든 관세와 세금과 기타 모든 부담금을 성실하게, 그리고 기꺼이 지불하라. 또 만일 국가의 공공한 안전과 정의가 요구한다면, 치안관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하고 백성을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 놓으며 공중의 안전과 치안관의 안전을 위하여 그들의 피를 흘리라. 백성이 이렇게 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의로, 기쁨으로 하라. 왜냐하면 치안관을 반대하는 자는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한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259 분파들과 선동. 그러므로 우리는 치안관을 멸시하는 자들, 즉 반역자들과 국가의 원수(怨讐)들과 선동하는 자들과 끝으로 마땅히 져야 할 의무 수행을 공공연히, 혹은 교활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을 모두 정죄한다.

5.260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백성의 통치자들과 우리와 또 그의 온 백성을 우리의 유일하신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가 영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본 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부활과 최후 심판에서 끝날 때까지의 하나님의 사역을 확인한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모든 일 가운데 탁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이한 방도와 장엄하신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도록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신앙고백은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써 시작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 신이시며,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불변하시며 영원 무궁하시며 불가해(可不解)하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다."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사람도 그중의 하나인 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뜻과 조화되는 축복된 상태에 남아있지 않았다. 죄가 개입하므로 인간 상태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관계가 부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은 하셨지만 그것의 원인이 되시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은 인간과 은혜의 계약을 맺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크리스천의 삶은 기도와 설교와 성례전으로써 양육을 받고, 은혜와 영광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예정된 은총(선민의 구원)과 공의(버림받은 자의 단죄)의 종말을 위해 준비한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교수요 부총장이었던 안토니 턱크니(Anthony Tuckney)박사가 주로 쓴 것으로서, 강단에서 공중을 위해 강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소요리문답은 탁월한 수학자로서 후에 옥스포드 대학의 기하학교수가 된 죤 월리스(John Wallis)목사가 주로 만든 것이며,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쓴 것이다. 이 두 요리 문답은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삶, 십계명, 성례전, 주기도문에 대한 문제들을 취급한다. 대개의 초기 요리문답들과는 달리 이 두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을 넣지 않았다. 특히 유명한 것은 소요리문답의 제 1문답이다. 즉 "사람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입니다"이다.

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a]

PCUS | UPCUSA

제 1 장 | 제 1 장

성경에 관하여

1.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지만[1)], 그것들이[b)] 구원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치 못하다.[2)]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뜻을 그 6.001

의 교회에게 선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3] 그리고 후에는 그 진리를 보다 잘 보전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의에 대항하는 교회를 더욱 확실하게 설립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동일한 것을 전부 문서화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4] 그리하여 성경은 가장 요긴한 것이 되었다.[5]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던 옛날의 방식들이 끊어져 버렸다.[6]

6.002 2. 성경이라는 이름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의 구약과 신약의 책들 전부가 포함되는데 그것들은 아래와 같다 :

구 약

창세기	역대 하	다니엘
출애굽기	에스라	호세아
레위기	느헤미야	요엘
민수기	에스더	아모스
신명기	욥기	오바댜
여호수아	시편	요나
사사기	잠언	미가
룻기	전도서	나훔
사무엘 상	아가	하박국
사무엘 하	이사야	스바냐
열왕기 상	예레미야	학개
열왕기 하	예레미야애가	스가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부활과 최후 심판에서 끝날 때까지의 하나님의 사역을 확인한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모든 일 가운데 탁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이한 방도와 장엄하신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도록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신앙고백은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써 시작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 신이시며,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불변하시며 영원 무궁하시며 불가해(可不解)하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다."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사람도 그중의 하나인 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뜻과 조화되는 축복된 상태에 남아있지 않았다. 죄가 개입하므로 인간 상태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관계가 부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은 하셨지만 그것의 원인이 되시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은 인간과 은혜의 계약을 맺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크리스천의 삶은 기도와 설교와 성례전으로써 양육을 받고, 은혜와 영광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예정된 은총(선민의 구원)과 공의(버림받은 자의 단죄)의 종말을 위해 준비한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교수요 부총장이었던 안토니 턱크니(Anthony Tuckney)박사가 주로 쓴 것으로서, 강단에서 공중을 위해 강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소요리문답은 탁월한 수학자로서 후에 옥스포드 대학의 기하학교수가 된 죤 월리스(John Wallis)목사가 주로 만든 것이며,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쓴 것이다. 이 두 요리 문답은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삶, 십계명, 성례전, 주기도문에 대한 문제들을 취급한다. 대개의 초기 요리문답들과는 달리 이 두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을 넣지 않았다. 특히 유명한 것은 소요리문답의 제 1문답이다. 즉 "사람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입니다"이다.

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a]

PCUS

UPCUSA

제 1 장

제 1 장

성경에 관하여

1.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지만[1], 그것들이[b] 구원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치 못하다.[2]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뜻을 그 6.001

---

a.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본문은 1958년 UPCUSA에 의해서 채택된 것이다. 각주가 첨가된 것은 1958년 본문이 1647년 판의 본문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1647년 판 고백은 다음과 같은 표제하에 발표된 것이다 : "신앙고백에 관해서 성직자들의 회합이 현재 웨스트민스터에 자리잡은 국회의 권위에 의하여 겸손히 드리는 조언, 성경 인용구와 본문 첨가, 국회 양 원에게 근자에 그들에 의해서 제출된 것." 1958년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수정은 추적하려 하지 않았다. 각주는 1647년 판의 구두점, 철자, 대문자 사용 등을 그대로 따랐다.
1861년에 PCUS가 조직되면서 그들이 탈퇴한 PCUSA의 '표준'을 채택했다. 이 교회가 1861년 이래 그 고백을 수정한 것은 단지 제244장 제4절에 있는 구절을 삭제한 것뿐이다. 즉 자기의 죽은 아내의 자매와 결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만든 것뿐이다.

b. UPCUSA 판에는 "They are"

의 교회에게 선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3] 그리고 후에는 그 진리를 보다 잘 보전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의에 대항하는 교회를 더욱 확실하게 설립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동일한 것을 전부 문서화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4] 그리하여 성경은 가장 요긴한 것이 되었다.[5]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던 옛날의 방식들이 끊어져 버렸다.[6]

6.002 2. 성경이라는 이름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의 구약과 신약의 책들 전부가 포함되는데 그것들은 아래와 같다 :

구 약

창세기	역대 하	다니엘
출애굽기	에스라	호세아
레위기	느헤미야	요엘
민수기	에스더	아모스
신명기	욥기	오바댜
여호수아	시편	요나
사사기	잠언	미가
룻기	전도서	나훔
사무엘 상	아가	하박국
사무엘 하	이사야	스바냐
열왕기 상	예레미야	학개
열왕기 하	예레미야애가	스가랴
역대 상	에스겔	말라기

신 약

마태복음	에베소서	히브리서
마가복음	빌립보서	야고보서
누가복음	골로새서	베드로 전서
요한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 후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일서
로마서	디모데 전서	요한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1643년 영국하원은 "영국 교회의 정치와 의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가장 합치하고, 국내 교회와 가까운 타국교회의 평화를 이룩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낙착시킬 것"을 요청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그 법령이 상원에서 통과된 후에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였다.

국회는 그 총회를 위하여 151명을 지명했다. 그 중 30명은 국회 회원들이었고, 나머지는 "학식이 있고, 경건하고, 슬기있는 성직자들" 이었다. 다섯 명의 스코틀랜드 성직자들이 참여했는데, 그들은 투표권은 없으나 토론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었다. 화란, 벨기에, 불란서, 스위스, 미국 식민지의 교회들이 대표들을 파송하도록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한사람도 오지는 않았다. 그 총회는 1163회의 회합을 가진 끝에 1649년에 모임을 끝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위기적 분위기 속에서 사무를 진행했다. 내적 알력때문에 영국과 영국교회는 거의 결별(訣別)할 지경에 이를 뻔도 했다. 정치문제와 종교문제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누가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가? 누가 정부를 다스려야 하는가? 왕은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 국회, 지방회, 총회들은 어떤 권한이 있는가? 성공회파가 영국에 있어서 왕적 통치를 대표하며, 교회 정치의 수령직도 겸하였다. 장로회파는 국회와 교회노회들 양 편에서 선발된 민중대표들에게 권리를 주려고 했다. 새로 대두되고 있던 제 3의 당파, 곧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에 의해서 영도될 당 파는 교회의 지방자치를 원했고, 왕과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그 총회가 모이기 이전에도 서로 다투는 당파들 사이에 내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총회는 작업을 수행하여 마침내 "장로교 정치의 형식", "공중예배 지침",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완성했다. 이 문서 하나하나가 영국 국회에 의하여 인준되었다. 그리고 국회는 총회로 하여금 성경적 증거 귀절들을 첨가하도록 요청했다.

크롬웰의 출현이 그 총회를 황급히 마치도록 하였다. 1648년에 일어난 프라이드 숙청(Pride's Purge) 이 국회에서 장로교파 회원들을 강제로 제거했다. 1649년에 찰스 1 세가 처형되면서 영국 청교주의 (English Puritanism)는 둘로 갈라졌다. 하나는 국왕 살해를 항의하는 장로회파요, 또 하나는 그것을 지지하고 크롬웰과 동조하는 "독립파"(Independents)이다.

1647년 스코틀랜드 총회는 1560년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대신에 웨스트민스터 표준들을 채택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이 표준들은 청교도(독립파)들과 함께 뉴잉글랜드(New England)에 도달했고, 스코틀랜드-아이리쉬 장로교인들과 함께 중부 대서양(Middle Atlantic) 여러주에 소개되었다. 1729년에는 이 표준들이 식민지들에서 새로 조직된 장로회 대회(Synod)의 신앙고백적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그 후 그것들은 미국장로교회를 형성하는 주역이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들은 종교개혁의 가르침들을 개선하고 체계화한 개

신교 스콜라 사상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표준들은 성경의 진리와 권위를 높였으며,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성경은 직접 영감된 것으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고, 성령의 내적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책이라고 규정했다. 하나님의 주권과 2 중 예정이 또한 강조되었다. 이 표준들은 계약신학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경에 호소하는 바, 정치적 사상과 실천을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통치자와 백성 양자가 하나님에게와 또 상호간에 가질 의무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

고린도 전서	디모데 후서	요한삼서
고린도 후서	디도서	유다서
갈라디아서	빌레몬서	계시록[c]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된 것이며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기 위한 것이다.

3. 보통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들이 아니어서, 성경 정경(正經)의 부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며, 다른 인간 기록물 이상으로 다르게 인정을 받거나 사용될 것이 아니다.[7] 6.003

4. 성경은 권위가 있어서 사람이 믿고 복종해야 하는 것인데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 있지 않고, 전적으로 그것의 저자이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8] 6.004

5.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의하여 감동을 받고 설득을 받아 성경을 높이 그리고 경건하게[d] 존중한다. 그리고 거룩함의 문제, 교리의 효능, 문체의 장엄, 모든 부분의 합일, 전체의 규모(그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관한 충분한 발견, 기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 전체의 완전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입증해 주는 논거(論據)들이다. 그러나 성경은 무오적(無誤的)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충족한 신념과 확신은 성령의 내적 역사로부터 오는 것이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증거해 주는 것이다.[9] 6.005

6.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 구원과 믿음과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성경 속에 명백하게 계시되거나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결론에 의하여 성경으로부터 연역(演繹)될 수 있다.[10] 그 성경에다가 어느 때이건 아무것도 첨가해서는 안된다. 즉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한 것이든지 사람의 전통이든지, 더 이상 성경에 첨가될 수는 6.006

c. 1947년 판에는 요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d. UPCUSA 판에는 "of"

없다.[11] 그러나 말씀에 계시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내적 조명(照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12]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해서,[e] 그리고 인간 행동과 사회가 다 경험하는 대로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관해서는 여러 형편이 있으며, 그것들이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분별에 의하여, 그리고 언제나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법칙에 따라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13]

6.007 7.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서 다같이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같이 명백한 것은 아니다.[14]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은 성경 여기저기에 아주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어서, 배운 사람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일반적 수단을 바로만 사용한다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이르를 것이다.[15]

6.008 8. 히브리어(옛날 하나님 백성의 본토 말)로 된 구약성경과 헬라어(신약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여러 나라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말)로 된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하신 것이며,[16] 그의 각별한 돌보심과 섭리에 의하여 순수하게 보전된 것이며 따라서 믿을 만하다. 그래서 모든 종교 존쟁에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그것에다 호소하는 것이다.[17]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그 성경의 원어(原語)들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18] 성경이 도달한 모든 백성의 언어[f]로 번역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풍족하게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가납될 만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19]

6.009 9. 성경 해석의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성경 어떤 부분에 대한 참되고 충분한 뜻(그것은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이다.)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 보다 더 명료하게 말하는 다른 부분에 의해서 탐구하여 알 수 있다.[20]

6.010 10. 종교의 모든 논쟁들을 결정지어 주고,[g] 여러 회의들의 모든 결정

e. UPCUSA판에는 "and there are"

f. 1947년 판에는 '각 나라의 통속언어' 라고 되어 있음.

g. UPCUSA판에는 "whom"

들과 옛 저술가들의 의견들과 사람의 교리들과 사사로운 영들을 검증해야 하는 최고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밖에 없다. 우리는 그의 판결을 믿어야 한다.[21]

제2장 제2장

하나님에 관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신에 관하여

6.011 1. 살아 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1]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며,[2] 가장 순전하신 영이시며,[3] 보이지 않으시며,[4] 몸도 지체도 욕정도 없으시며,[5] 변치 않으시며,[6] 광대하시고,[7] 영원하시고,[8] 측량할 수 없으며,[9] 전능하시다.[10] 그는 가장 지혜로우시며,[11] 가장 거룩하시며,[12] 가장 자유로우시고,[13] 가장 절대적이며,[14]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15]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옳은 뜻의 계획을 따라서 만사를 처리하신다.[16] 그는 사랑이 지극하시며,[17]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18] 그는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報償)하시는 분이시다.[19] 그뿐 아니라[h] 그는 심판에 있어서 가장 바르고 또 무서운 분이시다.[20] 그는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21] 죄있는 자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22]

6.012 2.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됨을 소유하신다.[23] 그는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완전히 충족하신 분으로서, 그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 있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을 얻어내는 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것뿐이다.[24] 그가 홀로 모든 존재의 기초이며 만물이 그의 것이며 그를 통하여 생겼으며 그를 위해 존재한다.[25] 그는 만물에 대하여 지극히 높으신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그가 친히 기뻐하시는 바를 그것들에 의해서 혹은[i] 그것들에게 행하신다.[26] 그의 눈앞에 만물은 공개되고 드러나 있다.[27]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하는 바가 없다.[28] 그래서 그

h. Ed. 1647 reads: "with all"
i. UPCUSA판에는 "그리고"로 되어 있음.

에게는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29]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모든 역사(役事)와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30] 천사를 위시하여 삶과 기타 어떤 피조물도 다 그가 기뻐 요구하시는 예배와 봉사와 복종을 그에게 드려야 한다.[31]

6.013 3. 신성은 통일된 것이어서 한 실체와 권세와 영원성을 지니신 세 위(位)가 계신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32] 성부는 어느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즉 누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셨다.[33]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34]

제3장 제3장[j]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들에 관하여[k]

6.014 1.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당신 자신의 뜻의 가장 슬기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하여 앞으로 생길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정하셨다.[1]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라는 것이 아니며,[2] 피조물의 의지에다 난폭을 넣어 주셨다는 것도 아니며,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셨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확립시켜 주셨다.[3]

6.015 2. 비록 하나님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조건하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실지라도[4] 그는 그것을 미래의 것으로 내다보시고, 혹은 그러한 조건하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내다보셨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결정하신 것은 아니다.[5]

6.016 3.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는 영원한 생명에로 예정되었고[6] 또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로 운명지어졌다.[7]

6.017 4. 이렇게 예정되고 운명지어진 천사들과 사람은 특별하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아주 확실하고 결정적이어서 더하거나 감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다.[8]

---

j. 신앙고백 끝에 있는 선언문을 보라. 그 선언문은 제3장에 대한 권위적 해석이다.

k. UPCUSA 판에는 '경륜', 즉 단수명사로 되어 있다.

5. 인류 중 생명에로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9] 당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10] 과 감추인 계획과 그의 뜻의 기뻐하심을 따라[11]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으로서[12]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며[13]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서[m]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예정된 자들이나 다른 피조물 중에서 예정의 조건이나 원인이 될 만한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력을 예견하셨기 때문이 아니다[14]. 모두 다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15]. 6.018

6. 하나님께서 선민이 영광을 받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의 뜻의 영원하고도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하여, 그 방향으로 모든 수단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16]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선택된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17] 알맞은 때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18] 의롭다 함을 얻고[19] 양자가 되고[20] 성화되며[21] 그의 능력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 마침내 구원을 얻는다.[22] 선택된 자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고,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고, 구원받는 일이 없다.[23] 6.019

7. 그 나머지 인간은 하나님께서 간과(看過)하시고[24] 그들의 죄 때문에 치욕과 진노를 받도록 정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보류하시기도 하시는지라 그가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자신의 뜻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을 따른 것이며 당신의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위해서이며[25]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26] 6.020

8. 예정이라는 이 매우 신비스러운 교리는 특별한 사려(思慮)와 주의를 가지고 취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효과적인 소명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그들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미, 경의, 칭송의 문제를 제공하고, 또 겸손과 근면과 진지함으로 복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위안의 문제를 제기한다.[27] 6.021

m. 1647년 판에는 '그의 오로지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 있다.

PCUS UPCUSA

제4장 제4장

창조에 관하여

6.022 1.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태초에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만물을, 즉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엿새 동안에 모두를 매우 좋게 창조하셨다. 즉 무에서부터 만들어 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였다.[1]

6.023 2.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2]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사리를 알고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고[3],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시어 하나님 자신을 닮게 하셨으며[4],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게 하셨고[5] 그것을 이룰 힘을 주셨다. 그러나 범법할 가능성 아래 두셨으며, 그들 자신의 뜻인 자유에 맡겨져 있었다. 사람의 뜻은 변할 수 있는[6]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법 외에 그들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7] 그들이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행복을 누렸고[8] 피조물을 지배하였다.[9]

제5장 제5장

섭리에 관하여

6.024 1.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가장 큰 것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것까지[1] 그의 가장 슬기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2] 그의 무오(無誤)한 예지와[3] 그 자신의 뜻의 자유스럽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4]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하여 그의 지혜와 능력과 정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5]

6.025 2.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경륜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물이 불변하게 그리고 무오하게 생겨나지만[6] 그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그는 그것들이 제2원인의 성격을 따라서 필연적이든지[7] 자유롭게든지 아니면 우연적으로[8] 낙오(落伍)하도록 정하셨다.

6.026 3. 하나님은 당신의 통상적 섭리에 있어서 수단을 사용하신다.[9] 그러나 수단을 쓰지 않고[10] 혹은 수단을 초월하여[11] 혹은 수단을 어기면서 그

가 기뻐하시는 대로 역사하실 자유가 있다.[12]

6.027 4.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은 그의 섭리 속에 너무도 속속들이 나타나 있어서, 그의 섭리는 심지어 그 첫 번 타락과[13] 또는 천사들과 인간의 모든 다른 죄에까지[14] 관여한다. 그것도 단순한 허락에 의해서가 아니고, 거기에다 다양한 제도 안에서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억제를 가하고,[15] 때로는 그들을 명령하고 다스리는 일로써 하되 결국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16] 이렇게 하더라도 그들의 죄는 단지 피조물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죄의 창시자나 승인자가 아닐 뿐 아니라 또한 될 수도 없다.[17]

6.028 5. 가장 현명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유혹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 속에 버려두신다. 그것은 그들이[n] 전에 지은 죄값으로 그들을 징벌하거나, 그들의 마음의 부패와 사기성의 숨은 힘을 그들에게 발견시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려는 것이다.[18]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좀더 밀접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들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있는 모든 죄의 기회에 대비하며, 그들을 더욱 경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기타 여러 가지 정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19]

6.029 6.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전에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는데[20]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력을 밝히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일으킬 그의 은혜를 그들로부터 보류하실 뿐 아니라[21] 때로는 그들이 가졌던 은사를 거두어 가신다.[22] 그리고 그들이 부패하여 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물에다 그들을 노출시키신다.[23] 그뿐 아니라 그들을 자기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에 내어 주신다.[24][o]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단들을 이용하셔서[p]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시는데, 같은 수

n. UPCUSA판에는 "they may be"

o. UPCUSA판에는 "gives"

p. UPCUSA판에는 "comes"

단하에서 그들은 자신을 완고하게 만든다.[25]

6.030 7.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 그러므로 그 섭리는 가장 특수한 양식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교회가 좋도록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26]

제6장 제6장

인간의 타락, 죄, 죄에 대한 벌에 관하여

6.031 1. 우리의 첫 조상 부부는 사단의 간계(奸計)와 유혹에 의하여 부추김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1] 하나님은 그의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들의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꺼이 하셨다. 그것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조치하시려는 목적을 세우시고 하신 일이다.[2]

6.032 2.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원래의 의(義)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부터 끊어졌으며[3] 따라서 죄 가운데서 죽었고[4]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완전히 더러워졌다.[5]

6.033 3. 그들은 전 인류의 뿌리인지라 통상적 생식에 의해서 그들로부터 대를 이어 가며 이 죄과가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으며[6] 죄로 말미암은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전달되었다.[7]

6.034 4. 우리는 이 원래적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선에 대하여 아주 싫증이 나고 무능해지고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고 온갖 악에 전적으로 기울게 되었다.[8] 이러한 부패로주터 온갖 실제적 범행들이 파생한다.[9]

6.035 5.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생을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 속에 그냥 남아 있다.[10]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억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와 그것에 의한 모든 동작들은 진실로 그리고 마땅히 죄이다.[11]

6.036 6. 죄는 어느 것이든지 원죄와 실제적 죄가 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대한 범행이고, 그것에 대한 반대이어서 그 자체의 본성에 입각하여 그 죄인에게 죄과를 지우며[12]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13]와 율법의 저주[14]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죽음의 지배를 받고[15] 영적인, 세속적인, 영원한 온갖 비참을 겸해서 겪게 된다.[16]

PCUS UPCUSA

제 7 장 제 7 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1.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간격은 너무도 커서, 이성이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자로 받들어 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성과(成果)를 자기들의 축복과 보상으로 여긴 적이 결코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자발적 비하(卑下)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바, 그 비하는 계약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1] 6.037

2. 사람과 맺은 첫 계약은 행위계약이었다.[2] 그 계약은 아담이 완전하고 개인적인 복종을 한다면 그와 또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3] 6.038

3.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에 의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로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둘째 계약, 즉 보통은 은혜의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을 맺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4] 그 계약에 의하면[q]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5] 주님은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죄인들에게 제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다.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을 뜻과 가능성을 가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6] 6.039

4. 이 은혜의 계약은 성경에 자주 유언(testament)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그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는 그 유언에 의하여 남겨진 영원한 유산과 거기에 속하는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생긴 이름이다. 6.040

5. 이 계약이 율법시대에는 다르게 집행되었고 복음시대에는 또 다르게 집행되었다.[7] 율법하에서는 그것이 약속과 예언과 희생제사와 할례와 유월절 양과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다른 전형(典刑)과 법령, 즉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상징하는 모든 것에 의해서 집행되었다.[8] 그것이 그 시대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9] 선민을 가르치고 육성하기에 충분했고 또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야로 말 6.041

q. UPCUSA판에는 "offereth"

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던 것이다. 그 계약을 낡은 유언(언약)이라고 부른다.[10]

6.042 6. 복음하에서는 즉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때에, 이 계약이 시행되는 의식은 말씀을 설교하는 일과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전을 집행하는 일이다.[11] 그것들이 비록 수가 적고 더 단순하고 외적인 화려함이 보다 덜 하지만, 그것들로써 그 계약이 만방에, 즉 유대인과 이방인에게[12] 더 충실하게, 더 확증을 가지고, 더 신령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계시된다.[13] 그리고 그것을 새 유언(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실체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은혜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제도하에 있는 하나의 계약, 곧 같은 계약이 있을 뿐이다.[14]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6.043 1.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서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택하시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1] 곧 예언자[2] 제사장[3] 왕[4]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를 당신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와[5] 만물의 상속자[6]와 세상의 심판자[7]를 삼으시고 그에게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으며[8] 그로 말미암아 적시에 구속을 받고, 부름을 받고, 칭의를 얻고, 성화되고, 영화되게 하셨다.[9]

6.044 2. 삼위일체신의 둘째 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한 실체이시며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찼을 때 인성을 취하셨고[10] 인간의 모든 본질적 특성과 공통적 유약성을 지니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11]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 그리고 그녀의 실체를 지니고[12] 잉태되었다. 그러므로 모자람이 없이 완전한, 그러면서도 별개의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위 안에 같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었다. 그러나 그 두 성이 변경되거나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는다.[13] 그 분은 참하나님이시고 참사람이시지만 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14]

6.045 3.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이렇게 신성과 연합된 분으로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성화되고 기름부음을 받으셨다.[15] 그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

화를 그 속에 가지셨으며[16], 그 안에 모든 충만이 깃드는 것을[17]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것은 그가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티가 없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중보와 보증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18] 철저히 갖추어지기 위한 것이다. 그가 그 직무를 취하신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19] 성부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넣으셨으며 그것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그에게 내리셨다.[20]

6.046 4. 주 예수는 이 직무를 가장 흔쾌히 맡으셨으며[21] 그가 그 직무를 이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22] 있는 존재가 되시고, 또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23] 그는 가장 비통한 고통을 직접 그의 영혼으로[24] 겪으셨고, 가장 쓰라린 고난을 그의 몸으로 당하셨다.[25] 그는 십자가 형(刑)을 받아 죽으셨고[26] 매장되시어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르셨다. 그러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27] 그는 삼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고난당하실 때 가지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시고[28] 살아나셨으며[29] 그 몸을 가지시고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30]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31]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러 돌아오실 것이다.[32]

6.047 5. 주 예수는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완전한 복종과 자신을 드리는 희생을 하나님께 한 번 드리셨는데,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며[33]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화해뿐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의 영원한 유산을 획득하셨다.[34]

6.048 6. 구속의 역사가 실제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그의 성육신 후의 일이지만 그것의 덕과 효능과 이득은 세상 처음부터 모든 시대에 계속적으로 선민에게 전달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할 여인의 후손이며 세상 처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또 영원하신 분임을 표시해 주는 그 약속들과 모형들과 희생제물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전달되었다.[35]

6.049 7. 그리스도는 중보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두 가지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신다. 즉 각 본성에 의해서 그것에게 적합한 것을 행하신다.[36] 그러나 위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한 본성에 적합한 것이 성경에서 때때로 다른 본성의 이름을 가진 위에게 돌려진다.[37]

PCUS UPCUSA

6.050 8.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구속을 이루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구속은 적용하고 전달해 주신다.[38]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재를 하시고[39] 말씀 안에서 또는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신비들을 그들에게 계시하신다.[40] 그리고 믿고 복종하도록 그의 영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시킨다. 또한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시며[41] 그의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섭리에 가장 일치하는 양식과 방도로써 그의 전능한 권세와 지혜에 의하여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다.[42]

제9장

성령에 관하여

6.051 1. 삼위일체신의 제3위이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동일한 실체요,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으로서 성부 성자와 함께 모든 시대에 믿음과 사랑과 복종의 대상이시다.[1]

6.052 2. 그는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어디나 계신다. 그는 모든 선한 생각과 순결한 소원과 사람들 속에 있는 거룩한 계획의 원천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예언자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고, 성경 저자들이 모두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오하게 기록하였다. 복음의 섭리가 특별히 그에게 위탁되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그의 설득력 있는 능력으로 복음에 동반하며, 사람의 이성과 양심에다 복음의 메시지

를 권장한다. 그래서 자비롭게 제공되는 복을 거절하는 자들은 핑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게 된다.[2]

6.053

3. 성부는 언제나 그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모두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성령은 구속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능률적인 유일한 행위자이시다. 그는 그의 은혜에 의해서 사람들을 중생하게 하고, 죄를 알려 주고, 회개하도록 감동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설득하며 가능케 한다. 그는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며, 그들을 위로하고 성화시키는 이로서 그들 속에 머물며, 입양(入養)과 기도의 영을 그들에게 주며, 그 모든 은혜로운 직무를 수행하여 그들이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성화하며 화인을 찍어 주신다.[3]

6.054

4. 성령의 내주(內住)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서로 연합되어 있다. 성령은 목사들을 불러 그들의 성직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며, 교회 안의 다른 모든 직분들에게 자격을 주어 그들의 특수 업무를 행하게 한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 성령은 말씀에게,

그리고 복음의 의식(儀式)들에게 유효성을 주신다. 그에 의해서 교회는 보전되고 증가되고 순화하고, 마침내 하나님 어전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4]

제10장

복음에 관하여

6.055 1.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통하여 은혜의 계약 안에서, 잃어버린 인류 전체에게 충족하고 적응될 삶과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이 구원을 제시하신다.[1]

6.056 2.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위한 그의 사랑과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았으면 하는 그의 소원을 선언하시며, 구원의 그 유일한 길을 충분히 그리고 명백히 계시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며, 말씀과 동반하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의 은혜로운 초대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호소한다.[2]

6.057 3. 그 자비로운 제공을 수락하는 것이 복음을 듣는 각자의 의무요 특권이다. 그리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을 고집하는 자들은 가중죄를 받고 자기들 자신의 허물로 인해

서 망하게 된다.[3]

6.058 4. 복음에 계시된 구원의 길밖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통상적 은혜의 방법에 있어서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사명을 주시며 모든 세상으로 가서 만백성을 제자로 삼게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들이 이미 서 있는 그리스도교의 율례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기도와 헌금과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온 땅에 확대하는 일에 공헌할 의무가 있다.[4]

제11장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6.059 1.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다 자연적 자유를 부여하셨다. 즉 사람의 의지는 강요당하지도 않고 어떤 절대적인 자연적 필연성에 의해서, 선악간에[r] 결정되지도 않는 그러한 자유를 주신 것이다.[1]

6.060 2.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 있을 때 선하고[s]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마음먹고 또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었다.[2] 그러나 그 상태로부터 타락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닌 것이었다.[3]

6.061 3. 사람은 죄의 상태에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을 동반하는 어떤 영적 선을 마음먹을 만한 모든 역량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4] 그래서 하나의

r. 1647년 판에는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도록 하라고 할 수 있는 '행한다'는 말이 들어 있다.

s. 1647년 판에는 '선하였고'라고 과거사로 되어 있다.

PCUS UPCUSA

자연적 인간으로서는 그 선을 전혀 싫어하고[5] 죄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6] 자기 자신의 힘으로써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자신을 회개하도록 준비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7]

6.062 4.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회개시키시고[t]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u] 그는 그 사람을 자연적 죄의 속박으로부터[v] 자유케 하시고, 오직 그의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그로 하여금 영적 선을 마음먹고 또는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8] 그렇게 하더라도 그의 남은 부패 때문에 그는 선한 것을 완전하게 마음 먹지고 못하고 그것만을 마음먹지도 못하며, 오히려 악한 것을 마음먹기까지 한다.[9]

6.063 5. 사람의 의지는 영광의 상태에서만[10] 오직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도 불변하는 자유를 가지도록 만들어졌다.[11]

제12장 제10장

효과적 부르심에 관하여

6.064 1. 하나님께서 생명에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모두, 아니 그들만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가납(可納)하신 때에, 그의 말씀과 영에 의해서, 그들이 타고난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효과적으로 불러내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이다.[1] 그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할 작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계발하여 하나님의 사물을 이해하게 하시고[2] 그들의 돌(石)심장을 제거하시고, 그 대신 그들에게 육(肉)심장을 주시며[3]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그의 전능하신 힘으로써 선한 것에로 그들을 방향지으며[4] 그들을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신다.[5] 그래도 그들은 그의 은혜에 의해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장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6]

6.065 2. 이 효과적 부름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스럽고 특수한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사람 속에서 예견된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은 전혀 아니다.[7] 사람은 거기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마침내 성령에 의하여 깨어

---

t. UPCUSA판에는 "converts"

u. UPCUSA판에는 "translates"

v. UPCUSA판에는 "enables"

나고 새로워져서[8]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그 부름에서 제시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수락할 수 있게 된다.[9]

3. [a]선택받은 영들은 애기 때 죽을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 성령은 그가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또한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기타의 모든 선택된 자들도 마찬가지이다.[10] 6.066

4. 선택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성령의 어떤 통상적 작용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들이 결코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오지는 않으며,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11] 도구나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부지런히 자연의 빛을 따르고,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도로써는 더욱 구원을 얻지 못한다.[b] [12]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지하는 것은[c]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증을 얻지 못한다.[13] 6.067

제 13 장 제 11 장

칭의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그는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해 주신다.[1] 그것은 그들 속에 의를 불어넣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는 것이다. 그들 속에서 행해지거나 그들로 말미암아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때문이다.[d] 믿음 자체나 믿는 행동이나 다른 어떤 복음적 복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케 함을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되었다.[2] 그들은 믿음으 6.068

a. 신앙고백 끝에 있는 선언문을 보라. 그 선언문은 UPCUSA 판에 있는 제 10 장 제 3 절에 대한 권위적 해석이다.

b. UPCUSA판에는 '그리스도 외에'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 1647년 판에는 '그리스도 외에'라는 말이 없다.

c. 1647년 판에는 "매우 유해하고 혐오할 만하다."라고 되어 있다.

d. 1647년 판에는 '그리고…아니' (nor)로 되어 있다.

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3]

6.069 2. 믿음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들이고 의지하는 것인데, 이 믿음만이 칭의의 도구이다.[4] 그러나 믿음이 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구원적 은혜가 언제나 동반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이다.[5]

6.070 3. 그리스도는 그의 복종과 죽음에 의해서, 그렇게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사람의 빚을 완전히 갚으시고, 그들 대신에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정당하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6] 그러나 성부께서 그를 그들을 위해 주셨고[7] 그의 복종과 만족케 함이 그들 대신에 수납되었으며[8] 그 복종과 만족케 함이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칭의가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니, 그들의 칭의는 오로지 값없는 은혜로 된 것이다.[9] 그것은 하나님의 가차없는 공의와 부요한 은혜, 그 두 가지가 다 죄인의 칭의 안에서 찬미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10]

6.071 4.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선민을 의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11] 그리스도는 때가 찼을 때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들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12] 그러나 성령이 적시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시기까지는 그들이 칭의를 받지 못한다.[13]

6.072 5.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신다.[14] 그리고 그들이 의인(義認)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지만[15] 그래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부성적(父性的) 불쾌를 사게 되고,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그들에게 되돌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16]

6.073 6. 구약 아래 있는 신자의 칭의는 이 모든 점에 있어서 신약 아래 있는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17]

제14장 제12장

입양에 관하여

6.074 1. 하나님은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을 모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PCUS UPCUSA

안에서 혹은 그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에 동참자가 되도록 해 주셨다.[1]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수(數)에 받아들여지며, 아들로서의 자유와 특전을 즐긴다.[2]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에게 붙이고,[3] 입양의 영을 받으며,[4]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5]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6] 또한 아버지에게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7] 보호를 받으며[8] 공급함을 받고[9] 징계를 받는다.[10] 그러나 결코 쫓아냄을 받지는 않으며[11] 구속의 날을 위하여 확인(確印)을 받으며[12]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14] 약속들을 물려 받는다.[13]

제15장 제13장

성화에 관하여

1. 효과적으로 복음을 받고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소유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덕택으로 그의 말씀과 또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더욱 성화된다.[1]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되고[2] 몸의 여러 가지 욕정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며[3] 모든 구원적 은혜 가운데서[4] 그들이 점점 더 생기를 얻고 힘을 얻어 참된 거룩을 실천하기에 이른다. 그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5] 6.075

2. 이 성화는 전인(全人) 속에 구석구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6] 이 생에 있어서는 불완전하다. 즉 모든 부분에 어떤 부패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계속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다. 육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항하는 싸움을 한다.[7] 6.076

3. 이 싸움에 있어서 그 남아 있는 부패가 당분간 많은 기승을 부릴 수 있겠지만[8] 그래도 성화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 힘을 공급받아서 그 중생한 부분이 정복을 한다.[9] 그래서 성도는 은혜 중에 성장하며[10]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을 완성해 간다.[11] 6.077

제16장 제14장

구원받게 하는 믿음에 관하여

6.078 1. 선택받은 자들이 믿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1] 통상적으로는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2] 또한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성례전 집행과 기도에 의해서 믿음이 증가되고 강해진다.[3]

6.079 2. 이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계시된 모든 것이 참이라는 것을 믿는다.[4] 그것은 그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 때문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각 구절이 함축하는 것에 기초하여 다르게 행동한다. 즉 그 명령들에 복종하고, 위협에 떨고, 이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긴다. 그러나 구원적 믿음이 사는 주요 활동은 은혜의 계약 덕택으로 칭의를 받고 성화되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수락하고 영접하고 의뢰하는 일이다.

6.080 3. 이 믿음은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다.[5] 믿음은 종종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받고 연약해진다. 그러나 승리를 얻는다.[6] 믿음은 많은 사람 속에서 성장하여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8] 그리스도를 통하여[7] 완전한 확신을 얻기에 이른다.

제17장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6.081 1.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의 복음적 은혜로서[1] 그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2]

6.082 2.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의 위험성뿐 아니라 더럽고 냄새남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율법에 반대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참회하는 나머지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며[3] 하나님의 계명이 말하는 모든 길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목적을 세우고 노력한다.[4]

6.083 3. 사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동이기 때문에[5]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이라든가 사죄의 어떤 원인으로

믿어져서는 안 된다.[6] 그러나 회개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으리만큼 모든 죄인에게 있어서 회개는 필요하다.[7]

4. 정죄받지 않아도 좋을 만큼 작은 죄란 없는 것이다.[8] 그와 같이 또 한 참으로 회개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죄해야 할 만큼 큰 죄는 없는 것이다.[9] 6.084

5. 사람이 일반적 회개로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짓는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별히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각자의 의무이다.[10] 6.085

6. 각자는 자기의 죄를 사사롭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고, 그것의 용서를 빌어야 하며,[11] 그렇게 하면서 그 죄들을 버리면 자비를 얻게 되는 것이다.[12] 그러므로 자기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노엽게 한 자는 자기 죄를 사사롭게나 공적으로 고백하고 슬퍼함으로써, 그 화가 난 자들에게 기꺼이 자기의 회개를 선언해야 한다.[13] 그렇게 됐을 때 화가 난 자는 그와 화해를 해야 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14] 6.086

제18장 제16장

선행에 관하여

1.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키고[1]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혹은 선한 의도로 한다는 핑계를 내세워서 고안한 것들은 아니다.[2] 6.087

2.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행한 선행은 참되고 산 신앙의 열매이며 증거이다.[3] 행에 의해서 신자들은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며[4] 그들의 확신을 강화하며[5] 그들의 형제를 육성하며[6] 복음 고백에 광채를 더하고[7] 원수들의 입을 막으며[8]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9] 신자들은 하나님의 솜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10] 그들의 열매를 거룩하게 맺은 다음에는 그 종말 즉 영생을 얻게 된다.[11] 6.088

3. 신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다.[12] 그들이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외에도 그들이 뜻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기쁜 마음으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 6.089

이 요구된다.[13]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운동이 없이는 아무 의무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들이 점점 태만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부지런히 자기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북돋워야 한다.[14]

6.090 4.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생에 있어서 가능한 최고의 지경에 도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림도 없고, 마땅히 해야 할 것보다 훨씬 모자라는 자리에 있다.[15]

6.091 5.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어 낼 만한 공로를 세우지는 못한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있는 큰 불균형 때문이며,[e]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무한한 거리 때문인 바,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써 하나님께 이익을 드릴 수 없으며 우리의 옛 죄의 빚을 만족스럽게 갚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16]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의무를 행한 데 불과하며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17] 그리고 선행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18]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 의해서 행해질 때 그것들이 더러워지고 연약함과 불완전성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성을 당해 내지 못한다.[19]

6.092 6. 그러나 신자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니만큼 그들의 선행도 역시 그 안에서 용납된다.[20] 그렇더라도 그 선행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흠할 것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21]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 선행을 보시면서, 비록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성을 동반할지라도 진지한 행동일 때 그것을 용납하시고 보상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22]

6.093

PCUS	UPCUSA
7.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행위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자신에게와 남에게 유용한 것일지라도[23] 그것들은 믿음으로 순결해	7. [f]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행위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것들 자체가 창찬받을 만하고 유용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e. UPCUSA판에는 "by reason"

f. 1647년 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VII.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행위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자신에게와 남에게 유용한 것일지라도 그것들이 믿음으로 순결해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말씀을 따라 옳은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또 옳은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PCUS	UPCUSA
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24] 또는 말씀을 따라[25] 옳은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또 옳은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26] 그것들은 죄악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27] 그러나 그들이 선행에 태만하면 더 죄가 있고 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만든다.[28]	그런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일지라도 그것들이 믿음으로 순결해진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며, 옳은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도달하지 못하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제19장 / 제17장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화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거나 영영 떨어져 나갈 수는 없다. 분명히 그들은 끝까지 은혜의 상태에 남아 있고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1] 6.094

2. 성도의 이러한 견인(堅忍, perseverance)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선택의 불변적 섭리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2]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유효성에 달려 있으며[3] 또한 그들 속에 성령 하나님의 씨가 거하시기 때문이며[4] 은혜계약의 성격에서 기인하며[5] 또한 은혜계약의 확실성과 정확 무오성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유래한다.[6] 6.095

3. 그러나 그들은 사단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 속에 남아 있는 부패의 편만과 그들이 견인의 수단을 소홀히 함을 통하여 중한 죄에 빠질 수 있 6.096

죄악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지를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선행에 태만하면 더 죄가 있고 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만든다."

으며 얼마 동안 그 속에 계속할 수 있다.[7]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불쾌를 사고,[8] 성령을 슬프게 하고[9] 그들의 은혜와 위안을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10]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11] 양심에 상처를 입게 되며[12] 남들을 손상시키고 분개케 하며[13] 자신들에게 임시적인 심판을 끌어 올 수 있다.[14]

제20장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6.097 1. 위선자들과 기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된 희망과 육적인 억측을 가지고 자신을 공연히 속이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 구원받은 신분을 가졌다고[1] 스스로 속이는데 그런 희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2]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진지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3] 확신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가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중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희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4]

6.098 2. 이 확실성은 틀릴 수도 있는 희망에 근거한 순전한 추측과 그럴지도 모른다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무오한 확신으로서[5] 구원의 약속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에 터를 두었으며[6] 약속을 준 은혜들의 내적 확증과[7]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 입양의 영의 증언[8]에 근거한 것이다. 그 영은 구속의 날을 위하여 우리를 인봉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받은 유산에 대한 보증이시다.[9]

6.099 3. 이 무오한 확신은 별로 신앙의 진수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참된 신자는 그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고 많은 어려움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1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성령에 의해서 알 수 있게 되면서, 비상한 계시가 없더라도 통상적인 방편을 바로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한다.[11]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의 소명과 선택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근면을 나타낼 의무가 있다. 그래야만 그 확신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에 있어서, 복종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힘과 환희에 있어서, 즉 확신의 정당한 열매에 있어서 확

11. 요삼 4, 롬 1 : 8.
12. 고후 12 : 21, 시 119 : 158.
13. 잠 17 : 9, 벧전 4 : 8.
14. 고전 1 : 4, 5, 딤후 1 : 4, 5.
15. 시 82 : 3.
16. 고전 13 : 4, 6, 7.
17. 시 15 : 3.
18. 잠 25 : 23.
19. 잠 26 : 24, 25.
20. 시 101 : 5.
21. 고후 11 : 18, 23, 잠 22 : 1, 요 8 : 49.
22. 시 15 : 4.
23. 빌 4 : 8.

문 145.

1. 눅 3 : 14.
2. 레 19 : 15, 합 1 : 4.
3. 잠 19 : 5, 잠 6 : 16, 19.
4. 행 6 : 13.
5. 렘 9 : 3, 시 12 : 3, 4, 시 52 : 1-4.
6. 잠 17 : 15.
7. 사 5 : 23.
8. 왕상 21 : 8.
9. 레 5 : 1, 행 5 : 3.
10. 레 19 : 17, 사 58 : 1.
11. 사 59 : 4.
12. 잠 29 : 11.
13. 삼상 22 : 9, 10, 시 52 : 1.
14. 시 56 : 5, 마 26 : 60, 61. 요 2 : 19 비교.
15. 창 3 : 5, 창 26 : 7, 9.
16. 사 59 : 13.
17. 골 3 : 9, 레 19 : 11.
18. 시 50 : 20.
19. 시 15 : 3, 롬 1 : 30.
20. 약 4 : 11, 딛 3 : 2.
21. 레 19 : 16.
22. 롬 1 : 29, 잠 16 : 28.
23. 사 28 : 22, 창 21 : 9, 갈 4 : 29.
24. 고전 6 : 10.
25. 마 7 : 1.
26. 약 2 : 13.
27. 요 7 : 24, 롬 2 : 1.
28. 롬 3 : 8, 시 69 : 10.
29. 시 12 : 2, 3.
30. 딤후 3 : 2.
31. 눅 18 : 11, 갈 5 : 26, 출 4 : 10, 14, 행 12 : 22.
32. 사 29 : 20, 21, 마 7 : 3.
33. 창 3 : 12, 13, 잠 28 : 13, 창 4 : 9.
34. 잠 25 : 9, 창 9 : 22.
35. 출 23 : 1.
36. 렘 20 : 10, 잠 29 : 12.
37. 행 7 : 57.
38. 고전 13 : 4, 5, 딤전 6 : 4.
39. 마 21 : 15, 민 11 : 29.
40. 단 6 : 3, 4, 스 4 : 12, 13.
41. 렘 48 : 27.
42. 마 27 : 28, 29, 시 35 : 15, 16.
43. 고전 3 : 21, 유 16, 행 12 : 22.
44. 롬 1 : 31, 딤후 3 : 3.
45. 삼하 12 : 14, 삼상 2 : 24.
46. 빌 3 : 18, 19, 벧후 2 : 2, 삼하 12 : 13, 14.

문 146.

1. 출 20 : 17.

문 147.

1. 히 13 : 5, 딤전 6 : 6.
2. 롬 12 : 15, 빌 2 : 4, 딤전 1 : 5.

문 148.

1. 고전 10 : 10.
2. 갈 5 : 26, 약 3 : 14, 16.
3. 시 112 : 9, 10, 느 2 : 10.
4. 롬 7 : 7, 신 5 : 21, 골 3 : 5, 롬 13 : 9.

문 149.

1. 약 3 : 2, 요 15 : 5.

4. 롬 1 : 26, 27, 레 20 : 15, 16.
5. 마 15 : 19, 골 3 : 5, 마 5 : 28.
6. 엡 5 : 3, 4, 잠 7 : 5, 21, 잠 19 : 27.
7. 사 3 : 16, 벧후 2 : 14.
8. 잠 7 : 10, 13.
9. 딤전 4 : 3.
10. 레 18 : 1−21.
11. 왕하 23 : 7, 레 19 : 29, 렘 5 : 7
12. 마 19 : 10−12.
13. 딤전 5 : 14, 15, 창 38 : 26.
14. 마 19 : 5, 고전 7 : 2.
15. 마 5 : 32, 말 2 : 16.
16. 문 138의 성구들을 보라. 고전 7 : 12, 13.
17. 겔 16 : 49, 렘 5 : 7.
18. 엡 5 : 11, 잠 5 : 8.
19. 롬 13 : 13, 벧전 4 : 3, 막 6 : 22.
20. 롬 13 : 14, 벧후 2 : 17, 18.

문 140.

1. 출 20 : 15.

문 141.

1. 시 15 : 2, 4, 미 6 : 8, 슥 8 : 16.
2. 롬 13 : 7.
3. 레 6 : 4, 5, 눅 19 : 8.
4. 신 15 : 7, 8, 10, 갈 6 : 10, 눅 6 : 30, 38.
5. 딤전 6 : 8, 9.
6. 딤전 5 : 8.
7. 잠 27 : 23, 24, 딤전 6 : 17, 18.
8. 엡 4 : 28, 롬 12 : 5−8.
9. 잠 10 : 4, 롬 12 : 11.
10. 잠 12 : 27, 잠 21 : 20, 요 6 : 12.
11. 고전 6 : 7.
12. 잠 11 : 15, 잠 6 : 1−5.
13. 레 25 : 35, 빌 2 : 4, 신 22 : 1−4, 출 23 : 4, 5.

문 142.

1. 잠 23 : 21, 요일 3 : 17, 약 2 : 15, 16.
2. 엡 4 : 28.
3. 시 62 : 10.
4. 딤전 1 : 10, 출 21 : 16.
5. 잠 29 : 24, 시 50 : 18.
6. 살전 4 : 6.
7. 잠 11 : 1, 잠 20 : 10.
8. 신 19 : 14, 잠 23 : 10.
9. 암 8 : 5, 시 37 : 21.
10. 눅 16 : 11.
11. 겔 22 : 29, 레 25 : 17.
12. 마 23 : 25, 겔 22 : 12.
13. 사 33 : 15.
14. 잠 3 : 30, 고전 6 : 7.
15. 사 5 : 8, 미 2 : 2.
16. 잠 11 : 26.
17. 행 19 : 19, 문맥을 보라.
18. 약 5 : 4, 잠 21 : 6.
19. 눅 12 : 15, 잠 1 : 19.
20. 요일 2 : 15, 16, 잠 23 : 5, 시 62 : 10.
21. 마 6 : 25, 34.
22. 시 73 : 3, 약 5 : 9.
23. 살후 3 : 11, 잠 18 : 9.
24. 잠 21 : 17, 잠 23 : 20, 21, 잠 28 : 19.
25. 신 12 : 7, 신 16 : 14.

문 143.

1. 출 20 : 16.

문 144.

1. 엡 4 : 25.
2. 요삼 12.
3. 잠 31 : 9.
4. 시 15 : 2.
5. 렘 9 : 3.
6. 렘 42 : 4, 행 20 : 20.
7. 행 20 : 27.
8. 레 19 : 15, 잠 14 : 15.
9. 사 63 : 8, 골 3 : 9, 고후 1 : 17.
10. 히 6 : 9, 고전 13 : 4, 5.

1. 출 20 : 12.
2. 엡 6 : 2, 3, 신 5 : 16, 왕상 8 : 25.

문 134.

1. 출 20 : 13.

문 135.

1. 엡 5 : 29, 마 10 : 23.
2. 시 82 : 4, 신 22 : 8.
3. 마 5 : 22, 렘 26 : 15, 16.
4. 엡 4 : 26.
5. 잠 22 : 24, 25, 삼상 25 : 32, 33, 신 22 : 8.
6. 잠 1 : 10, 11, 15, 마 4 : 6, 7.
7. 왕상 21 : 9, 10, 19, 창 37 : 21, 22, 삼상 24 : 12, 26 : 9-11.
8. 잠 24 : 11, 12, 삼상 14 : 45.
9. 눅 21 : 19, 약 5 : 8, 히 12 : 5.
10. 시 37 : 8, 11, 벧전 3 : 3, 4.
11. 잠 17 : 22, 살전 5 : 16.
12. 잠 23 : 20, 잠 25 : 16.
13. 잠 23 : 29, 30, 딤전 5 : 23.
14. 마 9 : 12, 사 38 : 21.
15. 시 127 : 2.
16. 살후 3 : 10, 12.
17. 막 6 : 31, 딤전 4 : 8.
18. 고전 13 : 4, 5, 삼상 19 : 4, 5.
19. 롬 13 : 10, 잠 10 : 12.
20. 슥 7 : 9, 눅 10 : 33, 34.
21. 골 3 : 12.
22. 롬 12 : 18.
23. 벧전 3 : 8, 9, 고전 4 : 12, 13.
24. 골 3 : 13, 약 3 : 17, 벧전 2 : 20, 롬 12 : 20, 21, 마 5 : 24.
25. 살전 5 : 14, 마 25 : 35, 36, 잠 31 : 8, 9, 사 58 : 7.

문 136.

1. 행 16 : 28, 잠 1 : 18.
2. 창 9 : 6.
3. 출 21 : 14, 민 35 : 31, 33.
4. 신 20 : 1, 히 11 : 32-34, 렘 48 : 10.
5. 출 22 : 2.
6. 마 25 : 42, 43, 약 2 : 15, 16.
7. 마 5 : 22.
8. 요일 3 : 15, 잠 10 : 12, 레 19 : 17.
9. 잠 14 : 30.
10. 롬 12 : 19.
11. 약 4 : 1, 엡 4 : 31.
12. 마 6 : 34.
13. 눅 21 : 34.
14. 출 20 : 9, 10.
15. 벧전 4 : 3, 4.
16. 잠 15 : 1, 잠 12 : 18.
17. 사 3 : 15, 출 1 : 14.
18. 갈 5 : 15.
19. 민 35 : 16.
20. 잠 28 : 17, 출 21 : 18-36.

문 137.

1. 출 20 : 14.

문 138.

1. 살전 4 : 4, 5.
2. 엡 4 : 29, 골 4 : 6.
3. 벧전 3 : 2.
4. 고전 7 : 2, 딛 2 : 4, 5.
5. 마 5 : 28.
6. 잠 23 : 31, 33, 렘 5 : 7.
7. 잠 2 : 16, 20, 고전 5 : 9.
8. 딤전 2 : 9.
9. 고전 7 : 9.
10. 잠 5 : 18-19.
11. 벧전 3 : 7, 고전 7 : 5.
12. 딤전 5 : 13, 14, 잠 31 : 27.
13. 잠 5 : 8.

문 139.

1. 잠 5 : 7, 잠 4 : 23, 27.
2. 히 13 : 4, 엡 5 : 5, 갈 5 : 19.
3. 삼하 13 : 14, 막 6 : 18, 고전 5 : 1, 13.

5. 사 49 : 23.

문 125.

1. 엡 6 : 4, 살전 2 : 7, 8, 11, 민 11 : 11, 12, 16.
2. 고전 4 : 14－16.

문 126.

1. 엡 5 : 21, 벧전 2 : 17, 롬 12 : 10.

문 127.

1. 말 1 : 6, 레 19 : 3.
2. 잠 31 : 28, 벧전 3 : 6.
3. 레 19 : 32, 왕상 2 : 19.
4. 딤전 2 : 1, 2.
5. 히 13 : 7, 빌 3 : 17,
6. 엡 6 : 1, 5－7, 벧전 2 : 13, 14, 롬 13 : 1－6, 히 13 : 17, 잠 4 : 3, 4, 잠 23 : 22.
7. 히 12 : 9, 벧전 2 : 18－20.
8. 딛 2 : 9, 10.
9. 마 22 : 21, 롬 13 : 6, 7, 딤전 5 : 17, 18, 갈 6 : 6, 창 45 : 11, 창 47 : 12.
10. 창 9 : 23, 벧전 2 : 18, 잠 23 : 22.
11. 시 127 : 3, 5, 잠 31 : 23.

문 128.

1. 마 15 : 5, 6.
2. 시 106 : 16.
3. 삼상 8 : 7, 사 3 : 5.
4. 삼하 15 : 1－12.
5. 출 21 : 15.
6. 삼상 10 : 27.
7. 삼상 2 : 25.
8. 신 21 : 18, 20, 21.
9. 잠 30 : 11, 17.
10. 잠 19 : 26.

문 129.

1. 골 3 : 19, 딛 2 : 4.
2. 삼상 12 : 23, 욥 1 : 5.
3. 왕상 8 : 55, 56, 창 49 : 28.
4. 신 6 : 6, 7.
5. 엡 6 : 4.
6. 벧전 3 : 7.
7. 롬 13 : 3, 벧전 2 : 14.
8. 롬 13 : 4.
9. 잠 29 : 15, 롬 13 : 4.
10. 딤전 5 : 8, 사 1 : 10, 17, 엡 6 : 4.
11. 딤전 4 : 12, 딛 2 : 2－14.
12. 왕상 3 : 28.
13. 딛 2 : 15.

문 130.

1. 겔 34 : 2, 4.
2. 빌 2 : 21.
3. 요 5 : 44, 요 7 : 18.
4. 사 56 : 10, 11, 신 17 : 17.
5. 행 4 : 18, 단 3 : 4－6.
6. 출 5 : 10－19, 마 23 : 2, 4.
7. 마 14 : 8. 막 6 : 24와 비교하라.
8. 렘 5 : 30, 32, 삼하 13 : 28.
9. 렘 6 : 13, 14, 겔 13 : 9, 10.
10. 요 7 : 46－49, 요 9 : 28.
11. 벧전 2 : 19, 20, 히 12 : 10, 신 25 : 3.
12. 레 19 : 29, 사 58 : 7, 창 38 : 11, 26.
13. 엡 6 : 4.
14. 창 9 : 21, 왕상 12 : 13, 14, 왕상 1 : 6, 삼상 3 : 13.

문 131.

1. 벧전 2 : 17.
2. 롬 12 : 10, 빌 2 : 3.
3. 롬 12 : 15, 16, 빌 2 : 4.

문 132.

1. 롬 13 : 8.
2. 잠 14 : 21, 사 65 : 5, 딤후 3 : 3.
3. 행 7 : 9, 갈 5 : 26.
4. 요일 3 : 12, 마 20 : 15, 민 12 : 2, 눅 15 : 28, 29.
5. 마 20 : 25－27, 요삼 9, 눅 22 : 24－26.

문 133.

맥을 보라.
24. 엡 5 : 4.
25. 딤전 6 : 4, 5, 20, 딤후 2 : 14, 딛 3 : 9.
26. 신 18 : 10, 11, 문맥을 보라. 행 19 : 13.
27. 딤후 4 : 3, 4, 유 4, 롬 13 : 13, 14, 왕상 21 : 9, 10.
28. 행 13 : 45.
29. 벧후 3 : 3, 시 1 : 1.
30. 벧전 4 : 4.
31. 행 13 : 50, 45, 46을 보라. 행 4 : 18, 행 19 : 9, 살전 2 : 16, 히 10 : 29.
32. 딤후 3 : 5, 마 23 : 14, 마 6 : 1−3, 5, 16.
33. 막 8 : 38.
34. 시 73 : 14, 15.
35. 엡 5 : 15, 17, 고전 6 : 5, 6.
36. 사 5 : 4, 벧후 1 : 8, 9.
37. 롬 2 : 23, 24.
38. 갈 3 : 1, 3, 히 6 : 6.

문 114.
1. 출 20 : 7.
2. 레 19 : 12.
3. 신 28 : 58, 59, 슥 5 : 2−4, 겔 36 : 21−23.
4. 삼상 2 : 12, 17, 22.

문 115.
1. 출 20 : 8−11.

문 116.
1. 사 56 : 2, 4, 6, 7.
2. 창 2 : 3, 눅 23 : 56.
3. 고전 16 : 2, 행 20 : 7, 요 20 : 19−27.

문 117.
1. 출 20 : 8, 10.
2. 렘 17 : 21, 22, 출 16 : 25−29, 느 13 : 15−22.
3. 마 12 : 1−14.
4. 레 23 : 3, 사 58 : 13, 눅 4 : 16, 행 20 : 7.
5. 출 20 : 8, 눅 23 : 54, 56, 느 13 : 19.

문 118.
1. 이 진술들은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서 얻는 필요한 추측들이다.

문 119.
1. 겔 22 : 26.
2. 겔 33 : 31, 32, 말 1 : 13, 암 8 : 5.
3. 겔 23 : 38.
4. 렘 17 : 27 문맥을 보라. 사 58 : 13, 14.

문 120.
1. 출 20 : 9.
2. 출 20 : 10.
3. 출 20 : 11.

문 121.
1. 출 20 : 8.
2. 출 16 : 23, 눅 23 : 54, 막 15 : 42, 느 13 : 19를 비교하라.
3. 겔 20 : 12, 20.
4. 창 2 : 2, 3, 시 118 : 22, 24, 히 4 : 9.
5. 민 15 : 37, 38, 40, 문맥을 보라.
6. 출 34 : 21.
7. 위 5번의 성구들을 보라.
8. 애 1 : 7, 느 13 : 15−23, 렘 17 : 21−23.

문 122.
1. 마 22 : 39.
2. 마 7 : 12.

문 123.
1. 출 20 : 12.

문 124.
1. 딤전 5 : 1, 2.
2. 창 4 : 20, 21, 창 45 : 8.
3. 왕하 5 : 13.
4. 갈 4 : 19, 왕하 2 : 12, 왕하 13 : 14.

4. 왕상 11 : 33, 왕상 12 : 33.
5. 신 12 : 30, 32.
6. 신 4 : 15, 16, 행 17 : 29, 롬 1 : 21–25.
7. 갈 4 : 8, 단 3 : 18.
8. 출 32 : 5.
9. 출 32 : 8.
10. 왕상 18 : 26, 28, 사 65 : 11.
11. 행 19 : 19.
12. 말 1 : 7, 8, 14.
13. 신 4 : 2.
14. 시 106 : 39.
15. 마 15 : 9.
16. 벧전 1 : 18.
17. 렘 44 : 17.
18. 사 65 : 3–5, 갈 1 : 13, 14.
19. 삼상 13 : 12, 삼상 15 : 21.
20. 행 8 : 18.
21. 롬 2 : 22, 말 3 : 8.
22. 출 4 : 24–26.
23. 마 22 : 25, 말 1 : 7, 12, 13.
24. 마 23 : 13.
25. 행 13 : 45, 살전 2 : 15, 16.

문 110.

1. 출 20 : 5, 6.
2. 출 34 : 13, 14.
3. 고전 10 : 20–22, 신 32 : 16–19, 렘 7 : 18–20, 겔 16 : 26, 27.
4. 호 2 : 2–4.
5. 신 5 : 29.

문 111.

1. 출 20 : 7.

문 112.

1. 마 6 : 9, 신 28 : 58, 시 68 : 4, 시 29 : 2, 계 15 : 3, 4.
2. 말 1 : 14.
3. 시 138 : 2.
4. 고전 11 : 28, 29, 문맥을 보라.
5. 딤전 2 : 8.
6. 렘 4 : 2.
7. 시 76 : 11.
8. 행 1 : 24, 26.
9. 시 107 : 21, 22.
10. 말 3 : 16.
11. 시 8장.
12. 시 105 : 2, 5, 골 3 : 17.
13. 시 102 : 18.
14. 벧전 3 : 15, 미 4 : 5.
15. 빌 1 : 27.
16. 고전 10 : 31.
17. 렘 32 : 39.
18. 벧전 2 : 12.

문 113.

1. 말 2 : 2.
2. 행 17 : 23.
3. 잠 30 : 9.
4. 말 1 : 6, 7, 12, 말 3 : 14.
5. 렘 7 : 4, 문맥을 보라. 골 2 : 20–22.
6. 출 5 : 2, 시 139 : 20.
7. 시 50 : 16, 17.
8. 사 5 : 12.
9. 왕하 19 : 22, 레 24 : 11.
10. 슥 5 : 4.
11. 롬 12 : 14, 삼상 17 : 43, 삼하 16 : 5.
12. 렘 5 : 7, 렘 23 : 10.
13. 신 23 : 18, 행 23 : 12.
14. 에 3 : 7, 에 9 : 24.
15. 시 24 : 4, 겔 17 : 19, 문맥을 보라.
16. 막 6 : 26, 삼상 25 : 22, 32–34.
17. 롬 9 : 14, 19, 20.
18. 신 29 : 29.
19. 롬 3 : 5, 7, 문맥을 보라.
20. 시 73 : 12, 13.
21. 마 5 : 21–48.
22. 겔 13 : 22.
23. 벧후 3 : 16, 마 22 : 29, 23–32절의 문

23. 느 13 : 8, 시 73 : 21, 시 119 : 136, 렘 31 : 18, 19.
24. 미 6 : 8.

문 105.

1. 시 14 : 1.
2. 렘 2 : 27, 28. 살전 1 : 9와 비교.
3. 시 81 : 11.
4. 사 43 : 22, 23.
5. 렘 4 : 22, 호 4 : 1, 6.
6. 렘 2 : 32, 시 50 : 22.
7. 행 17 : 23, 29.
8. 시 50 : 21.
9. 신 29 : 29.
10. 딛 1 : 16, 히 12 : 16.
11. 롬 1 : 30.
12. 딤후 3 : 2.
13. 빌 2 : 21.
14. 요일 2 : 15, 삼상 2 : 29, 골 3 : 2, 5.
15. 요일 4 : 1.
16. 히 3 : 12.
17. 갈 5 : 20, 딛 3 : 10.
18. 행 26 : 9.
19. 시 78 : 22.
20. 겔 37 : 11.
21. 렘 5 : 3.
22. 롬 2 : 5.
23. 렘 13 : 15.
24. 시 19 : 13.
25. 습 1 : 12.
26. 마 4 : 7.
27. 롬 3 : 8.
28. 렘 17 : 5.
29. 딤후 3 : 4.
30. 갈 4 : 17, 롬 10 : 2, 요 16 : 2, 눅 9 : 54, 55.
31. 계 3 : 16.
32. 계 3 : 1.
33. 겔 14 : 5, 사 1 : 4, 5.
34. 호 4 : 12, 계 19 : 10, 골 2 : 18, 롬 1 : 25.
35. 레 20 : 6, 삼상 28 : 7-11, 대상 10 : 13, 14 비교.
36. 행 5 : 3.
37. 마 23 : 9.
38. 신 32 : 15, 잠 13 : 13, 삼하 12 : 9.
39. 행 7 : 51, 엡 4 : 30.
40. 시 73 : 2, 3, 13-15, 22을 보라.
41. 단 5 : 23.
42. 신 8 : 17, 단 4 : 30.
43. 합 1 : 16.

문 106.

1. 시 44 : 20, 21, 겔 8 : 15-18.
2. 대상 28 : 9.

문 107.

1. 출 20 : 4-6.

문 108.

1. 신 32 : 46, 마 28 : 20, 딤전 6 : 13, 14, 행 2 : 42.
2. 빌 4 : 6, 엡 5 : 20.
3. 신 17 : 18, 19, 행 15 : 21, 딤후 4 : 2, 약 1 : 21, 행 10 : 33.
4. 마 28 : 19, 고전 11 : 23-30.
5. 마 16 : 19, 마 18 : 17, 고전 5장, 고전 12 : 28, 요 20 : 23.
6. 엡 4 : 11, 12, 딤전 5 : 17, 18, 고전 9 : 1-15.
7. 욜 2 : 12, 고전 7 : 5.
8. 신 6 : 13.
9. 시 76 : 11, 사 19 : 21, 시 116 : 14, 18.
10. 행 17 : 16, 17, 시 16 : 4.
11. 신 7 : 5, 사 30 : 22.

문 109.

1. 민 15 : 39.
2. 신 13 : 6, 8.
3. 호 5 : 11, 미 6 : 16.

4. 갈 3 : 10.

문 97.

1. 롬 7 : 4, 6, 롬 6 : 14, 롬 3 : 20, 롬 8 : 1, 34, 갈 3 : 13, 14, 롬 8 : 3, 4, 고후 5 : 21.
2. 골 1 : 12−14, 롬 7 : 22, 딛 2 : 11−14.

문 98.

1. 마 19 : 17−19.
2. 신 10 : 4, 출 34 : 1−4.

문 99.

법 1.

1. 시 19 : 7, 약 2 : 10, 마 5 : 22, 28, 37, 44.

법 2.

1. 롬 7 : 14, 신 6 : 5, 마 22 : 37−39, 마 12 : 36, 37, 위의 법 1의 성구들을 보라.

법 3.

1. 골 3 : 5, 딤전 6 : 10, 출 20 : 3−5, 암 8 : 5.

법 4.

1. 사 58 : 13, 마 15 : 4−6, 신 6 : 12, 마 4 : 9, 10과 비교하라.
2. 엡 4 : 18.
3. 출 20 : 12, 잠 30 : 17과 비교하라.
4. 렘 18 : 7, 8, 출 20 : 7. 시 15 : 1, 4, 5, 시 24 : 4, 5와 비교하라.

법 5.

1. 롬 3 : 8, 히 11 : 25.
2. 신 4 : 9.
3. 마 12 : 7, 막 14 : 7.

법 6.

1. 살전 5 : 22, 갈 5 : 26, 히 10 : 24, 골 3 : 21.

법 7.

1. 출 20 : 10, 신 6 : 6, 7, 수 24 : 15.

법 8.

1. 히 10 : 24.
2. 딤전 5 : 22, 엡 5 : 11.

문 101.

1. 출 20 : 2.

문 102.

1. 눅 10 : 27.

문 103.

1. 출 20 : 3.

문 104.

1. 문 104—문 148에 대한 대답들 속에 내포된 십계명 해설은 그 계명 자체와 문 99에 제출된 '법'으로부터 연역된 것이다. 세밀한 설명들이 성경의 일반적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상세한 설명 밑에 성경구절들을 밝힌 것이다.
2. 대상 28 : 9, 신 26 : 17, 사 43 : 10, 렘 14 : 22.
3. 시 95 : 6, 7, 마 4 : 10, 시 29 : 2.
4. 말 3 : 16.
5. 시 63 : 6.
6. 전 12 : 1.
7. 시 18 : 1, 2.
8. 말 1 : 6.
9. 사 45 : 23, 시 96장.
10. 수 24 : 22.
11. 신 6 : 5.
12. 시 73 : 25.
13. 사 8 : 13.
14. 출 14 : 31, 롬 10 : 11, 행 10 : 43.
15. 사 26 : 4, 시 40 : 4.
16. 시 130 : 7.
17. 시 37 : 4.
18. 시 32 : 11.
19. 롬 12 : 11, 계 3 : 19, 민 25 : 11.
20. 빌 4 : 6.
21. 렘 7 : 23, 약 4 : 7, 롬 12 : 1.
22. 요일 3 : 22.

2. 롬 5 : 5, 고후 1 : 22.
3. 롬 5 : 1, 2, 롬 14 : 17.
4. 창 4 : 13, 마 27 : 3－5, 히 10 : 27, 막 9 : 44, 롬 2 : 9.

문 84.
1. 롬 6 : 23.
2. 히 9 : 27.
3. 롬 5 : 12.

문 85.
1. 고전 15 : 26, 55－57, 히 2 : 15.
2. 사 57 : 1, 2, 왕하 22 : 20.
3. 눅 16 : 25, 고후 5 : 1－8.
4. 눅 23 : 43, 빌 1 : 23.

문 86.
1. 눅 16 : 23, 눅 23 : 43, 빌 1 : 23, 고후 5 : 6－8.
2. 롬 8 : 23, 시 16 : 9.
3. 살전 4 : 14.
4. 롬 8 : 23.
5. 눅 16 : 23, 24, 행 1 : 25, 유 6.

문 87.
1. 행 24 : 15.
2. 고전 15 : 51－53, 살전 4 : 15－17, 요 5 : 28, 29.
3. 고전 15 : 21－23, 42－44(이 구절에서 사도가 논의하는 확실한 견해는, 언약의 머리인 아담의 자연적 자손들이 아담의 범죄에 의하여 죽음에 굴복한 것처럼 그들의 새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 후손들이 그의 부활의 덕택으로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고 영광과 축복의 불후의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편적 구속의 증거 구절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다.) 빌 3 : 21.
4. 요 5 : 28, 29, 단 12 : 2, 마 25 : 33.

문 88.
1. 벧후 2 : 4, 계 20 : 11－13.
2. 마 24 : 36, 42, 44, 눅 21 : 35, 36.

문 89.
1. 마 25 : 33.
2. 롬 2 : 15, 16. (문맥을 보라.)
3. 마 25 : 41, 42.
4. 마 25 : 46, 살후 1 : 8, 9, 눅 16 : 26, 막 9 : 43, 44, 막 14 : 21.

문 90.
1. 살전 4 : 17.
2. 마 25 : 33, 마 10 : 32.
3. 고전 6 : 2, 3.
4. 마 25 : 34, 46.
5. 엡 5 : 27, 계 7 : 17.
6. 시 16 : 11, 고전 2 : 9.
7. 히 12 : 22, 23.
8. 요일 3 : 2, 고전 13 : 12, 살전 4 : 17, 18, 계 22 : 3－5.

문 91.
1. 신 29 : 29, 미 6 : 8, 삼상 15 : 22.

문 92.
1. 롬 10 : 5, 롬 2 : 14, 15, 창 2 : 17.

문 93.
1. 약 2 : 10, 신 5 : 1, 31, 33, 눅 10 : 26, 27, 살전 5 : 23.
2. 롬 10 : 5, 갈 3 : 10.

문 94.
1. 롬 8 : 3, 갈 2 : 16.
2. 딤전 1 : 8, 갈 3 : 19, 24.

문 95.
1. 롬 7 : 12.
2. 미 6 : 8, 눅 10 : 26, 28, 37.
3. 시 19 : 11, 12, 롬 3 : 20, 롬 7 : 7.
4. 롬 3 : 9, 23, 롬 7 : 9, 13.
5. 갈 3 : 21, 22.

문 96.
1. 롬 7 : 9, 딤전 1 : 9, 10.
2. 갈 3 : 24.
3. 롬 1 : 20. (롬 2 : 15와 비교하라.)

3. 요 16 : 8, 9, 행 16 : 30, 행 2 : 37, 엡 2 : 1, 행 4 : 12, 롬 7 : 9.
4. 롬 10 : 8-10.
5. 행 10 : 43, 갈 2 : 15, 16, 행 16 : 31.
6. 빌 3 : 9, 행 15 : 11.

문 73.
1. 갈 3 : 11, 롬 3 : 28.
2. 딛 3 : 5-7, 롬 4 : 5-8.
3. 빌 3 : 9.

문 74.
1. 요일 3 : 1.
2. 엡 1 : 5, 갈 4 : 4, 5.
3. 요 1 : 12.
4. 계 3 : 12, 고후 6 : 18.
5. 갈 4 : 6.
6. 시 103 : 13, 잠 14 : 26, 마 6 : 32.
7. 롬 8 : 17, 히 6 : 12.

문 75.
1. 엡 1 : 4, 고전 6 : 11, 살후 2 : 13, 롬 6 : 4-6, 엡 4 : 23, 24, 빌 3 : 10.
2. 행 11 : 18, 요일 3 : 9.
3. 유 20, 엡 3 : 16-18, 골 1 : 10, 11.
4. 롬 6 : 4, 6, 14.

문 76.
1. 딤후 2 : 25, 눅 24 : 47.
2. 행 11 : 18, 20, 21, 슥 12 : 10, 행 2 : 37.
3. 겔 18 : 30, 32, 눅 15 : 17, 18, 호 2 : 6, 7.
4. 겔 36 : 31, 겔 16 : 61, 63, 사 30 : 22.
5. 눅 22 : 61, 62, 슥 12 : 10.
6. 고후 7 : 11, 행 2 : 37.
7. 행 26 : 18, 겔 14 : 6, 왕상 8 : 47, 48, 삼상 7 : 3.
8. 시 119 : 59, 128.

문 77.
1. 고전 6 : 11, 고전 1 : 30, 롬 8 : 30.
2. 롬 4 : 6, 8, 빌 3 : 8, 9, 고후 5 : 21.
3. 겔 36 : 27.
4. 롬 3 : 24, 25.
5. 롬 6 : 6, 14.
6. 롬 8 : 1, 33, 34.
7. 고전 3 : 1, 2, 막 4 : 8, 28.
8. 요일 1 : 8, 10.
9. 고후 7 : 1, 빌 3 : 12-14, 엡 4 : 11-15.

문 78.
1. 롬 7 : 18, 23.
2. 갈 5 : 17, 히 12 : 1.
3. 출 28 : 38, 롬 7 : 18, 23.

문 79.
1. 렘 31 : 3, 요 13 : 1.
2. 고전 1 : 8, 히 6 : 17, 히 13 : 20, 21, 사 54 : 10.
3. 고전 12 : 27, 롬 8 : 35-39와 비교하라.
4. 히 7 : 25, 눅 22 : 32.
5. 요일 3 : 9, 요일 2 : 27.
6. 렘 32 : 40, 요 10 : 28, 벧전 1 : 5, 빌 1 : 6.

문 80.
1. 요일 2 : 3, 고전 2 : 12, 요일 4 : 13, 16, 요일 3 : 14, 18, 19, 21, 24, 롬 8 : 16, 요일 5 : 13.

문 81.
1. 사 50 : 10, 시 88장.
2. 시 31 : 22, 시 77 : 1-12, 시 30 : 6, 7, 시 51 : 8, 12.
3. 욥 13 : 15, 시 73 : 13-15, 23, 요일 3 : 9, 사 54 : 7-11.

문 82.
1. 고후 3 : 18.
2. 눅 23 : 43.
3. 요일 3 : 2, 살전 4 : 17, 계 22 : 3-5.

문 83.
1. 엡 2 : 4-6.

문 58.

1. 요 1 : 12, 13, 요 3 : 5, 6, 딛 3 : 5, 6.

문 59.

1. 요 6 : 37, 39, 요 10 : 15, 16, 롬 8 : 29, 30.
2. 벧전 1 : 2, 살후 2 : 13.

문 60.

1. 롬 10 : 14, 살후 1 : 8, 9, 행 4 : 12, 롬 1 : 18-32.
2. 고전 1 : 21, 롬 1 : 18-32, 롬 3 : 9-19.
3. 요 4 : 22, 빌 3 : 4-10.
4. 행 4 : 12.
5. 요 6 : 39, 44, 요 17 : 9.

문 61.

1. 롬 9 : 6, 마 7 : 21, 마 13 : 41, 42.

문 62.

1. 고전 1 : 2, 고전 12 : 12, 13, 롬 15 : 1-12.
2. 창 17 : 7, (문맥을 보라.) 갈 3 : 7, 9, 14, 롬 4장, 행 2 : 39, 고전 7 : 14, 막 10 : 13-16을 비교하라.

문 63.

1. 고전 12 : 28, 엡 4 : 11, 12, 행 13 : 1, 2, 사 49 : 14-16.
2. 마 16 : 18, 사 31 : 4, 5, 시 115 : 9-18.
3. 행 2 : 42, 롬 3 : 1, 2.
4. 시 147 : 19, 20, 롬 9 : 4, 행 16 : 31, 계 22 : 17.
5. 요 6 : 37.

문 64.

1. 요 11 : 52, 요 10 : 16, 엡 1 : 10, 22, 23.

문 65.

1. 요 17 : 21, 엡 2 : 5, 6, 요일 1 : 3, 요 17 : 24.

문 66.

1. 엡 2 : 8(문맥을 보라).
2. 고전 6 : 17, 요 10 : 28, 엡 5 : 23, 30, 요 15 : 1-5.
3. 고전 1 : 9, 벧전 5 : 10.

문 67.

1. 엡 1 : 18-20, 딤후 1 : 9.
2. 딛 3 : 4, 5, 롬 9-11장, 엡 2 : 4-10.
3. 고후 5 : 20, 요 6 : 44, 살후 2 : 13, 14.
4. 행 26 : 18.
5. 겔 11 : 19, 겔 36 : 26, 27.
6. 요 6 : 45, 빌 2 : 13, 신 30 : 6, 엡 2 : 5.

문 68.

1. 행 13 : 48, 요 6 : 39, 44, 요 17 : 9.
2. 마 22 : 14.
3. 마 13 : 20, 21, 히 6 : 4-6.
4. 시 81 : 11, 12, 요 12 : 38-40, 행 28 : 25-27, 요 6 : 64, 65, 잠 1 : 24-32, 시 95 : 9-11.

문 69.

1. 롬 8 : 30.
2. 엡 1 : 5.
3. 고전 1 : 30.

문 70.

1. 고후 5 : 19, 21, 롬 3 : 22, 24, 25, 롬 4 : 5.
2. 엡 1 : 6, 7, 롬 3 : 28.
3. 롬 3 : 24, 25, 롬 5 : 17-19, 롬 4 : 6-8.
4. 롬 5 : 1, 행 10 : 43, 갈 2 : 16, 빌 3 : 9, 롬 3 : 25, 26.

문 71.

1. 문 70의 성구들을 보라.

문 72.

1. 히 10 : 39.
2. 롬 10 : 14, 17, 살후 2 : 13.

10. 롬 14 : 11, 골 1 : 18, 마 28 : 19, 20.
11. 롬 8 : 28.
12. 살후 1 : 8, 시 2 : 9.

문 46.
1. 빌 2 : 6−8, 고후 8 : 9, 갈 4 : 4.

문 47.
1. 요 1 : 18, 위의 46문의 성구들을 보라.

문 48.
1. 갈 4 : 4.
2. 마 3 : 15, 요 19 : 30, 롬 5 : 19.
3. 히 12 : 2, 3, 사 53 : 2, 3, 시 22 : 6.
4. 마 4 : 1, 2 : 12, 눅 4 : 1−14를 보라.
5. 히 2 : 17, 18, 히 4 : 15, 사 52 : 13, 14.

문 49.
1. 마 27 : 4.
2. 마 26 : 56.
3. 눅 18 : 32, 33, 사 53 : 3.
4. 마 27 : 26, 요 19 : 34, 눅 22 : 63, 64.
5. 눅 22 : 44, 마 27 : 46, 롬 8 : 32.
6. 롬 4 : 25, 고전 15 : 3, 4, 사 53 : 10.
7. 빌 2 : 8, 히 12 : 2, 갈 3 : 13.

문 50.
1. 고전 15 : 3, 4.
2. 마 12 : 40, 눅 18 : 33.

문 51.
1. 고전 15 : 4.
2. 눅 24 : 51, 행 1 : 9−11.
3. 엡 1 : 20.
4. 행 1 : 11, 행 17 : 31.

문 52.
1. 행 2 : 24, 시 16 : 10.
2. 눅 24 : 39.
3. 계 1 : 18.
4. 요 10 : 18.
5. 롬 1 : 4.
6. 롬 4 : 25, 고전 15 : 17.
7. 히 2 : 14, 계 1 : 18.
8. 롬 14 : 9.
9. 고전 15 : 21, 22.
10. 엡 1 : 22, 23, 골 1 : 18.
11. 롬 4 : 25.
12. 엡 2 : 5, 6, 골 2 : 12.
13. 고전 15 : 25, 26, 행 12 : 17, 행 18 : 9, 10.
14. 고전 15 : 20, 살전 4 : 13−18.

문 53.
1. 행 1 : 2, 3.
2. 마 28 : 19, 20, 행 1 : 8.
3. 히 6 : 20, 엡 4 : 8, 행 1 : 9.
4. 시 68 : 18.
5. 골 3 : 1, 2.
6. 요 14 : 2.
7. 행 3 : 21.

문 54.
1. 빌 2 : 9.
2. 행 2 : 28, 시 16 : 11과 비교하라.
3. 요 17 : 5.
4. 엡 1 : 22, 벧전 3 : 22.
5. 엡 4 : 11, 12, 문 45의 성구들을 보라.
6. 롬 8 : 34, 문 44의 성구들을 보라.

문 55.
1. 히 9 : 24.
2. 히 1 : 3.
3. 요 17 : 9, 20, 24.
4. 롬 8 : 33, 34.
5. 롬 5 : 1, 2.
6. 히 4 : 16.
7. 엡 1 : 6.
8. 벧전 2 : 5, 계 8 : 3, 4.

문 56.
1. 마 24 : 30, 눅 9 : 26, 살전 4 : 16, 행 17 : 31, 마 25 : 31.

문 57.
1. 히 9 : 12, 고전 1 : 30, 롬 8 : 32, 고후 1 : 20.

2. 딛 3 : 4-7, 딛 1 : 2, 갈 3 : 21, 롬 3 : 20-22.

문 31.

1. 고전 15 : 22, 45, 엡 1 : 4, 딤후 1 : 9, 사 53 : 10, 11, 히 2 : 10, 11, 14.

문 32.

1. 딤전 2 : 5.
2. 요일 5 : 11, 12.
3. 요 3 : 16, 요 1 : 12, 요 3 : 36.
4. 요 1 : 12, 13, 요 3 : 5, 6, 8, 갈 5 : 22, 28.
5. 겔 36 : 27.
6. 약 2 : 18, 22.
7. 고후 5 : 14, 15.
8. 엡 2 : 10, 딛 2 : 24, 3 : 8.

문 33.

1. 고후 3 : 6, 히 1 : 1, 2, 8 : 7, 8 이하

문 34.

1. 롬 15 : 8, 행 3 : 20.
2. 행 3 : 20, 24.
3. 히 10 : 1.
4. 롬 4 : 11.
5. 고전 5 : 7, 출 12 : 14, 17, 24.
6. 히 11 : 13.
7. 갈 3 : 7-9, 히 11장.

문 35.

1. 마 28 : 19, 20.
2. 마 28 : 19.
3. 고전 11 : 23-26.
4. 히 8 : 6, 7.

문 36.

1. 딤전 2 : 5.
2. 요 1 : 1, 요 10 : 30, 빌 2 : 6, 갈 4 : 4, 골 2 : 9, 빌 2 : 5-11.

문 37.

1. 요 1 : 14, 마 26 : 38.
2. 눅 1 : 31, 35, 42, 갈 4 : 4.
3. 히 4 : 15.

문 38.

1. 총괄적 주를 보라.

문 39.

1. 롬 5 : 19, 갈 4 : 4, 5.
2. 히 2 : 14, 히 7 : 24, 25.
3. 히 4 : 15.
4. 갈 4 : 5.
5. 히 4 : 14-16.

문 40.

1. 총괄적 주를 보라.

문 41.

1. 마 1 : 21.

문 42.

1. 요 3 : 34, 눅 4 : 18-21.
2. 눅 4 : 14, 히 9 : 14, 마 28 : 18-20.
3. 행 3 : 22, 눅 4 : 18, 21.
4. 히 5 : 5, 6, 히 4 : 14, 15.
5. 계 19 : 16, 사 9 : 6, 7, 시 2 : 6.

문 43.

1. 요 1 : 1, 4.
2. 벧후 1 : 21, 고후 2 : 9, 10.
3. 엡 4 : 11-13, 요 20 : 31.

문 44.

1. 히 9 : 14, 28.
2. 히 2 : 17.
3. 히 7 : 25.

문 45.

1. 요 10 : 16, 27, 사 55 : 5.
2. 고전 12 : 28, 엡 4 : 11, 12.
3. 마 28 : 19, 20.
4. 마 18 : 17, 18, 고전 5 : 4, 5, 딤전 5 : 20, 딛 3 : 10.
5. 행 5 : 31.
6. 계 22 : 12, 마 25 : 34-36, 롬 2 : 7.
7. 계 3 : 19, 히 12 : 6, 7.
8. 고후 12 : 9, 10, 롬 8 : 35-39.
9. 고전 15 : 25, 행 12 : 17, 행 18 : 9, 10.

4. 마 24 : 36.
5. 살후 1 : 7.
6. 시 103 : 20, 21.
7. 벧후 2 : 4.

문 17.
1. 창 1 : 27.
2. 창 2 : 7.
3. 창 2 : 22.
4. 창 2 : 7, 마 10 : 28, 눅 23 : 43.
5. 창 1 : 27.
6. 골 3 : 10, 창 2 : 19, 20.
7. 엡 4 : 24.
8. 롬 2 : 14, 15.
9. 롬 1 : 28.
10. 창 2 : 16, 17, 창 3 : 6.

문 18.
1. 시 145 : 17.
2. 시 104 : 24, 사 28 : 29.
3. 히 1 : 3.
4. 시 103 : 19, 욥 38-41장.
5. 마 10 : 29,30, 창 45 : 7, 시 135 : 6.
6. 롬 11 : 36, 사 63 : 14.

문 19.
1. 유 6, 벧후 2 : 4.
2. 욥 1 : 12, 눅 10 : 17, 마 8 : 31.
3. 딤전 5 : 21, 막 8 : 38, 히 12 : 22.
4. 시 104 : 4, 히 1 : 14.

문 20.
1. 창 2 : 8, 창 2 : 15, 16.
2. 창 1 : 28.
3. 창 2 : 18.
4. 창 1 : 27, 28.
5. 창 2 : 3.
6. 창 2 : 16, 17을 롬 5 : 12-14, 10 : 5, 눅 10 : 25-28,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들과 비교하라.
7. 창 2 : 17.

문 21.
1. 창 3 : 6-8, 13, 고후 11 : 3.

문 22.
1. 행 17 : 26, 위의 6번을 보라.
2. 창 2 : 17, 롬 5 : 12-20, 그리고 고전 15 : 21,22와 비교하라.

문 23.
1. 롬 5 : 12, 갈 3 : 10.

문 24.
1. 롬 3 : 23, 요일 3 : 4, 약 4 : 17.

문 25.
1. 롬 5 : 12, 19, 고전 15 : 22.
2. 롬 5 : 6, 엡 2 : 1-3, 롬 8 : 7,8, 창 6 : 5, 롬 3 : 10-20, 시 51 : 5, 58 : 3.
3. 약 1 : 14, 15, 마 15 : 19.

문 26.
1. 시 51 : 5, 요 3 : 6.

문 27.
1. 창 3 : 8, 24.
2. 엡 2 : 2, 3.
3. 딤후 2 : 26, 눅 11 : 21, 22, 히 2 : 14.
4. 롬 6 : 23, 롬 5 : 14.

문 28.
1. 엡 4 : 18.
2. 롬 1 : 28.
3. 살후 2 : 11.
4. 롬 2 : 5.
5. 사 33 : 14, 창 4 : 13, 마 27 : 4, 히 10 : 27.
6. 롬 1 : 26.
7. 창 3 : 17.
8. 신 28 : 15-68.
9. 롬 6 : 21, 23.

문 29.
1. 살후 1 : 9, 막 9 : 43, 44, 눅 16 : 24, 26, 마 25 : 41, 46, 계 14 : 11, 요 3 : 36.

문 30.
1. 살전 5 : 9.

총괄적 주—어떤 점에 있어서는 대요리문답이 그 진술에 있어서 성경에 있는 것보다도 상세하다. 이 진술들은 성경으로부터 오는 추론들이거나, 또는 성경에 기초한 진술로부터 온 추론이거나, 혹은 교회의 경험과 관찰에서부터 오는 추론들이다. 그런 경우에는 성경구절을 제시하지 못한다. 다만 이 총괄적 주를 참고하라고 하였다.

문 1.
1. 롬 11 : 36, 고전 10 : 31.
2. 시 73 : 24-26, 요 17 : 22, 24.

문 2.
1. 롬 1 : 19, 20, 시 19 : 1-4.
2. 고전 1 : 21, 고전 2 : 9, 10.

문 3.
1. 갈 1 : 8, 9, 사 8 : 20, 눅 16 : 29, 31, 딤후 3 : 15-17.

문 4.
1. 총괄적 주를 보라.
2. 요 16 : 13, 14, 고전 2 : 6-9.

문 5.
1. 총괄적 주를 보라.

문 6.
1. 요 4 : 24, 출 34 : 6, 7.
2. 마 28 : 19, 고후 13 : 14.
3. 엡 1 : 11, 문맥을 보라.
4. 행 4 : 27, 28, 사 42 : 9.

문 7.
1. 요 4 : 24.
2. 왕상 8 : 27, 사 40 : 20.
3. 총괄적 주를 보라.
4. 행 17 : 24, 25.
5. 시 90 : 2.
6. 말 3 : 6, 약 1 : 17.
7. 롬 11 : 33.
8. 렘 23 : 24, 시 139장.
9. 계 4 : 8.
10. 히 4 : 13, 시 147 : 5.
11. 롬 16 : 27.
12. 사 6 : 3, 계 15 : 4.
13. 신 32 : 4.
14. 출 34 : 6.

문 8.
1. 신 6 : 4, 고전 8 : 4, 6, 렘 10 : 10.

문 9.
1. 마 3 : 16, 17, 마 28 : 19, 고후 13 : 14.

문 10.
1. 히 1 : 5.
2. 요 1 : 14.
3. 갈 4 : 6, 요 15 : 26.

문 11.
1. 렘 23 : 6, 요일 5 : 20, 시 45 : 6, 행 5 : 3, 4.
2. 요 1 : 1, 사 9 : 6, 요 2 : 24, 25, 고전 2 : 10, 11, 히 9 : 14.
3. 골 1 : 16, 창 1 : 2, 시 104 : 30, 요 1 : 3.
4. 마 28 : 19, 고후 13 : 14.

문 12.
1. 엡 1 : 4, 11, 행 4 : 27, 28, 시 33 : 11.

문 13.
1. 딤전 5 : 21.
2. 엡 1 : 4-6, 살후 2 : 13, 14, 벧전 1 : 2.
3. 롬 9 : 17, 18, 21, 22, 유 4, 마 11 : 25, 26, 딤후 2 : 20.

문 14.
1. 엡 1 : 11, 벧전 1 : 1, 2.

문 15.
1. 히 11 : 3, 계 4 : 11, 창 1장.

문 16.
1. 시 104 : 4, 골 1 : 16.
2. 눅 20 : 36.
3. 창 1 : 31.

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11] 육신을 제어하시고,[12] 사단을 억제하시고[13] 모든 것을 명하시고[14], 모든 은혜의 방편을 부여하시고 축복하시어,[15]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우리를 경성시킴으로써, 우리와 그의 모든 백성이 그의 섭리에 의해서 죄짓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사 하고 기도합니다.[16] 만일 우리가 유혹에 빠졌으면 그의 영에 의하여 우리가 강력하게 후원을 받아 유혹의 시간에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17] 또는 우리가 넘어졌을 경우 다시 일으킴을 받고 그것에서 빠져 나와 회복되고,[18] 그것을 거룩한 용도에 쓰고 또 개선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19] 그리고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완성되고,[20] 사탄은 우리의 발에 밟히고,[21] 우리는 완전히 죄와 유혹과 모든 악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기를 기원합니다.[22]

문 196. 주기도의 결론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7.306

답. 주기도의 결론("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1]은 우리 자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 속에 있는 어떤 가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논거(論據)를 가지고[3] 우리들의 기원을 강화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2]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찬양을 곁들여[4]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성과 영광의 탁월성을[5]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고, 또 그러할 의사를 가지셨으니[6] 우리도 믿음으로 담력을 얻어 그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탄원하고[7], 또 그가 그렇게 해주실 것, 즉 우리의 요구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조용히 그에게 의뢰합니다.[8] 그리고 우리의 소원들과 확신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멘." 하고 말합니다.[9]

를 받들어 행하는 중에 그의 거저 주시는 은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성적 지혜의 견지에서 가장 선하게 여겨지는 대로, 그것들의 충족한 분량을 즐기고,[9] 또 그 동일한 것을 우리가 거룩하고도 안락하게 사용하며 그것을 계속 누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10] 그것들에서 만족을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11] 그리고 이생에서 우리를 부지하고 위안을 주는 일에 반대가 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사 하고 기원합니다.[12]

7.304 문 194.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기원("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에서,[1] 우리와 모든 사람은 원죄와 현행죄, 이 두 가지의 허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채무자가 되었다는 것과, 또한 우리나 기타 어떤 피조물도 그 부채에 대하여 최소의 탕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2]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 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저 주시는 은총에 의하여, 믿음으로 감지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복종과 사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허물과 벌로부터 풀어 주시고,[3]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4] 당신의 총애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며,[5] 우리의 매일의 실패를 용서하시며,[6]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 더 사죄의 확신을 주심으로[7]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 자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죄를 담대히 구하게 되고 그 사죄를 기대할 용기가 생깁니다.[8]

7.305 문 195.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여섯째 기원("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1] 우리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도 정당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의 공격을 받고, 당황하며, 일시 동안 포로가 되도록 사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과,[2] 사단,[3] 세상,[4] 그리고 육신은 우리를 강력하게 곁길로 유인하여 올무에 걸리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5]는 것과, 또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된 후에도 우리의 부패와[6] 연약함과 경각심의 결핍으로 인해서[7] 유혹을 받기 쉽고, 우리 자신을 유혹에다 노출하도록 조성할 뿐 아니라,[8] 그 유혹들을 저항하고, 그것들로부터 빠져 나와 회복하고 또는 그것을 개선할 만한[9] 능력이 우리 자신 속에는 없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치도 않는다는 사실과 그것들의 세력 아래 남아 있어 마땅하다는 사실을[10] 인정하

의 왕국이 파멸되고,[3] 복음이 전세계에 전파되어,[4] 유대인들이 부름을 받고,[5] 충만한 숫자의 이방인들이 영입되기를[6] 우리는 기도합니다, 교회는 모든 복음사역자들과 율례들이[7] 구비되고 부패가 깨끗이 제거되고,[8] 민간 행정관들에 의해서 장려되고 지지되기를 기원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율례들이 깨끗하게 실시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개종시키고, 이미 개종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하고 양육하는 일에 유효하기를 기원합니다.[9]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10] 그의 재림과 우리가 그와 더불어 영원히 다스릴 때를 어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11]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그의 능력의 통치를 기꺼이 시행하심으로써 그러한 결과들이 최선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12]

문 192. 셋째 기원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302

답. 셋째 기원("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1] 우리와 모든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또 원치 않을 뿐 아니라[2] 그의 말씀을 반역하고,[3] 그의 섭리를 거슬러 투덜거리고 수군거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4] 전적으로 육신과 악마의 뜻을 행하려는 경향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5] 하나님이 당신의 양으로서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든 맹목과[6] 연약함과[7] 완악함과[8] 비꼬인 마음을[9] 제거하시고, 당신의 은혜로써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18], 모든 일에서[10] 같은 겸손과[11] 기쁜 마음과[12] 성실성과[13] 근면과[14] 열정과[15] 진지함과[16] 절조를 가지고[17] 그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할 능력과 의지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문 193. 넷째 기원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303

답. 넷째 기원("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서,[1] 우리는 아담 안에서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생의 모든 외적 축복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들을 전부 박탈당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저주거리가 되어 마땅하다는 것을[2] 인정하며, 또한 그것들이 그 자체로서 우리를 지탱할 능력이 없으며,[3] 우리가 지탱을 받을 만한 공로도 없으며,[4] 혹은 우리 자신의 노고에 의해서 그것을 차지할 공로도 없으며,[5] 오히려 그것들을 불법적으로 원하고,[6] 얻고,[7] 사용하려는[8]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즉 그들과 우리가 다 합법적 방편을 사용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섭리

답. 주기도는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할 때 따라야 할 모형으로서 방향지시가 될 뿐 아니라,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수행하기에 필요한 이해, 믿음, 경외, 그리고 여타의 은혜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한 하나의 기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1]

7.298 문 188. 주기도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 주기도는 세 부분으로 곧 머리말, 기원,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299 문 189. 주기도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주기도의 머리말은("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1]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성적인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 선하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2] 그에게 접근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존경심과, 어린이 같은 기타의 모든 기질과[3] 신성한 애정과[4] 그의 주권적 능력, 위엄, 그리고 은혜로우신 겸비에 대한 마땅한 이해를 가지고[5]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6]

7.300 문 190. 첫째 기원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첫째 기원("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1] 라는 말)에서 우리 자신들과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존경할 능력이 전혀 없고 그런 마음조차 없음을 인정하면서,[2]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에 의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그의 직함들과[4] 속성들과[5] 율례들과 말씀과[6] 사역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신 그 무엇이든지[7] 그것들을 알고, 인정하고, 높이 존중할[3] 능력과 성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과[8] 행위로[9]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과 성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신론,[10] 무지,[11] 우상숭배,[12] 신성을 더럽히는 일과,[13] 또 그에게 불명예가 되는 그 무엇이든지 다[14] 방어하시고 제거해 주실 것을 기원하며, 그의 지배적인 섭리에 의하여 모든 것이 그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이끄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15]

7.301 문 191. 둘째 기원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기원("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에서는[1] 우리 자신과 모든 인간이 본질상 죄와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2] 죄와 사단

문 182.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까? 7.292

답.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성령은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때에, 꼭 같은 정도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무를 옳게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그러한 이해력들, 감정들, 은혜들을 작용하시고 일으키심으로써 도와 주십니다.[1]

문 183.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7.293

답. 우리는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1] 행정장관들과[2] 목사들과[3] 우리 자신과[4] 우리의 형제 자매와[5] 또 우리의 원수들과[6] 살아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과[7] 혹은 이후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8]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9]

문 184.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까? 7.294

답.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것을 위하여,[1] 교회의 안녕과[2] 우리 자신,[3] 혹은 남의 이익을 위하여[4]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5]

문 185.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7.295

답.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운 마음으로 감지하고,[1] 우리 자신의 무가치와[2] 궁핍과[3] 죄악성을[4] 깊이 느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과[5] 감사함과[6]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7] 할 것이며, 이해와[8] 믿음과[9] 진지함과[10] 열정과[11] 사랑과[12] 인내와[13]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여[15]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14] 기도해야 합니다.

문 186.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법칙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7.296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기도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를 지도하는 데 유용합니다.[1] 그러나 그 방향 지시의 특수 법칙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반적으로 '주기도'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형식 바로 그것입니다.[2]

문 187. 주기도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7.297

7.287 문 177. 세례와 주의 만찬 두 성례전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답. 세례와 주의 만찬 두 성례전이 서로 다른 것은, 세례는 단 한 번 물을 가지고 집행되며, 우리가 중생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표요 확인(確印)이 되는 것으로[1] 유아들에게도 시행되는 것입니다.[2] 반면에 주의 만찬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주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영혼에 대한 영적 양식으로 여기고 나타내려는 것이며[3]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고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4]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집행된다는 점입니다.[5]

7.288 문 178.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2] 그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3]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4] 그의 모든 자비를 감사하면서[5]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1]

7.289 문 179.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답. 하나님만이 마음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1] 요구하는 것을 들으시고,[2] 죄를 용서하시고,[3] 모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4] 그분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시어[5] 종교적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6] 기도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의 특수한 부분인 바[7] 모두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누구에게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8]

7.290 문 18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약속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위하여 자비를 구하는 일입니다.[1] 단지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2] 그리스도와 그의 중재 역사로부터 우리의 기도의 격려와 담대함과 힘과 기도응답에 대한 희망을 자아내면서 하라는 것입니다.[3]

7.291 문 181. 우리가 어째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답. 사람은 죄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중보가 없이는 그 어전에 결코 접근할 수 없으며, 또한 천상천하에 그리스도 한분 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하여 지목된 자가 없고, 또 그 일에 합당한 자가 없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1]

무엇입니까?

답. 주의 만찬의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거행하는 동안 그들은 모든 거룩한 경의와 주목을 가지고 그 의식에서 하나님을 모실 것이며, 성찬의 빵과 포도주와 그 의식의 행위들을 열심히 관찰할 것이며,[1] 주의 몸을 주의 깊게 식별하고,[2] 주님의 죽음과 고난을 애정을 가지고 명상하며,[3] 스스로를 분발시켜 그것들의 은총을 활발히 적용하되, 스스로를 검토하고[4]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5] 그리스도를 주리고 목마름같이 열심히 사모하고,[6] 믿음으로 그를 양식으로 삼으며,[7] 그의 충족함으로부터 받으며,[8] 그의 공로를 신뢰하고[9] 그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10]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11] 하나님과 그들간의 계약과[12]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13]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 175.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의 성찬을 받은 후에 가지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7.285

답.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만찬의 성찬을 받은 후에 가지는 의무는,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했으며 성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다.[1] 만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얻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칭송할 것이며,[2] 그것이 계속되기를 간구하며, 해이해지지 않도록 경성하며,[3] 그들의 서원을 성취하며,[4] 그 예식에 자주 참여하도록 자신을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5] 만일 현재적 이익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성례전을 위한 그들의 준비와, 그 예식에서 가진 몸가짐을 보다 정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6] 그 두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께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을 가질 수 있다면, 적시에 그것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7] 그러나 만일 그 어느 하나에서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는 겸비해야 하며[8] 이후로는 더욱 주의하고 근면한 마음으로 그 예전에 참여해야 합니다.[9]

문 176. 세례와 주의 만찬 두 성례는 어디에 그 일치점이 있습니까? 7.286

답. 세례와 주의 만찬 두 성례는 그 두 가지의 작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1] 그 둘의 영적 부분이 그리스도와 또 그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는 것과[2] 둘은 동일한 계약에 대한 확인(確印)이며,[3] 반드시 복음사역자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집행할 수 없으며[4]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할 예전이라는 점입니다.[5]

그래도 그것은 참이며 사실입니다.[3]

7.281 문 171. 주의 만찬의 성찬을 받는 자들이 그것을 받으러 오기 전에 어떻게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까?

답. 주의 만찬의 성찬을 받는 자들이 그것을 받으러 오기 전에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2] 그리고 자기들의 죄와 부족이 무엇인지[3]를 스스로 검토하며[1] 그들의 지식,[4] 믿음,[5] 회개,[6]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7] 모든 사람에 대한 자선,[8] 자기들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9] 등이 얼마나 참되며 그 정도가 어떠한 지를 검토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과[10] 새로운 복종에[11] 대해서 검토하며, 이러한 은혜들의 실행을 새롭게 하고,[12] 진지하게 명상하고,[13] 열렬하게 기도하는 일입니다.[14]

7.282 문 172.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마땅히 할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자가 주의 만찬에 나올 수 있습니까?

답.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주의 만찬 예식을 위해서 마땅히 할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자도, 그것에 대하여 아직 확신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1] 그리고 만일 그가 그 관심의 결여(缺如)를 염려하는 마음을 정상적으로 가졌고,[2]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3] 악으로부터 떠난다면,[4]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그 관심을 가진 셈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연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구조하시려고 약속이 되어 있고 이 성례전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5] 그가 자기의 불신앙을 비탄하고[6] 자신의 의심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7]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의 만찬에 나올 수 있고 또 나와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8]

7.283 문 173.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만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까?

답.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만찬에 참석하기를 원할지라도 무지하거나 혹은 평이 좋지 않다고 판명된 사람들은, 그들이 교육을 받고 그들의 개선을 명시하기까지,[2]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남겨 주신 권세에 의하여[1] 성례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또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7.284 문 174. 주의 만찬 예식이 거행될 때 성찬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써 해야 하며,[5] 세례받을 때 자신의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바쳐 버린 자로서 믿음으로 살고[6] 거룩과 의(義)로 대화하고,[7] 같은 영에 의하여 한 몸속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형제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함으로써 해야 합니다.[8]

문 168. 주의 만찬이란 무엇입니까? 7.278

답. 주의 만찬이란 새 계약에 속한 한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주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는 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1] 그리고 가치있게 그 성찬을 받는 자들은 그의 몸과 피를 양식으로 먹어 그들의 영적 자양분을 삼으며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2]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친교를 굳히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감사와 결연(結緣)을 확증하고 새롭게 하며,[3] 일한 신비체의 회원이 된 그들 상호간의 사랑과 교제를 확증하고 또 새롭게 합니다.[4]

문 169.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의 만찬 성례에서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도록 지정하셨습니까? 7.279

답. 그리스도는 이 주의 만찬 성례 집행에 있어서 당신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지목하시어, 성찬 제정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서 빵과 포도주를 통상적 사용에서 구별하도록 하셨으며, 빵을 들어 떼고 빵과 포도주 두 가지를 다 수찬자들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수찬자들은 그 동일한 지시에 의하여 빵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시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고 그들에게 주신 바 된 것과, 그의 피가 그들을 위해 흘린 바 되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1]

문 170. 주의 만찬을 가치있게 받는 자들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7.280

답.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주의 만찬에 나오는 빵과 포도주 안에, 혹은 그것들과 함께, 혹은 그것들 밑에 실체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1] 그것들을 받는 자들의 신앙에서 영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서, 그 빵과 포도주 자체가 그들의 외적 감각에 틀림없이 참되며 사실인 것과 맞먹는 것입니다.[2] 그래서 주의 만찬을 가치있게 받는 자들은 신체적으로 혹은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 성찬에서 양식으로 먹게 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혜택을 신앙으로 받아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지만,[4]

7.274 문 164. 그리스도께서 새 계약 밑에서 제정하신 성례전은 몇 가지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새 계약 밑에서 제정하신 성례전은 단 둘, 즉 세례와 주의 만찬입니다.[1]

7.275 문 165.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새 계약의 한 성례로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1]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을 제정하시어, 당신에게 접붙이는 일,[2] 그의 피로써 죄용서를 받는 일,[3] 그의 영에 의하여 중생하는 일[4]의 표와 확인(確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자(養子)가 되고[5]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6] 표와 확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례받은 자들은 이 세례에 의해서, 보이는 교회 속에 엄숙히 영접되고[7] 적으로 주님의 것, 오직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공개적이며 공공연하게 계약관계에 들어갑니다.[8]

7.276 문 166.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답.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에게 복종하기 전의 사람, 즉 가견적 교회밖에 있는 자들, 따라서 약속의 계약과 무관한 자들에게는 베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1] 그러나 부모 혹은 그들 중 어느 한 쪽만이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경우, 그들에게 태어난 어린 애기들은 그 점에서 계약 안에 있는 것이며,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2]

7.277 문 167.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입니까?

답. 우리는 세례를 향상시켜야 하는 필수적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우리는 평생 수행해야 하는 바, 특히 유혹을 당하는 때에 해야 하고[1] 또 남들이 세례를 받는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그리해야 합니다. 즉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과 그것에 의해서 주어지고 확인되는 특권과 혜택과, 또 세례에서 우리가 한 엄숙한 서약을 진지하게,[2]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려함으로써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더러워진 것과, 세례의 은총과 우리의 계약에 충성스럽지 못하고,[3] 도리어 반대로 걷고 있는 일에 대하여 겸손하여짐으로써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과 성례전으로써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기타의 모든 축복에 대한 확신에로 성장함으로써 해야 하며,[4] 죄를 죽이고 은혜를 소생시키려고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음으로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2] 건전한 교리[1]를 설교해야 하며, 명백하게 할 것이며,[3] 사람을 꾀는 인간적인 지혜로서가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며,[4] 하나님의 전체적 의도를 알게 하는[6] 성실한[5] 설교여야 하며, 청중의 필요와 역량에 알맞도록[8] 슬기롭게[7] 할 것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에 대한[11]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10] 열심히[9] 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13]과 그들의 개종[14]과 육성[15]과 구원[16]을 목표로 하고 진지하게[12] 설교해야 합니다.

문 160. 설교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7.270

답. 설교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열심으로,[1] 준비된 마음[2]과 기도[3]로써 경청하는 일이며, 듣는 것을 성경에 비추어 검토하는 일이며,[4] 믿음,[5] 사랑,[6] 온유,[7]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8]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9] 수락하는 일이며, 구것을 명상하며[10] 논의하는 일이며,[11]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12]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열매맺게 하는 일입니다.[13]

문 161. 성례전이 어떻게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방편이 됩니까? 7.271

답. 성례전이 구원을 위한 효과적 방편이 되는 것은, 그것들 자체가 지닌 어떤 능력이나, 그것을 집전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혹은 의도에서 파생되는 어떤 공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령의 역사와 그것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1]

문 162. 성례전이란 무엇입니까? 7.272

답. 성례전이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제정해 주신 하나의 거룩한 의식으로서,[1]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3] 그의 중보의 여러 가지 혜택을[4] 표명하고 확인하며 전시(展示)하려는[2] 것으로서, 그들의 믿음과 기타의 모든 은혜를 강화 증진시키려는 것이며,[5]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복종하도록 하며,[6] 그들의 사랑과 상호간의 친교를 증명하고 소중히 여기며,[7] 자기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8]

문 163. 성례전은 어떤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7.273

답. 성례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정하신 대로 사용되는 외적이면서 감각적인 표징(sign)이며, 다른 하나는 그 표징으로써 나타내는 내적이며 영적인 은혜입니다.[1]

고 사용하시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가 주신 모든 율례들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 즉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얻는데 효과를 내도록 되어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1]

7.265 문 155.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를 냅니까?

답.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일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일로 하여금 죄인을 계발하고 확신시키고 겸허하게 하는[1] 효과적 방편이 되게 하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가고,[2]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고,[3] 그들을 그의 뜻에 굴복하게 하는[4] 효과적 방편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유혹과 부패를 대항하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고,[5] 은혜 안에서 그들을 육성하고,[6] 믿음을 통하여 오는 거룩함과 위로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확립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7] 효과적인 방편을 삼습니다.

7.266 문 156.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회중에게 읽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부류의 사람일지라도 혼자서[1] 또는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2] 따로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성경은 원어에서부터 저마다의 일상용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3]

7.267 문 157.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답. 성경은 그것에 대한 고등하고도 경건한 존경심을 가지고 읽어야 하며,[1]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2] 하나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읽어야 하며,[3] 그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복종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읽어야 하며,[4] 부지런히,[5] 그리고 그 속의 내용과 범위를 주목하며 읽어야 하며,[6] 명상[7]과 적용[8]과 자기 부정[9]과 기도로써[10] 읽어야 합니다.

7.268 문 158.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설교되어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재능을 받은 사람,[1] 그리고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부름을 받아 임직한 사람에 의해서만 설교되어야 합니다.[2]

7.269 문 159. 설교를 하도록 소명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때를

혹은 많은 사람의 공동 이익을 거스르는 경우.[18]

3. 범법의 성격과 질 여하[19] : 즉 그것이 율법의 명백한 문구를 어기거나,[20] 많는 계명들을 어기거나 그 속에 많은 죄가 포함되는 경우,[21] 마음에 범죄할 생각을 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터져 나오고,[22] 남들을 아연케 하며[23]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24] 방편,[25] 자비,[26] 심판,[27] 자연의 광명,[28] 양심의 확신,[29] 공적(公的) 또는 사적 충고,[30] 교회의 견책,[31] 사회의 처벌[32]들을 거스르는 경우,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 서약, 언약, 하나님 혹은 사람과의 계약들을 거스르는 경우,[33] 고의로, 자의로,[34] 뻔뻔스럽게, 건방지게, 거만하게,[35] 악의를 가지고,[36] 빈번하게,[37] 완고하게,[38] 경솔하게,[39] 계속적으로[40] 저지르는 경우 혹은 회개 후에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41]

4. 시간과[42] 장소[43]의 환경 여하 : 즉 주일이나[44] 혹은 그 밖의 거룩한 예배 시간에[45] 범행됐을 경우, 혹은 그 직전이나[46] 직후[47] 또는 그러한 과오를 방지하거나 혹은 고칠 수 있는 다른 도움들이 있는 경우,[48] 대중 속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자극을 받거나 오염이 될 수 있는 경우.[49]

문 152.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262

답. 죄는 비록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1] 하나님의 주권[2]과 선하심[3]과 거룩[4]에 어긋나고 그의 의로우신 법에 상치되는 것으로서[5] 이생과[7] 오는 세상에서[8]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6]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속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9]

문 153.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7.263

답. 율법을 어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더러 당신을 향하여 회개할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질 것과[1]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재의 혜택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외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2]

문 154.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외적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7.264

답.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당신의 교회에게 전달하시려

7.257 문 147. 열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이 무엇입니까?

답. 열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처지에 충분히 만족하고[1]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전심으로 자비로운 마음씨를 가져, 그를 향한 우리의 내적 움직임과 애정이 그 이웃의 이익을 위하고 조장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

7.258 문 148. 열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답. 열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재산에 만족치 않는 것[1] 우리 이웃의 물건에 샘을 내고[2] 마음 아파하며[3]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지나친 행동을 하거나 애착을 가지는 일 등입니다.[4]

7.259 문 149.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무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나[1] 혹은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2] 날마다 생각과[3] 말과 행위에 있어서[4] 계명들을 범합니다.

7.260 문 150.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모두가 그 자체로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꼭같이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해서 모두가 꼭같이 가증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에 있어서 또는 몇 가지 가중성(加重性 aggravations)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스럽습니다.[1]

7.261 문 151.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한 것으로 만드는 가중성들이 무엇입니까?

답. 죄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더 무거워집니다:

1. 죄를 범하는 자들의 신분 여하[1]: 즉 그들이 나이가 들고, 경험이나 은사가 더 크고,[2] 직업,[3] 재능,[4] 지위, 직무,[5] 남들에 대한 지도력이 탁월하고[6] 남들이 그들을 귀감으로 삼기 쉬운 사람들일 경우.[7]

2. 범법 대상자의 신분 여하[8]: 즉 직접 하나님을 대항하거나[9] 그의 속성과[10] 예배를[11] 범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거스르고,[12] 성령과 그의 증언과 역사를 거스리고,[13] 위 사람, 저명 인사,[14] 우리가 특별한 관계와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15] 거스리고, 성도들,[16] 특히 연약한 형제들을 거스리고 그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거스리고,[17] 모든 사람

답. 아홉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을 손상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 이웃의 명예, 그리고 또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1] 특히 공적 재판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일,[2] 거짓 증거를 내놓는 일,[3]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는 일,[4] 악한 사유를 위하여 고의로 나타나 변호하는 일, 진실을 맞서고 뭉개 버리는 일,[5] 불공정한 언도를 내려[6]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하는 일, 악한 자에게 의로운 자의 행위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고, 의인에게 악한 자의 행위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는 일,[7] 위조하는 일,[8] 진실을 감추는 일,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을 지키는 일,[9] 불법이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책망이나[10] 남에 대한 항의를[11] 요구할 때 침묵을 지키는 일, 철 늦게 진실을 말하거나,[12] 악의를 갖고 말하여 옳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거나,[13] 그것을 그릇된 의미로 왜곡하거나[14]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말하여 진실이나 정의에 손해를 끼치는 일,[15] 비진실을 말하는 일,[16] 거짓말 하기,[17] 비방하기,[18] 험담하기,[19] 헐뜯기,[20] 고자질,[21] 수군거리기,[22] 조롱,[23] 욕하기,[24] 경솔하고,[25] 사납고,[26] 편파적인 질책,[27] 사람의 의도, 말, 행동을 잘못 이해하는 일,[28] 아첨,[29] 허영스러운 자랑,[30] 우리 자신이나 혹은 남을 너무 높이 또는 너무 천하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재질과 은사를 부정하는 일,[31] 보다 작을 허물들을 확대 악화시키는 일,[32] 자유로 고백하라고 호출되었을 때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감소하는 일,[33] 약점을 불필요하게 밝히는 일,[34] 거짓 소문을 일으키는 일,[35]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거나 찬성하는 일[36] 또는 적당한 변명에 대해서 우리의 귀를 막는 일,[37] 악한 의심,[38] 어떤 사람이 마땅히 받을 평판에 대해서 샘을 내거나 마음 아파하는 일,[39] 그것을 손상시키려는 노력 혹은 욕망,[40] 그들이 망신당하고 명예를 잃는 것을 기뻐하는 일,[41] 남을 조소하고 멸시하는 일,[42] 칭찬 받기를 좋아하고[43] 합법적인 약속을 깨는 일,[44] 사람들이 좋다고 보는 일들을 등한히 하는 일,[45] 악명을 얻게 하는 일들을 행하거나 스스로 피하지 않거나, 남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말릴 수 있는 데도 말리지 않는 일[46] 등입니다.

문 146. 열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7.256

답. 열째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입니다.[1]

한 거래,[6] 거짓 저울질과 자재기,[7] 경계표 옮기는 일,[8] 사람과 사람사이의 계약[9] 혹은 신탁 업무에 있어서[10] 공정하지 못하거나 신용이 없는 일,[11] 탄압,[11] 강요, 고리대금,[12] 뇌물 수수(授受),[13] 성가신 소송,[14] 불의한 토지 점거(占據), 주민줄이기,[15] 가격을 올리려고 물건을 매점하는 일,[16] 불법적 직업들,[17] 우리 이웃에게 속하는 것을 그에게서 부당한 방법 또는 죄악된 방법으로 빼앗거나 보류하거나 또는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기타의 모든 행동,[18] 탐심,[19] 세상적 물건을 무절제하게 존중하고 좋아하는 일,[20] 세상 물건을 얻고 지키고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의 의심스럽고 심란한 걱정과 노력,[21] 남의 소유를 샘내는 일,[22] 게다가 게으르고[23] 방탕하고 허비성 노름을 하고, 우리 자신의 외적 소유를 부당하게 해치는 기타의 모든 일,[24]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정당하게 사용하고 위안받는 일을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일입니다.[25]

7.253 문 143. 아홉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아홉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1]

7.254 문 144. 아홉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아홉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1] 그리고 우리 이웃의 명예와 우리 자신의 명예를[2] 보전하고 향상시킬 것, 진실을 위해서 나서고 지지할 것,[3] 판가름을 하는 일과 재판 사건에 있어서[8] 그리고 기타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9] 진심으로 성실하게[4] 자유롭게[5] 명백하게[6] 그리고 충분히[7] 진실을 말할 것, 아니 진실만을 말할 것, 우리의 이웃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존중하며[10] 그들의 명성을 사랑하고 바라고 기뻐할 것,[11] 그들의 약한 점들을 위해서 슬퍼하고[12] 감싸 줄 것,[13] 그들의 재질과 은사를 아낌없이 인정해 주고[14] 그들의 무죄함을 변호할 것,[15] 그들에 대한 좋은 평을 기꺼이 수락하며[16] 그들에 관한 나쁜 소문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할 것,[17] 소문 퍼뜨리는 자,[18] 아첨하는 자,[19] 비방하는 자들을[20] 막아 단념시킬 것,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돌볼 것,[21] 합법적 약속들을 지킬 것,[22]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할 만하고 평판이 좋은 것이며 연구하고 실천할 것 등입니다.[23]

7.255 문 145. 아홉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피하는 일과 그리로 향하는 유혹들을 저항하는 일[13] 등입니다.

문 139. 일곱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7.249

답. 일곱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그것이 요구하는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일 외에,[1]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간통, 사통(私通),[2] 강간, 근친상간,[3] 남색, 기타 모든 부자연스러운 욕정,[4]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의사, 애정,[5] 부패하거나 추잡한 모든 통신 혹은 그것을 청취하는 일,[6] 음탕한 표정,[7] 건방지거나 경솔한 행동, 야비한 복장,[8] 합법적 결혼을 금하는 일과[9] 불법적 결혼을 시행하는 일,[10] 창녀의 집을 허락, 관용, 유지하고 또는 거기에 출입하는 일,[11] 독신생활 맹세에 말려드는 일과[12] 부당하게 결혼을 지연시키는 일,[13] 같은 시간에 한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가지는 일,[14] 정당하지 못한 이혼[15] 또는 유기(遺棄),[16] 나태(懶怠), 탐식, 술취함,[17] 부정(不貞)한 교제,[18] 음란한 노래, 서적, 그림, 춤, 무대 놀이,[19] 기타 우리 자신이나 남에게 부정(不貞)한 것을 자극하는 일들 혹은 행동들.[20]

문 140. 여덟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7.250

답. 여덟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1]

문 141. 여덟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7.251

답. 여덟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는 참되고 성실하고 정의로울 것,[1] 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줄 것,[2]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았던 물건들을 돌려 줄 것,[3] 우리의 역량과 남들의 필요에 따라 거저 주고 또는 빌려 줄 것,[4] 세상적 사물에 관해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착이 온건할 것,[5] 우리의 자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편리하고, 또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7] 것들을 얻고,[6] 지키고,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조심성 있는 배려와 연구를 할 것, 합법적 직업을 가지고[8] 그 일에 근면할 것,[9] 검소할 것,[10] 불필요한 소송,[11] 보증을 서는 일, 혹은 그와 같은 거래를 피할 것,[12] 남과 또한 우리 자신의 재물과 외적 재산을 획득하고 보전하고 증식하는 일을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힘쓸 것.[13]

문 142. 여덟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7.252

답. 여덟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1] 도둑질,[2] 강도질,[3] 사람유괴,[4] 도둑물건 받는 일,[5] 부정

7.245 문 135. 여섯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어떤 것들입니까?

답. 여섯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앗아가게 하는[7] 모든 생각과 의도를 대항하고[3] 그러한 모든 욕정을 억제하고[4] 그러한 모든 기회와[5] 유혹과[6] 실천을 피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생명과[1] 또 남의 생명을[2] 보전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세심한 연구를 하고 합법적으로 노력할 일, 폭력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생명을 방어할 것,[8] 하나님의 손을 참고 기다리며,[9] 마음의 평정,[10] 상쾌한 정신을 유지하며[11] 육류(肉類),[12] 음료,[13] 운동,[14] 수면,[15] 노동,[16] 오락[17]을 적절하게 사용할 일, 자비로운 생각,[18] 사랑,[19] 연민,[20] 온유, 온순, 친절을 가질 것,[21] 해를 입었을 때 온순하고[22] 부드럽고 정중한 말과 행동을 하며[23] 참고 화해할 용의를 가지며, 오래 참고 견디면서 용서해 주고 악을 선으로 갚을 것,[24] 고민하는 자를 위로하고 도와 주며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방어해 주는 일입니다.[25]

7.246 문 136. 여섯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답. 여섯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公共)한 정의(正義)나[3] 합법적 전쟁이나[4] 혹은 필요한 방어[5]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1] 혹은 남의 생명[2]을 앗아가는 모든 행동,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합법적 혹은 필요한 수단을 쓰는 일에 등한하거나 물러서는 일,[6] 죄악적인 분노,[7] 미워함,[8] 시기,[9] 복수하려는 욕망,[10] 일체의 과도한 정열(情熱),[11] 심로(心勞)를 흩뜨리는 일,[12] 육류, 음료,[13] 노동,[14] 오락[15]의 무제한적 사용, 도발적인 언사,[16] 압박,[17] 언쟁,[18] 구타, 상해(傷害)[19] 기타 남의 생명을 파멸에 이르게 할 모든 일[20] 등입니다.

7.247 문 137. 일곱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입니다.[1]

7.248 문 138. 일곱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이 무엇입니까?

답. 일곱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몸과 마음과 애정과[1] 말과[2] 행위[3]의 정절(貞節), 그리고 우리 자신과 남에게 있어서 정절을 보전하는 일,[4] 눈과 모든 감각들을 예의 감시하는 일,[5] 절제와[6] 순결한 교제를 유지하는 일,[7]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일,[8] 자제의 능이 없는 자들이 결혼하는 일,[9] 부부간의 사랑,[10] 그리고 부부의 동거생활,[11]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부지런히 힘쓸 것,[12] 불결한 모든 기회를 기

는 사람은 무안을 주고[8] 책망하고 징계해야 합니다,[9] 아래 사람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10] 그리고 근엄하고 현명하고 거룩하고 모범적 몸가짐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11] 자신들에게 영예가 되게 하여[12]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해야 합니다.[13]

문 130. 위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어떤 것들입니까? 7.240

답. 위 사람들이 짓는 죄는 그들이 마땅히 행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1] 외에, 자기 자신과[2] 자신의 영광과[3] 안일과 이익과 혹은 쾌락을[4] 지나치게 추구하는 일, 합법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거나[5] 아래 사람이 수행할 권한이 없는 것을 명령하는 일,[6] 악한 일을 조언하거나[7] 권장하거나[8] 찬성하는 일,[9] 선한 일을 말리거나 방해하거나 무안하게 하는 일,[10] 부당하게 교정(矯正)하는 일,[11] 잘못된 일, 유혹, 또는 위험한 일에 아래 사람을 조심성 없이 내맡기거나 방치하는 일,[12] 그들을 격동하여 성나게 하는 일,[13] 혹은 불의하고 경솔하고 혹독하고 혹은 태만한 행위에 의해서 그들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그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14]

문 131. 대등한 자들이 행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7.241

답. 대등한 자들이 행할 의무는, 서로 서로 영예를 돌리며,[2] 서로 상대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1] 서로의 은사와 발전을 자기들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기뻐하는 일입니다.[3]

문 132. 대등한 자들이 짓는 죄는 어떤 것들입니까? 7.242

답. 대등한 자들이 짓는 죄는 그들이 마땅히 행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1] 서로 가치를 과소평가하고,[2] 은사들을 시기하고[3] 남의 발전 혹은 번영을 마음 아파하고[4] 서로 남의 탁월성을 빼앗는 일입니다.[5]

문 133. 다섯째 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첨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243

답. 다섯째 계명에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1]는 말로써 첨부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모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에 이바지하는 한, 장수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명백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2]

문 134. 여섯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7.244

답.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입니다.[1]

7.235 문 125. 어째서 위 사람을 부모라고 칭합니까?

답. 위 사람을 부모라고 칭하는 것은 그들의 아래 사람에게 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들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 마치 자연적 부모가 하듯이, 그들에게 사랑과 유순함을 나타낼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며,[1] 또 아래 사람에게는 그들의 위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치 그들의 부모에게 하듯이 보다 더 흔쾌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2]

7.236 문 126. 다섯째 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래 사람, 혹은 위 사람, 혹은 대등한 사람으로서 상호간에 해야 할 의무들을 수행하는 일입니다.[1]

7.237 문 127.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해야 할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답.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해야 할 공경이란, 마음과[1] 말과[2] 행동으로[3] 마땅히 드릴 모든 존경,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4] 그들의 덕과 장점을 모방하는 일,[5] 그들의 합법적 명령과 조언을 기꺼이 복종하는 일[6] 그리고 그들의 교정(矯正)에 마땅히 응하는 일,[7]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위치의 성격에 따라[9]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8] 그들을 옹호 또는 지지하는 일, 그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감싸 주어[10] 그들에게와 그들의 통치권에 영예가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11]

7.238 문 128.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가 어떤 것들입니까?

답.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짓는 죄는 : 그들을 향하여 의당 행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모든 일,[1] 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조언,[7] 명령, 교정(矯正)[8]을 할 때 그들의 인격과[5] 지위들을[6] 샘내고[2] 멸시하고[3] 반역하는 일,[4] 위 사람 자신과 그들의 통치권에 분명히 수치를 주고 불명예가 될 만큼 저주하고 희롱하고[9] 기타 모든 건잡을 수 없는 추잡한 태도를 가지는 일입니다.[10]

7.239 문 129.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답. 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와 그들이 처하여 있는 관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 아래 사람들을 사랑하고,[1] 위하여 기도하고[2] 축복해야 합니다,[3] 그들을 가르치고[4] 조언하고 견책해야 합니다.[5] 잘하는 사람을 장려하고[6] 칭찬하고 포상하며,[7] 잘못하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의 수단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며 그날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3]

문 121. 어째서 넷째 계명에 '기억하라'는 명령이 나옵니까? 7.231

답. 넷째 계명에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1] 우선 그것을 기억하면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날을 지킬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며,[2] 또 그것을 지킴으로써 나머지 모든 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되며,[3] 종교의 짧은 요약을 함축하는 창조와 구원의 큰 두 혜택에 대하여 감사어린 기억을 계속하게 됩니다.[4]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손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5]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자연의 빛은 보다 희미하며, 그것은 합법적인 다른 시간에 있어서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우리의 자연적 자유를 억제하기 때문이며,[6] 안식일은 칠 일 만에 한 번 돌아오고, 그 사이에 많은 세상사가 끼어 있어서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준비하거나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너무 잦으며,[7] 또한 사단은 그의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그 영광과 심지어 그것에 대한 기억마저 지워 버리려고 하며, 또는 모든 비종교, 불경건을 끌어들이려고 크게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8]

문 122.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괄하고 있는 여섯 계명들의 개요는 무엇입니까? 7.232

답.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괄하고 있는 여섯 계명들의 개요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며[1] 또는 남더러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그들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2]

문 123. 다섯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7.233

답. 다섯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입니다.[1]

문 124. 다섯째 계명에 있는 부모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7.234

답. 다섯째 계명에 있는 부모는 자연적 양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1] 은사에 있어서[2] 우위(優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정이나[3] 교회나[4] 국가에 있어서[5]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우리들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게 해야 합니다.[1] 어느 때를 막론하고 죄악스럽던 일들을 멈추고 쉴 뿐 아니라, 다른 날에는 합법한 세상 일이나 오락도 쉬라는 것입니다.[2] 그리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불가피하고 자선적인 일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한)[3] 모든 시간을 소비하는 일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4]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마음을 준비해야 하며, 예견(豫見)과 근면과 절제로써 우리의 세상적 사무를 정리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그 날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보다 자유스럽고 알맞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5]

7.228 문 118. 어째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가정을 다스리는 자들과 기타 윗사람들을 향하여 더욱 특별하게 주어집니까?

답.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가정을 다스리는 자들과 윗 사람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주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그들 자신이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책임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하는 것을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1]

7.229 문 119. 넷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에 있어서 죄는 요구된 의무를 행하지 않는 모든 일,[1] 그것들을 조심성 없이 무관심하게 헛되게 실시하는 모든 일, 그리고 그것들에 넌더리가 나는 일,[2]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날의 거룩을 더럽히고, 그 자체로서 죄가 되는 일을 행하는 것,[3] 우리들의 세상적 일과 오락에 대해서 쓸데없는 일과 말과 생각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4]

7.230 문 120. 넷째 계명을 더욱 힘있게 하려고 첨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을 더욱 힘있게 하려고 첨부한 이유들은, 우선 그것의 형평(衡平)에 근거한 것으로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사무를 위해서는 칠 일 중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를 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1]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하여 특별한 준수를 촉구하시며 "제 칠 일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2] 그 다음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 칠 일에 쉬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것을 거룩한 날로 성별하셨을 뿐 아니라,

일,[27] 증상,[28] 조소,[29] 욕설[30] 기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도리[31]를 거스르는 일 ; 가식으로 혹은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종교적 공언을 하는 일,[32]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거나[33] 불쾌하고[34] 슬기롭지 못하고[35] 열매 없고[36] 무례한 행동이나[37] 혹은 타락생활로[38]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문 114. 셋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7.224

답. 셋째 계명에 '너의 하나님 야훼'와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1]는 말로써 첨부되는 이유는, 그가 야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의 이름이 우리에 의해서 더럽혀지거나 어떤 것으로든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2] 특히 하나님은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무죄로 하거나 아끼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질책이나 심판을 피할지는 몰라도[4] 그의 심판을 피하도록 허용하시지는 않으실 것[3]이기 때문입니다

문 115. 넷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7.225

답.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1]

문 116. 넷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226

답. 넷째 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지정하신 일정한 시간들, 특히 칠 일 중의 하루를 거룩하게 하는 일 혹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1] 그날은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제 칠 일이었고,[2] 그 후로는 한 주간의 첫 날이며, 세상끝까지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며,[3] 신약성경에서는 '주의 날'(주일)이라고 불리웁니다.

문 117.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입니까? 7.227

답. 안식일 혹은 주일은 그 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쉬는 일로서 거룩하

의(禮儀) 이외에, 모든 거짓 예배[2]는 하나의 영적인 간음[3]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것,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따지고 여러 세대에 걸쳐 벌하시겠다고 위협하신다는 것,[4] 하나님을 사랑하는 등 이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시며 많은 세대에 걸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5]

7.221 문 111. 셋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1]

7.222 문 112. 셋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의 이름, 그의 직함, 속성,[1] 율례,[2] 말씀,[3] 성례전,[4] 기도,[5] 맹세,[6] 서약,[7] 제비뽑기,[8] 그의 사역,[9] 기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알게 하시는 데 사용되는 그 무엇이든지, 생각과[10] 명상[11]과 말[12]과 글[13]에서 거룩하고 경건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공언(公言)과[14] 알맞는 대화에[15]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16] 우리 자신과[17] 남의[18] 이익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7.223 문 113. 셋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가 무엇들입니까?

답. 셋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일,[1]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하게,[2] 헛되게,[3] 존경심 없이, 속되게,[4] 미신적으로[5] 남용하는 일, 혹은 그 칭호들이나 속성들이나[6] 율례들이나[7] 사역들을[8] 악하게 들먹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신성모독,[9] 위증,[10] 모든 죄악적 저주,[11] 서약,[12] 맹세,[13] 제비뽑기[14]에 사용하는 일, 합법적인 우리의 서약과 맹세를 깨뜨리는 일,[15] 합법하지 않은 일들을 성취하는 일,[16] 하나님의 경륜[19]과 섭리[20]를 놓고 불평하고 말다툼하고[17] 호기심으로 천착(穿鑿)하고[18] 잘못 적용하는 일, 말씀 혹은 그것의 어떤 부분을[23] 그릇 해석하고[21] 그릇 적용하거나[22] 어딘지 모르게 왜곡하여 속된 희롱이나[24] 괴이한 질문이나 헛된 말다툼을 자아내거나, 거짓된 교리들을 지지하는 일,[25] 하나님의 이름이나 피조물이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 아래 포함되는 그 어떤 것을 부적이나 주문으로[26] 악용하든가 혹은 죄악된 욕망이나 책략을 위해 악용하는

문 108. 둘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7.218

답. 둘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대로의 모든 종교적 예배와 율례들을 순수히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지킬 일,[1]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일,[2]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경청하는 일,[3] 성례를 집행하고 받는 일,[4] 교회를 치리하고 권징하는 일,[5] 교회를 섬기고 유지하는 일,[6] 종교적 금식,[7]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서하는 일,[8] 하나님께 서약하는 일,[9] 동시에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정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일,[10] 각자의 장소와 소명에 따라 거짓 예배와 모든 우상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11]

문 109. 둘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가 어떤 것들입니까? 7.219

답. 둘째 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지 않은 어떤 종교적 예배든지, 이를 고안하고[1] 상의하고[2] 명령하고[3] 사용하는[4] 모든 행동과 그것을 교묘하게 승인하는 행동,[5] 하나님을 전체적으로든지 또는 삼위 중의 하나만이든지, 하나님의 초상을 만드는 일 즉 우리 마음속에 내적으로 만들든지, 혹은 외적으로 무엇이든지 피조물의 모양이나 형상의 어떤 종류로서 표시하는 일,[6]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일, 혹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또는 그것에 의해서 묘사되는 하나님[8]을 예배하는 일,[7] 거짓된 신성의 어떤 상(像)을 만드는 일[9]과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일,[10] 모든 미신적 고안들,[11] 즉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타락시키고[12] 거기에 첨가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빼거나 하는 일,[13] 즉 우리 스스로가 발명하고 수용하거나,[14] 또는 오래된 것,[16] 풍속,[17] 경건,[18]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핑계하에서[19] 전통에 의하여 남으로부터 받아들이든지 해서[15] 하나님 예배를 타락시키는 일, 성직 매매[20] 신성모독,[21]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와 율례들을 경홀히 여기고[22] 멸시하고[23] 방해하고[24] 반대하는[25] 모든 행동입니다.

문 110. 둘째 계명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첨부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7.220

답. 둘째 계명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첨가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1] 그 이유들이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예

갖 모독[10]과 혐오,[11] 자신을 사랑하는 일,[12] 자기 추구,[13] 우리의 마음과 의지 또는 애정을 지나치게, 무절제하게 다른 사물에다 쏟게 하고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끊어 버리는 모든 일,[14] 헛된 맹신,[15] 불신앙,[16] 이단,[17] 그릇된 신앙,[18] 불신,[19] 절망,[20] 교정불능(矯正不能), 심판에 대한 무감각,[21] 마음의 완악,[22] 자랑,[23] 주제넘음,[24] 육신적 안보,[25]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26]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고,[27] 또는 합법적 수단을 의지하는 일,[28] 육적 향락과 기쁨,[29] 부패, 눈 어두움, 지각없는 열정,[30]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뜨뜻 미지근함과[31] 죽은 상태,[32]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자신을 소외시키고 배신하는 일,[33] 성자(聖者) ; 천사 또는 기타의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를 하거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일,[34] 악마와의 계약 또는 상의(相議) 일체,[35] 그리고 악마의 제의에 순응하는 일,[36] 인간을 우리 신앙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일,[37]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얕보거나 멸시하는 일,[38]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슬프게 하며,[3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어리석게 그를 공격하면서 그의 섭리에 불만을 품거나 참을성 없이 구는 일,[40] 우리의 됨됨이나 소유나 능력의 어떤 선함을 칭송함에 있어서 그것을 행운이나 우상이나[41] 우리 자신이나[42] 어떤 다른 피조물의[43] 덕택이라고 여기는 일 등입니다.

7.216 문 106. 첫째 계명에 있어서 '내 앞에' 라는 말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답. 첫째 계명에 있는 '내 앞에' 혹은 '내 면전에' 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 즉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을 모시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며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런 행동을 말리고 그런 행동은 가장 건방진 도발이라는 것을 강조하여[1]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2] 우리를 설득하시려는 것이 그 요지(要旨)라는 것입니다.

7.217 문 107.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1]

님이십니다. 그는 옛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내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영적인 속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며,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이런 것을 밝혀 줍니다.

문 102.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네 계명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7.212

답.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네 계명의 요점은 우리의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1]

문 103. 첫째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7.213

답.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1]

문 104. 첫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이 무엇입니까? 7.214

답. 첫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1]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우리들의 하나님으로[2] 알고 인정할 것 ; 그리고 그를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것[3] ; 그를 생각하고[4] 명상하고[5] 기억하고[6] 높이 존중하고[7] 존경하고[8] 칭송하고[9] 선호하고[10] 사랑하고[11] 바라고[12] 두려워하고[13] 믿고[14] 의지하고[15] 희망하고[16] 즐기고[17] 기뻐하고[18] 그를 질투하며[19] 그를 부르며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20] 전인적으로 그에게 복종과 굴복을 바치며,[21] 무슨 일에서든지 조심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며[22]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슬퍼하며[23] 그와 함께 겸손히 걸어감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24]

문 105. 첫째 계명이 금하는 죄는 어떤 것들입니까? 7.215

답. 첫째 계명이 금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론, 즉 하나님을 부정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일,[1] 우상숭배 즉 한 분 이상 여러 신을 모시거나 예배하는 일 혹은 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모시고 섬기거나 참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신을 모시고 섬기는 일,[2]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또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단언하지 않는 일,[3] 이 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4] 하나님에 대한 무지,[5] 망각,[6] 오해, 거짓 견해,[7] 무가치하고 악한 사상,[8] 하나님의 비밀을 무모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일,[9] 하나님께 대한 온

2. 이 율법은 신령하다. 그래서 이해와 의지(意志)와 애정과 영혼의 기타 모든 능력에 다가온다. 마찬가지로 말과 행위와 동작에도 다가온다.[1]

3. 몇몇 계명에서 한 가지 즉 동일한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요구되고 혹은 금지된다.[1]

4. 어떤 의무를 명령한 곳에 그 반대의 죄는 금지된다.[1] 어떤 죄가 금지된 곳에는 그 반대의 의무를 명령한다.[2] 그와 같이 어떤 약속이 붙어 있는 것에 그 반대의 위협이 내포된다.[3] 그리고 어떤 위협이 붙어 있는 곳에는 그 반대의 약속이 내포된다.[4]

5.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어느 때에도 행해서는 안 된다.[1] 그가 명령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2] 그래도 개개의 특정 의무는 어느 때에나 행하라는 것이 아니다.[3]

6. 한 가지 죄 혹은 의무 아래 있는 같은 종류의 것은 전부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다. 그것의 모든 원인, 수단, 경우, 정세, 그리고 도발행위를 다 포함하여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다.[1]

7. 우리에게 금지하거나 명령한 것은 우리가 처한 장소에 따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피하여지거나 행해지도록 우리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장소의 의무를 따라서 피할 것을 피하고 행할 것을 행해야 한다.[1]

8. 남들에게 명령된 바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장소와 소명에 따라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1] 그리고 남들에게 금지된 바에 있어서는 그들과 동참하는 일을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2]

7.210 문 100. 십계명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서문(序文)과 계명들 자체의 내용과 몇 계명에 있어서 그것들을 더 힘있게 하려고 붙인 몇 가지 이유들입니다.

7.211 문 101.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웨로다."[1]는 말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써 하나님은 야웨이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그는 당신 자신 속에 존재하시며 또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말씀과 작품들을 존재케 하십니다. 그는 옛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의 모든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

비참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4]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복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깨닫도록 도와 줍니다.[5]

문 96.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수한 용도가 있습니까? 7.206

답.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은, 그것이 그들의 양심을 깨우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며,[1]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몰아 가기 때문이며,[2] 반대로 그들이 비중생의 상태와 죄의 길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그들로 핑계할 것이 없게 만들며,[3] 그 법이 말하는 저주 아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4]

문 97. 도덕법이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수한 용도가 있습니까? 7.207

답.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계약으로서의 도덕법으로부터 구출되어 그것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얻거나 정죄를 받는 일이 없지만, 모든 인간과 더불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 대신에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법을 성취하시고 그 법의 저주를 겪어 내신 그리스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그들에게 보여 줍니다.[1]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자극하고, 그 법을 그들이 복종해야 할 법으로 알아 자신들을 그것에 순응시키려고 더 크게 마음을 쓰면서 감사를 표시하게 합니다.[2]

문 98. 도덕법이 어디에 종합적으로 포괄되어 있습니까? 7.208

답. 도덕법이 종합적으로 포괄되어 있는 것은 십계명입니다.[1]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전달됐으며, 두 개의 돌 판에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2]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다른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 99.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칙들이 무엇입니까? 7.209

답.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칙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1. 이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각자로 하여금 전인적(全人的)으로 그것의 의(義)를 완전히 따르고, 영원히 전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즉 매 의무는 극진히 완전하게 수행될 것을 요구하며, 죄는 아무리 적게라도 금지되어야 한다.[1]

이 부활과 심판의 날에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즐기게 될 완전하고 충만한 친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할 것을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안 후에, 이어서 성경이 사람의 의무로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7.201 문 91.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1]

7.202 문 92. 하나님이 당신을 복종하는 법칙으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아담이 무죄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계시된 복종의 법칙은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의 특수 명령과 그외에 도덕법이었습니다.[1]

7.203 문 93. 도덕법이란 무엇입니까?
답. 도덕법이란 인간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하신 것으로서, 각자가 영과 육으로 된 전인(全人)의 구조와 기질로써,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빚진 바 거룩과 의의 모든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개개인이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그것에게 순응하고 복종할 것을 지시하시고, 또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1] 그 뜻을 성취할 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며 그것을 어기면 죽는다고 위협하셨습니다.[2]

7.204 문 94. 타락 이후 그 도덕법이 사람에게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답.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그 도덕법에 의해서 의와 생명을 얻은 수 없지만,[1] 그것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서 모든 인간 일반에게 특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나 중생한 사람에게 유용합니다.[2]

7.205 문 95. 도덕법이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답. 도덕법은 모든 인간에게 유용한 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려 주며[1]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줍니다.[2]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을 확신시키며,[3] 그들의 죄와

문 87. 부활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7.197

답.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믿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지막 날에 이미 죽은 자들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다같이[1] 부활할 것이며, 그 때에 살아 남아 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무덤에 뉘어 있던 죽은 자들의 신체는 영원토록 다시 그들의 영혼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2]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과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덕분으로 능력있고 신령하고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집니다.[3] 반면에 악인들의 몸은 노하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치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4]

문 88. 부활 직후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7.198

답. 부활 직후에 따라오는 것은 천사들과 사람들의 전체적 최종 심판인 바,[1] 그날과 시간은 아무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2]

문 89. 심판 날에 악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 것입니까? 7.199

답. 심판 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놓이게 될 것이며,[1]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양심이 충분히 설득하는 가운데,[2] 무서우면서도 정의로운 정죄 선고가 그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3]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총애의 어전으로부터 쫓겨나며,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친교에서 단절되어 지옥으로 떨어져, 몸과 영혼이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4]

문 90. 심판 날에 의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 것입니까? 7.200

답.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에 싸여 그리스도에게로 들려 올라가[1] 그의 우편에 놓이게 될 것이며,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선언을 받을 것이며,[2]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동참할 것이며,[3] 하늘로 영접되어[4]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을 받을 것이며,[5]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고,[6]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무수한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며,[7]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뵙고 즐기게 됩니다.[8] 그리고 이것은 불가견 교회 회원들

는 영광의 친교란 무엇입니까?

답. 불가견 교회의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영광의 첫 열매들을 이생에서 전달해 받으며, 따라서 그가 충만히 소유하시는 그 영광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관심을 가집니다.[1] 그리고 그 징조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과[2]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영광의 희망을[3] 즐깁니다. 그 반대로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에 대한 느낌과, 양심의 공포와 무서운 심판에 대한 기대가, 죽은 후에 그들이 받게 될 고통의 시초가 됩니다.[4]

7.194 문 84. 사람은 모두가 죽어야 합니까?

답. 죽음은 죄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주어진 대가(對價)로서,[1]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3]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마련입니다.[2]

7.195 문 85. 죽음이 죄의 값이라면 의인은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었다고 볼 때, 어째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합니까?

답. 의인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로부터 구출을 받을 것이며, 죽음에 있어서도 그 쏘는 것과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1] 그러므로 그들이 죽을지라도 그들을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고,[3] 장차 그들이 경험하게 될[4] 영광의 그리스도와의 진일보의 친교를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치(所致)입니다.[2]

7.196 문 86. 불가견 교회의 회원들이 죽자마자 즐기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영광의 친교란 무엇입니까?

답. 불가견 교회의 회원들이 죽자마자 즐기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영광의 친교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즉 그들은 영혼이 그 때에는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해지고,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광채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1]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2] 그들의 육체는 죽어서도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3] 그것들이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되기까지[4] 그들의 무덤에서 마치 그들의 침대에 누운 것같이 휴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영혼은 죽자마자 지옥에 던져지며, 거기서 계속 고통과 극심한 흑암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며, 그들의 육체는 그 위대한 날의 부활과 심판까지[5] 무덤에 갇혀 있게 되는데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는 많은 유혹과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습니까?

답.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때문에,[1] 그리고 그들에게 견인(堅忍)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약 때문에,[2]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불가분리의 연합을 하였고[3]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부단한 중재를 하시고,[4]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과 씨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5]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종국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호되며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6]

문 80. 참신자들은 자기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참아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틀림없이 가질 수 있습니까? 7.190

답.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참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비상한 계시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 위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생명이 약속된 그 은혜들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안에서 견디어 내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틀림없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1]

문 81. 참된 신자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장차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확신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습니까? 7.191

답.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신앙의 진수는 아닙니다. 참 신자들이 그 확신을 얻기까지는 긴 시간이 요할 수 있습니다.[1] 그리고 그것을 즐기다가도 갖가지 이상(異常), 죄, 유혹, 탈선을 통해서 그것이 약해지고 중절될 수도 있습니다.[2] 그러나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지지가 없는 상태에 혼자 버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심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3]

문 82. 불가견 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영광의 친교란 무엇입니까? 7.192

답. 불가견 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영광의 친교란 이생에서도 있고[1] 죽음 직후에도 있고[2] 마침내 부활과 심판의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3]

문 83. 불가견 교회의 회원들이 이생에서 즐기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 7.193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함으로, 전인적(全人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1] 새로워집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종자들과 기타의 모든 구원적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에 품으며,[2] 이 은혜들이 끓어 오르고, 증진되고 강화되어,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어 가고 삶의 새로움 속으로 향상하게 됩니다.[3]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화라고 합니다.[4]

7.186 문 76.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란 하나의 구원적 은혜로서,[1]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2]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의 위험뿐 아니라[3] 또한 그 더러움과 악취를 보고 느끼는 가운데,[4]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5]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6]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7]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백방으로 새로운 복종의 길을 가려는 목적을 세우고 노력하게 됩니다.[8]

7.187 문 77. 칭의와 성화가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답. 성화는 칭의와 나뉠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지만,[1]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로 차이가 있습니다 : 칭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고,[2] 성화에 있어서는 그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3] 전자에 있어서는 죄가 사면되고,[4] 후자에 있어서는 죄가 억제를 받습니다.[5] 칭의는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의 복수적(復酬的) 진노에서 동등하게 해방시키시되 이생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므로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6] 그러나 성화는 모든 사람에게 결코 동등하지 않으며[7] 이생에서 어느 누구의 경우에도 완전하지 않으며,[8] 다만 완전을 향하여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9]

7.188 문 78.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화의 불완전성은 어디서 생깁니까?

답.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화의 불완전성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남아 있는 죄의 잔재와 성령을 거스르는 끈질긴 육욕으로부터 생깁니다. 그것들 때문에 그들은 종종 유혹 속에서 살며 많은 죄에 빠져듭니다.[1]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영적 봉사에 있어서 방해를 받으며,[2] 따라서 그들의 최선의 사역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며 오점이 있습니다.[3]

7.189 문 79. 참 신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빠져드

들로써 그 보증을 삼으시고, 그 보증의무의 만족한 이행을 수납하셨으며, 그 아들의 의를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셨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보면,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1)]

문 72.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7.182

답. 의롭게 하는 믿음은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로서,[1)]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2)]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깨닫고, 자기의 망할 상태로부터 자신을 회복시켜 줄 능력이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 속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가운데,[3)] 믿음에 의하여 복음의 약속의 진실성에 찬동할 뿐 아니라,[4)]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의를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으며,[5)]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수락되고 간주되는 것입니다.[6)]

문 73. 어떻게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만듭니까? 7.183

답.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믿음과 동반하는 다른 은혜들이나, 또는 그것의 열매인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1)] 그리고 마치 믿음의 은혜나 그것에서 유래하는 어떤 행동이 칭의를 위한 공로로서 그에게 전가된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2)] 믿음은 오직 방편으로서, 그것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합니다.[3)]

문 74. 입양(入養)이란 무엇입니까? 7.184

답. 입양이란 하나님의 자유은총의 행동으로서,[1)]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2)]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용납되며,[3)] 그의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지며,[4)] 그 아들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지며,[5)] 그의 부성적 돌보심과 시여(施與)하에 있게 되며,[6)]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며, 모든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며,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료 상속자가 됩니다.[7)]

문 75. 성화(聖化)란 무엇입니까? 7.185

답. 성화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 자들이 적시에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작용을

지,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2]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은혜에 의해서 당신의 합당한 시간에 그의 말씀과 영에 의하여 그들을 초대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3]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되살리시고 밝히시며[4]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강력한 결심을 일으켜서[5] (비록 그들 자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그 속에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수락하고 포용할 의지와 가능성과 자유를 가지도록 만드십니다.[6]

7.178 문 68. 선택된 자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답. 선택된 자는 모두,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습니다.[1] 다른 사람들도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2] 외형적으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며, 또 종종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공통적 작업의 한 부분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3] 그러나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짐짓 소홀히 하거나 멸시함으로 인해서 으레 그들의 불신앙에 처지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참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4]

7.179 문 69. 불가견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은혜의 친교란 무엇입니까?

답. 불가견 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은혜의 친교란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생기는 칭의(稱義),[1] 입양,[2] 성화의 은덕과 그밖에 무엇이든지 이생에서 그들과 그와의 연합을 나타내 주는 것들에[3] 동참하는 것입니다.

7.180 문 70. 칭의(稱義)란 무엇입니까?

답. 칭의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 은총의 한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개개인을 당신 보시기에 의롭다고 용납하시고 간주하시는 행동입니다.[1] 그것은 그들 속에서 공작되거나 그들로 말미암아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2] 단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복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해 주시고[3] 또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수락함으로써 되는 일입니다.[4]

7.181 문 71. 어떻게 칭의가 하나님의 자유 은총의 행동입니까?

답. 비록 그리스도가 당신의 복종과 죽음에 의해서, 칭의받을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정당하게, 실제로, 충족하게 만족시켰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었던 하나의 보증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가견 교회의 참 회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1]

문 62. 가견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7.172

답. 가견적 교회란 모든 시대와 세계 도처에서 참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들과[1] 그들의 자녀들로서[2] 구성된 하나의 사회입니다.

문 63. 가견적 교회의 특별한 특전들이 무엇입니까? 7.173

답. 가견적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과 통치 밑에 있는[1] 특권과 모든 시대에 있어서 모든 원수의 반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고 보존되는 특권과,[2] 성도의 친교와 구원의 일반적 방편들을 즐기는 특전,[3]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4] 그에게 나아오는 자는 한 사람도 그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5] 증언하는 복음사역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은총을 즐길 수 있는 특전을 가집니다.

문 64. 불가견 교회란 무엇입니까? 7.174

답. 불가견 교회란 선택된 자들의 수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머리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지금까지 하나로 모아졌고, 지금도 모아지고, 또 장차도 모아질 사람들입니다.[1]

문 65. 불가견 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기는 특별한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7.175

답. 불가견 교회의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그와의 연합과 친교를 즐깁니다.[1]

문 66.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7.176

답.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연합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바,[1]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으로 신비스럽게 그러나 실제로 나뉠 수 없도록 그들의 머리이시며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됩니다.[2] 그것은 그들을 유효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3]

문 67. 유효하게 부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7.177

답. 유효하게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의 권세와 은혜의 역사인바[1]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에 대한 자유롭고도 특별한 사랑 때문에 하시는 일이

은 다음과 같은 일에서입니다 : 즉 그리스도가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지만,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시고 당신 자신의 영광과 그의 아버지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는 중에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큰소리를 내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1]

7.167 문 57. 그리스도가 그의 중재에 의해서 획득하신 이익(利益)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답. 그리스도는 그의 중재에 의해서 구속과 기타의 모든 은혜계약의 이득들을 획득하셨습니다.[1]

7.168 문 58.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이득들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답.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이득들에 동참하게 된 것은 그 이득들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 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된 것입니다.[1]

7.169 문 59.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동참자가 된 것은 누구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셨으므로, 그 사람들 모두에게 특별히 그 구속이 적용되며 또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1] 그들은 복음을 따라 제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2]

7.170 문 60. 복음을 들어 본 적이 없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의 빛을 따라 삶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복음을 들어 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자연의 빛에 맞추거나[2]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에 맞추어 살려고 애쓸지라도[3]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1]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만의 구주가 되시는[5] 그리스도 한 분밖에[4]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7.171 문 61.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습니까?

답. 복음을 듣고 가견적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문 53.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천에 있어서 승귀되셨습니까? 7.163

답. 그리스도가 그의 승천에 있어서 승귀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일에서였습니다 : 즉 그는 당신의 부활 후에 종종 그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대화하셨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며,[1]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2] 그리고 나서 즉 그의 부활 후 40일이 지난 뒤 그는 우리들의 본성을 지닌 채 우리의 머리의 신분으로서 모든 원수들을 이기시고 가견적으로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3] 거기서 그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받으시고[4] 거기를 향한 우리의 흠모심을 일으키시며[5] 우리를 위해 장소를 예비하십니다.[6] 그는 거기에 계시되 세상 마지막, 그의 재림 때까지 거기에 계속 머무실 것입니다.[7]

문 54.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일에서 승귀되셨습니까? 7.164

답.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일에서 승귀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일에서였습니다 : 즉 그리스도가 신-인(神-人)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총애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며,[1] 완전히 충만한 기쁨과[2] 영광을[3] 얻으시고 또 하늘과 땅의 만물을 지배하시는 권세를 차지하셨습니다.[4] 그리고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방어하시며 원수들을 굴복시키십니다. 또한 그의 종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5] 그들을 위해 중보의 사역을 하십니다.[6]

문 55. 그리스도가 어떻게 중보의 사역을 하십니까? 7.165

답. 그리스도는 중보의 사역을 다음과 같은 일로써 하십니다 : 즉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가지시고 나타나시되[1] 지상에서 그가 복종과 희생으로 이루신 공로를 가지시고 나타나십니다.[2] 그리고 그 공로를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하시겠다는 자신의 뜻을 선언하십니다.[3] 동시에 그들에 대한 모든 고발을 답변하시며,[4] 그들이 날마다 실패를 거듭하는 데도 불구하고[5] 양심의 평정과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감을 얻게 하시며,[6] 그들의 존재와[7] 봉사가[8] 수납되도록 하십니다.

문 56. 그리스도는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시는 일에서 승귀되십니까? 7.166

답.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시는 일에서 승귀되시는 것

인간 본성에서 온 것이든지 혹은 그의 낮은상태에 특별히 수반된 것이든지[5] — 과 싸우는 일로써였습니다.

7.159 문 49.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의 죽음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에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1]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2] 세상에게 조롱과 거절을 당하시고[3]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고 박해자들에게 고문은 당하시면서도[4] 또한 죽음의 공포와 암흑의 권세와 싸우며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짓눌리면서도[5]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죄에 대한 헌물로 내어 놓으시고,[6]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참아내신 일입니다.[7]

7.160 문 50.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 이후에 가지신 비하(卑下)는 어떤 것입니까?

답.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 이후에 가지신 비하는, 그가 매장되고[1] 제삼일까지 죽은 자들의 상태에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2] 그것은 다른 말로 "그가 지옥에 내려 가셨다."라고 표현되어 내려 왔습니다.

7.161 문 51. 그리스도의 승귀(昇貴)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승귀의 상태는 그의 부활,[1] 승천,[2]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심,[3] 세상 심판을 의해서 재림하시는 일을 포괄합니다.[4]

7.162 문 52.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의 부활에서 승귀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가 그의 부활에 있어서 승귀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일에서였습니다 : 즉 그는 죽으셨으나 썩지 않으셨고(그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는 분이셨다.)[1] 그가 고난당하실 때 가지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시되 그것의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신 채[2] 〈그러나 이생에 속하는 가사성(可死性)과 기타의 일반적 연약성은 없이〉 그의 영혼과 실제로 연합된[3] 상태에서 삼일 만에 당신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4]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그 사실에 의해서 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5]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과,[6] 죽음과 또 죽음의 권세 가진 자를 정복하셨다는 것과,[7] 자신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8] 그가 하나의 공인(公人)[9] 즉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10] 하신 모든 것은 그들의 칭의를 위한 것이며[11] 은혜로 그들을 깨어나게 하고[12] 그들을 붙들어 원수들을 대항하게 하며[13] 마지막 날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이 부활할 것을 확신케 합니다.[14]

구원에 관한 모든 것에서의[3] 하나님의 전체 뜻을 계시하시는 일로서 하십니다.

문 44.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7.154

답.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흠없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1]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한 화해가 되신 일과[2] 그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중재하시는 일로서 하십니다.[3]

문 45.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7.155

답.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어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일과,[1] 그들에게 일꾼들과[2] 법과[3] 징계를 주어 그것으로 그들을 통치하시는 일과,[4] 그의 선민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5] 그들이 복종할 때 상을 주시고,[6] 그들의 죄를 교정(矯正)하시고,[7] 그들이 온갖 유혹과 고난을 겪을 때 그들을 보전하시고 지탱하시는 일과,[8]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시고 정복하시며,[9] 모든 일을 당신 자신의 영광과[10] 그들의 이익을[11] 위해서 강력하게 처리하시는 일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남은 사람들에게는 복수하시는 일로서 하십니다.[12]

문 46. 그리스도의 비하(卑下)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7.156

답. 그리스도의 비하의 상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스스로 비워 놓으시고 그의 수태, 탄생, 사심, 죽으심, 그리고 죽으신 후 부활까지 종의 형태를 취하신 그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1]

문 47.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의 수태와 탄생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7.157

답. 그리스도가 그의 수태와 탄생에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그가 영원전부터 성부의 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때가 찼을 때 기쁜 마음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낮은 신분의 한 여인에게서 생겨 그녀에게서 탄생되셨으며, 보통 이상의 굴욕적 환경들을 여러 가지로 겪으심으로써 하셨습니다.[1]

문 48.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의 생애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7.158

답.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그 자신을 율법에 복종시키신 일로써였습니다.[1] 그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2]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모욕,[3] 사단의 유혹,[4] 그의 육신적 연약성—공통된

답. 그 중보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그가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죽음의 권세 아래 침몰되지 않도록 지탱하고 방지하기 위함이며, 그의 수난과 복종과 중재에 가치와 효과를 부여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의 총애를 얻어내고, 하나의 특수한 백성을 사서 그들에게 그의 영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그들을 이끌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1]

7.149 문 39. 그 중보가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그 중보가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본성을 끌어올리고 율법에 대한 복종을 수행하고,[1] 우리의 본성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수난하시고 중재하시며[2]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시기 위한 것입니다.[3]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양자권을 얻고[4] 위안을 받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옥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5]

7.150 문 40. 그 중보가 한 분 안에서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그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켜야 하는 자로서 스스로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되 한 분 안에서 되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각 본성의 타당한 사역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수락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의뢰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사역들은 전위격(全位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1]

7.151 문 41. 우리의 중보를 예수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중보를 예수라고 부른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7.152 문 42. 우리의 중보를 그리스도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중보를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은 그가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1] 그렇게 해서 성별되셨으며 모든 권위와 능력을 충족히 지니시고,[2] 그의 비하(卑下)와 승귀(昇貴) 그 두 상태에서[5] 그의 교회의 예언자직,[3] 제사장직,[4] 그리고 왕직을 수행하게 되셨습니다.

7.153 문 43. 그리스도는 예언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가 예언자직을 수행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1] 그의 영과 말씀으로,[2]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행정을 통해서, 교회 육성과

입니다.[5] 거룩한 복종은 그들의 신앙이 참되다는 증거이며[6]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감사의 증거입니다.[7]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정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방도이기도 합니다.[8]

문 33. 은혜계약은 언제나 꼭 같은 한 가지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까? 7.143
답. 은혜계약이 언제나 동일한 양식으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즉 구약시대의 집행은 신약시대의 것과 달랐습니다.[1]

문 34. 은혜계약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7.144
답. 은혜계약이 구약시대에는 약속,[1] 예언,[2] 희생제사,[3] 할례,[4] 유월절,[5] 기타의 전형(典刑)들과 율례들에 의해서 집행되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며, 그때로서는 약속된 메시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선민을 육성하기에 충족하였습니다.[6] 즉 그 메시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때에 충분히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7]

문 35. 은혜계약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집행됩니까? 7.145
답. 신약시대 즉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 때에는 그 동일한 은혜계약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1] 세례[2]와 주의 만찬[3]을 베푸는 일로 집행되었으며 또 앞으로도 집행될 것입니다. 그것들로 은혜와 구원이 만방에 더 충분히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4]

문 36. 은혜계약의 중보(仲保)가 누구입니까? 7.146
답. 은혜계약의 유일한 중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1]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고 성부와 한 실체요 그와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찼을 때 사람이 되셨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이셨으며 또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구별되는 두 본성을 가지셨으며 동시에 영원히 한 분이십니다.[2]

문 37.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7.147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은 그가 하나의 참 몸과 사리를 분별하는 영을 지니시고,[1]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어, 그녀의 실체를 가지고 그로부터[2] 탄생하심으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죄는 없으셨습니다.[3]

문 38. 그 중보가 하나님이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7.148

부터 진노의 자식,[2] 사단의 노예이며,[3]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온갖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4]

7.138 문 28. 이 세상에서 죄의 대가로 받는 벌이 무엇입니까?

답. 이 세상에서 죄의 대가로 받는 벌은, 마음의 눈이 머는 것,[1]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2] 강한 망상,[3] 마음의 경직(硬直),[4] 양심의 공포,[5] 고약한 애정[6] 등 내적인 것이거나, 혹은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와,[7] 우리의 몸, 이름, 신분, 관계, 고용[8] 등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타의 모든 악, 즉 외적인 것이며, 아울러 죽음 자체가 곧 형벌입니다.[9]

7.139 문 29. 오는 세상에서 죄의 대가로 받을 벌들은 무엇입니까?

답. 오는 세상에서 죄의 대가로 받을 벌은 하나님의 안락한 현존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일과, 영원한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영육이 가장 심한 고통을 겪는 일입니다.[1]

7.140 문 30.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십니까?

답.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통 행위계약이라고 부르는 첫 계약을 어김으로써 빠져든 죄와 비참의 상태 속에 모두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1] 오직 그의 사랑과 자비에 의하여 그의 선택된 자들을 거기서 건져 내시고, 보통 은혜의 계약이라고 부르는 둘째 계약에 의한 구원의 상태에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십니다.[2]

7.141 문 31. 은혜의 계약은 누구와 맺었습니까?

답. 은혜의 계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선택된 자 즉 그의 자손들과 맺었습니다.[1]

7.142 문 32.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둘째 계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답.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둘째 계약 속에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하나의 중보를 마련하시고 제공하셨으며[1]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주신 일이며,[2] 그 중보와의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신앙을 요구하시면서,[3] 그가 선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주셔서 그들 속에 그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밖의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함께 주시는 일이며,[4]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복종을 할 수 있게 하는 일

문 21.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7.131

답. 우리의 첫 조상들은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에 내맡겨, 사단의 유혹을 받고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창조될 때 가졌던 무죄의 상태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1]

문 22. 인류가 모두 그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7.132

답. 아담과 맺은 계약은 하나의 공인(公人)으로서 맺은 것이어서 오직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 생식에 의해서 그로부터 계승되는 모든 인류가[1] 그 안에서 타락했으며, 그 첫 번 범죄에서 그와 더불어 타락한 것입니다.[2]

문 23. 그 타락이 인간을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7.133

답. 그 타락은 인간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1]

문 24. 죄란 무엇입니까? 7.134

답. 죄란 하나님께서 사리를 아는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법에 순응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1]

문 25.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든 상태의 죄는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7.135

답.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든 상태의 죄는 아담이 처음으로 저지른 죄와[1]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니게 하셨던 그의 의(義)의 결핍, 그리고 그의 본성의 부패로서 구성됩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아주 싫어하게 되었고 반대하는 자가 되었으며 온갖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지고 계속적으로 악을 일삼습니다.[2] 그것을 보통 원죄라고 하며, 그것으로부터 모든 실제적 범죄가 생겨납니다.[3]

문 26. 어떻게 원죄가 우리의 첫 조상으로부터 그들의 후손에게로 전달됩니까? 7.136

답. 원죄가 우리의 첫 조상으로부터 그들의 후손에게로 전달되는 것은 자연적 생식으로 말미암으며, 따라서 그렇게 그들로부터 생겨나는 사람은 다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됩니다.[1]

문 27. 그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비참은 무엇입니까? 7.137

답. 그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잃은 것,[1]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저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면서

답. 하나님이 모든 천사 즉 영들을[1] 죽지 않고[2] 거룩하고[3] 지식이 뛰어나고[4] 힘이 강한[5] 존재로 창조하시어 당신의 계명을 이행하며 그 이름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6] 그러나 변화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7]

7.127 문 17.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답.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1]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셨고[2]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3] 생기와 이성과 불멸의 영혼을 부여하시고[4] 지식과[6]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7]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5]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셨으며[8] 그것을 성취할 힘과,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9] 그러나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10]

7.128 문 18.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을 가장 거룩하고[1] 슬기롭고[2] 능력있게 보전하고[3] 다스리시는 일과,[4] 그것들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5]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6] 지시하시는 일입니다.

7.129 문 19.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에 의해서 천사들 중 얼마가 죄와 파멸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1] 그것은 하나님이 고의로 하신 일이며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과 또 그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시고 지시하셨으며 당신 자신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2] 남은 천사들은 거룩함과 행복 속에 두셨으며[3] 그들을 모두 고용하셔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실시하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4]

7.130 문 20. 창조된 원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가졌었습니까?

답. 창조된 원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셨던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시고 그에게 맡겨 낙원을 가꾸게 하시고, 땅의 열매를 먹을 자유를 주시며,[1] 짐승들을 그의 지배하에 두시고,[2] 그를 돕기 위하여 결혼제도를 제정하시고,[3] 하나님과의 친교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4]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일입니다.[5] 그리고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항구적으로 복종하면 생명을 누린다는 계약을 하나님과 더불어 맺었으며[6] 그 보증이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 먹으면 죽음의 고통을 받을터이니 먹지 말라는 금령을 내리신 것입니다.[7]

나타납니까?

답. 성경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더불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 주며,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이름,[1] 속성,[2] 사역,[3] 예배[4]를 그들에게 돌립니다.

문 12.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7.122

답.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의 뜻으로 분별하여 행하시는 슬기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동을 말하며,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어날[1] 모든 것, 특히 천사와 사람에 관한 일을 영원 전부터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으며 따라서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 13.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와 사람에 관해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7.123

답. 하나님은 영원 불변의 경륜에 의하여 오직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마땅한 시간에 나타나게 할 양으로 어떤 천사들을 영광을 받도록 선택하셨습니다.[1]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으며, 또 그렇게 하실 방도를 선택하셨습니다.[2] 그뿐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 권능과 인간은 알아낼 수 없는 그 자신의 뜻의 분별(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좋아하시는 대로 은총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보류하시기도 하신다.)에 따라서 남은 사람들을 버려 두시고 또는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예정하시어 자기들의 죄값을 받게 하셨으며,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스러움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3]

문 14.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7.124

답.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 속에서 당신의 경륜을 집행하시는 바, 그의 무오(無誤)한 예지(豫智)에 따라, 그리고 그 자신의 뜻으로 자유롭고 불변하는 사려(思慮)를 함으로써 경륜을 집행하십니다.[1]

문 15.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7.125

답.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권능의 말씀에 의하여 무(無)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엿새 동안에 그리고 모든 것을 매우 좋게 만드신 일을 가리킵니다.[1]

문 16. 하나님이 천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7.126

함께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2]

7.115 문 5.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1]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할 것

7.116 문 6.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1] 신격의 위(persons, 位)에 대해서,[2] 그의 경륜에 대해서,[3] 그 경륜의 집행에 대해서[4] 알려 줍니다.

7.117 문 7.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시며,[1] 그 자신 속에 그리고 그의 본질에 있어서 존재,[2] 영광, 축복됨, 완전하심[3]이 무한하십니다. 그는 완전히 충족하시며,[4] 영원하시며,[5] 불변하시며,[6]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시며,[7] 어디든지 계시며,[8] 전능하십니다.[9] 그는 모든 것을 아시며[10] 가장 지혜로우시고[11] 가장 거룩하시고[12] 가장 정의로우시고[13]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십니다.[14]

7.118 문 8. 한 분 이상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답. 살아 계신 참 하나님 오직 그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1]

7.119 문 9. 하나님은 몇 위(位)로 계십니까?
답. 신격에는 세 위가 계시는 데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셋은 하나의 참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별적 특성에 의해서 구별됩니다.[1]

7.120 문 10. 하나님의 세 위의 개별적 특성이 무엇입니까?
답. 영원 전부터 성부는 당신의 성자를 나으시고,[1] 성자는 성부로부터 출생하시고,[2]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것이 타당합니다.[3]

7.121 문 11.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더불어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8

대요리문답

문 1. 사람의 가장 크고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7.111

답. 사람의 가장 크고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1] 영원토록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2]

문 2.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7.112

답.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의 빛 자체와 하나님의 작품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합니다.[1]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를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계시하여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2]

문 3.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7.113

답. 구약과 신약으로 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복종의 유일한 법칙입니다.[1]

문 4.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7.114

답.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의 위엄과 순결성 때문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의 일치와 그 전체의 범위 때문이며, 그것들이 죄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개심케 하며 신자들을 위로하고 육성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1]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성경에 의하여 그리고 성경과

8

대요리문답
(大要理問答)

(본 문)

문 106.

1. 마 26 : 41, 시 19 : 13.
2. 고전 10 : 13, 시 51 : 10, 12.

문 107.

1. 단 9 : 18, 19.
2. 대상 29 : 11－13.
3. 계 22 : 20, 21, 고전 14 : 16.

문 110.

1. 즉 셋째 날까지 계속 죽음의 상태에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다. 대요리문답 제 50문에 대한 답을 보라.

2. 행 2 : 37.
3. 욜 2 : 13.
4. 고후 7 : 11, 렘 31 : 18,19, 행 26 : 18.
5. 시 119 : 59.

문 88.
1. 마 28 : 19,20, 행 2 : 41,42.

문 89.
1. 시 19 : 7, 시 119 : 130, 히 4 : 12.
2. 살전 1 : 6, 롬 1 : 16, 롬 16 : 25, 행 20 : 32.

문 90.
1. 잠 8 : 34.
2. 눅 8 : 18, 벧전 2 : 1,2.
3. 시 119 : 18.
4. 히 4 : 2.
5. 살후 2 : 10.
6. 시 119 : 11.
7. 눅 8 : 15, 약 1 : 25.

문 91.
1. 벧전 3 : 21, 행 8 : 13,23 중간의 맥락을 보라. 고전 3 : 7, 고전 6 : 11, 고전 12 : 13.

문 92.
1. 마 28 : 19, 마 26 : 26-28.
2. 롬 4 : 11.

문 93.
1. 마 28 : 19.
2. 고전 11 : 23.

문 94.
1. 위의 93문에서 취급된 마 28 : 19를 보라.
2. 갈 3 : 27, 롬 6 : 3.
3. 롬 6 : 4.

문 95.
1. 행 2 : 41.
2. 창 17 : 7,10, 갈 3 : 17,18,29, 행 2 : 38,39.

문 96.
1. 마 26 : 26,27, 고전 11 : 26.
2. 고전 10 : 16, 엡 3 : 17.

문 97.
1. 고전 11 : 28,29.
2. 요 6 : 53-56.
3. 슥 12 : 10.
4. 요일 4 : 19, 갈 5 : 6.
5. 롬 6 : 4, 롬 6 : 17-22.
6. 고전 11 : 27.

문 98.
1. 시 62 : 8, 시 10 : 17.
2. 요일 5 : 14, 마 26 : 39, 요 6 : 38.
3. 요 16 : 23.
4. 단 9 : 4.
5. 빌 4 : 6.

문 99.
1. 딤후 3 : 16,17, 요일 5 : 14.
2. 마 6 : 9.

문 100.
1. 사 64 : 9, 눅 11 : 13, 롬 8 : 15.
2. 엡 6 : 18, 행 12 : 5, 슥 8 : 21.

문 101.
1. 시 67 : 1-3, 살후 3 : 1, 시 145.
2. 사 64 : 1,2, 롬 11 : 36.

문 102.
1. 시 68 : 1.
2. 살후 3 : 1, 시 51 : 18, 67 : 1-3, 롬 10 : 1.
3. 계 22 : 20, 벧후 3 : 11-13.

문 103.
1. 시 119 : 34-36, 행 21 : 14.
2. 시 103 : 20-22.

문 104.
1. 잠 30 : 8.
2. 딤전 4 : 4,5, 잠 10 : 22.

문 105.
1. 시 51 : 1, 롬 3 : 24,25.
2. 눅 11 : 4, 마 18 : 35, 마 6 : 14,15.

1. 엡 5 : 21, 22, 엡 6 : 1, 5, 9, 롬 13 : 1, 롬 12 : 10.

문 65.
1. 롬 13 : 7, 8.

문 66.
1. 엡 6 : 2, 3.

문 67.
1. 출 20 : 13.

문 68.
1. 엡 5 : 29, 마 10 : 23.
2. 시 82 : 3, 4, 욥 29 : 13, 왕상 18 : 4.

문 69.
1. 행 16 : 28.
2. 창 9 : 6.
3. 마 5 : 22, 요일 3 : 15, 갈 5 : 15, 잠 24 : 11,12, 출 21 : 18-32.

문 70.
1. 출 20 : 14.

문 71.
1. 살전 4 : 4, 5.
2. 고전 7 : 2, 엡 5 : 11, 12.
3. 마 5 : 28.
4. 엡 4 : 29, 골 4 : 6.
5. 벧전 3 : 2.

문 72.
1. 마 5 : 28.
2. 엡 5 : 4.
3. 엡 5 : 3.

문 73.
1. 출 20 : 15.

문 74.
1. 살후 3 : 10-12, 롬 12 : 17, 잠 27 : 23.
2. 레 25 : 35, 빌 2 : 4, 잠 13 : 4, 잠 20 : 4, 잠 24 : 30-34.

문 75.
1. 딤전 5 : 8.
2. 엡 4 : 28, 잠 21 : 16, 살후 3 : 7-10.

문 76.
1. 출 20 : 16.

문 77.
1. 슥 8 : 16.
2. 벧후 3 : 16, 행 25 : 10.
3. 요삼 12.
4. 잠 14 : 5,25.

문 78.
1. 잠 19 : 5, 잠 6 : 16-19.
2. 눅 3 : 14, 시 15 : 3.

문 79.
1. 출 20 : 17.

문 80.
1. 히 13 : 5.
2. 롬 12 : 15, 빌 2 : 4, 고전 13 : 4-6.

문 81.
1. 고전 10 : 10.
2. 갈 5 : 26.
3. 골 3 : 5.

문 82.
1. 왕상 8 : 46, 요일 1 : 8-2 : 6.
2. 창 8 : 21.
3. 약 3 : 8.
4. 약 3 : 2.

문 83.
1. 시 19 : 13, 요 19 : 11.

문 84.
1. 갈 3 : 10, 마 25 : 41.

문 85.
1. 행 20 : 21, 막 1 : 15, 요 3 : 18.
2. 아래 88문을 보라.

문 86.
1. 히 10 : 39.
2. 요 1 : 12.
3. 빌 3 : 9.
4. 요 6 : 40.

문 87.
1. 행 11 : 18.

문 39.

1. 신 29 : 29, 미 6 : 8, 삼상 15 : 22.

문 40.

1. 롬 2 : 14,15, 롬 10 : 5.

문 41.

1. 마 19 : 17－19.

문 42.

1. 마 22 : 37－40.

문 43.

1. 출 20 : 2.

문 45.

1. 출 20 : 3.

문 46.

1. 제46－81문에 대한 대답에서 발견되는 십계명 해설은 그 계명들 자체와 대요리문답 제99문에서 제시된 법칙들로부터 연역된 것이다. 각 조항에 붙인 본문들은 성경의 일반적 가르침과 합치하기 때문에 제시되었다.
2. 대상 28 : 9, 신 26 : 17.
3. 마 4 : 10, 시 95 : 6,7, 시 29 : 2.

문 47.

1. 시 14 : 1.
2. 롬 1 : 20－21.
3. 시 81 : 11.
4. 롬 1 : 25.

문 48.

1. 대하 28 : 9, 시 44 : 20,21.

문 49.

1. 출 20 : 4－6.

문 50.

1. 신 12 : 32, 신 32 : 46, 마 28 : 20.

문 51.

신 4 : 15, 16, 17－19을 보라. 행 17 : 29.

문 52.

1. 시 95 : 2,3.
2. 시 45 : 11.
3. 출 34 : 14.

문 53.

1. 출 20 : 7.

문 54.

1. 시 29 : 2, 마 6 : 9.
2. 계 15 : 3, 4.
3. 말 1 : 14.
4. 시 138 : 2.
5. 107 : 21, 22.

문 55.

1. 말 2 : 2, 사 5 : 12.

문 56.

1. 신 28 : 58, 59.

문 57.

1. 출 20 : 8－11.

문 58.

1. 레 19 : 30, 신 5 : 12, 사 56 : 2－7.

문 59.

1. 창 2 : 3, 눅 23 : 56.
2. 행 20 : 7, 고전 16 : 1, 2, 요 20 : 19－26.

문 60.

1. 레 23 : 3, 출 16 : 25－29, 렘 17 : 21, 22.
2. 시 92 : 1, 2(안식일을 위한 시 혹은 노래), 눅 4 : 16, 사 58 : 13, 행 20 : 7.
3. 마 12 : 11, 12 맥락을 보라.

문 61.

1. 겔 22 : 26, 말 1 : 13, 암 8 : 5.
2. 겔 23 : 38.
3. 사 58 : 13, 렘 17 : 24,27.

문 62.

1. 출 31 : 15, 16.
2. 레 23 : 3.
3. 출 31 : 17.
4. 창 2 : 3.

문 63.

1. 출 20 : 12.

문 64.

2. 눅 1 : 31, 35, 41, 42, 갈 4 : 4.
3. 히 4 : 15, 히 7 : 26.

문 23.
1. 행 3 : 22, 눅 4 : 18, 21.
2. 히 5 : 5, 6, 히 4 : 14, 15.
3. 계 19 : 16, 사 9 : 6, 7, 시 2 : 6.

문 24.
1. 요 1 : 1, 4.
2. 요 15 : 15, 요 20 : 31, 벧후 1 : 21, 요 14 : 26.

문 25.
1. 히 9 : 14, 28, 롬 3 : 26, 롬 10 : 4.
2. 히 2 : 17.
3. 히 7 : 25.

문 26.
1. 시 110 : 3.
2. 사 33 : 22.
3. 고전 15 : 25, 행 12 : 17, 18 : 9, 10.

문 27.
1. 눅 2 : 7, 빌 2 : 6-8, 고후 8 : 9.
2. 갈 4 : 4.
3. 사 53 : 3.
4. 마 27 : 46, 눅 22 : 41-44.
5. 갈 3 : 13, 빌 2 : 8.
6. 고전 15 : 3, 4.

문 28.
1. 바로 위의 성구을 보라.
2. 행 1 : 9, 엡 1 : 19, 20.
3. 행 1 : 11, 행 17 : 31.

문 29.
1. 요 1 : 12, 13, 요 3 : 5, 6, 딛 3 : 5, 6.

문 30.
1. 엡 2 : 8.
2. 요 15 : 5, 고전 6 : 17, 고전 1 : 9, 벧전 5 : 10.

문 31.
1. 딤후 1 : 8, 9, 엡 1 : 18-20.
2. 행 2 : 37.
3. 행 26 : 18.
4. 겔 11 : 19, 겔 36 : 26, 27.
5. 요 6 : 44, 45, 빌 2 : 13, 신 30 : 6, 엡 2 : 5.

문 32.
1. 롬 8 : 30.
2. 엡 1 : 5.
3. 고전 1 : 30.

문 33.
1. 엡 1 : 7.
2. 고후 5 : 19, 21, 롬 4 : 5, 롬 3 : 22, 24, 25.
3. 롬 5 : 17-19, 롬 4 : 6-8.
4. 롬 5 : 1, 행 10 : 43, 갈 2 : 16, 빌 3 : 9.

문 34.
1. 요일 3 : 1.
2. 요 1 : 12, 롬 8 : 17.

문 35.
1. 살후 2 : 13.
2. 엡 4 : 23, 24.
3. 롬 6 : 4, 6, 14, 롬 8 : 4.

문 36.
1. 롬 5 : 1, 2, 5, 롬 14 : 17.
2. 골 1 : 10, 11, 잠 4 : 18, 엡 3 : 16-18, 벧후 3 : 18.
3. 렘 32 : 40, 요일 2 : 19, 27, 계 14 : 12, 벧전 1 : 5, 요일 5 : 13.

문 37.
1. 눅 23 : 43, 눅 16 : 23, 빌 1 : 23, 고후 5 : 6-8.
2. 살전 4 : 14.
3. 롬 8 : 23, 살전 4 : 14.

문 38.
1. 고전 15 : 42, 43.
2. 마 25 : 33, 34, 마 10 : 32.
3. 시 16 : 11, 고전 2 : 9.
4. 살전 4 : 17 앞의 맥락을 보라.

문 1.
1. 고전 10 : 31, 롬 11 : 36.
2. 시 73 : 24–26, 요 17 : 22, 24.

문 2.
1. 갈 1 : 8, 9, 사 8 : 20, 눅 16 : 29, 31, 딤후 3 : 15–17.

문 3.
1. 미 6 : 8, 요 20 : 31, 요 3 : 16.

문 4.
1. 요 4 : 24.
2. 시 90 : 2, 말 3 : 6, 약 1 : 17, 왕상 8 : 27, 렘 23 : 24, 사 40 : 22.
3. 시 147 : 5, 롬 16 : 27.
4. 창 17 : 1, 계 19 : 16.
5. 사 57 : 15, 요 17 : 11, 계 4 : 8.
6. 신 32 : 4.
7. 시 100 : 5, 롬 2 : 4.
8. 출 34 : 6, 시 117 : 2.

문 5.
1. 신 6 : 4, 렘 10 : 10.

문 6.
1. 고후 13 : 14, 마 28 : 19, 마 3 : 16, 17.

문 7.
1. 엡 1 : 11, 행 4 : 27, 28, 시 33 : 11, 엡 2 : 10, 롬 9 : 22, 23, 11 : 33.

문 8.
1. 계 4 : 11, 엡 1 : 11.

문 9.
1. 히 11 : 3, 계 4 : 11, 창 1 : 1–31.

문 10.
1. 창 1 : 27.
2. 골 3 : 10, 엡 4 : 24.
3. 창 1 : 28.

문 11.
1. 시 145 : 17.
2. 시 104 : 24.
3. 히 1 : 3.
4. 시 103 : 19, 마 10 : 29, 30, 욥 38–41 장.

문 12.
1. 창 2 : 16, 17을 롬 5 : 12–14, 롬 10 : 5, 눅 10 : 25–28,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과 비교하라.
2. 창 2 : 17.

문 13.
1. 창 3 : 6–8, 13, 고후 11 : 3.

문 14.
1. 요일 3 : 4, 약 4 : 17, 롬 3 : 23.

문 15.
1. 답 13의 증거를 보라. 창 3 : 6.

문 16.
1. 행 17 : 26, 문 12를 보라.
2. 창 2 : 17, 롬 5 : 12–20, 고전 15 : 21, 22와 비교하라.

문 17.
1. 롬 5 : 12, 갈 3 : 10.

문 18.
1. 롬 5 : 12, 19, 고전 12 : 22.
2. 롬 5 : 6, 엡 2 : 1–3, 롬 8 : 7, 8, 창 6 : 5, 롬 3 : 10–20, 시 51 : 5, 58 : 3.
3. 약 1 : 14, 15, 마 15 : 19.

문 19.
1. 창 3 : 8, 24.
2. 엡 2 : 3.
3. 롬 5 : 14, 롬 6 : 23.

문 20.
1. 엡 1 : 4–7.
2. 딛 3 : 4–7, 딛 1 : 2, 갈 3 : 21, 롬 3 : 20–22.

문 21.
1. 딤전 2 : 5.
2. 요 1 : 1, 14, 요 10 : 30, 빌 2 : 6, 창 4 : 4.
3. 바로 위의 본문들을 보라. 빌 2 : 5–11.

문 22.
1. 요 1 : 14, 히 2 : 14, 마 26 : 38.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아멘.

사업을 하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이 날에는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네 문안에 있는 네 손님이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으며, 따라서 그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Ⅴ.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Ⅵ.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Ⅶ. 간음하지 말아라.

Ⅷ. 도적질하지 말아라.

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Ⅹ.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에게 속한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 7.109

마태복음 제6장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옵니다. 아멘.

사도신경 7.110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나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다. 그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매장되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1]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 편에 앉아 계십니다. 장차 그리로부터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1]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에 우리가 오히려 격려를 받아 이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2]

7.106 문 106.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을 막으셔서 죄짓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1]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에는 우리를 붙들어 구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2]

7.107 문 107. 주님의 기도를 맺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주님의 기도를 맺는 말 곧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고,[1]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며,[2]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는 소원과 확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3]

7.108

십 계 명

출애굽기 제20장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애굽 땅 그 노예의 집에서 너를 이끌어 낸 주 네 하나님이다.

Ⅰ.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Ⅱ. 너를 위하여 어떠한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는 땅 밑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이것은 나 주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악을 자손들에게 벌하는데 그들의 제3대와 4대에까지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Ⅲ.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다루지 말아라. 주가 그의 이름을 헛되게 다루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Ⅳ.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어라. 엿새 동안 일하고 네 모든

문 100. 주님의 기도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7.100

답. 주님의 기도의 머리말 곧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언제나 그렇게 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1]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을 다하여 가까이하라는 것이며, 또 우리는 남들과 함께, 그리고 남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

문 101. 첫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101

답.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는 첫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을 알게 하시는 방편으로 쓰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또 남들에게 힘을 주시어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며,[1] 만사가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2]

문 102.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102

답.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과,[1] 은혜의 왕국이 발전되어 우리들과 또 남들이 그리로 인도되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과[2] 영광의 왕국이 속히 임하는 것입니다.[3]

문 103. 셋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103

답.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셋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써 우리에게 능력과 의지(意志)를 주셔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2] 만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종하여 거기에 굴복하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1]

문 104.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104

답.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이생의 좋은 것들을 충족할 만큼 받으며[1] 그것들과 아울러 그의 축복을 즐기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2]

문 105.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105

답. "우리가 우리의 채무자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赦)하여 주옵소서."라는 다섯째 간구에서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7.094 문 94. 세례가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성례전의 하나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일입니다.[1]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과 은혜계약의[2] 혜택에 참여한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계약을 표시하고 확인(確認)합니다.[3]

7.095 문 95.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답. 유형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후이어야 합니다.[1] 그러나 유형교회의 회원의 아기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2]

7.096 문 96. 주님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답. 주님의 만찬은 성례전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1]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육욕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됩니다.[2]

7.097 문 97.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답.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에 대해서,[1]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2] 그들의 회개와[3] 사랑과[4] 새 복종에 대해서,[5] 스스로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채로 나옴으로써 스스로의 심판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겠기 때문입니다.[6]

7.098 문 98.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일입니다.[1]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4]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면서[5]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2] 그리스도의 이름으로[3] 아뢰는 것입니다.

7.099 문 99.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지침을 삼으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침으로 사용될 만합니다.[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보통 '주님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것이 기도의 특수한 지침입니다.[2]

인이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2]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3]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4]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합니다.[5]

문 88.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신 외적 수단들이 무엇입니까? 7.088

답.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시는 외적인 통상 수단은 그의 율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전들과 기도인 바,[1] 이것들은 모두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문 89.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까? 7.089

답. 하나님의 영이 말씀낭독 특히 말씀 설교를 하나의 효과적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확신시키고 회개케 하며,[1] 거룩함과 위안으로 그들을 육성합니다. 이것들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2]

문 90.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를 가진 말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7.090

답.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를 가진 말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함과[1] 준비와[2] 기도로써[3] 거기에 열중하고, 믿음과[4] 사랑으로[5]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6]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7]

문 91. 성례전이 어떻게 구원에 대한 효과적 수단이 됩니까? 7.091

답. 성례전이 구원의 효과적 수단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들을 집행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의 영의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1]

문 92. 성례전이 무엇입니까? 7.092

답. 성례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에 있어서, 지각(知覺)할 수 있는 표징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새 계약의 혜택들이 신자들에게 표시되고[1] 확인(確認)되고 적용됩니다.[2]

문 93. 신약성경의 성례전들은 어느 것들입니까? 7.093

답. 신약성경의 성례전은 세례와[1] 주님의 만찬입니다.[2]

답. 열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자비로운 마음씨를 가지고[2] 우리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만족하는 일입니다.[1]

7.081 **문 81. 열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열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걱정하면서[2] 우리 자신의 상태에 불만을 가지는 일과[1]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행동이나 애착을 가지는 모든 일입니다.[3]

7.082 **문 82.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인간 타락 이래 이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1] 오히려 생각과[2] 말과[3] 행위[4]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을 어깁니다.

7.083 **문 83. 율법을 어기는 일이 모두 하나같이 흉악합니까?**

답.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또는 여러 가지로 더 악화시키는 일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흉악합니다.[1]

7.084 **문 84. 모든 죄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답. 모든 죄는 이생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1]

7.085 **문 85.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외적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면서[2]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로의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1]

7.086 **문 8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일종이 구원의 은총입니다.[1]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대로의[4] 그분만을 영접하고[2]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3]

7.087 **문 87. 생명에로의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로의 회개는 하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1] 그것에 의하여 죄

문 71. 일곱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071
답. 일곱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3] 말과[4] 행위에 있어서[5] 우리 자신과[1] 우리 이웃의 정절을[2] 보존하는 일입니다.

문 72. 일곱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7.072
답. 일곱째 계명은 모든 정숙치 못한 생각과[1] 말과[2] 행동을[3] 금합니다.

문 73. 여덟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7.073
답. 여덟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아라." 입니다.[1]

문 74. 여덟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074
답. 여덟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1] 남들의[2] 부(富)와 외적 재산을 정당하게 얻고 또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문 75. 여덟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7.075
답. 여덟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1] 우리 이웃의 부(富)나 외적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2]

문 76. 아홉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7.076
답. 아홉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아라." 입니다.[1]

문 77.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077
답.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1] 그리고 우리 자신과[2]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3] 특히 증언을 하는 일에 있어서의 진실과 호평을[4]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문 78. 아홉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7.078
답. 아홉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진실에 어긋나는 일이나,[1]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2]

문 79. 열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7.079
답. 열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에게 속한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아라."[1]

문 80. 열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080

하여 한 주간의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1] 그가 일곱째 날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일과[2] 자기 자신이 보이신 본보기와[3] 그가 안식일을 축복하신 일입니다.[4]

7.063 **문 63. 다섯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입니다.[1]

7.064 **문 64.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사람이나 여러 가지 위치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1]

7.065 **문 65. 다섯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행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배치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1]

7.066 **문 66. 다섯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수(長壽)와 번영이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이 약속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는 선(善)이 되는 한에 있어서입니다〉.[1]

7.067 **문 67. 여섯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여섯째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입니다.[1]

7.068 **문 68. 여섯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여섯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노력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1]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2]

7.069 **문 69. 여섯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여섯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끊어 버리거나[1] 부당하게 우리 이웃의 생명을 끊거나[2] 또는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들입니다.[3]

7.070 **문 70. 일곱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입니다.[1]

문 57. 넷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7.057

답. 넷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동안 일하고 네 모든 사업을 하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이 말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네 문안에 있은 네 손님이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그것은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주가 그 안식일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1]

문 58.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058

답.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지정하신 일정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고, 확실히 이레 중 한 날을 온통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1]

문 59. 이레 중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매 주간의 안식일로 삼으셨습니까? 7.059

답.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을 정하시어 매 주간의 안식일을 삼으셨으며,[1] 그 이후부터 세상 마지막까지는 한 주간의 첫 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습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2]

문 60.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7.060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다른 날에는 할 수 있는 세상적 업무와 오락들을 이 날에는 끊고 종일 거룩하게 쉬며[1]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2]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3]

문 61. 넷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7.061

답. 넷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의무들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이행하는 일과[1] 게으름으로서나 또는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2] 우리의 세상적 업무나 오락에 관한 필요치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일로써 그 날을 더럽힌 일입니다.[3]

문 62. 넷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7.062

답. 넷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업무를 위

을 자손들에게 벌하는 데 그들의 제3대와 4대에까지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푼다."[1]

7.050 문 50.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대로의 모든 종교적 예배와 율례들을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지키는 일입니다.[1]

7.051 문 51. 둘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1] 그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예배하는 일을 금합니다.[2]

7.052 문 52.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주권이 있다는 것,[1] 그가 우리의 소유주라는 것,[2] 그리고 그에 대한 예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3]

7.053 문 53.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다루지 말아라. 주가 그의 이름을 헛되게 다루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1]

7.054 문 54.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1] 칭호와 속성과[2] 율례와[3] 말씀과[4] 사역을[5]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7.055 문 55. 셋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알게 하시는데 쓰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일체 모독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1]

7.056 문 56. 셋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사람에게서 받을 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 두시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1]

지고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1]

문 43. 십계명의 머리말이 어떤 것입니까? 7.043

답. 십계명의 머리말은 이러합니다 : "나는 애굽 땅 곧 노예의 집에서 너를 이끌어 낸 주 네 하나님이다."[1]

문 44.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7.044

답.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 즉 하나님은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니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45.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7.045

답. 첫째 계명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1]

문 46. 첫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046

답.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1]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2] 따라서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3]

문 47. 첫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7.047

답. 첫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1]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2] 인정하지 않거나[3]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일입니다.[4]

문 48. 첫째 계명에 있는 '내 앞에'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7.048

답. 첫째 계명에 있는 '내 앞에'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두는 죄를 주목하시며 또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1]

문 49.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7.049

답. 둘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 "너를 위하여 어떠한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는 땅 밑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은 나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어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조상들의 악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2]

7.035 문 35. 성화(聖化)란 무엇입니까?

답.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1]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심신이 온통 새로워지며[2]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3]

7.036 문 36. 이생에 있어서 의인(義認)과 입양과 성화에 동반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유래하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답. 이생에 있어서 의인과 입양과 성화에 동반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유래하는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온, 성령 안에서의 기쁨[1] 은총의 증진[2] 그리고 은총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일입니다.[3]

7.037 문 37.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답. 신자들이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 영광에로 옮아 가고,[1] 육체는 그냥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으면서,[2]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3]

7.038 문 38. 신자들이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답. 부활 때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으며[1] 심판 날에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으며,[2] 영원토록[4] 하나님을 충분히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3]

7.039 문 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계시된 그의 뜻에 복종하는 일입니다.[1]

7.040 문 40.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법칙을 삼으시려고 처음으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종을 위하여 처음으로 그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1]

7.041 문 41.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답. 그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다.[1]

7.042 문 42. 십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요약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뜻을 가

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일입니다.[3]

문 29.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7.029

답.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1]

문 30.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7.030

답.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하여 우리에게 적용시키며[1] 그리하여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2]

문 31. 효과적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7.031

답.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1] 그 사역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고,[2]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몽하며[3]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여[4] 복음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줍니다.[5]

문 32.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생에서 같이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7.032

답.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생에서 의인(義認),[1] 입양(入養),[2] 성화, 그리고 이생에서 그것들과 동반하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같이 누립니다.[3]

문 33. 의인(義認)이 무엇입니까? 7.033

답. 의인이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1]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2] 그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3]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써만 받을 수 있습니다.[4]

문 34. 입양이란 무엇입니까? 7.034

답. 입양이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1]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에 용납되며 그 모든 특권에 대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2]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고, 계속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별개의 본성을 지니면서도 영원히 한 위(位)이십니다.[3]

7.022 문 2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참 몸과 지각있는 영혼을 스스로 가지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으며,[1] 성령의 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태내에 임신되어 그에게서 나셨습니다.[2] 그러면서도 죄는 없으십니다.[3]

7.023 문 2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굴욕과 승귀(昇貴)의 두 신분에 있어서 예언자[1] 제사장[2] 왕의 직무를 집행하십니다.[3]

7.024 문 24.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과 영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2]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1] 예언자의 직무를 실행하십니다.

7.025 문 25.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시고[1]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시기 위하여[2] 한 번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시는 일로써[3] 제사장의 직무를 실행하십니다.

7.026 문 26.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무를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굴복시키시는 일과[1]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 주시는 일과[2]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시고 정복하시는 일로써 왕의 직무를 실행하십니다.[3]

7.027 문 27. 그리스도의 굴욕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답. 그리스도의 굴욕의 내용은 그가 출생하시되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시고[1] 율법 아래 있으며[2] 이 생의 비참과[3] 하나님의 진노와[4]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일과[5]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일입니다.[6]

7.028 문 28. 그리스도의 승귀(昇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승귀의 내용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과[1] 하늘에 오르신 일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일과[2] 마

니다.[1]

문 15. 우리의 첫 조상들이 창조될 때 타고난 신분에서 떨어지게 한 죄가 무엇입니까? 7.015

답. 우리의 첫 조상들이 창조될 때 타고난 신분에서 떨어지게 한 죄는 곧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입니다.[1]

문 16. 아담의 첫 범죄에서 온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7.016

답. 아담과 맺은 계약은 아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한 것도 되기 때문에[1] 생식의 방법으로 그에게서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2]

문 17.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신분에 이끌어 넣었습니까? 7.017

답.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신분에 이끌어 넣었습니다.[1]

문 18.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 간 그 신분의 죄성은 어떤 것입니까? 7.018

답.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 간 그 신분의 죄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첫 죄의 허물,[1] 원래 가졌던 의(義)의 결핍, 그의 성격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原罪)라고 부른 것,[2]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까지입니다.[3]

문 19.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 간 신분의 비참은 어떤 것입니까? 7.019

답. 온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1]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2] 따라서 이생의 온갖 비참과 죽음 그 자체와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3]

문 20.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죄와 비참의 신분에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7.020

답. 하나님께서 그의 순전한 선의(善意)로 영원 전부터 얼마를 영생에로 선택하시고[1] 한 구속자에 의하여 그들을 죄와 비참의 신분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신분에 이끌어 들이기로 하는 은혜의 계약을 그들과 맺으셨습니다.[2]

문 21.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7.021

답.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1]

7

소요리문답

(小要理問答)

(본 문)

7

소요리문답

문 1.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7.001

답. 사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1]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일입니다.[2]

문 2.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7.002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1]

문 3.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7.003

답.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로 가르칩니다.[1]

문 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004

답. 하나님은 그의 존재,[2] 지혜,[3] 힘,[4] 거룩,[5] 정의,[6] 선하심,[7] 그리고 진리[8]에 있어서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영(靈)이십니다.[1]

문 5. 하나님은 한 분 이상 여러 분이 계십니까? 7.005

답. 하나님은 오직 그 살아 계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1]

문 6. 하나님에게는 몇 위(位, persons)가 있습니까? 7.006

답.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세 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시며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고 힘과 영광이 동등합니다.[1]

7.007 문 7.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가 뜻하시는 의견을 좇아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1]

7.008 문 8.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써 그의 경륜을 실행하십니다.[1]

7.009 문 9.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답.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에 무에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두를 매우 좋게 지으신 일입니다.[1]

7.010 문 10.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내셨고 당신의 형상대로[1] 만들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니게 하셨고[2]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3]

7.011 문 11.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란 그의 모든 창조물과 그들의 일체 행동을 그가 가장 거룩하게[1] 슬기롭게[2] 힘있게[3]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4]

7.012 문 12. 사람이 창조될 때의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특수한 섭리 행동을 그에게 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 복종을 조건으로 하여 그와 더불어 생명의 계약을 맺으셨으며[1]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2]

7.013 문 13. 우리의 첫 조상들이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답. 우리의 첫 조상들은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떨어졌습니다.[1]

7.014 문 14. 죄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일치의 결핍과 그 율법을 어기는 일입

5 : 6, 7, 13, 살후 3 : 6, 14, 15.

제 32 장(PCUS)

1. 요 18 : 36, 사 9 : 6, 7, 고전 12 : 28, 딤전 5 : 17.
2. 마 16 : 19, 마 18 : 17, 18, 요 20 : 21-23, 고후 2 : 6-8.
3. 딤전 5 : 20, 딤전 1 : 20, 유 23, 고전 5장, 고전 11 : 27-34, 삼하 12 : 14.
4. 살전 5 : 12, 살후 3 : 6, 14, 고전 5 : 4, 5, 13, 마 18 : 17, 딛 3 : 10.

제 33 장(PCUS)

1. 행 15장.
2. 행 16 : 4, 행 15 : 15, 19, 24, 27-31, 마 18 : 17-20.
3. 총괄적 주를 보라.
4. 눅 12 : 13, 14, 요 18 : 36, 마 22 : 21.

제 34 장(PCUS)

1. 창 3 : 19, 행 13 : 36.
2. 눅 23 : 43, 빌 1 : 23, 고후 5 : 6-8.
3. 눅 16 : 23, 롬 8 : 23, 위의 2번 성구들을 보라.
4. 눅 16 : 23, 24, 벧후 2 : 9.
5. 살전 4 : 17, 고전 15 : 51, 52.
6. 고전 15 : 42-44, 앞에 있는 문맥을 보라.
7. 행 24 : 15, 요 5 : 28, 29, 빌 3 : 21.

제 35 장(PCUS)

1. 행 17 : 31, 마 25 : 31-34.
2. 요 5 : 22, 27.
3. 유 6, 벧후 2 : 4, 고후 5 : 10, 롬 2 : 16, 롬 14 : 10, 12, 마 12 : 36, 37, 고전 3 : 13-15.
4. 롬 9 : 23, 엡 2 : 4-7.
5. 롬 2 : 5, 6, 살후 1 : 7, 8.
6. 마 25 : 31-34, 살후 1 : 7, 시 16 : 11.
7. 마 25 : 41, 46, 살후 1 : 9, 막 9 : 47, 48.
8. 고후 5 : 11, 살전 1 : 5-7, 눅 21 : 27, 28, 벧후 3 : 11, 14.
9. 막 13 : 35-37, 눅 12 : 35, 36, 계 22 : 20, 마 24 : 36, 42-44를 보라.

3. 살전 5 : 11, 14, 갈 6 : 10, 요일 3 : 16−18.
4. 히 10 : 24, 25, 행 2 : 42, 46, 고전 11 : 20.
5. 요일 3 : 17, 행 11 : 29, 30, 고후 8, 9 장.
6. 골 1 : 18, 고전 8 : 6, 시 14 : 7.
7. 행 5 : 4.

제29장(PCUS)

1. 창 17 : 9−11, 출 13 : 9, 10, 롬 4 : 11, 출 12 : 3−20.
2. 고전 10 : 16, 고전 11 : 25, 26, 갈 3 : 27.
3. 출 12 : 48, 히 13 : 10, 고전 11 : 27−29.
4. 롬 6 : 3, 4, 고전 10 : 14−16 문맥을 보라.
5. 창 17 : 10, 마 26 : 27, 28, 딛 3 : 5.
6. 롬 2 : 28, 29, 고전 3 : 7, 고전 6 : 11, 요 3 : 5, 행 8 : 13−23.
7. 요 6 : 63.
8. 마 28 : 19, 고전 11 : 20, 23.
9. 총괄적 주를 보라.
10. 골 2 : 11, 12, 고전 5 : 7, 8.

제30장(PCUS)

1. 마 28 : 19.
2. 행 2 : 41, 행 10 : 47.
3. 롬 4 : 11, 갈 3 : 29, 골 2 : 11, 12와 비교하라.
4. 갈 3 : 27, 롬 6 : 3, 4.
5. 딛 3 : 5.
6. 행 2 : 38, 막 1 : 4, 행 22 : 16.
7. 롬 6 : 3, 4.
8. 마 28 : 19, 20.
9. 행 10 : 47, 행 8 : 36, 38, 마 28 : 19, 엡 4 : 11−13.
10. 총괄적 주를 보라.
11. 막 7 : 4, 행 1 : 5, 행 2 : 3, 4, 17, 행 11 : 15, 16, 히 9 : 10, 19−21.
12. 위의 1번 성구들을 보라.
13. 창 17 : 7, 9−10, 갈 3 : 9, 14, 롬 4 : 11, 12, 행 2 : 38, 39, 행 16 : 14, 15, 33, 골 2 : 11, 12, 고전 7 : 14, 막 10 : 13−16, 눅 18 : 15, 16.
14. 눅 7 : 30, 창 17 : 14.
15. 롬 4 : 11, 눅 23 : 40−43, 행 10 : 45−47.
16. 행 8 : 13, 23.
17. 요 3 : 5, 8, 롬 4 : 11.
18. 갈 3 : 27, 엡 1 : 4, 5, 엡 5 : 25, 26, 행 2 : 38−41, 행 16 : 31, 33.
19. 세례의 반복에 대해서는 명령이 없고 충분한 실례가 없다.

제31장(PCUS)

1. 고전 11 : 23−26, 마 26 : 26, 27, 눅 22 : 19, 20, 고전 10 : 16, 17, 21, 고전 12 : 13.
2. 히 9 : 22, 25, 26, 28, 마 26 : 26, 27, 눅 22 : 19, 20, 히 10 : 11, 12, 14, 18.
3. 1, 2번의 성구들을 보라.
4. 마 15 : 9, 주−하나님의 말씀의 어느 부분에도 계율로나 실례로서 이것들 어느 것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의식(儀式)이 언급된 모든 곳을 보라.
5. 마 26 : 26−28.
6. 고전 11 : 26, 27.
7. 이 진술들은 성례교리에서 오는 추리들이며, 어떤 특수한 성경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8. 고전 10 : 16, 요 6 : 53−58, 위의 6번의 주를 보라.
9. 고전 11 : 27, 29, 고전 10 : 21, 고전

6. 총괄적 주를 보라.
7. 딤전 2 : 1,2.
8. 벧전 2 : 17.
9. 롬 13 : 6,7.
10. 롬 13 : 5, 딛 3 : 1.
11. 이것은 방금 말한 의무들로부터 추리한 것이다.
12. 롬 13 : 1, 행 25 : 10,11.
13. 이것은 악한 행정장관에 관한 교리와, 또 행정장관에 대해서 신자들이 마땅히 져야 할 의무에서 온 추리이다.

제26장 (PCUS)

1. 창 2 : 23,24, 고전 7 : 2,39, 마 19 : 4−6, 엡 5 : 28,31,33, 고전 13 : 8, 13, 마 5 : 28, 31, 32, 막 10 : 5−9, 롬 7 : 2,3.
2. 창 2 : 18,24.
3. 창 1 : 27,28, 엡 5 : 22,23, 골 3 : 18, 19, 창 2 : 18−25, 고전 7 : 3−5,9,36.
4. 창 1 : 27,28, 9 : 1, 말 2 : 15, 마 18 : 5,6,10,14, 마 19 : 14, 엡 6 : 1−4, 골 3 : 20,21, 막 10 : 13−16, 눅 18 : 15−17.
5. 창 1 : 27,28.
6. 막 6 : 18, 고전 5 : 1, 레 18 : 6−18.
7. 막 1 : 30, 요 2 : 1,2, 딤전 5 : 14, 히 13 : 4, 고전 7 : 7,36, 고전 9 : 5, 딤전 4 : 3.
8. 고전 7장 특히 39절, 고후 6 : 14,15.
9. 잠 18 : 22, 마 19 : 6, 엡 5 : 29,30,32, 막 10 : 9,11,12.
10. 창 1 : 27,28.
11. 막 10 : 9.
12. 엡 5 : 22,23.
13. 창 2 : 23,24, 마 5 : 31,32, 막 10 : 5−9, 롬 7 : 2,3, 고전 7 : 2,10,11,39, 엡 5 : 28,31,33, 마 19 : 4−9, 고전 13 : 4−13.
14. 막 10 : 4−9, 고전 7 : 12,13,15, 마 19 : 7−9.
15. 삼하 12 : 13, 느 9 : 17, 시 32 : 5, 시 130 : 4, 마 12 : 31a, 마 21 : 31,32, 요 8 : 3,11, 롬 3 : 23, 갈 6 : 1, 딤전 2 : 4, 히 7 : 25, 요일 1 : 9, 요일 2 : 1,2, 눅 7 : 36−50, 눅 15 : 11−32, 요 3 : 16,17, 롬 10 : 9,10.
16. 마 5 : 31,32, 고전 7 : 10,11,20,32−35, 막 10 : 11, 눅 16 : 18.

제27장(PCUS)

1. 엡 1 : 22,23, 골 1 : 18, 롬 5 : 23,27, 32.
2. 고전 1 : 2, 고전 12 : 12,13, 롬 15 : 9−12.
3. 창 17 : 7 문맥을 보라. 창 3 : 7,9,14, 롬 4장, 행 2 : 39, 고전 7 : 14, 막 10 : 13−16을 비교하라.
4. 마 13 : 47, 골 1 : 13, 사 9 : 7.
5. 엡 2 : 19.
6. 마 28 : 19, 행 2 : 38, 고전 12 : 13, 마 26 : 26−28.
7. 엡 4 : 11−13, 사 59 : 21, 마 28 : 19, 20.
8. 롬 11 : 3,4, 행 9 : 31.
9. 고전 5 : 6,7, 계 2,3.
10. 마 13 : 24−30,47,48.
11. 롬 11 : 18−22, 계 18 : 2.
12. 마 16 : 18, 시 102 : 28, 마 28 : 19, 20.
13. 골 1 : 18.

제28장(PCUS)

1. 요일 1 : 3, 엡 3 : 16−19, 요 1 : 16, 빌 3 : 10, 롬 6 : 5,6, 롬 8 : 17.
2. 엡 4 : 15,16, 요일 1 : 3,7.

5. 요 14 : 6, 딤전 2 : 5, 엡 2 : 18.
6. 빌 4 : 6.
7. 눅 18 : 1, 딤전 2 : 8.
8. 요 14 : 13, 14.
9. 롬 8 : 26.
10. 요일 5 : 14.
11. 시 47 : 7, 히 12 : 28, 창 18 : 27, 약 5 : 16, 엡 6 : 18, 약 1 : 6, 7, 막 11 : 24, 마 6 : 12, 14, 15, 골 4 : 2.
12. 고전 14 : 14.
13. 요일 5 : 14.
14. 딤전 2 : 1, 2, 요 17 : 20, 삼하 7 : 29.
15. 이 진술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전혀 없고, 또 그러한 기도의 실례가 성경에 전혀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요일 5 : 14.
16. 원래의 주 16은 1939년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17. 행 15 : 21, 17 : 11, 계 1 : 3.
18. 딤후 4 : 2.
19. 약 1 : 22, 행 10 : 33, 히 4 : 2, 마 13 : 19, 사 66 : 2.
20. 골 3 : 16, 엡 5 : 19, 약 5 : 13.
21. 마 28 : 19, 행 2 : 42, 고전 11 : 23–29.
22. 신 6 : 13.
23. 시 116 : 14, 사 19 : 21, 느 10 : 29.
24. 욜 2 : 12, 마 9 : 15, 고전 7 : 5, 에 4 : 16.
25. 시 107장
26. 요 4 : 24, 히 10 : 22.
27. 요 4 : 21.
28. 말 1 : 11, 딤전 2 : 8.
29. 요 4 : 23, 24.
30. 신 6 : 7, 욥 1 : 5, 행 10 : 2.
31. 마 6 : 11.
32. 마 6 : 6, 엡 6 : 18.
33. 사 56 : 7, 히 10 : 25, 행 2 : 42, 눅 4 : 16, 행 13 : 42.
34. 출 20 : 8–11, 사 56 : 2, 4, 6.
35. 고전 16 : 1, 2, 행 20 : 7, 이 본문들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실례와의 관련에서 인용되었다.
36. 출 16 : 23, 25, 26, 29, 30, 출 31 : 15, 16, 사 58 : 13, 느 13 : 15–22, 눅 23 : 56.
37. 사 58 : 13, 마 12 : 1–13.

제24장(PCUS)

1. 신 10 : 20.
2. 고후 1 : 23, 대하 6 : 22, 23, 출 20 : 7.
3. 신 6 : 13.
4. 렘 5 : 7, 약 5 : 12, 마 5 : 37, 출 20 : 7.
5. 왕상 8 : 31, 스 10 : 5, 마 26 : 63, 64.
6. 위의 2번의 성구를 보라.
7. 시 24 : 4, 렘 4 : 2.
8. 시 15 : 4.
9. 겔 17 : 16, 18, 수 9 : 18, 19, 삼하 21 : 1.
10. 시 66 : 13, 14, 61 : 8, 신 23 : 21, 23.
11. 시 76 : 11, 렘 44 : 25, 26.
12. 시 50 : 14, 창 28 : 20–22, 위의 것을 삼상 1 : 11, 시 132 : 2–5와 비교하라.
13. 민 30 : 5, 8, 12, 13.

제25장(PCUS)

1. 롬 13 : 1, 3, 4, 벧전 2 : 13, 14.
2. 잠 8 : 15, 16, 위의 1번의 성구들을 보라.
3. 시 82 : 3, 4, 벧전 2 : 13, 위의 1번의 성구들을 보라.
4. 롬 13 : 1–4, 눅 3 : 14, 마 8 : 9, 행 10 : 1, 2.
5. 마 16 : 19, 고전 4 : 1, 요 18 : 36, 엡 4 : 11, 12, 대하 26 : 18.

10, 마 26 : 69−72, 시 31 : 22, 시 88 장, 사 50 : 10.
14. 요일 3 : 9, 눅 22 : 32, 시 73 : 15, 시 51 : 8, 12, 사 50 : 10.
15. 미 7 : 7−9.

제21장(PCUS)

1. 갈 3 : 12, 호 6 : 7, 창 2 : 16, 17, 롬 5 : 12−14, 고전 15 : 22, 눅 10 : 25−28을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들과 비교하라. 창 1 : 26, 신 30 : 19, 요 7 : 17, 계 22 : 17, 약 1 : 14, 1 : 25, 2 : 8, 10, 롬 3 : 19, 신 5 : 32, 신 10 : 4, 출 34 : 1, 롬 13 : 8, 9.
2. 마 22 : 37−40, 출 20 : 3−18.
3. 히 10 : 1, 갈 4 : 1−3, 골 2 : 17, 히 9 장.
4. 레 5 : 1−6, 6 : 1−7과 유사한 구절들을 보라.
5. 막 7 : 18, 19, 갈 2 : 4, 골 2 : 17, 엡 2 : 15, 16.
6. 마 5 : 38, 39, 고전 9 : 8−10, 출 21, 22 장.
7. 롬 13 : 8, 9, 요일 2 : 3, 4, 7, 롬 3 : 31, 롬 6 : 15, 위의 2번의 성구들을 보라.
8. 마 5 : 18, 19, 약 2 : 8, 롬 3 : 31.
9. 롬 6 : 14, 8 : 1, 갈 4 : 4, 5, 행 13 : 39.
10. 롬 7 : 12, 시 119 : 5, 고전 7 : 19, 갈 5 : 14, 18, 23.
11. 롬 7 : 7, 3 : 20.
12. 롬 7 : 9, 14, 24.
13. 갈 3 : 24, 롬 8 : 3, 4, 7 : 24, 25.
14. 약 2 : 11, 시 119 : 128.
15. 스 9 : 13, 14, 시 89 : 30−34.
16. 시 37 : 11, 19 : 11, 레 26 : 3−13, 엡 6 : 2, 마 5 : 5.
17. 롬 6 : 12, 14, 히 12 : 28, 29, 벧전 3 : 8−12, 시 34 : 12−16.
18. 위의 6번 성구들을 보라.
19. 제 10장 1절의 성구들을 보라. 갈 3 : 13.

제22장(PCUS)

1. 딛 2 : 14, 살전 1 : 10.
2. 갈 1 : 4, 행 26 : 18, 골 1 : 13, 롬 6 : 14.
3. 시 119 : 71, 고전 15 : 56, 57, 롬 8 : 1.
4. 롬 5 : 2.
5. 롬 8 : 14, 15, 엡 2 : 18, 갈 4 : 6, 히 10 : 19, 요일 4 : 18.
6. 갈 3 : 9, 14. 제 8장 6절의 성구들을 보라.
7. 갈 5 : 1, 행 15 : 10, 갈 4 : 1−3, 6.
8. 히 4 : 14, 16, 10 : 19, 20.
9. 요 7 : 38, 39, 고후 3 : 13, 17, 18.
10. 롬 14 : 4, 행 4 : 19, 5 : 29, 고전 7 : 23, 마 23 : 8−10, 고후 1 : 24, 마 15 : 19.
11. 갈 2 : 3, 4, 골 2 : 20, 22, 23, 갈 5 : 1.
12. 호 5 : 11, 계 13 : 12, 16, 17.
13. 갈 5 : 13, 벧전 2 : 16, 눅 1 : 74, 75, 벧후 2 : 19, 요 8 : 34.
14. 벧전 2 : 13, 14, 16, 히 13 : 17, 롬 13 : 1−8.
15. 고전 5 : 1, 5, 11, 13, 딛 1 : 13, 마 18 : 17, 18, 살후 3 : 14, 딛 3 : 10.

제23장(PCUS)

1. 롬 1 : 19, 20, 렘 10 : 7, 시 19 : 1−6.
2. 신 12 : 32, 마 15 : 9, 4 : 9, 10, 행 17 : 24, 25, 출 20 : 4−6, 신 4 : 15−20, 골 2 : 20−23.
3. 요 5 : 23, 고후 13 : 14, 마 4 : 10, 계 5 : 11−13.
4. 골 2 : 18, 계 19 : 10, 롬 1 : 25.

2. 마 15 : 9, 사 29 : 13, 요 16 : 2, 삼상 15 : 22, 23, 골 2 : 20-23.
3. 약 2 : 18, 22.
4. 시 116 : 12, 13, 골 3 : 17, 대상 29 : 6-9.
5. 요일 2 : 3, 5, 벧후 1 : 5-10.
6. 고후 9 : 2, 마 5 : 16.
7. 딛 2 : 5, 딤전 6 : 1, 딛 2 : 9-12.
8. 벧전 2 : 15.
9. 벧전 2 : 12, 빌 1 : 11, 요 15 : 8.
10. 엡 2 : 10.
11. 롬 6 : 22.
12. 요 15 : 5, 6, 겔 36 : 26-27.
13. 빌 2 : 13, 4 : 13, 고후 3 : 5.
14. 빌 2 : 12, 히 6 : 11, 12, 사 64 : 7, 벧후 1 : 3, 5, 10, 11, 딤후 1 : 6, 유 20, 21.
15. 눅 17 : 10, 갈 5 : 17.
16. 롬 3 : 20, 4 : 2, 4, 6, 엡 2 : 8, 9, 딛 3 : 5-7, 롬 8 : 18.
17. 위의 15번의 성구들을 보라.
18. 갈 5 : 22, 23.
19. 사 64 : 6, 시 143 : 2, 130 : 3, 갈 5 : 17, 롬 7 : 15, 18.
20. 엡 1 : 6, 벧전 2 : 5, 창 4 : 4, 히 11 : 4.
21. 고전 4 : 3, 4, 시 143 : 2.
22. 고후 8 : 12, 히 6 : 10.
23. 왕하 10 : 30, 31, 빌 1 : 15, 16, 18.
24. 히 11 : 4, 6, 창 4 : 3-5.
25. 고전 13 : 3, 사 1 : 12.
26. 마 6 : 2, 5, 16, 롬 14 : 23.
27. 딛 1 : 15, 잠 15 : 8, 28 : 9.
28. 마 25 : 24-28, 25 : 41-45, 23 : 23.

제19장(PCUS)

1. 빌 1 : 6, 요 10 : 28, 29, 렘 32 : 40, 요일 3 : 9, 벧전 1 : 5, 9.
2. 딤후 2 : 19, 렘 31 : 3, 엡 1 : 4, 5, 요 13 : 1, 롬 8 : 35-39.
3. 히 10 : 10, 14, 요 17 : 11, 24, 히 7 : 25, 9 : 12-15, 롬 8 : 32-39, 눅 22 : 32.
4. 요 14 : 16, 17, 요일 2 : 27, 3 : 9.
5. 렘 32 : 40, 히 8 : 10-12.
6. 살후 3 : 3, 요일 2 : 19, 요 10 : 28, 살전 5 : 23, 24, 히 6 : 17-20.
7. 마 26 : 70, 72, 74, 삼하 12 : 9, 13.
8. 사 64 : 7, 9, 삼하 11 : 27.
9. 엡 4 : 30.
10. 시 51 : 8, 10, 12, 계 2 : 4.
11. 막 6 : 52, 시 95 : 8.
12. 시 32 : 3, 4, 51 : 8.
13. 삼하 12 : 14, 겔 16 : 54.
14. 삼하 12 : 10, 시 89 : 31, 32, 고전 11 : 32.

제20장(PCUS)

1. 신 29 : 19, 요 8 : 41.
2. 마 7 : 22, 23.
3. 딤후 1 : 12, 요일 2 : 3, 5 : 13, 3 : 14, 18, 19, 21, 24.
4. 롬 5 : 2, 5, 위의 3번의 성구들을 보라.
5. 히 6 : 11, 12, 위의 4번의 성구들을 보라.
6. 히 6 : 17, 18, 벧후 1 : 4, 5.
7. 벧후 1 : 10, 11, 요일 3 : 14.
8. 롬 8 : 15, 16.
9. 엡 1 : 13, 14, 고후 1 : 21, 22.
10. 사 50 : 10, 요일 5 : 13, 시 73, 77, 88.
11. 고전 2 : 12, 요일 4 : 13, 시 77 : 10-20, 시 73장, 위의 2번의 성구들을 보라.
12. 벧후 1 : 10, 롬 6 : 1, 2, 딛 2 : 11, 12, 14.
13. 시 51 : 8, 12, 14, 엡 4 : 30, 시 77 : 1-

12. 갈 4 : 4, 딤전 2 : 6, 롬 4 : 25.
13. 요 3 : 5, 18, 36, 갈 2 : 16, 딛 3 : 4-7.
14. 마 6 : 12, 요일 1 : 9, 2 : 1.
15. 눅 22 : 32, 요 10 : 28, 히 10 : 14, 빌 1 : 6, 요일 2 : 19.
16. 시 89 : 31-33, 32 : 5, 마 26 : 75, 시 51 : 7-12, 고전 11 : 30, 32.
17. 히 11 : 13, 요 8 : 56, 갈 3 : 6-8, 행 15 : 11, 롬 3 : 30, 갈 3 : 8, 9, 14.

제14장(PCUS)

1. 엡 1 : 5, 갈 4 : 4, 5.
2. 요 1 : 12, 롬 8 : 17.
3. 계 3 : 12.
4. 롬 8 : 15.
5. 엡 3 : 12, 히 4 : 16, 롬 5 : 2.
6. 갈 4 : 6.
7. 시 103 : 13.
8. 잠 14 : 26, 시 27 : 1-3.
9. 마 6 : 30, 32, 벧전 5 : 7.
10. 히 12 : 6.
11. 애 3 : 31, 히 13 : 5.
12. 엡 4 : 30.
13. 히 6 : 12.
14. 벧전 1 : 4, 히 1 : 14.

제15장(PCUS)

1. 행 20 : 32, 롬 6 : 5, 6, 요 17 : 17, 엡 5 : 26, 살후 2 : 13.
2. 롬 6 : 6, 14.
3. 롬 8 : 13, 갈 5 : 24, 골 3 : 5.
4. 골 1 : 11, 벧후 3 : 13, 14, 엡 3 : 16-19.
5. 고후 7 : 1, 히 12 : 14.
6. 살전 5 : 23.
7. 요일 1 : 10, 빌 3 : 12, 갈 5 : 17, 롬 7 : 18, 23.
8. 롬 7 : 23.
9. 롬 6 : 14, 요일 5 : 4, 엡 4 : 16.
10. 벧후 3 : 18, 고후 3 : 18.
11. 고후 7 : 1.

제16장(PCUS)

1. 고전 12 : 3, 엡 2 : 8, 히 12 : 2.
2. 롬 10 : 14, 17.
3. 벧전 2 : 2, 행 20 : 32, 마 28 : 19, 고전 11 : 23-29, 고후 12 : 8-10.
4. 살전 2 : 13, 요일 5 : 10, 행 24 : 14.
5. 마 6 : 30, 8 : 10, 롬 4 : 19, 20.
6. 눅 22 : 31, 32, 고전 10 : 13.
7. 히 6 : 11, 12, 10 : 22, 딤후 1 : 12.
8. 히 12 : 2.

제17장(PCUS)

1. 행 11 : 18.
2. 눅 24 : 47, 막 1 : 15, 행 20 : 21.
3. 겔 18 : 30, 31, 36 : 31, 시 51 : 4, 렘 31 : 18, 19, 고후 7 : 11.
4. 시 119 : 59, 106, 요 14 : 23.
5. 딛 3 : 5, 행 5 : 31.
6. 롬 3 : 24, 엡 1 : 7.
7. 눅 13 : 3, 행 17 : 30.
8. 롬 6 : 23, 마 12 : 36, 약 2 : 10.
9. 사 55 : 7, 롬 8 : 1, 사 1 : 18.
10. 시 19 : 13, 눅 19 : 8, 딤전 1 : 13, 15, 단 9장, 느 9장.
11. 시 32 : 5, 6, 시 51 : 4, 5, 7, 9, 14.
12. 잠 28 : 13, 요일 1 : 9.
13. 약 5 : 16, 눅 17 : 3, 4, 수 7 : 19, 시 51장.
14. 고후 2 : 7, 8, 갈 6 : 1, 2.

제18장(PCUS)

1. 신 12 : 32, 시 119 : 9, 마 28 : 20, 눅 10 : 25, 26, 벧후 1 : 19.

23, 마 28 : 19,20.

제 10 장(PCUS)

1. 문단 1. 계 22 : 17, 요 3 : 16, 요일 2 : 1,2, 행 2 : 38,39, 마 11 : 28－30, 고후 5 : 14－19, 딛 2 : 11, 히 2 : 9, 눅 24 : 46,47.
2. 문단 2. 마 28 : 19,20, 행 4 : 12, 요 6 : 37－40, 17 : 3, 행 16 : 31, 2 : 38, 갈 2 : 16－20, 롬 1 : 16,17, 4 : 5, 행 13 : 38,39,48, 벧후 3 : 9, 마 11 : 28－30, 막 1 : 14,15, 행 17 : 30, 계 22 : 17, 겔 33 : 11, 사 1 : 18, 눅 13 : 34.
3. 문단 3. 히 2 : 3, 12 : 25, 행 13 : 46, 마 10 : 32,33, 눅 12 : 47,48, 히 10 : 29.
4. 문단 4. 행 4 : 12, 마 28 : 19,20, 행 1 : 8, 롬 10 : 13－15, 히 10 : 19－25, 갈 3 : 28, 고전 16 : 1,2, 마 9 : 36－38, 행 13 : 2－4, 골 3 : 16, 계 22 : 17, 골 1 : 28,29.

제 11 장(PCUS)

1. 신 30 : 19, 요 7 : 17, 계 22 : 17, 약 1 : 14, 요 5 : 40.
2. 창 1 : 26, 위의 1 번을 보라.
3. 창 2 : 16,17, 3 : 6.
4. 롬 5 : 6, 8 : 7, 요 15 : 5.
5. 롬 3 : 10,12, 8 : 7.
6. 엡 2 : 1,5, 골 2 : 13.
7. 요 6 : 44,65, 고전 2 : 14, 롬 8 : 8, 엡 2 : 2－5, 딛 3 : 3－5.
8. 골 1 : 13, 요 8 : 34,36, 빌 2 : 13, 롬 6 : 18,22.
9. 갈 5 : 17, 롬 7 : 15.
10. 요일 3 : 2, 계 22 : 3,4.
11. 대하 6 : 36, 요일 1 : 8－10, 2 : 1－6, 시 17 : 15.

제 12 장(PCUS)

1. 롬 11 : 7, 8 : 30, 살후 2 : 13,14, 롬 8 : 2, 딤후 1 : 9,10.
2. 행 26 : 18, 고전 2 : 10,12.
3. 겔 36 : 26.
4. 겔 11 : 19, 36 : 27, 빌 2 : 13, 4 : 13, 신 30 : 6.
5. 요 6 : 44,45.
6. 요 6 : 37. 위의 5번을 참조하라.
7. 딤후 1 : 9, 딛 3 : 4,5, 롬 9 : 11, 엡 2 : 4,5,8,9.
8. 고전 2 : 14, 롬 8 : 7, 엡 2 : 5.
9. 요 6 : 37, 겔 36 : 27, 요 5 : 25.
10. 행 4 : 12, 요 3 : 8.
11. 마 22 : 14, 13 : 20,21, 요 6 : 64－66, 8 : 24, 요일 2 : 19, 히 6 : 4－6.
12. 행 4 : 12, 요 14 : 6, 17 : 3.
13. 요이 9 : 11, 갈 1 : 8.

제 13 장(PCUS)

1. 롬 8 : 30, 3 : 24.
2. 롬 4 : 5－8, 고후 5 : 19,21, 딛 3 : 5, 7, 엡 1 : 7, 렘 23 : 6, 롬 3 : 22,24, 25,27,28, 고전 1 : 30,31, 롬 5 : 17－19.
3. 빌 3 : 9, 엡 2 : 8, 행 13 : 38,39.
4. 요 1 : 12, 롬 3 : 28, 5 : 1.
5. 약 2 : 17,22,26, 갈 5 : 6.
6. 롬 5 : 8－10,19, 고전 15 : 3, 고후 5 : 21, 벧전 2 : 24, 3 : 18, 히 10 : 10,14, 사 53장.
7. 롬 8 : 32, 요 3 : 16.
8. 고후 5 : 21, 사 53 : 6.
9. 롬 3 : 24, 6 : 23, 엡 1 : 7, 2 : 6－9.
10. 롬 3 : 26, 엡 2 : 7.
11. 벧전 1 : 2,19,20, 롬 8 : 30.

2. 행 3 : 22, 신 18 : 15.
3. 히 5 : 5, 6.
4. 시 2 : 6, 눅 1 : 33, 사 9 : 6, 7.
5. 엡 5 : 23.
6. 히 1 : 2.
7. 행 17 : 31, 고후 5 : 10.
8. 요 17 : 6, 엡 1 : 4, 요 6 : 37, 39, 사 53 : 10.
9. 딤전 2 : 5, 6, 막 10 : 45, 고전 1 : 30, 롬 8 : 30.
10. 요 1 : 1, 14, 요일 5 : 20, 빌 2 : 6, 갈 4 : 4, 히 2 : 14.
11. 히 2 : 17, 4 : 15.
12. 눅 1 : 27, 31, 35, 갈 4 : 4, 위의 10번을 보라.
13. 골 2 : 9, 롬 9 : 5, 위의 12번을 보라.
14. 롬 1 : 3, 4, 딤전 2 : 5.
15. 눅 4 : 18, 19, 21, 행 10 : 38.
16. 골 2 : 3.
17. 골 1 : 19.
18. 히 7 : 26, 요 1 : 14, 눅 4 : 18－21.
19. 히 5 : 4, 5.
20. 요 5 : 22, 27, 마 28 : 18.
21. 시 40 : 7, 8, 빌 2 : 5－8.
22. 갈 4 : 4.
23. 마 3 : 15, 요 17 : 4.
24. 마 26 : 37, 38, 눅 22 : 44, 마 27 : 46.
25. 마 26, 27장.
26. 빌 2 : 8.
27. 행 2 : 24, 27, 13 : 37.
28. 고전 15 : 4.
29. 요 20 : 25, 27.
30. 눅 24 : 50, 51, 행 1 : 9, 행 2 : 33－36.
31. 롬 8 : 34, 히 7 : 25.
32. 행 10 : 42, 마 13 : 40－42, 16 : 27, 25 : 31－33, 딤후 4 : 1.
33. 롬 5 : 19, 히 9 : 14, 롬 3 : 25, 26, 히 10 : 14, 엡 5 : 2.
34. 엡 1 : 11, 14, 요 17 : 2, 롬 5 : 10, 11, 히 9 : 12, 15.
35. 창 3 : 15, 계 13 : 8, 히 13 : 8.
36. 벧전 3 : 18, 히 9 : 14, 요 10 : 17, 18.
37. 행 20 : 28, 요 3 : 13, 요일 3 : 16.
38. 요 6 : 37, 39, 10 : 16.
39. 요일 2 : 1, 롬 8 : 34.
40. 요 15 : 15, 17 : 6, 갈 1 : 11, 12, 엡 1 : 7－9.
41. 롬 8 : 9, 14, 딛 3 : 4, 5, 롬 15 : 18, 19, 요 17 : 17.
42. 시 110 : 1, 고전 15 : 25, 26, 말 4 : 2, 3, 골 2 : 15.

제 9 장(PCUS)

1. 문단 1. 고후 13 : 14, 요 15 : 26, 마 28 : 19, 3 : 16, 눅 1 : 35, 엡 4 : 30, 히 10 : 29, 고전 10 : 10, 11, 계 22 : 17, 엡 2 : 18－20, 22, 요 14 : 26, 16 : 7, 갈 4 : 6, 행 5 : 3, 4, 16 : 6, 7, 막 3 : 29, 롬 8 : 26, 27, 요일 2 : 20－27.
2. 문단 2. 엡 4 : 30, 5 : 9, 창 1 : 2, 요 3 : 5, 행 2 : 1－21, 갈 5 : 22－25, 요 16 : 8－11, 벧후 1 : 21, 딤후 3 : 16, 고전 2 : 10, 벧전 1 : 11, 요 16 : 13－15, 행 7 : 51, 살전 5 : 19, 엡 4 : 30, 시 104 : 30.
3. 문단 3. 요 3 : 1－8, 행 2 : 38, 눅 11 : 13, 고전 12 : 3, 요 7 : 37－39, 16 : 13, 16 : 7－11, 계 22 : 17, 딛 3 : 5－7, 살후 2 : 13, 갈 4 : 6, 요일 4 : 2, 롬 8 : 14, 17, 26, 27, 엡 4 : 30, 고전 2 : 13, 14.
4. 문단 4. 엡 2 : 14－18, 4 : 1－6, 5 : 18, 행 2 : 4, 13 : 2, 고전 12, 벧후 1 : 19－21, 살전 1 : 5, 6, 요 20 : 22,

10. 호 1 : 7.
11. 롬 4 : 19−21.
12. 왕하 6 : 6, 단 3 : 27.
13. 이 진술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교리에 의해서 지지된다. 제3장, 제5장 1, 2, 3절과 관련된 성구들을 보라.
14. 롬 11 : 32,33, 삼하 24 : 1, 행 4 : 27, 28, 제3장, 제5장의 1, 2, 3절에 관한 구절들을 보라.
15. 왕하 19 : 28, 사 10 : 5−7, 12, 15.
16. 창 50 : 20, 위의 15번을 보라.
17. 요일 2 : 16, 시 50 : 21, 약 1 : 13, 14.
18. 신 8 : 2, 대하 32 : 25, 26, 31.
19. 고후 12 : 7−9, 시 73, 77 : 1−12, 막 14 : 66−72, 요 21 : 15−17.
20. 롬 1 : 24, 26, 28, 11 : 7, 8, 살후 2 : 11, 12.
21. 신 29 : 4, 막 4 : 11, 12.
22. 마 13 : 12, 25 : 29.
23. 왕하 8 : 12, 13.
24. 시 81 : 11, 12, 살후 2 : 10−12.
25. 출 8 : 15, 32, 고후 2 : 15, 16, 사 8 : 14, 출 7 : 3, 벧전 2 : 7, 8, 사 6 : 9, 10, 행 28 : 26, 27.
26. 암 9 : 8, 9, 롬 8 : 28, 엡 1 : 22.

제6장

1. 창 3 : 13, 고후 11 : 3, 창 3 : 1−14.
2. 롬 5 : 19−21.
3. 창 3 : 7, 8, 2 : 17.
4. 롬 5 : 12, 엡 2 : 3.
5. 창 6 : 5, 렘 17 : 9, 롬 3 : 10−19, 8 : 6−8, 시 58 : 1−5.
6. 행 17 : 26, 창 2 : 16, 17을 롬 5 : 12, 15−19와 비교하라. 고전 15 : 21, 22, 45, 49.
7. 시 51 : 5, 창 5 : 3, 요 3 : 6, 롬 3 : 10−18.
8. 롬 5 : 6, 8 : 7, 요 3 : 6, 롬 7 : 18, 창 8 : 21, 롬 8 : 7.
9. 약 1 : 14, 15, 마 15 : 19.
10. 롬 7 : 14, 17, 18, 23.
11. 롬 7 : 5, 7, 8, 25.
12. 롬 3 : 19, 2 : 15, 요일 3 : 4.
13. 엡 2 : 3, 롬 5 : 12.
14. 갈 3 : 10.
15. 롬 6 : 23, 창 2 : 17.
16. 엡 4 : 18, 마 25 : 41, 살후 1 : 9, 롬 1 : 21−28, 레 26 : 14 이하, 신 28 : 15 이하.

제7장

1. 총괄적 주를 보라.
2. 창 2 : 16, 17, 갈 3 : 10, 호 6 : 7, 롬 5 : 12, 19, 고전 15 : 22, 47.
3. 창 2 : 16, 27과 롬 5 : 12−14, 롬 10 : 5, 눅 10 : 25−28,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과 비교하라.
4. 마 26 : 28, 갈 3 : 21, 롬 8 : 3, 사 42 : 6, 창 3 : 15, 히 10 : 5−10.
5. 요 3 : 16, 행 16 : 30, 31.
6. 요 3 : 5−8, 6 : 37−44, 겔 36 : 26, 27.
7. 히 1 : 1, 2, 고후 3 : 6−9.
8. 롬 4 : 11, 히 8, 9, 10장.
9. 히 11 : 13, 요 8 : 56, 갈 3 : 6−8.
10. 행 15 : 11, 롬 3 : 30, 갈 3 : 8, 9, 14.
11. 마 28 : 19, 20, 고전 11 : 23−25.
12. 히 8 : 6−13, 고후 3 : 9−11.
13. 엡 2 : 15−19, 위의 11번을 보라.
14. 갈 3 : 17, 29, 위의 10번의 성구들과 맥락을 보라.

제8장

1. 사 42 : 1, 벧전 1 : 19, 20, 딤전 2 : 5, 요 3 : 16.

28. 롬 11 : 33, 시 147 : 5.
29. 사 46 : 9-11, 행 15 : 18, 겔 11 : 5.
30. 시 145 : 17, 롬 7 : 12.
31. 계 7 : 11,12, 5 : 12-14.
32. 마 28 : 19, 고후 13 : 14, 마 3 : 16, 17.
33. 요 1 : 14,18, 17 : 24.
34. 갈 4 : 6, 요 15 : 26.

제3장

1. 엡 1 : 11, 행 4 : 27,28, 마 10 : 29,30, 엡 2 : 10.
2. 약 1 : 13, 요일 1 : 5.
3. 행 2 : 23, 마 17 : 12, 행 4 : 27,28, 요 19 : 11, 잠 16 : 33, 행 27 : 23,24,34, 44.
4. 삼상 23 : 11,12, 마 11 : 21,23, 시 139 : 1-4.
5. 롬 9 : 11,13,16,18, 딤후 1 : 9, 엡 1 : 4,5.
6. 딤전 5 : 21, 행 13 : 48, 롬 8 : 29,30, 요 10 : 27-29.
7. 마 25 : 41, 롬 9 : 22,23, 유 4.
8. 요 10 : 14-16,27-29, 6 : 37-39, 13 : 18, 행 13 : 48, 딤후 2 : 19.
9. 엡 1 : 4.
10. 엡 1 : 11.
11. 엡 1 : 9.
12. 딤후 1 : 9.
13. 롬 8 : 30, 벧전 5 : 10.
14. 딤후 1 : 9, 엡 1 : 6, 2 : 8,9.
15. 엡 1 : 5,6,12.
16. 엡 2 : 10, 살후 2 : 13, 벧전 1 : 2, 엡 1 : 4.
17. 롬 5 : 19, 살전 5 : 9,10, 딛 2 : 14.
18. 롬 9 : 11, 살후 2 : 13,14, 고전 1 : 9.
19. 롬 8 : 30.
20. 엡 1 : 5.
21. 엡 1 : 4, 살전 4 : 3, 살후 2 : 13.
22. 벧전 1 : 5, 요 10 : 28.
23. 요 17 : 9, 6 : 64,65, 8 : 47, 10 : 26, 행 13 : 48, 요일 2 : 19.
24. 마 11 : 25,26.
25. 롬 2 : 8,9, 살후 2 : 10-12, 롬 9 : 14-22.
26. 계 15 : 3,4.
27. 총괄적 주를 보라.

제4장

1. 창 1 : 1-3, 출 20 : 11, 렘 10 : 12, 골 1 : 16, 요 1 : 2,3, 히 1 : 2, 11 : 3, 시 104 : 24, 창 1.
2. 창 1 : 27.
3. 시 8 : 5,6, 창 2 : 19,20, 눅 23 : 43, 마 10 : 28.
4. 창 1 : 26, 골 3 : 10, 엡 4 : 24.
5. 롬 2 : 14,15.
6. 창 2 : 16,17, 3 : 6,17.
7. 창 2 : 16,17.
8. 창 2 : 17, 3 : 8-11,23.
9. 창 1 : 28, 시 8 : 6-8.

제5장

1. 느 9 : 6, 히 1 : 3, 시 135 : 6, 마 10 : 29-31, 행 17 : 25,28, 마 6 : 26,30, 욥 38-41장.
2. 잠 15 : 3, 대하 16 : 9, 시 145 : 17, 104 : 24.
3. 행 15 : 18.
4. 엡 1 : 11, 시 33 : 11.
5. 엡 3 : 10, 롬 9 : 17, 시 145.
6. 행 2 : 23, 위의 3,4번을 보라.
7. 창 8 : 22, 렘 31-35.
8. 출 21 : 13, 창 50 : 19,20, 왕상 22 : 34, 사 10 : 6,7.
9. 행 27 : 24,31,44, 사 55 : 10,11.

총괄적 주: 이 신앙고백의 어떤 점에서는 그 진술에 있어서 성경보다도 더 자세하다. 이 진술들은 성경으로부터 끌어 온 추리들이며, 혹은 성경을 토대로 한 진술로부터 또는 교회의 경험과 관찰로부터 끌어 낸 추리들이다. 그런 경우에는 성경본문이 지적되지 않았고, 단지 이 총괄적 주를 보라고 말했다.

제 1 장

1. 롬 1 : 19,20, 2 : 14,15, 1 : 32.
2. 고전 1 : 21, 2 : 13,14, 2 : 9—12, 행 4 : 12, 롬 10 : 13,14.
3. 히 1 : 1,2, 갈 1 : 11,12, 신 4 : 12—14.
4. 눅 24 : 27, 딤후 3 : 16, 롬 15 : 4, 벧후 3 : 15,16.
5. 눅 16 : 29—31, 히 2 : 1—3, 딤후 3 : 15,16, 벧후 1 : 10.
6. 총괄적 주를 보라.
7. 성경 정경이 확정된 것은 뚜렷한 구절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와 그의 사도들의 증언과 고대 사본들과 역본들의 증언과 고대 기독교 저술가들과 교회회의의 증언에 의해서이며, 또는 각 책에서 나타난 내증에 의한 것이다.
8. 살전 2 : 13, 딤후 3 : 16, 벧후 1 : 21, 갈 1 : 11,12.
9. 고전 2 : 10,11, 요 16 : 13,14, 고전 2 : 6—9.
10. 막 7 : 5—7.
11. 이 진술은 성경의 충족성으로부터의 추리이다.
12. 요 6 : 45, 고전 2 : 9,10,12.
13. 고전 14 : 26,40, 11 : 13,14.
14. 벧후 3 : 16, 요 16 : 17, 6 : 60.
15. 시 119 : 105,130, 행 17 : 11,12.
16. 위의 9번 제 3부의 주를 보라.
17. 사 8 : 20, 행 15 : 14—18.
18. 요 5 : 39, 딤후 3 : 14,15, 벧후 1 : 19.
19. 고전 14 : 6,9,11,12,24,27,28, 마 28 : 19,20, 골 3 : 16, 롬 15 : 4.
20. 마 4 : 5—7, 12 : 1—7.
21. 마 22 : 29,31, 행 28 : 25, 눅 10 : 26.

제 2 장

1. 신 6 : 4, 고전 8 : 4,6, 살전 1 : 9, 렘 10 : 10.
2. 렘 23 : 24, 시 147 : 5, 왕상 8 : 27, 시 139.
3. 요 4 : 24.
4. 딤전 1 : 17.
5. 눅 24 : 39, 신 4 : 15,16.
6. 약 1 : 17, 말 3 : 6.
7. 왕상 8 : 27, 렘 23 : 23,24.
8. 시 90 : 2, 딤전 1 : 17.
9. 롬 11 : 33, 시 145 : 3.
10. 계 4 : 8.
11. 롬 16 : 27.
12. 사 6 : 3, 계 4 : 8.
13. 시 115 : 3.
14. 사 44 : 6, 행 17 : 24,25.
15. 엡 1 : 11.
16. 롬 11 : 36, 계 4 : 11.
17. 요일 4 : 8—10.
18. 출 34 : 6,7.
19. 히 11 : 6.
20. 느 9 : 32,33.
21. 합 1 : 13, 시 5 : 5,6.
22. 출 34 : 7, 홈 1 : 2,3.
23. 요 5 : 26, 행 7 : 2, 시 119 : 68, 딤전 6 : 15, 롬 9 : 5.
24. 행 17 : 24,25.
25. 롬 11 : 36, 사 40 : 12—17.
26. 단 4 : 25, 엡 1 : 11.
27. 히 4 : 13.

충족할 만한 구원을 제공하셨고 그것을 모두에게 적용하셨으며, 복음 안에서 값없이 모두에게 제시하셨다는 교리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시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그 제시를 받아들이는 데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무 사람도 자기 죄를 근거로 하지 않고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다.

6.193 둘째, 신앙고백 제10장 제3부에 관해서 : 이 조항이 애기 때에 죽은 자는 멸망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애기 때에 죽은 자들도 다 은혜선택 속에 포함되며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는다.

선언서[f]

6.191 정치형태에서 제시된 대로 목사, 시무장로, 집사의 안수 서약은 오직 성경에서 가르친 교리 체계를 담은 신앙고백을 수락하고 채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신앙고백의 진술들 중에서 끌어 낸 어떤 추론들에 대하여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생각과 또한 현재에 있어서 보다 더 명백한 진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시된 진리의 어떤 면들을 선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공적으로 표시된 것을 알기에 미국연합장로교회는 다음과 같이 권위있게 선언하는 바이다:

6.192 첫째, 신앙고백 제3장에 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교리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와, 온 세계의 죄에 대한 화유의 제물로 그의 아들을 거저 주신 교리와,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교리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 멸망할 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교리가, 하나님은 어떤 죄인의 죽음도 원치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f. 1903년에 첨가됨.

게 값없이 이 구원을 제시하신다.

6.188

2.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위한 그의 사랑과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았으면 하는 그의 소원을 선언하시며, 구원의 그 유일한 길을 충분히 그리고 명백히 계시하시고,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며, 말씀과 동반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운 초대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6.189

3. 그 자비로운 제공을 수락하는 것이 복음을 듣는 각자의 의무요 특권이다. 그리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을 고집하는 자들은 가중죄를 받고 자기들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6.190

4. 복음에서 계시된 구원의 길밖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통상적 은혜의 방법에 있어서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며 모든 세상으로 가서 만백성을 제자로 삼게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들이 이미 서 있는 그리스도교의 율례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기도와 헌금과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온 땅에 확대하는 일에 공헌할 의무가 있다.

확인(確印)을 찍어 주신다.

4. 성령의 내주(內住)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서로 연합되어 있다. 성령은 목사들을 불러 그들의 성직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며 교회안의 다른 모든 직분들에게 자격을 주어 그들의 특수업무를 하게 한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 성령은 말씀에게 그리고 복음의 의식(儀式)들에게 유효성을 주신다. 그에 의해서 교회가 보전되고 증가되고 순화하고 마침내 하나님 어전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6.186

제 35 장[e]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관하여

1.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통하여, 은혜의 계약 안에서 잃어버린 인류 전체에게 충족하고 적용될 삶과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 6.187

e. 1903년에 첨가됨.

는 분이시며 어디나 계신다. 그는 모든 선한 생각과 순결한 소원과 사람들 속에 있는 거룩한 계획의 원천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예언자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고 성경 저자들이 모두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오하게 기록하였다. 복음의 섭리가 특별히 그에게 위탁되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길을 예지하고 그의 설득력 있는 능력으로 복음에 동반하며 사람의 이성과 양심에다 복음의 메시지를 권장한다. 그래서 자비롭게 제공되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핑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게 된다.

6.185

3. 성부는 언제나 당신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모두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성령은 구속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능률적인 유일한 행위자이시다. 그는 그의 은혜에 의해서 사람들을 중생하게 하고 죄를 알려 주고 회개하도록 감동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설득하며 가능케 한다. 그는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며 그들을 위로하고 성화시키는 이로서 그들 속에 머물며, 입양(入養)과 기도의 영을 그들에게 주며, 그 모든 은혜로운 직무를 수행하여 그들이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성화하며

그 날에는 반역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살던 사람 전체가 그리스도의 법정에 나타나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선악간에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행한 바를 따라서 갚음을 받을 것이다.[3]

6.181 2.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받은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서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며[4] 악하고 불순종하는 타락자들에 대한 처벌에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5] 그때에 비로소 의인들은 영생에로 들어가 주님의 어전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상쾌함을 받을 것이며[6]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은 영원한 괴롭힘 속에 던져질 것이며, 주님의 어전과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서 벌을 받을 것이다.[7]

6.182 3.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막아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역경 속에서도 보다 큰 위안을 얻게 하시려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확실한 신념을 우리들로 하여금 가지도록 원하신다.[8] 그러나 그 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그의 뜻이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육적인 안전을 떨쳐 버리고 항상 깨어 있게 하시려는 것이며,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말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9] 아멘.

제 34 장[d]

성령에 관하여

6.183 1. 삼위일체신의 제 3위이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며, 동일한 실체요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한 분으로서, 성부 성자와 함께 모든 시대에 믿음과 사랑과 복종의 대상이시다.

6.184 2. 그는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

d. 1903년에 첨가됨.

로 사용되어야 한다.[3]

6.176 4. 대회와 평의회는 교회에 속한 것 외의 다른 것은 취급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겸손히 탄원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행정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양심의 만족을 위해서 충고하는 방식으로 하든가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에 관련된 민사(民事)에 개입한다는 것은 안될 일이다.[4]

제34장 제32장

죽은 후의 사람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6.177 1. 사람의 신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는다.[1] 그러나(죽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영혼은 불멸의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곧 돌아간다.[2] 의인들의 영혼은 그 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영접되며,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그들의 신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3] 그러나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그 위대한 날의 심판을 위해 보전된 괴롭힘과 흑암 속에 머문다.[4] 몸에서 분리된 영혼들을 위한 이 두 장소 외에 다른 곳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6.178 2. 마지막 날에 산 자로 나타난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를 받을 것이다.[5] 그리고 죽은 자들이 모두 비록 질은 다르더라도 다른 몸이 아닌 바로 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나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그들의 영혼과 다시금 연합될 것이다.[6]

6.179 3. 불의한 사람들의 신체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하여 되살림을 받아 욕된 상태에 들어가고, 의로운 자의 신체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닮은 것이 된다.[7]

제35장 제33장

최후 심판에 관하여

6.180 1.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으며[1] 모든 권세와 심판을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다.[2]

4. 이 목적을 보다 잘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원들은 범죄의 성격과 그 사람의 과실에 따라서 경고하고, 얼마 동안 만찬예식에 참석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출교함으로써 처리해야 한다.[4] 6.172

제33장 제31장

대회와 평의회에 관하여

1. 보다 나은 교회 치리와 가일층의 교회 육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대회(synods)라든가 평의회(councils)라고 부르는 그러한 회합들이 있어야 한다.[b] 그리고 그러한 민생위원을 정하고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편리하다고 생각될 때 회집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교회들의 감독들과 기타 통치자들에게 속하는 일로서, 그들의 직권으로, 그리고 교회의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육성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1] 6.173

2. [c]목회적으로 대회와 평의회가 할 일은 신앙 논쟁과 양심에 관한 사건들을 결정하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公衆)예배의 보다 나은 순서와 그의 교회를 치리하는 데 대한 법과 방향을 정하는 일, 행정착오 사건들에 대한 불평을 받아들여 권위적으로 결정하는 일들이다. 그 교령(敎令)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경우 그것들은 하나님의 법령이며, 그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아 경의와 복종하는 마음으로 수락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기 때문에만 아니라 그것들을 만든 권위 때문이기도 하다.[2] 6.174

3. 사도시대 이래 모든 대회와 평의회는 전체회의든지 특별회의든지를 막론하고 과오를 범할 수 있으며 그 전례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신앙이나 행위의 법칙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신앙과 행위를 돕는 것으 6.175

---

b. 이 절의 이하 부분은 1788년에 첨가되었다.

c. 1647년 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II. 행정장관이 목사들과 기타 적합한 사람들을 대회로 불러 종교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상의하는 것은 합법하다. 그와 같이 또한 만일 행정장관이 공공연히 교회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 그리스도의 일꾼들(Ministers)은 자진해서 그들의 직권으로, 혹은 그들이 다른 적합한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러한 회합을 같이 모일 수 있다."

PCUS	UPCUSA
먹는 죄를 가지게 되면 그들 자신에게 심판을 가져온다.[9]	먹는 죄를 가지게 되며, 그들 자신에게 심판을 가져온다.[a] 그러므로 모든 무식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주님과의 교통을 즐기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주님의 식탁에 참가할 자격이 없으며,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큰 죄가 없다 하더라도 이 거룩한 신비에 동참할 수는 없으며 그 자리에 용납될 수 없다.

제32장	제30장

교회 책벌에 관하여

6.169 1. 주 예수는 그의 교회의 임금과 머리로서 교회를 하나의 통치기구로 제정하시어, 행정장관과는 상관없이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붙이셨다.[1]

6.170 2. 이 직원들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이 위임되었으며, 그 덕택으로 그들은 말씀과 책벌에 의해서 죄를 보류하는 권한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며, 참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를 닫아 버리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참회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책벌을 면제하는 일에 의해서 기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 나라를 열어 주는 권한을 가진다.[2]

6.171 3. 교회 책벌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되찾고 건지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할지도 모르는 누룩을 숙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예를 입증하고 복음을 거룩하게 선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명 높은 완고한 범법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약과 그것에 대한 확인(確印)이 모독당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 교회에게 응당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3]

---

a. 1647년 판에는 "……그들 자신의 파멸에 이른다."로 되어 있다.

게도 주지 않는다.

4. 신부(神父)나 어떤 다른 사람 혼자서 드리는 사적 미사나 혹은 그러한 성찬을 받는 일, 백성에게는 잔을 주지 않는 일, 성찬빵과 포도주를 예배하거나, 그것을 높이 쳐드는 일,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일, 거짓된 종교적 용도를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 두는 일 등은 다 이 성례전의 본질에 위배되며 그리스도가 정하신 제도에 위배된다.[4] 6.164

5. 그리스도가 정하신 용도를 위해서 합당하게 구별해 놓은 이 성찬의 외적 요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과 관계된 것으로서, 그것들이 대표하는 물건들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다만 성례전적 의미에서 그러는 것뿐이다.[5] 사실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빵이요 포도주인 것이 사실이며 그 이상은 아니다.[6] 6.165

6.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신부의 봉헌이나 어떤 다른 방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소위 화체설(化體說)〉 것을 주장하는 교리는 성경에 대해서 뿐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게도 혐오스러운 것이며, 그 성례전의 본성을 뒤엎어 버리는 것이며, 갖가지 미신 아니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렇다.[7] 6.166

7. 이 성례전에서 그 가시적 요소들에 외적으로 동참하는 정당한 수찬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도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혜택들을 받으며 양식을 삼는다. 그것은 육적으로 신체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는다는 말이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신체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그 빵과 포도주 속에 있거나, 같이 있거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들 자체가 그들의 외적인 감각에 임하는 것처럼 이 예식에 있어서 신자들의 믿음에게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8] 6.167

8. 비록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성례전에 있어서 그 외적 요소들을 받을지라도 그것들이 상징하는 사물을 그들이 받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합당치 않게 그것들에게 접근함으로써 주님의 몸과 피를

8. 비록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성례전에 있어서 그 외적 요소들을 받을지라도 그것들이 상징하는 사물을 그들이 받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합당치 않게 그것들에게 접근함으로써 주님의 몸과 피를 6.168

적 양육과 성장,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더욱 수행하고 또 그러기로 약속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이 그와 더불어 또는 그들 상호간에 교통할 것을 약속하고 서약하는 것이다.[1]

6.162 2. 이 성례전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산 자와 죽은 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떤 실제적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x] 그리스도께서 독자적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y] 자신을 드리신 그 한 번의 일을 기념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가능한 찬미를 신령하게 받들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미사의 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회적[z] 희생제사 즉 선택된 자들의 모든 죄에 대한 유일한 화유(和宥)의 제사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2]

6.163 3.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식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임명하여 그가 예전을 제정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고, 기도하고,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일반적 용도에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며, 빵을 들어 뜯으며, 잔을 들어 (자기들끼리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찬자(受餐者)들에게 빵과 잔을 주게 하셨다.[3]

3.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식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임명하여 그가 예전을 제정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고, 기도하고,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일반적 용도에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며, 빵을 들어 뜯으며, 잔을 들어 (자기들끼리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찬자(受餐者)들에게 빵과 잔을 주게 하셨다. 그러나 회중 가운데 그때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구에

x. 1647년 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독자적으로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그 한 번의 일을 기념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가능한 찬미를 신령하게 받들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칭) 로마 가톨릭교회의 미사제사는 그리스도가 드리신 제사, 즉 한 번의 제사, 선민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유(和宥)의 제사에 대해서 가장 혐오할 만하고 해로운 것이다."

y. UPCUSA판에는 "once"

z. 1647년 판에는 '자신의'라고 되어 있다.

이다.[1] 그것은 세례받은 사람을 가견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 뿐 아니라[2]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계약[3]과 그가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었다는 것과[4] 중생과[5] 사죄와[6]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7]의 표와 확인(確印)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 성례전을 그리스도 자신의 지시에 의해서 세상끝까지 그리스도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8]

6.155 2. 이 성례전에서 사용되어야 할 외적 요소는 물이다. 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되[9] 합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10]

6.156 3. 사람을 물 속에 담갔다 내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세례는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써 행하는 것이 적당하다.[11]

6.157 4.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다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12] 양부모나 혹은 한쪽만이라도 믿을 때 그의 아기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13]

6.158 5. 이 의식을 멸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죄이지만[14] 세례받지 않으면 아무도 중생할 수 없거나 구원받지 못한다든가[15] 세례받은 사람은 다 의심할 여지 없이 거듭난다고 할 정도로[16]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리적으로 그것에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6.159 6. 세례의 효과는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다.[17] 이 의식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약속된 은혜가 주어질 뿐 아니라(성인이든지 유아든지) 그 은혜가 속한 사람에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의 계획을 따라 그가 정하신 시간에 실제로 나타나며 수여된다.[18]

6.160 7. 세례의 예전은 어느 사람에게든지 단 한번 시행되어야 한다.[19]

제31장 제29장

주님의 만찬에 관하여

6.161 1.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기의 몸과 피의 예전, 즉 주의 만찬이라는 예전을 제정하시고 그의 교회에서 세상끝까지 지키도록 하셨다. 그것은 그의 죽음으로 행하신 그의 희생을 영구적으로 기념하기 위함이며, 참된 신자들에게 그 희생의 모든 혜택과 그 안에서 얻는 그들의 영

가지는 교통은 각자가 자기의 물건과 소유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나 소유권을 빼앗아 가거나 침해하지 않는다.[7]

제29장 제27장

성례전에 관하여

6.149 1. 성례전은 은혜계약의 거룩한 표징과 확인(確印)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1]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들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확인(確印)하기 위한 것이다.[2] 또한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과의 가견적 차이를 나타내려는 것이며[3]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엄숙히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4]

6.150 2. 각 성례전에는 표징과 그리고 상징되는 사물 사이에 영적인 관계 혹은 성례전적 연합이 있다. 그러므로 한 쪽의 이름들과 효과들은 다른 쪽에 달려 있는 것이다.[5]

6.151 3. 성례전들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그것들에게서 혹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전시되는 은혜는, 그 예전들 속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 성례전의 효과는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6] 성례전 제정의 말씀에 달려 있다. 그 제정의 말씀은 그것의 사용을 허가하는 지침과 아울러 그것을 가치있게 받는 자가 받는 혜택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7]

6.152 4. 복음서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에 의해서 정해진 성례전은 두 가지인데 즉 세례와 주님의 만찬이다.[8] 그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 외에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집행될 수 없는 것이다.[9]

6.153 5. 구약의 성례전들은 그것들에 의해서 상징되고 전시되는 영적인 것을 놓고 볼 때 그 실체에 있어서 신약의 것들과 동일하다.[10]

제30장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6.154 1. 세례는 신약의 한 성례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된 것

PCUS	UPCUSA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인과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주장을 실제로나 성경적으로 근거를 얻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반기독교적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권리 침해이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인과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며, 실제로 근거가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권리 침해이다.

제28장 | 제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1.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과 믿음으로써[v]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있어서 그와 친교를 가진다.[1]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연결됨으로써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 있어서 교통을 가지고[2] 내적인 사람과 외적인 사람에 있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들 상호간의 선을 도모하는 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3] **6.146**

2. 성도들은[w] 직책상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와 그들 상호간의 육성(育成)을 보살피는 등의 다른 영적 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와[4] 또한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역량과 필요성에 따라 외적인 일에서 서로 구제하는 일에 거룩한 친교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5] **6.147**

3.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이 교통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 신성의 실체의 분담자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혹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경건치 못하고 모독적인 일이다.[6] 또한 그들이 성도로서 서로 **6.148**

의미에서도 교회의 머리일 수 없다. 그는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멸망의 자식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들이다."라고 되어 있다.

v. UPCUSA판에는 "that are"

w. UPCUSA판에는 "by profession"

PCUS UPCUSA

제27장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6.140 1. 보편적 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선택받은 자들 전체로서 구성된다. 선민들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장차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시다.[1]

6.141 2. 보이는 교회는 복음 아래에서 역시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것으로서 (전에처럼 율법 아래에서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참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r][2] 그들의 자녀들로서[3] 구성된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4]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眷屬)이다.[s][5]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으며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 사람들이 최선으로 자라고 봉사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6]

6.142 3. 이 보편적인 가견교회에게 그리스도는 이생에 있어서 세상 끝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신탁(神託)과 의식(儀式)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해서 그것들이 효과를 내도록 작용하신다.[7]

6.143 4. 이 보편적 교회가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덜 보인다.[8] 개 교회들은 보편적 교회의 지체들로서, 그것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수용되고, 의식이 행해지고, 공중(公衆)예배가 그런대로 순수하게 행해짐으로써, 어느 정도 순수성을 가진다.[9]

6.144 5. 하늘 아래서 가장 순결한 교회들도 혼합과 과오가 있게 마련이다.[10] 어떤 교회는 너무도 타락해서 분명히[t] 그리스도의 교회[11]가 아닌 정도가 된다. 그래도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12]

6.145 6.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다.[13] 그리고 어떤

6. [u]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다. 그리고 어떤

r. 1647년 판에는 "and of their children" (그리고 자녀들의)로 되어 있음.

s. 1647년 판에는 "그것 바깥에는 구원의 통상적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다.

t. 1647년 판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된다."라고 되어 있다.

u. 1647년 판에는 "VI.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로마의 교황은 어떤

PCUS | UPCUSA

인하는 데 이르게 하여, 결혼이 마음에서 죽고 결혼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릴 수 있다. 그래도(육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불성실함이 극도에 달하고 참회가 없고 치유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분리 혹은 이혼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분리 혹은 이혼은 그 당사자들의 한쪽이나 양쪽의 실패 때문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나뉠 수 없는 결합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도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14]

6.138

6. 이혼한 사람들의 재결혼은 죄와 실패에 대한 충분한 참회가 분명히 있고, 기독교적 결혼이 되게 하려는 굳은 목적과 노력이 밝히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구속적 복음에 걸맞도록 교회가 이것을 승인할 수 있다.[15]

6.139

7. 이혼한 사람들은 이 영역에 있어서 한 번의 실패는 또 다른 결합을 할 만한 권리와 지혜가 자기들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명은 결혼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라는 것이 아닐까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생각해야 한다.[16]

"VI. 인간의 부패는 논점들을 따지고, 하나님이 결혼으로써 결합시킨 자들을 갈라 놓기 쉬운 지경에 있지만, 간음 외에는 혹은 무슨 방도로도 치유될 수 없는 고의적 유기(遺棄)가 아닌 이상, 교회에 의해서나 행정장관에 의해서나 결혼의 결속을 와해시킬 만큼 충분한 이유는 없는 것이다. 결혼에 있어서는 공적이면서 질서있는 길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즉 결혼 당사자들은 그들 자신의 건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뜻과 재량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나님 앞에서 유효한 것이 아니다.[7] 그러나 결혼 당사자 둘이 다 통상적인 기독교 신앙에 전념하고 기독교 가정을 세우려는 의도에 깊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정신에 있어서나 목적에 있어서 완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기독교결혼이 될 수는 없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신앙의 건전한 기초를 공통으로 가진 사람들만을 결혼 배필로 찾아야 한다.[8]

6.136 4.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종교적인 의미와 아울러 민사적인 의의를 가진다.[9] 결혼예식을 행하는데 있어서 교회의 특수한 공헌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임을 언명하는 일이며[10]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관계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일이며[11] 결혼하기를 원하는자들의 서약을 듣는 일과 결혼 당사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가질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시키는 일이다.[12]

6.137 5. 결혼은 결혼의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나뉠 수 없도록 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가 죽음으로써 나누는 것 외에는 결혼의 와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13] 그러나 결혼 당사자 중 하나 혹은 양쪽이 연약하여 결혼 서약을 심하게, 그리고 끈덕지게 부

아내의 가까운 혈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혈족과도 결혼하게 될 것이다. 또 여자는 자기 남편의 가까운 혈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혈족과도 결혼하게 될 것이다."
"V. 약혼 후에 범한 간음 혹은 음란은 결혼 전에 발각되었을 때, 무죄한 편에게 그 계약을 파해도 마땅한 근거를 준다.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 무죄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거는 것은 합법하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그 범죄한 편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하다."

의 참회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 거룩한 관계의 파탄이 이혼을 야기시키게 될 때, 이혼 후의 재결혼은 성경에 명백하게 진술됐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축된 근거들에 의해서 허락된 것으로서, 죄와 실패에 대한 충분한 참회가 확실하게 있고, 기독교적 결혼이 되게 하려는 확고한 목적과 노력이 분명히 있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적 복음에 걸맞는 범위에서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제26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6.133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서 그들 둘이 사는 날 동안 계속 가지도록 하나님이 고안하신 것이다.[1]

6.134

2.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적 도움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며[2] 그들의 도덕적 영적 성격을 보호하고 견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요[3] 자녀들을 번식하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이다.[4]

고 참으로 개혁종교를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나 로마가톨릭 신자나 기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자가 삶에 있어서 악하기로 이름난 자들이나 벌받아 마땅한 이단을 지지하는 자들과 결혼함으로써 균등치 못한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6.135

3. 판단력을 가지고 찬성을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결혼할 수 있다.[5] 그러나 성경이 금하는 혈연관계의 한계 안에서는 안 된다.[6] 그리고 그러한 결혼은 교회가 보기에 하

"IV. 결혼은 말씀에서 금지된 혈족 혹은 친족의 항렬내에서 맺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인간의 어떤 법이나 파당에 의해서 그러한 근친상간의 결혼이 이루어져 부부로서 같이 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다. 남자가 자기의

PCUS UPCUSA

제도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영적이며 육적인 연합에로 들어가, 상호간에 존경과 사랑을 즐기며 서로 상대의 허약과 연약을 참으며,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정직과 근면으로써 서로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공급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사는 동안 생명의 은혜의 상속자들로서 같이 산다.

6.132

2. 하나님이 결혼으로써 묶어 놓은 자들을 인간의 부패가 부당하게 갈라 놓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성경이 정해 준 대로 주 안에서의 결혼을 성립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또는 결혼이 깨어진 자들의 과거의 무죄 혹은 죄와 아울러 현재

되어 있다:

"I.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떤 남자도 같은 시간에 아내를 하나 이상 가지는 것이나 어떤 여자도 남편을 하나 이상 가지는 것은 합법하지 않다."

"II.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적 도움을 위한 것이며 적법적 생식으로 인류가 증가하고 거룩한 씨로서 교회가 증가하기 위함이며, 부정(不貞)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III.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찬성을 표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리

충실하고 자유롭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즐기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안에 정규적 치리와 권징을 제정하셨으므로 어떤 국가의 법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자신의 고백과 신앙에 따라, 어떤 교단의 자원적 회원들로서 치리하고 권징하는 정당한 행사에 개입하거나 방해하거나 훼방을 해서는 안 된다. 행정장관의 의무는 한 사람도 종교를 빙자해서든지 불신앙을 빙자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경멸, 폭행, 능욕, 상해를 가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백성의 인격과 미명(美名)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적 교회적 회합이 훼방이나 방해 없이 모일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6]

4. 백성의 의무는 양심적으로[10] 행정장관을 위해 기도하고[7]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8] 들에게 조공(朝貢)이나 기타 부담금을 지불하고[9]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복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응하는 일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는 행정장관의 공의롭고 법적인 권위를 무효화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에게 대한 마땅한 복종으로부터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는다.[11] 그리고 교회의 사람이라 해서 그런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12] 더구나 교황은 통치권을 가진 행정장관이나 그들의 어떤 백성을 지배할 권한이나[p] 사법권을 가지지 못하며, 특히 교황이 행정장관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다른 구실로서든지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13] 6.130

제24장[q]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바이며 인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세워진 6.131

p. 1947년 판에는 '이나'가 아니라 '과'(and)로 되어 있다.

q. 1647년 판의 제24장은 아래와 같이

빈곤, 규칙적 복종[n]을 수도사적으로 맹세하는 것은 보다 높은 완전의 상태가 되기는커녕 미신적이고 죄악적인 올무이며, 그리스도인은 결코 거기에 걸려들지 않아야 한다.

제25장 제23장

행정장관에 관하여

6.127 1. 온 세계의 최고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과 공중(公衆)의 선을 위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행정장관을 임명하셔서 당신 밑에 두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검의 권세로 무장하여 선한 사람들을 방어하고 권장하며 행악자들을 벌하게 하셨다.[1]

6.128 2. 그리스도인들이 행정장관직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분을 수락하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2] 그 직분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들은 특별히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을 따라 경건, 정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3] 그처럼 또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새 계약 아래서 그들은 정의롭고 필수적인 경우에 전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합법적인 일이다.[4]

6.129 3. [o]행정장관은 말씀과 성례전 집행 또는 천국 열쇠의 권리, 더구나 신앙에 관한 일에 간섭하는 일을 스스로 떠맡지 않아야 한다.[5]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로서의 행정장관은 우리의 공동의 주님의 교회를 폭력이나 위험이 없이 보호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교파를 다른 것들보다 더 선호하는 일이 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의 거룩한 기능의 각 부분을 수행하는

---

n. 1647년 판에는 '가톨릭교적으로'가 들어 있다

o. 1647년 판에는 "III. 행정장관은 말씀과 성례전 집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리를 스스로 떠맡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가 가진 권위와 의무는 교회 안에 통일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보존 되도록 하며, 모든 신상모독과 이단이 억제되기 위하여, 예배와 권징의 온갖 부패와 남용이 방지되거나 개혁되도록 하며, 하나님의 모든 의식이 제대로 낙착되고 집행되고 준수되도록 질서를 잡는 일이다. 그런 효과를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대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여, 거기서 거래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되도록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PCUS

하고 정당한 것, 또는 그렇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하겠다고 결심한 것 외에 아무것에도 서약에 의해서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지 못한다. 그러나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에 관한 서약을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6]

UPCUSA

하고 정당한 것, 또는 그렇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하겠다고 결심한 것 외에 아무것에도 서약에 의해서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지 못한다.[m]

6.123 4. 서약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말로써 해야 하며 애매함이나 의중(意中)을 유보(留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7] 서약은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죄가 아닌 어떤 일을 서약했을 때 그 사람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8] 그리고 이단자들이나 신앙심이 없는 자들이 서약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9]

6.124 5. 맹세는 하나의 약속 서약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서 마찬가지의 종교적 배려하에 행해져야 하며, 마찬가지의 성실성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10]

6.125 6. 맹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11] 그리고 그것이 수납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의무적인 양심으로부터 받은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방도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자원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맹세로 인해서 필요한 의무나 기타의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한 의무를 지워 준다. 우리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맹세에 부합되는 한 그리고 부합되는 만큼 말이다.[12]

6.126 7.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것이나, 성경에서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하는 일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 범위에 있지 않는 일이나, 그런 것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나 역량을 받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13] 이런 점에서 볼 때 영구적 독신생활, 직업적

m. 1647년 판에는 "그러나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에 관한 서약을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가 들어 있다. n. 1647년 판에는 '캐톨릭교의적으로'가 들어 있다.

셨다.[34] 그것은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한 주간의 첫 날로 바뀌었으니, 성경에서 그것이 주의 날이라고 불리어지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계속되어야 한다.[35]

6.119 8. 그러니 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그날에는 그들이 마음을 정당히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사를 사전에 정돈한 후에 그들 자신의 일과 말과 그들의 세상적 사역과 유흥에 관한 생각을 떠나서 하루 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할 뿐 아니라[36] 또한 그날은 전적으로 하나님 예배를 위한 공적, 사적 행사와 필요불가결한 일과 자선을 위한 의무를 위하여 할애되어야 한다.[37]

제24장 제22장

합법적 서약과 맹세에 관하여

6.120 1. 합법적 서약은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1] 예배할 때 정당한 기회에 서약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바를 놓고 엄숙히 하나님을 불러 목격하게 하며, 그가 서약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심판하시게 하는 것이다.[2]

6.121 2. 하나님의 이름만이 사람들이 걸고 서약해야 할 유일한 이름이다. 서약에 있어서 극진히 거룩한 경외와 존경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3]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무서운 이름으로 헛되이 또는 경솔히 서약을 한다거나 어떤 딴 것을 걸고 서약하는 것은 죄가 되며 혐오해야 할 일이다.[4] 그러나 중하고 요긴한 일에 있어서 맹세는 새 계약 아래서 그 낡은 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되어 있으며, 따라서 합법적 서약은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요구될 때,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마땅히 실시되어야 한다.[5]

6.122 3. 서약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엄숙한 행위의 중요성을 마땅히 고려해야 하며, 또한 거기서 참이라고 완전히 설득되는 것 외에는 공언하지 않아야 한다. 아무도 선

3. 서약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엄숙한 행위의 중요성을 마땅히 고려해야 하며, 또한 거기서 참이라고 완전히 설득되는 것 외에는 공언하지 않아야 한다. 아무도 선

3. 감사를 곁드린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가지 특수한 부분이다.[6]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7] 그리고 그것이 가납(可納)되기 위해서는 아들의 이름으로[8] 그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9] 하나님의 뜻을 따라[10] 이해, 존경, 겸손, 열심, 믿음, 사랑, 인내를 가지고[11] 소리를 내서 하는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12] 6.114

4. 기도는 합법적인 것들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13]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산 사람을 위해서나 이후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것이고[14]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i] 할 것이 아니다.[15] 6.115

5.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봉독하는 일,[17] 건전한 설교,[18] 이해와 믿음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일[19] 마음에 은혜를 가지고 시편을 읊는 일,[20] 또한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전을 바르게 집행하고 값어치 있게 성찬을 받는 일 등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통상적 종교 예배의 부분들이다.[21] 그 밖에 종교적 맹서,[22] 서약,[j] [23] 엄숙한 금식,[24] 특수한 경우에 대한 감사[25]가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 시간과 때에 있어서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26] 6.116

6. 지금 복음 아래에서는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다른 부분도, 그것이 행해지는 장소나 그것이 목표로 삼은 장소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장소 때문에 더 가납되는 것이 아니다.[27] 어디서나 영과[k] 진리로[29]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28] 사사롭게 가정에서[30] 날마다[31] 또는 각자가 혼자서 비밀로[32] 하는 것처럼 공중이 모여서 더욱 엄숙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 공중예배는 부주의해서든지 고의적으로든지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서 지적해 주신 때에 드려져야 한다.[33] 6.117

7. 일반적으로 마땅한 분량의 시간이 하나님 예배를 위해 할애되는 것이 자연법칙에 걸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할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은 칠일 중의 하루를 특별히 정하셔서 그를 위해 거룩하게 지키게 하 6.118

i. 1647년 판에는 "그리고 죽을 죄를 졌다는 것이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도"라는 말이 들어 있다.

j. 1647년 판에는 "and"가 없음.

k. 1647년 판에는 "in"이 없음.

이다.[13]

6.111 4.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권세와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붙들어 주고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해서 어떤 합법적 권세를 반대하거나, 세상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간에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일에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어기는 것이다.[14] 그들이 그러한 의견을 발표하고 혹은 그러한 행동을 지지한다고 하자. 즉 자연의 빛에 반대되고 신앙이나 예배나 회화(會話)에 관한 기독교의 기존 원칙에 반대되고, 또는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면, 또는 그러한 그릇된 의견이나 행동이 그것들 자체의 성격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지지하는 양상에 있어서든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진리를 파괴하는 것일 때, 그들은 마땅히 소환되어 해명해야 하며 교회의 처벌[h]에 의하여 고소를 당해야 한다.[15]

제23장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6.112 1. 자연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요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선하시며, 모두에게 선을 행하시며 따라서 공경과 사랑과 찬양과 호소와 신뢰를 받고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한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심을 보여 준다.[1] 그러나 그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족스러운 방도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되었으며, 그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해서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상과 고안이나 사단의 제안에 따라서 어떤 가견적인 묘사나 성경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도로써 그를 예배해서는 안 된다.[2]

6.113 2. 종교적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 한 분에게만 드려져야 한다.[3] 천사에게나 성자에게나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4] 인간 타락 이래 중보가 없이는 안 되며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중보자의 중보로써도 안 된다.[5]

---

h. 1647년 판에는 '그리고 행정장관의 권세'라는 말이 들어 있다.

PCUS UPCUSA

영이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능력을 주어 율법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게 그리고 기쁘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19]

제22장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1.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서 신자들을 위하여 획득하신 자유는, 죄의 허물과 하나님의 정죄의 진노와 도덕적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그들의 자유와[1] 현재의 악한 세상과 사단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2] 환난의 악과 죽음의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절망으로부터[3] 그들이 구출되는 것과, 또한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4] 노예적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이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유순히 복종하는 일[5]로써 구성된다. 그것들이 모두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있던 것이지만[6] 새 계약 아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회가 복종하고 있는 의식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자유가 확대되었으며[7] 또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를 보다 더 담대하게 한다는 것과[8]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통상적으로 가지던 것보다 더 충실하게[g] 하나님의 자유의 영과의 교통을 가진다는 점에서[9] 그들의 자유는 확대되었다. 6.108

2.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님이시며, 무슨 일에 있어서나 그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그밖에 신앙이나 예배의 건에 있어서 말씀에 반대되는 인간의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10] 그러므로 양심을 어기면서 그런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일이다.[11] 그리고 맹목적 신앙이나 절대적으로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또는 이성을 파괴하는 일이다.[12] 6.109

3.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하여 어떤 죄든지 저지르고, 혹은 어떤 욕정이라도 즐기는 자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기독교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기독교 자유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서 평생 주를 섬기려는 것 6.110

g. UPCUSA 판에는 그냥 '충실하게'로 되어 있다. 즉 '더'라는 비교사가 없다.

담고 있는 것이었다.[4] 그 모든 의식법들이 이제 새 계약 아래에서는 다 폐지되었다.[5]

6.104 4. 하나님은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다한 재판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없어졌고 이제는 아무에게도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다만 그것의 일반적 형평법이 유효할 정도이다.[6]

6.105 5. 그 도덕법은 의롭게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즉 모두에게 그것을 복종할 의무를 영구적으로 준다. 그 법 속에 포함된 사항에 있어서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의 면에 있어서도 영구적 복종을 요구한다.[7] 그리고 그리스도도 복음에 있어서 이 의무를 조금도 소멸하시지 않고 도리어 강조하신다.[8]

6.106 6. 참 신자들은 행위 계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얻거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지만[9]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이 매우 유용하다. 그것은 율법이 삶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그들에게 알려 주며, 그것을 따라 살도록 안내하며 의무를 지워 주기 때문이다.[10]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더러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하며[11] 그것에 의하여 자신들을 검토함으로써 죄에 대한 가일층의 확신과 죄에 대한 겸비와 증오를 가지기에 이르며[12] 결국 그리스도와 그의 복종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다 더 명백히 깨닫는 데[13] 이르기 때문이다.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유용함, 즉 율법은 죄를 금하고[14] 율법이 주는 협박은 비록 율법에서 위협한 죄의 대가로서의 저주에서는 풀려났을지라도 그들의 죄가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구나 하는 것과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대해야 할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15] 그들의 부패를 견제해 주기 때문이다. 율법이 주는 약속도 마찬가지로 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認定)과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기대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16] 그 축복이 행위계약으로서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마땅히 받는 보상은 아니지만 율법이 선을 권했고 악을 말렸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는 결코 아니다.[17]

6.107 7.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훌륭하게 따르는 것이다.[18] 그리스도의

대될 수 있는 것이다. 확신은 결코 사람을 방종에로 기울어지게 하지 않는다.[12]

4. 참신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중단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그 확신을 유지하는데 태만함으로써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어떤 특수한 죄에 빠져듦으로써 어떤 돌연적 아니면 격심한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 빛을 그들에게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흑암 속에서 걷고 빛이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무서워져서 확신에 변동이 올 수 있다.[13] 그래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씨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의 사랑과 마음의 진실성과 의무에 대한 양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이 확신은 제 때에 되살아날 것이며[14] 그러는 중에 그 확신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 완전한 절망으로부터 빠져 나오게 된다.[15] 6.100

제21장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행위의 계약이었으며 그것으로써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예에게 개인적, 전적인, 정확한, 그리고 영구적 복종의 의무를 지워 주셨다. 그리고 그 법을 이룰 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기면 죽는다고 위협을 하셨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킬 힘과 역량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6.101

2.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이 법은 계속 완전한 의의 법칙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 의의 법칙을 십계명으로 그리고 두 개의 돌비에 기록하여 시내산 위에서 전해 주셨다.[1] 처음에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다른 여섯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2] 6.102

3. 일반적으로 도덕이라고 불려지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은 미성년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儀式法)들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의 특이한 의식들이 포함되었는데, 한 부분은 예배에 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행동과 고난당하심과 혜택을 예표하는 것이었고[3] 또 한 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를 6.103

2. 왕상 8 : 46, 시 17 : 15, 요일 1 : 8-2 : 6.
3. 창 8 : 21, 약 1 : 14, 창 6 : 5, 위 2번의 성구들을 보라.
4. 시 19 : 12, 약 3 : 2, 8.

문 150.

1. 히 2 : 2, 3, 스 9 : 14, 시 78 : 17, 32, 56.

문 151.

1. 렘 2 : 8.
2. 왕상 11 : 9.
3. 삼하 12 : 14, 고전 5 : 1.
4. 약 4 : 17, 눅 12 : 47.
5. 요 3 : 10, 렘 5 : 4, 5, 삼하 12 : 7-9, 겔 8 : 11, 12.
6. 롬 2 : 21, 23, 24.
7. 갈 2 : 14, 벧후 2 : 2.
8. 요일 5 : 10, 마 21 : 38, 39.
9. 삼상 2 : 25, 행 5 : 4.
10. 롬 2 : 4.
11. 말 1 : 14, 고전 10 : 21, 22.
12. 요 3 : 18, 36, 히 12 : 25.
13. 히 6 : 4-6, 히 10 : 29, 마 12 : 31, 32, 엡 4 : 30.
14. 민 12 : 8, 유 8.
15. 잠 30 : 17, 시 41 : 9, 시 55 : 12-14.
16. 슥 2 : 8.
17. 고전 8 : 11, 12, 롬 14 : 13, 15, 21.
18. 살전 2 : 15, 16, 마 23 : 34-38.
19. 사 3 : 9.
20. 겔 20 : 12, 13.
21. 골 3 : 5, 딤전 6 : 10.
22. 미 2 : 1, 2.
23. 롬 2 : 23, 24, 마 18 : 7.
24. 잠 6 : 32-35, 마 16 : 26.
25. 마 11 : 21-24, 요 15 : 22.
26. 신 32 : 6, 사 1 : 2, 3, 스 9 : 13, 14.
27. 렘 5 : 3, 암 4 : 8-11.
28. 롬 1 : 20, 21.
29. 롬 1 : 32, 단 5 : 22.
30. 잠 29 : 1.
31. 마 18 : 17, 딛 3 : 10.
32. 롬 13 : 1-5.
33. 시 78 : 34, 36, 37, 렘 42 : 5, 6, 20-22, 잠 20 : 25, 레 26 : 25, 렘 31 : 32, 잠 2 : 17, 겔 17 : 18.
34. 시 36 : 4, 렘 6 : 16.
35. 민 15 : 30, 렘 6 : 15, 시 52 : 1.
36. 겔 35 : 5, 6, 요삼 10.
37. 민 14 : 22.
38. 슥 7 : 11, 12.
39. 잠 2 : 14.
40. 렘 9 : 3, 5, 사 57 : 17.
41. 벧후 2 : 20, 21, 히 6 : 4, 6.
42. 사 22 : 12-14, 왕하 5 : 26.
43. 렘 7 : 10, 11.
44. 겔 23 : 38.
45. 사 58 : 3, 4.
46. 고전 11 : 20, 21, 렘 7 : 9, 10.
47. 잠 7 : 14, 15.
48. 느 9 : 13-16, 대하 36 : 15, 16.
49. 사 3 : 9, 삼상 2 : 22-24.

문 152.

1. 약 2 : 10, 11.
2. 말 1 : 14.
3. 신 32 : 6.
4. 합 1 : 13, 벧전 1 : 15, 16, 레 11 : 45.
5. 요일 3 : 4, 롬 7 : 12.
6. 갈 3 : 10, 엡 5 : 6.
7. 신 28 : 15, 잠 13 : 21.
8. 마 25 : 41, 롬 6 : 21, 23.
9. 히 9 : 22, 요일 1 : 7, 벧전 1 : 18, 19.

문 153.

1. 행 20 : 21, 막 1 : 15, 요 3 : 18.
2. 문 154의 본문들을 보라.

문 154.

1. 마 28 : 19, 20, 행 2 : 42, 46, 딤전 4 : 16, 고전 1 : 21, 엡 5 : 19, 20, 엡 6 : 17, 18.

문 155.

1. 렘 23 : 28, 29, 히 4 : 12, 행 17 : 11, 12, 행 26 : 18.
2. 행 2 : 37, 41, 행 8 : 27–38.
3. 고후 3 : 18, 골 1 : 27.
4. 고후 10 : 4, 5, 롬 6 : 17.
5. 시 19 : 11, 골 1 : 28, 엡 6 : 16, 17, 마 4 : 7, 10.
6. 엡 4 : 11, 12, 행 20 : 32, 딤후 3 : 15, 16, 고전 3 : 9–11.
7. 롬 16 : 25, 살전 3 : 2, 13, 롬 10 : 14–17.

문 156.

1. 신 17 : 18, 19, 사 34 : 16, 요 5 : 39, 계 1 : 3.
2. 신 6 : 6, 7, 시 78 : 5, 6.
3. 고전 14 : 18, 19, 문맥을 보라.

문 157.

1. 시 119 : 97, 느 8 : 5, 사 66 : 2.
2. 살전 2 : 13, 벧후 1 : 16–21.
3. 시 119 : 18, 눅 24 : 44–48.
4. 약 1 : 21, 22, 벧전 2 : 2, 막 4 : 20.
5. 행 17 : 11, 신 11 : 13.
6. 행 8 : 30, 34, 마 13 : 23.
7. 시 1 : 2, 시 119 : 97.
8. 행 2 : 38, 39, 삼하 12 : 7, 대하 34 : 21.
9. 갈 1 : 15, 16, 잠 3 : 5.
10. 시 119 : 18, 눅 24 : 45.

문 158.

1. 딤전 3 : 2, 6, 딤후 2 : 2, 말 2 : 7.
2. 롬 10 : 15, 딤전 4 : 14.

문 159.

1. 딛 2 : 1, 8.
2. 행 18 : 25, 딤후 4 : 2.
3. 고전 14 : 9.
4. 고전 2 : 4.
5. 렘 23 : 28, 고전 4 : 1, 2, 마 24 : 45–47.
6. 행 20 : 27.
7. 골 1 : 28, 딤후 2 : 15.
8. 고전 3 : 2, 히 5 : 12–14, 살전 2 : 7, 눅 12 : 42.
9. 행 18 : 25, 딤후 4 : 5.
10. 고후 5 : 13, 14, 빌 1 : 15–17.
11. 고후 12 : 15, 살전 3 : 12.
12. 고후 4 : 2, 고후 2 : 17.
13. 요 7 : 18, 살전 2 : 4–6.
14. 고전 9 : 19–22.
15. 고후 12 : 19, 엡 4 : 12.
16. 딤전 4 : 16, 딤후 2 : 10, 행 26 : 16–18.

문 160.

1. 시 84 : 1, 2, 4, 시 27 : 4, 잠 8 : 34.
2. 눅 8 : 18, 벧전 2 : 1, 2, 약 1 : 21.
3. 시 119 : 18, 엡 6 : 18, 19.
4. 행 17 : 11.
5. 히 4 : 2.
6. 살후 2 : 10.
7. 약 1 : 21, 시 25 : 9.
8. 행 17 : 11, 행 2 : 41.
9. 살전 2 : 13.
10. 히 2 : 1.
11. 신 6 : 6, 7.
12. 시 119 : 11, 잠 2 : 1–5.
13. 눅 8 : 15, 약 1 : 25.

문 161.

1. 벧전 3 : 21, 행 8 : 13, 23, 고전 3 : 7, 고전 6 : 11.

문 162.

1. 마 28 : 19, 마 26 : 26, 27.
2. 롬 4 : 11, 고전 11 : 24, 25.
3. 롬 9 : 8, 갈 3 : 27, 29, 갈 5 : 6, 갈

6 : 15.
4. 행 2 : 38, 고전 10 : 16, 행 22 : 16.
5. 고전 11 : 24−26.
6. 롬 6 : 4, 고전 10 : 21.
7. 고전 12 : 13, 고전 10 : 17, 엡 4 : 3−5.
8. 고전 10 : 21.

문 163.
1. 신앙고백 제29장 제2절과 거기 나오는 구절들을 보라.

문 164.
1. 마 28 : 19, 마 26 : 26, 27, 고전 11 : 23−26.

문 165.
1. 마 28 : 19.
2. 갈 3 : 27, 롬 6 : 3.
3. 행 22 : 16, 막 1 : 4, 계 1 : 5.
4. 요 3 : 5, 딛 3 : 5.
5. 갈 3 : 26, 27.
6. 고전 15 : 29.
7. 행 2 : 41.
8. 롬 6 : 4.

문 166.
1. 행 2 : 41.
2. 행 2 : 38, 39, 고전 7 : 14, 눅 18 : 16, 롬 11 : 16, 창 17 : 7−9. 골 2 : 11, 12, 갈 3 : 17, 18, 29와 비교하라.

문 167.
1. 시 22 : 10, 11.
2. 롬 6 : 3−5.
3. 롬 6 : 2, 3, 고전 1 : 11−13.
4. 벧전 3 : 21, 롬 4 : 11, 12.
5. 롬 6 : 2−4.
6. 갈 3 : 26, 27.
7. 롬 6 : 22.
8. 고전 12 : 13, 25, 26, 문맥을 보라.

문 168.
1. 고전 11 : 26.
2. 마 26 : 26, 27, 고전 11 : 23−27.
3. 고전 10 : 16, 21.
4. 고전 10 : 17.

문 169.
1. 총괄적 주를 보라.

문 170.
1. 문 170−175에 대한 대답 속에 열거된 상세한 설명들은 신약성경에 제시된 대로의 주의 만찬의 성격에서 연역되었다. 제시된 본문들은 이 설명들이 성경의 전반적 요지와 합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행 3 : 21.
2. 갈 3 : 1, 히 11 : 1.
3. 요 6 : 51, 53, 문맥을 보라.
4. 고전 10 : 16.

문 171.
1. 고전 11 : 28.
2. 고후 13 : 5.
3. 고전 5 : 7, 출 12 : 15와 비교하라.
4. 고전 11 : 29.
5. 고후 13 : 5, 위의 2번의 성구를 보라.
6. 고전 11 : 31.
7. 고전 10 : 17.
8. 고전 5 : 8, 고전 11 : 18, 20.
9. 마 5 : 23, 24.
10. 요 7 : 37, 눅 1 : 53, 사 55 : 1.
11. 고전 5 : 8.
12. 히 10 : 21, 22, 24, 시 26 : 6.
13. 고전 11 : 24.
14. 마 26 : 26, 대하 30 : 18, 19.

문 172.
1. 사 50 : 10.
2. 사 54 : 7, 8, 10, 마 5 : 3, 4, 시 31 : 22.
3. 시 42 : 11.
4. 딤후 2 : 19, 롬 7 : 24, 25.
5. 마 26 : 28, 마 11 : 28, 사 4 : 11, 29, 31.

6. 막 9 : 24.
7. 행 16 : 30, 행 9 : 6.
8. 고전 11 : 28, 마 11 : 28.

문 173.
1. 고전 11 : 29, 고전 5 : 11, 마 7 : 6.
2. 고전 5 : 4, 5, 고후 2 : 5—8.

문 174.
1. 갈 3 : 1.
2. 고전 11 : 29.
3. 눅 22 : 19.
4. 고전 11 : 31.
5. 슥 12 : 10.
6. 시 63 : 1, 2.
7. 갈 2 : 20, 요 6 : 35.
8. 요 1 : 16, 골 1 : 19.
9. 빌 3 : 9.
10. 벧전 1 : 8, 대상 30 : 21.
11. 시 22 : 26.
12. 렘 50 : 5, 시 50 : 5.
13. 고전 10 : 17, 행 2 : 42.

문 175.
1. 고전 11 : 17, 30, 31.
2. 고후 2 : 14, 행 2 : 42, 46, 47.
3. 고전 10 : 12, 롬 11 : 20.
4. 시 50 : 14.
5. 고전 11 : 25, 26, 시 27 : 4, 행 2 : 42.
6. 시 77 : 6, 시 139 : 23, 24.
7. 시 123 : 1, 2, 사 8 : 17.
8. 호 14 : 2, 호 6 : 1, 2.
9. 고후 7 : 11, 대상 15 : 12—14.

문 176.
1. 마 28 : 19, 고전 11 : 23.
2. 롬 6 : 3, 4, 고전 10 : 16.
3. 골 2 : 11, 12, 롬 4 : 11, 마 26 : 27, 28과 비교하라.
4. 총괄적 주를 보라.
5. 마 28 : 20, 고전 11 : 26.

문 177.
1. 마 3 : 11, 갈 3 : 27, 딛 3 : 5.
2. 행 2 : 38, 39, 고전 7 : 14, 문 166 2번의 성구들을 보라.
3. 고전 11 : 26, 골 2 : 19.
4. 고전 10 : 16, 요 6 : 51—53.
5. 고전 11 : 28.

문 178.
1. 시 62 : 8.
2. 요 16 : 23, 24.
3. 롬 8 : 26.
4. 단 9 : 4, 시 32 : 5, 6.
5. 빌 4 : 6.

문 179.
1. 왕상 8 : 39, 행 1 : 24, 롬 8 : 27.
2. 시 65 : 2.
3. 미 7 : 18.
4. 시 145 : 16, 19.
5. 삼하 22 : 32, 요 14 : 1.
6. 마 4 : 10.
7. 고전 1 : 2.
8. 눅 4 : 8, 사 42 : 8, 렘 3 : 23.

문 180.
1. 요 14 : 13, 14, 단 9 : 17.
2. 눅 6 : 46, 마 7 : 21.
3. 히 4 : 14—16, 요일 5 : 13—15.

문 181.
1. 요 14 : 6, 엡 3 : 12, 딤전 2 : 5, 요 6 : 27, 골 3 : 17, 히 7 : 25—27, 13 : 15.

문 182.
1. 롬 8 : 26, 시 80 : 18, 시 10 : 17, 슥 12 : 10.

문 183.
1. 엡 6 : 18, 시 28 : 9.
2. 딤전 2 : 1, 2.
3. 살후 3 : 1, 골 4 : 3.
4. 창 32 : 11.
5. 약 5 : 16, 살후 1 : 11.

6. 마 5 : 44.
7. 딤전 2 : 1, 2. 위의 2번을 보라.
8. 요 17 : 20, 삼하 7 : 29.
9. 이 진술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이 그러한 기도에 대한 성경의 실례가 도무지 없기 때문에 한 말이다.

문 184.
1. 마 6 : 9.
2. 시 51 : 18, 시 122 : 6.
3. 마 7 : 11.
4. 시 125 : 4, 살전 5 : 23, 살후 3 : 16.
5. 요일 5 : 14, 약 4 : 3.

문 185.
1. 시 33 : 8, 시 95 : 6.
2. 창 18 : 27, 시 144 : 3.
3. 시 86 : 1, 눅 15 : 17−19.
4. 시 130 : 3, 눅 18 : 13.
5. 시 51 : 17, 슥 12 : 10−14.
6. 빌 4 : 6, 살전 5 : 18.
7. 시 81 : 10, 엡 3 : 20, 21.
8. 고전 14 : 15.
9. 히 10 : 22, 약 1 : 6.
10. 히 10 : 22, 시 145 : 18, 시 17 : 1, 요 4 : 24.
11. 약 5 : 16.
12. 딤전 2 : 8, 마 5 : 23, 24.
13. 엡 6 : 18.
14. 미 7 : 7.
15. 마 26 : 39.

문 186.
1. 딤후 3 : 16, 17, 요일 5 : 14.
2. 마 6 : 9−13, 눅 11 : 2−4.

문 187.
1. 마 6 : 9, 눅 11 : 2.

문 189.
1. 마 6 : 9.
2. 눅 11 : 13, 롬 8 : 15.
3. 시 95 : 6, 7, 사 64 : 9.
4. 시 123 : 1, 애 3 : 41.
5. 시 104 : 1, 사 63 : 15, 시 113 : 4−6.
6. 행 12 : 5, 슥 8 : 21.

문 190.
1. 마 6 : 9.
2. 고후 3 : 5, 시 51 : 15.
3. 시 67 : 2, 3, 시 72 : 19, 엡 3 : 20, 21.
4. 시 83 : 18.
5. 시 145 : 6−8, 시 86 : 10−15.
6. 살후 3 : 1, 시 107 : 32, 고후 2 : 14.
7. 시 8장과 145장 전체.
8. 시 19 : 14.
9. 빌 1 : 11.
10. 시 79 : 10, 시 67 : 1−4.
11. 엡 1 : 17, 18.
12. 시 97 : 7.
13. 시 74 : 18, 22.
14. 렘 14 : 21, 왕하 19 : 16.
15. 사 64 : 1, 2, 대하 20 : 6, 10−12.

문 191.
1. 마 6 : 10.
2. 엡 2 : 2, 3.
3. 시 68 : 1, 계 12 : 9.
4. 살후 3 : 1.
5. 롬 10 : 1, 시 67 : 2.
6. 롬 11 : 25, 시 67 : 1−7.
7. 마 9 : 38.
8. 엡 5 : 26, 27, 말 1 : 11.
9. 고후 4 : 2, 행 26 : 18, 살후 2 : 16, 17.
10. 엡 3 : 14, 17.
11. 계 22 : 20.
12. 사 64 : 1, 2, 대하 20 : 6, 10−12.

문 192.
1. 마 6 : 10.
2. 고전 2 : 14, 롬 8 : 5, 8.
3. 롬 8 : 7.

4. 마 20 : 11, 12, 시 73 : 3.
5. 딛 3 : 3, 엡 2 : 2, 3, 문 191의 2번을 보라.
6. 엡 1 : 17, 18.
7. 엡 3 : 16.
8. 마 26 : 40, 41, 롬 7 : 24, 25.
9. 겔 11 : 19, 렘 31 : 18.
10. 시 119 : 35, 행 21 : 14, 삼상 3 : 18.
11. 시 123 : 2, 시 131 : 2, 미 6 : 8.
12. 시 100 : 2.
13. 사 38 : 3, 엡 6 : 6.
14. 시 119 : 4.
15. 롬 12 : 11.
16. 고후 1 : 12.
17. 시 119 : 112, 롬 2 : 7.
18. 시 103 : 20-22, 단 7 : 10.

문 193.

1. 마 6 : 11.
2. 창 3 : 17, 애 3 : 22, 신 28 : 15-68.
3. 신 8 : 3.
4. 창 32 : 10.
5. 신 8 : 18, 잠 10 : 22.
6. 눅 12 : 15, 렘 6 : 13.
7. 호 12 : 7.
8. 약 4 : 3.
9. 창 28 : 20, 21, 약 4 : 13, 15, 시 90 : 17, 시 144 : 12-15.
10. 딤전 4 : 4, 5, 잠 10 : 22.
11. 딤전 6 : 6, 8.
12. 잠 30 : 8, 9.

문 194.

1. 마 6 : 12.
2. 마 18 : 24, 롬 5 : 19, 롬 3 : 9, 19, 문맥을 보라. 시 130 : 3, 미 6 : 6, 7.
3. 롬 5 : 19, 롬 3 : 24, 25, 행 13 : 39.
4. 엡 1 : 6.
5. 벧후 1 : 2.
6. 호 14 : 2, 시 143 : 2, 시 130 : 3.
7. 롬 15 : 13, 롬 5 : 1, 2, 시 51 : 7-12.
8. 눅 11 : 4, 마 18 : 35, 마 6 : 14, 15.

문 195.

1. 마 6 : 13.
2. 대하 32 : 31, 욥 2 : 6.
3. 벧전 5 : 8, 욥 2 : 2.
4. 눅 21 : 34, 막 4 : 19.
5. 약 1 : 14.
6. 갈 5 : 17, 롬 7 : 18.
7. 마 26 : 41.
8. 딤전 6 : 9, 잠 7 : 22.
9. 롬 7 : 18, 19.
10. 시 81 : 11, 12.
11. 요 17 : 15, 롬 8 : 28.
12. 시 51 : 10, 시 119 : 133.
13. 히 2 : 18, 고전 10 : 13, 고후 12 : 8.
14. 롬 8 : 28.
15. 히 13 : 20, 21, 엡 4 : 11, 12.
16. 마 26 : 41, 시 19 : 13.
17. 고전 10 : 13, 엡 3 : 14-16.
18. 시 51 : 12.
19. 벧전 5 : 10, 벧전 1 : 6, 7.
20. 살전 3 : 13.
21. 롬 16 : 20.
22. 살전 5 : 23.

문 196.

1. 마 6 : 13.
2. 욥 23 : 3, 4, 렘 14 : 20, 21.
3. 단 9 : 4, 7-9, 16, 19.
4. 빌 4 : 6.
5. 대상 29 : 10-13.
6. 엡 3 : 20, 21, 눅 11 : 13, 시 84 : 11.
7. 엡 3 : 12, 히 10 : 19-22.
8. 요일 5 : 14, 롬 8 : 32.
9. 고전 14 : 16, 계 22 : 20, 21.

9
바르멘 신학선언

(본 문)

8.02 그러므로 이 고백대회는 교회들이 기도로써 본회를 뒷받침해 주실 것과 소속 교회의 신앙고백에 충성스러운 목사들과 교사들을 중심하여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8.03 마치 우리가 독일 국가의 통일을 반대하려는 것처럼 선전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오. 마치 우리가 독일 복음교회의 통일을 부수고, 또는 교부들의 신앙고백들을 버리려는 것처럼 우리의 의도를 왜곡하는 유혹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오.

8.04 영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를 알아보시오. 그리고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고백대회의 말씀들이 성령과 또는 교부들의 신앙고백과 합치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시오. 만일 우리가 성경에 위반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말을 듣지 마시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와 더불어 모든 두려움과 유혹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밟도록 하시오.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땅 위에서 한마음이 되고 또 우리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고 하신 것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대들에게 그 왕국을 주는 것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이다."

Ⅱ.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현황에 관한 신학적 선언

8.05 1933년 6월 11일자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헌장 서두의 말에 의하면 그 교회는 종교개혁에서 자라나와 동등한 권리들을 즐기는 고백교회들의 연맹이다. 이 교회들의 통합에 대한 신학적 기초는 1933년 7월 14일에 라이흐(Reich) 정부에 의해서 승인된 독일 복음주의 교회 헌장 제1조와 제2조 1항에 기재되어 있다.

> 제1조.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범할 수 없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성경 안에 확증되어 있고, 또한 종교개혁의 여러 신앙고백 가운데 다시 천명된 바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그 사명을 위하여 요구하는 충족한 권세들이 여기에서 결정되며 또 한정된다.
>
> 제2조, 제1항. 독일 복음주의 교회는 여러 회원교회로 나뉘어 있다.

9

바르멘 신학선언

(본 문)

9

바르멘 신학선언[1]

Ⅰ. 독일 복음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호소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고백대회가 1934년 5월 29일~31일까지 바르멘에서 모였다. 여기에 모든 독일 고백교회의 대표들이 하나인 거룩한 사도적 교회의 유일하신 주를 고백하면서 한마음으로 모였다.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와 연합교회의 회원들은 그들의 신앙고백에 충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대의 교회의 요구와 유혹에 대한 공동 메시지를 모색하였다. 그들은 외쳐야 할 공동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의 의도는 어떤 새 교회를 세우거나 연합체를 형성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 교회들의 신앙고백적 신분을 말살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도는 오히려 신앙고백의 파괴와 그로 말미암는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파괴를 믿음과 일치로써 항거하려는 것이었다. 거짓 교리를 방편으로 하여 강제로, 그리고 성실치 않은 조작으로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통합을 수립하려는 시도에 대항하여 고백대회는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들의 통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유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8.01

---

1. A. C. 코크레인(Arthur. C. Cochrane)이 쓴 「히틀러 치하의 교회의 고백」으로부터 재판한 것. 웨스트민스터 출판사의 허락을 받음(1962년판 pp. 237-242).

8.02 그러므로 이 고백대회는 교회들이 기도로써 본회를 뒷받침해 주실 것과 소속 교회의 신앙고백에 충성스러운 목사들과 교사들을 중심하여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8.03 마치 우리가 독일 국가의 통일을 반대하려는 것처럼 선전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오. 마치 우리가 독일 복음교회의 통일을 부수고, 또는 교부들의 신앙고백들을 버리려는 것처럼 우리의 의도를 왜곡하는 유혹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오.

8.04 영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를 알아보시오. 그리고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고백대회의 말씀들이 성령과 또는 교부들의 신앙고백과 합치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시오. 만일 우리가 성경에 위반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말을 듣지 마시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와 더불어 모든 두려움과 유혹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밟도록 하시오.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땅 위에서 한마음이 되고 또 우리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고 하신 것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대들에게 그 왕국을 주는 것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기쁘하시는 바이다."

Ⅱ.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현황에 관한 신학적 선언

8.05 1933년 6월 11일자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헌장 서두의 말에 의하면 그 교회는 종교개혁에서 자라나와 동등한 권리들을 즐기는 고백교회들의 연맹이다. 이 교회들의 통합에 대한 신학적 기초는 1933년 7월 14일에 라이흐(Reich) 정부에 의해서 승인된 독일 복음주의 교회 헌장 제1조와 제2조 1항에 기재되어 있다.

> 제1조.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범할 수 없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성경 안에 확증되어 있고, 또한 종교개혁의 여러 신앙고백 가운데 다시 천명된 바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그 사명을 위하여 요구하는 충족한 권세들이 여기에서 결정되며 또 한정된다.
>
> 제2조, 제1항. 독일 복음주의 교회는 여러 회원교회로 나뉘어 있다.

우리들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고백대회에 가맹된 루터교회, 개혁교회, 연합교회, 여러 자유대회(synods), 교회집단, 교구조직들의 대표들은 독일 고백교회들의 한 연맹으로서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터 위에 같이 서 있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하나인, 거룩한, 보편적, 사도교회의 유일하신 주를 고백함으로 결속되어 있다. 8.06

우리는 독일에 있는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한다. 그들이 이 신앙고백에서 공통으로 주장하는 바가 비참하게도 위태로워졌고 그와 더불어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통일도 같이 위험에 직면하였다. 그것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집권교회 정당과 그들이 운영하는 교회 행정부의 교육방법과 행동들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일들은 독일 복음주의 교회가 생겨난 첫 일 년 동안에 점점 더 명백해졌다. 독일 복음주의 교회가 연합된 그 신학적 기초가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과 대변인들측에서와 또한 교회 행정부측에서 취하는 이방적 원리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받고 무력한 것이 되어 버렸다. 그 원리들이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때에는 우리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 모든 신앙고백들에 비추어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이며, 독일 복음주의 교회는 고백교회들의 한 연맹으로서의 본질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8.07

우리들 루터교회, 개혁교회, 연합교회의 회원들은 오늘 이 일에 대하여 입을 모두어 외치는 것이 좋겠고 또 그래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고유한 신앙고백에 충실하고 계속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적 요구와 유혹의 시기에 외쳐야 할 공동적 메시지를 받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백교회들의 상호관계를 위하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한다. 8.08

교회를 황폐하게 하고 따라서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통일을 파괴하고 있는 현 라이흐(Reich)교회 본부의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과오를 생각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복음주의적 진리들을 고백한다. 8.09

1.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 : 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요 10 : 1,9). 8.10

8.11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들어야 하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시다.

8.12 교회가 하나님의 이 유일한 말씀을 떠나서 또는 그것 외에 또 다른 사건들과 세력들, 형상들과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인 양 교회의 선포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고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거짓 교리를 우리는 거부한다.

8.13 2.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고전 1 : 30).

8.14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보증인 것처럼 그는 또한 꼭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꼭같이 진지한 의미에서 우리 생활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청구서이기도 하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무신(無神)적 속박으로부터 즐겁게 구출되어 그의 창조물들을 위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8.15 우리 생의 영역들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다른 주인들에게 속하는 영역,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의인(義認)이나 성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듯이 말하는 그 거짓 교리를 우리는 거부한다.

8.16 3.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연락하고 상합한다"(엡 4 : 15-16).

8.17 그리스도교회는 형제들의 모임인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성례전을 방편으로 그 안에서 현재 주님으로 역사하신다. 교회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의 모임으로서 죄가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과 복종을 가지고, 메시지와 질서를 가지고 증언해야 하는바, 곧 교회는 오로지 그의 소유라는 사실과, 오로지 그가 주시는 위안과 그의 출현을 기다리면서 그의 지시를 따르며 살고 있으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8.18 우리는 교회가 마치 교회의 메시지와 질서의 형태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향락을 도모하거나 또는 유행하는 이념과 정치적 신념들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을 허락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거짓된 교리를 우리는 거부한다.

바르멘 신학선언

바르멘 선언은 독일교회 지도자들의 한 그룹이 쓴 것인데, 그것은 나치당의 도전과 소위 "독일 크리스천"들이라고 해서 기독교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의 이상들 사이에 아무런 대립점도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의 유행운동의 도전에 맞서도록 크리스천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1933년경 정월, 독일에 있던 어떤 정부도 경제공황과 대중의 실직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실망적인 세월이 지난 후,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총통으로 임명되었다. 공산주의 와 볼셰비키 사상에 대한 백성의 공포를 이용하여, 국회를 설득하고, 자신의 칙령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가 자기의 세력을 공고히 했을 때, 모든 정치권력들과 민주적 절차들을 폐기했다. 경찰이 재판없이 사람을 감옥에 구금할 수 있었고, 정당한 이유없이 사택(私宅)을 수색하고, 재산을 강점하고, 출판물을 검렬하고, 전화를 도청하고, 집회를 금하였다. 그는 곧 자기의 정당 외에 다른 정당은 불법화했고, 노동연맹을 부수고, 대학들을 숙청하고, 재판체재를 자기 자신의 "인민 법정"으로 대체했으며, 유대인에 대한 조직적인 폭력행위를 시작했고, 독일 크리스천들과 동조하거나 동정적인 교회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대다수 독일인들은 기독교, 국수주의, 군국주의의 연합을 당연지사로 여겼으며, 애국적 감정과 기독교 진리를 동등시했다. 독일 크리스천들은 민족적으로 순결한 국가와 히틀러의 통치를 독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떠받들었다.

그러나 교회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항거했다. 교회가 국가 사회주의의 포로가 되는것을 반대한 소수의 단호한 교회 지도자중에는 한스 아스문젠(Hans Asmusen), 칼 코흐(Karl Koch), 칼 이라루어(Karl Iraruer), 마틴 니몰러(Martin Niemoller)등의 목사와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가 있다. 수 차례의 지방회합을 가진 뒤에, 이들은 1934년 5월 29—31일에 걸쳐 붑퍼탈(Wupperthal)의 도시인 바르멘의 게말케(Gemarke)교회당에다 루터파, 개혁파, 연합교회의 대표들을 소집했다. 139명의 대표중에는 안수 받은 목사들과 53명의 평교인과 6명의 대학교수들이 있었다.

사무의 주 안건은 독일의 복음적 교회들로 하여금 국가사회주의에 동조하는 독일 크리스천들을 단호히 대항하도록 호소하는 선언문에 대하여 토론하는 일이었다. 바르멘선언은 여섯개의 제안을 담고 있다. 매 제안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오늘날에 대한 그 귀절들의 의미를 진술하고, 독일 크리스천들의 거짓교리를 부정하였다. 바르멘 선언은 교회가 그리스도안에서 가지는 자유를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으로서 교회와 질서와 사역과, 국가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분으로 알아 복종한다.

이 선언은 토론을 거쳐 수정없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독일 크리스천들을 반대하는 교회의 부분, 즉 고백교회는 이 선언을 중심으로 함께 뭉쳤다.

4.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마 20:25, 26). 8.19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은 어떤 사람이 남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주권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 회중에게 위임되고 부과된 봉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8.20

교회가 이 봉사의 업무는 하지 않고, 마치 어떤 지배권을 차지한 특수한 지도자들을 그 자신에게 세울 수 있고, 또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은 것처럼, 혹은 그런 지도자들을 받는 것이 허락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짓 교리를 우리는 거부한다. 8.21

5.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벧전 2:17). 8.22

아직 구속받지 못한 세상에서 교회가 그 안에 같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정부는 하나님의 지명에 의하여 정의와 평화를 공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준다. 정부는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역량의 척도를 따라 위협과 강권행사를 방편으로 이 임무를 수행한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존경심을 가지고 이러한 신적 위임의 혜택을 인정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명과 의를 마음에 상기시키며, 따라서 통치자와 피통치자 양편의 의무를 상기시킨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는데 방편으로 쓰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복종한다.

정부가 그 특수한 사명을 넘고 지나쳐 마치 인간생활의 유일하고도 전제적(專制的)인 제도가 되어야 하고,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의 사명을 대신 성취한다고 생각하는 거짓 교리를 우리는 거부한다. 8.23

교회가 그 특수한 사명을 넘고 지나쳐 마치 정부의 특성과 임무와 위엄을 자기 것으로 삼고 스스로 정부의 한 기관(器官)이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짓 교리를 우리는 거부한다. 8.24

6.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딤후 2:9). 8.25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만민에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며, 또 따라서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과 사업을 받들어 섬기는 일이다. 교회의 자유는 이 사명 위에 기초하고 있다. 8.26

8.27 교회가 인간적 거만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사업 대신에 임의로 택한 어떤 욕망, 목적, 계획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짓 교리를 우리는 거부한다.

8.28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고백대회는 이 진리들을 인정하고, 이 과오들을 거부하는 일에서 고백교회들의 연맹으로서의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불가결의 신학적 기초를 본다고 선언한다. 본대회는 이 선언을 수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교회 정치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신학적 원리들을 명심할 것을 권유한다. 본대회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되돌아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통일하는 데 이르기를 간청한다.

10

1967년 신앙고백

(본 문)

1967년 신앙고백

1967년 신앙고백을 인준함에 있어서, 장로교회는 3세기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신앙고백을 채택한 것이다. 1960년대의 흉융한 10년이 도처의 교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재진술하도록 도전하였다. 바티칸 제 2 공의회가 로마카톨릭 사상과 행동을 다시 체계화하고 있을 때, 장로교회는 1967년 신앙고백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1956년 장로회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을 수락했다. 1958년 총회는 그 대신 교회가 "간단한 현대적 신앙성명"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위원회가 7년간 이 과업을 위해서 수고했다.

1965년 총회는 위원회의 제안을 놓고 격렬한 토론을 했고, 수정안을 교회로 보내어 연구하게 했다. 당회, 일반 회중, 노회들이 수정할 것과 첨가할 것들을 제출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새로 임명된 15인 위원회가 수정을 가했다. 1966년 총회는 이 초안을 놓고 토론하고, 수락하고, 마지막 비준을 위해 노회들에게 보냈다. 광범위한 토의를 거쳐서 노회의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종 채택은 1967년 총회에서 이루어졌다.

1967년 신앙고백이라는 점잖은 이름의 고백서는 성경의 단 한 귀절 즉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스도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고후 5:19)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첫째 부분 "하나님의 화해작업"은 세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이다. 둘째부분 "화해의 사역"은 두 부분으로 되어있다. 즉 선교와 교회의 준비이다. 마지막 부분은 "화해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에서 교회가 가지는 희망을 확언한다.

1967년 신앙고백은 현대세계에서 가져야 할 교회의 역할을 말한다. 성경학의 발전에 대응하여 이 신앙고백은 교회로 하여금 문학적,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이 신앙고백은 교회로 하여금 복종적 행동을 하도록 요청한다. 특히 민족차별, 국수주의적 오만, 가정과 계급의 알력에 대응하는 행동을 요청한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죽으심과 부활과 약속된 재림을 교회의 현재적 선교를 위한 모형으로 보며, 하나님께와 성도상호간에 화해할 것을 모든 크리스천에게 요청한다.

1967년 신앙고백과 함께 우리 교회는 또한 "신앙고백서"를 채택했다. 거기에는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 온 신조들(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 종교개혁 시대에서 온 것들(스코틀랜드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수록했으며, 20세기에 생긴 두 문서(바르멘선언과 1967년 신앙고백)를 첨가했다.

10

1967년 신앙고백

머리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현재적 증언을 할 때 그 신앙을 고백한다. 9.01

시대마다 교회는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말과 행동으로써 그 증언을 표현한다. 신앙고백의 최초의 실례는 성경 안에서 발견된다. 신앙고백적 진술들이 찬미, 예배의식, 교리적 정의, 문답, 신학체계 요약, 위협적 악에 대항하는 목적선언들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나타났다. 9.02

신앙고백과 선언문들은 교회에 있어서 종속적인 표준들이다.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종속한다. 그 어느 형태의 신앙고백도 그것만이 배타적으로 유효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어느 진술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일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만이 하나인 우주적 교회의 정체(正體)를 입증하며 그 전통의 계속성을 유지하게 한다. 이 복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가 요구할 때마다 생활과 교리면에서 교회가 자신을 개혁할 의무와 자유의 기초가 된다. 9.03

미국 연합장로교회는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이때까지의 여러 시대와 여러 나라 교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부터 내려오는 니케아 9.04

신조와 사도신경, 종교개혁 시대부터 내려오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스위스 신앙고백, 제 17세기 이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 그리고 제 20세기 이래 바르멘 신학선언에 의하여 본교회는 인도를 받는다.

9.05 1967년도 신앙고백의 목적은 오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고백과 선교에 있어서의 통일을 가지도록 환기시키는 데 있다. 이 신앙고백은 어떤 '교리의 체계'가 아니며 신학의 전통적 논제들을 전부 포함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는 다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며 그 구조를 결정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재천명하였다.

9.0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화해의 사업과 그의 교회를 불러서 맡기신 화해의 사명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의 핵심이 된다. 우리 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이 1967년 신앙고백은 이 주제를 토대로 하여 형성되었다.

신앙고백

9.07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에게 화해시키고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화해의 사업을 성취하시려고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시다. 그는 자기 사명을 계속하시고 완성하시려고 성령의 힘에 의하여 교회 안에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관한 모든 고백적 진술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와 또 인간 상호간의 화해를 이루도록 촉구한다.

제 I 부 하나님의 화해사업

제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1. 예수 그리스도

9.08 나사렛 예수 안에서 참된 인간성이 단 일회적으로 실현되었다. 팔레스타인의 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사셨고 그들의 궁핍

과 유혹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셨다. 그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온갖 죄인들의 형제가 되셨다. 그러나 그의 온전한 복종은 마침내 자기 백성과 충돌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의 생활과 가르침이 그들의 선과 종교적 열망과 국가적 희망들을 심판하였다. 다수가 그를 거부하고 그의 죽음을 요구하였다.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거저 내어 주심으로써 그는 만민이 당해야 할 심판을 스스로 짊어지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가 메시야와 주가 되심을 입증하셨다. 이렇게 죄의 희생자가 승리자가 되셨고 만민을 위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셨다.

9.09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화해사업은 하나의 신비로서 성경은 이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한다. 그것을 어린 양의 희생, 자기 양을 위하여 바친 목자의 생명, 제사장에 의한 속죄라고 부른다. 또는 노예를 위한 속전(贖錢), 부채의 상환(償還), 법적 벌에 대한 대리적 배상(賠償),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라고도 부른다. 이것들은 한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며, 그 진리는 곧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깊어서 어떤 이론으로도 규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화해 사업의 중대성과 대가와, 그리고 그것의 확실한 성취를 나타내 준다.

9.10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한 구주이시다. 믿음으로 그에게 연결된 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화해의 공동체로서 봉사하도록 위임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이 공동체 곧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대를 통하여 존속한다.

9.11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심판자이시다. 그의 심판은 생의 궁극적 진지성(眞旨性)을 드러내며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약속해 준다. 부활하신 주께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이며, 그에게서 오는 생명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 곧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한다. 그 심판자가 곧 그들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이다.

2. 사람의 죄

9.1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화해 역사는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을 폭로하여 하나님 안전에 죄로 드러낸다. 죄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들 자

신을 생의 지배자로 자처하며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을 배반하고 세상의 착취자와 약탈자가 된다. 그들은 무익한 노력을 하면서 그들의 인간성을 잃으며 마침내 반역과 절망과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된다.

9.13 슬기롭고 덕스러운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유, 정의, 평화, 진리, 아름다움을 위하여 헌신하며 최고의 선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인간적 덕은 자기 이익과 적의(敵意)가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판명된다. 사람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다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고 그의 용서가 없으면 가망이 없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든가 남보다 도덕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9.14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회개와 새 생활에 이르게 하시려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심판과 굴욕적 죽음을 당하셨다.

제2장 하나님의 사랑

9.15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은 사람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신비로운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최고의 권세와 지혜와 선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의 형상으로써 권세를,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써 지혜를, 죄인을 용납하심으로써 선을 보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 힘은 그 구속자가 곧 만물로 하여금 그의 사랑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하시는 주님이시요, 또 창조자이심을 드러내 보인다.

9.16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의 세계를 창조하시어 인간을 다루시는 영역으로 삼으셨다. 세계는 그 아름다움과 광대성에 있어서, 장엄성과 엄위함에 있어서, 질서와 무질서에 있어서 믿음과 눈앞에 그 창조자의 위엄과 신비를 반영해 준다.

9.17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와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게 하시고 창조자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은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고 대를 계속하여 나아가며 여러 가지 사회관계의 광범한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역량을 부여하셔서 그의 필요를 위하여 세상을 부릴 수 있게 하셨고,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하셨다. 생명은 곧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선물이요, 용기를 가지고 추구해야 할 과업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한도내에서 자기 생명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 이를테면 공동의 안녕을 위하여 자연 자원을 개발 보호하며,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며, 그밖의 길들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성취를 위하여 자신의 창조력을 사용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9.1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인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 사랑과 성실로 그를 섬기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성실치 못하였을 때 그는 자기의 심판으로 그 나라를 징계하셨고, 예언자와 제사장과 교사와 참된 신도들을 통하여 자기 목표를 계속 달성해 나가셨다. 이 증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환기시켜 그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만방에 빛이 되어야 하는 운명을 깨닫게 하셨다. 또 이들은 새 시대가 올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9.19 정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를 일으키셨다. 그의 믿음과 복종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식으로서의 응답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새 창조의 시작이요, 새 인류의 선구자이셨다. 그는 역사에 의미와 방향을 주셨고 교회를 불러 세상의 화해를 위한 그의 종이 되게 하셨다.

제3장 성령의 교제

9.20 성령이신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화해의 작업을 성취하신다. 성령은 교회를 창조하시며 새롭게 하신다. 교회는 곧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와 또 자기들 상호간에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이다. 사람들이 서로 용서할 때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자기들 사이에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의 화평을 그들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그들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성령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화해의 복음이 되게 하신다.

1. 새 생활

9.21 예수의 화해작업은 인류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였다.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들에게 개인적 위기와 현재적 희망이 된다. 이 경험 가운데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다 주며, 그들을 감동시켜 믿음과 회개와 복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다.

9.22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됨됨이를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 새 생활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 이외에 발붙이고 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을 용납하며 남들을 사랑한다.

9.23 새 생활이라고 해서 불신앙, 교만, 정욕, 공포 등과의 마찰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낙담케 하는 여러 가지 곤란과 문제들을 가지고 투쟁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이하는 생활에서 그가 사랑과 성실로 성숙해질 때 그는 그 새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좋은 날이나 궂은 날이나 증거하면서 자유롭고 유쾌하게 산다.

9.24 이 새 생활은 예수의 생애, 곧 그의 행위와 말씀, 유혹에 대한 그의 투쟁, 동정심, 분노, 죽음을 달게 받으시려는 마음 등에서 그 방향을 발견한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교훈이 이런 생활에 지침이 되며,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들을 양육하고 준비시켜 봉사의 임무를 감당하게 한다.

9.25 교회의 회원들은 화평의 사절들이며, 정치, 문화, 경제면에서 세력있는 자들이나 집권자들과 협력하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바로 이 세력들이 인간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허식과 부정(不正)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교회 회원들의 힘은 사람의 계략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궁극에 승리하리라고 믿는 그들의 확신이다.

9.26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그의 창조와 화해의 사업을 완성하시리라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생활을 성취시키시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신호(信號)이다.

2. 성 경

9.27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충족한 계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에 대하여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유일하고 권위있

는 증언을 한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락하고 복종한다. 성경은 다른 여러 증거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비길 데가 없는 증거이다. 교회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책들을 예언적이며 사도적인 증언으로 수락하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교회의 믿음과 복종은 함양되고 규정된다.

9.28 신약성경은 나사렛 예수 곧 메시야의 내림과 교회에 성령을 보내신 일에 대하여 증언한 사도들의 증언의 기록이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과의 계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지적해 준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책이며, 또 그 자체는 신약성경이 없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책이다.

9.29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화해사업에 대한 증언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 아래서 주어진 것이지만 역시 사람들의 말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장소와 시대의 언어, 사상형식, 문학형태들의 지배를 받는다. 성경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문화적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른 문화적 정황 속에서 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또한 변천하는 세계에서, 그리고 인간 문화의 각 형태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리라는 것을 교회는 확신한다.

9.30 성령의 조명에 의지해서, 그리고 그것의 진리와 지시를 받아들이려는 채비를 가지고 성경이 설교되고 읽혀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그의 교회에 주어진다.

제 Ⅱ 부 화해의 직무

제 1 장 교회의 사명

1. 방 향

9.31 하나님께서 화해하셨다는 것은 곧 그가 화해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공동체 곧 보편적 교회는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를 위탁받았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적의(敵意)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리스

도는 이 사명을 위하여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교회는 이 부르심에 성실히 복종함으로써 사도들과의,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9.32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죽음, 부활, 약속된 재림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본보기가 되었다. 사람으로서의 그의 생활은 인간의 일반 생활 속에 교회를 휩쓸어 넣는다. 인간을 향한 그의 봉사는 교회가 모든 형태의 인간 복리를 위하여 일할 것을 위탁한다. 그의 수난은 교회가 인류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며, 각종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도록 만든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사람을 향하여 가진 사람의 잔인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부정(不正) 가운데서 꾸민 잔인한 공모(共謀)의 무서운 결과들을 교회에게 드러내 보인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내림에 대한 희망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사회에서 사람의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잘못을 극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다.

9.33 교회는 그 생활 형식과 행동 방법에 있어서 이 본보기를 따른다. 그러므로 살고 또 봉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다.

2. 형식과 직제

9.34 하나님의 백성의 제도들은 각기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그들의 사명이 요구하는 데 따라 변하며 달라진다. 교회의 통일은 형태의 잡다성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굳어져서 종파적인 분파들과 배타적 교단들과 경쟁적 당파들이 되도록 허용될 때에는 그 통일이 잠적(潛跡)하고 또는 왜곡된다.

9.35 교회가 어느 곳에 존재하든지 그 회원들은 모여서 단체생활도 하고 또는 세상에서 선교하기 위하여 사회 안에 흩어지기도 한다.

9.36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류를 위한 그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예배하면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교제를 즐기고, 지시와 능력과 위안을 받고, 그 자체의 단체 생활을 정하고 조직하며 시험을 받고, 새로워지고, 개혁되고, 시대의 요구를 따라 적합하게 세상의 사건에 대하여 발언하며 행동한다.

9.37 교회는 흩어져서 그 회원들이 어디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놀든지, 사사롭게나 사회 생활에서나 하나님을 섬긴다. 그들의 기도와 성경연구는

교회의 예배와 신학적 반성의 한 부분이다. 그들의 증언은 교회의 복음전도이다. 세상에서의 그들의 일상 행동은 곧 세상에 대하여 선교하는 교회이다. 다른 사람들과 가지는 그들의 관계의 질(質)이 곧 교회의 충실성(fidelity)의 척도가 된다.

9.38 각 회원은 곧 세상에 있는 교회이며 성령으로부터 봉사의 은사를 얼마만큼 부여받았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특수한 정황 속에서 자기의 증언의 완전을 기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도와 후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그 공동체의 충고와 교정(矯正)을 받아야 한다. 반면에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따라 교회를 지도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

9.39 교회는 성령의 특수한 은사들을 인정하고 한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회원들을 부르고 훈련시키고 권위를 주어 지도자와 감독을 삼는다. 이런 임무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정치에 준하여 위임식 혹은 기타 적절한 행동에 의하여 구별함을 받으며, 또 이리하여 그들은 특수 봉사를 위한 책임을 지게 된다.

9.40 이와 같이 교회는 그 생활을 헌장과 기구와 직원들과 재정과 행정규칙들을 가진 하나의 기구(機構)로서 영위한다. 이것들은 선교를 위한 방편들이고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직제들도 복음을 섬겨왔으며, 그 어느 것도 배타적인 유효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장로회 정치는 교역(敎役)에 대한 각 회원의 책임을 인정하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회중들의 유기적 관계를 주장한다. 장로회 정치는 교회나 세속 사회의 세력과 야심으로 말미암은 착취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교회 직제는 화해의 사명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개혁을 달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계시와 종교

9.41 교회는 그 선교에 있어서 사람들의 여러 종교와 마주치며, 이 만남에서 교회도 종교로서의 자신의 인간적 성격을 의식하게 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셈 종족의 문화 속에서 표현된 것으로 히브리 백성의 종교를 일으켰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응답을 환기시켰고, 유대 사상과 헬라 사상 안에서 그리스도 종교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스도 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는 별개의 것으로 그 온 역사를 통하여 주위에 있던 문화 형태들에 의하여

형성되어 내려 왔다.

9.42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들과 자기 자신의 종교 사이에 유사점들을 발견하며, 개방된 마음과 존경심을 가지고 모든 종교에 접근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비기독교인들의 통찰력을 이용하여 교회 쇄신을 촉구하셨다. 그러나 복음의 화해의 말씀은 그리스도 종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만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또는 그들이 아무 종교도 표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고 있다.

4. 사회에서의 화해

9.43 어느 때 어느 곳에나 특수한 문제들과 위기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의 행동을 환기시킨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공범자로서의 겸손을 가지며,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구체적 정황들 속에서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배우려고 힘쓴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현재에 있어서 특히 긴급한 일들이다.

9.44 1)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여러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의 보편적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의 화해의 사랑으로써 형제들 간의 장벽들을 극복하며, 사실이거나 상상이거나 민족적 또는 인종적 차이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깨뜨려 버리신다. 교회는 만민을 이끌어 생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어 주도록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즉 고용, 주거, 교육, 여가(餘暇), 결혼, 가정, 교회, 정치적 권리행사 등에서 그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민족 차별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상해를 받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한다. 동료 인간을 배척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 있는 회중이나 개인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은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며 그들이 표명하는 신앙에 대하여 모욕을 가져다 준다.

9.45 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화해는 나라들 사이의 화평과 정의와 자유의 기반이 되며 정부의 모든 권력들은 이 평화와 정의와 자유를 봉사하며 수호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그 자체의 생활에 있어서 원수에 대한 용서를 실천하며, 국가들에 대해서는 협력과 평화의 추구를 실제 정책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분쟁의 영역들

을 감소시키고 구체적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모든 충돌선을 넘어, 아니 국가 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까지라도, 참신하고 책임적인 관계들을 추구하도록 요구한다. 국가들이 그들의 인력과 자원을 건설적 용도에서 돌려 인류 멸절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핵 무기, 화학 무기, 생물학적 무기들을 발전시키고 있을 때 국가들 간의 화해야말로 특히 긴요하다. 국가들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런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 국가의 주권이나 어느 하나의 생활방도를 하나님의 목표와 동일시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고 자신의 소명을 배신한다.

9.46 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화해는 부요한 세계 안에 있는 노예적 궁핍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라는 사실을 밝혀 준다. 예수께서 자신을 궁핍한 사람이나 착취당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목표가 곧 그의 제자들의 목표이다. 궁핍이 부정한 사회 구조의 산물이거나, 방비책을 못 가진 자들에 대한 착취이거나, 국가 자원의 결핍이거나, 기술적 지식의 결여이거나, 인구의 신속한 증가이거나, 그 어느 하나의 산물이든지를 막론하고 교회는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 교회는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의 부양과 공동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자기 역량과 소유와 기술의 결실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탁하신 선물로 알고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교회는 보다 나은 상태에 대한 인간의 희망을 일으켜 주고 그들에게 어지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급하는 인간 사회의 여러 세력들을 격려한다. 빈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경제적 사건들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어느 한 사회 계급에게만 개방되거나, 자기가 베푼 자선에 대하여 사의(謝意)를 기대하는 교회는 화해를 하나의 조소거리로 만들며, 하나님께 용납될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9.47 4)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대인(對人)생활의 질서를 기본적으로 예증(例證)해 준다. 성관계의 무질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 이웃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소외된 징후(徵候)이다. 산아제한의 새 방법과 전염병 치료가 효능을 발하게 되고, 도시화 경향의 압력이 강해지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성적 상징들이 이용되고, 세계의 인구가 과잉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성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혼동은 우리 시대에 이르러 더욱 악화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이런 소외 상태에서 사람을 이끌어 내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누리는 책임적 자유에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

다. 하나님께 화해하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간성과 다른 사람의 인간성에서 기쁨을 가지며, 또 그것을 존경하게 되며,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서로 나누는 삶에 몰두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평생토록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응답하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모된 자들은 사랑으로 자녀를 보살피고 그들의 개성을 양육하는 은혜를 받는다. 교회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같이 사는 생활의 충분한 의의(意義)를 깨닫게 해주지 못하거나, 우리 시대의 도덕적 혼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베풀지 못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게 된다.

제2장 교회의 장비(裝備)

9.48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설교와 가르침, 찬양과 기도, 세례와 주의 만찬을 주시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삼게 하셨다. 이 은사들이 언제나 남아 있지만 교회는 다른 세대와 문화에 처할 때 거기에 적합한 양식으로 그 섬김의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다.

1. 설교와 가르침

9.49 하나님께서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선교를 위하여 준비시키신다. 설교와 가르침이 성경에 충실하고 성령을 의뢰하는 가운데서 시행될 때,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게 된다. 메시지는 각각 고유한 정황에 처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전해진다. 그러므로 효과적 설교와 가르침과 개인적 증언은 성경과 현대 세계인들에 대한 훈련된 연구를 필요로 한다. 공개적 예배의 모든 행동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적합한 복종으로 응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2. 찬양과 기도

9.50 교회는 찬양과 기도로써 화해의 메시지에 응답한다. 이 응답으로 교회는 그 사명에 대하여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믿음과 복종이 깊어짐을 체험하고, 복음에 대한 공개적 증언을 한다. 하나님께 대한 송축은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의 사례(謝禮)이며, 죄의 고백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유

죄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일이다. 감사는 곧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고, 또 남의 궁핍을 위하여 주는 일을 기뻐하는 일이다. 간구와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될 것과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실 것과 각종 형태의 압박으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는 기도이다. 예술 특히 음악과 건축은 그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들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을 보게 할 때에 그리스도인 회중의 찬양과 기도에 이바지한다.

3. 세 례

9.51 그리스도는 요한의 세례에 겸손히 복종함으로써 궁핍한 인간의 대열에 스스로 끼셨고, 성령의 힘으로 그의 화해의 사역(使役)에 들어가셨다.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이 그 동일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물 세례는 죄로부터의 정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죽음과 그와 더불어 기쁘게 다시 살아나 새 생활을 하는 것을 표시한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여금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위해서 살도록 당부한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가지시고 그의 백성을 자기에게 매어 놓으셨는데, 이제 교회는 세례에서 그 계약의 갱신을 축하한다. 세례를 통하여 개인들이 공적으로 교회에 영접되어 교회생활과 봉사에 참여한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직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고 또 붙들어 줄 책임을 가지게 된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영아일 때에는 그 회중과 아울러 그들의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의 세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공개적 고백을 통하여 개인적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특수한 임무를 가진다.

4. 주의 만찬

9.52 주의 만찬은 사람과 하나님의 화해와 사람들끼리의 화해를 축하하는 것이며, 그들은 구주의 식탁에서 즐겁게 같이 먹고 마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한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기념식을 자기 교회에게 주셨고, 거기에 참여하므로 사람들은 그와 더불어 또는 그에게 모여 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를 가진다.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대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 안에 참여하므로 그들은 부활하시고 살아 계시는

주께로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혜택들을 받는다. 그들은 약속된 그의 재림 때에 완성하시려는 그 왕국을 미리 맛보며 즐거워하고, 주께서 그들을 불러서 맡기신 봉사를 위하여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주의 식탁을 떠나간다.

제 Ⅲ 부 화해의 성취

9.5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인간 생활 전체, 곧 사회와 문화, 경제와 정치, 과학과 기술, 개인과 단체 전부를 포괄한다. 그것은 또한 죄로 말미암아 착취를 당하고 약탈을 당한 인간의 자연환경을 포함한다. 인간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성취되고, 모든 악이 그의 피조물에게서부터 사라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9.54 하늘의 도시, 아버지의 집, 새 하늘과 새 땅, 혼인 잔치, 그리고 끝없는 날 등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성경적 환상들과 형상들은 그 왕국의 형상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 왕국은 곧 하나님의 뜻에 항거하고 그의 창조물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개선을 표시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세상에 누룩처럼 존재하며 사람들 속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궁극적 심판과 구속을 받도록 준비시킨다.

9.55 이 희망이 주는 긴박감을 가지고 교회는 현재의 여러 과업에 열중하며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하여 노력한다. 교회는 제한된 발전을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낙심과 패배를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꾸준한 희망을 가지고 모든 부분적 성취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바라본다.

9.56 "이제는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힘에 의하여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에게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11

미국장로교회

간추린 신앙고백

(본 문)

간추린 신앙고백

1983년에 미국장로교회(PCUSA)는 미국 연합장로교회(UPCUS) 미국장로교회(PCUS)의 재 통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이통합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간단한 신앙성명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 초안 위원들은 양쪽 교회와 세계안에 있는 다양성과 불일치의 실재성을 인정하면서, 장로교의 공동적 정체성을 명시하려고 노력했다.

토의의 초두부터 위원들은 예배에 사용될 수 있는 신앙성명을 쓰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신앙고백서에 있는 문헌들과 성경을 광범위하게 참고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삼위일체적 틀에 맞추어 배열하였다.

간추린 신앙고백은 몇가지 점에서 특이하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는 곧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죽음에로 옮겨가는데, 그것들과는 달리 이 신앙고백은 예수의 유다와 갈릴리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性)의 총괄성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의 계약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역할이 뚜렷이 있음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의 여성적 형상을 남성적 형상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여자와 남자의 성직 수임을 확언한다. 또한 간추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있다.

이 고백은 맨 초두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확언하고 맨 끝에는 "사나 죽으나 그 아무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고 확언하면서, 교회가 익숙해 있는 찬미와 감사와 송영으로써 의식적(意識的)으로 끝을 맺었다.

11

미국장로교회 간추린 신앙고백

머리말[1]

1983년에 미국의 제일 큰 두 장로교단이 하나가 되었다. 그 통합 계획은 개혁 신앙을 간결하게 진술하는 글을 준비하여 신앙고백집에 삽입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을 세웠다. 따라서 이 고백은 우리 교회의 다른 고백들과 별도로 취급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을 빠짐없이 다 열거한다거나 그것들 중 어느 것을 상세히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공중 예배시에 회중이 다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또한 그것은 목사와 교사들이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하나의 공통된 신앙과 공통된 과업으로 함께 결속되어 있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면서 이 고백으로 그것을 축하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우리를 하나인 세계 교회에다 연합시킨다. 장로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유하는 것들이며, 특히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하나의 갱신으로 보는 다른 복음적 그리스도인들과 공유하는 것들이다. 다양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은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다양성을 수용하고 또는 긍정하면서도 분열은 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한

1. 머리말과 부록은 신앙고백이 가지는 권위는 없다.

전통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권면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교회들이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도들이 되기를 기뻐할 때 진리의 영은 교회들에게 새 광명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의도하는 것은 세계 공동적인 신앙을 고백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세계 공동신앙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개혁교회들에게 위탁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간추린 신앙고백은(「규례서」, 정치 제2장에 언급된 바와 같이[2] 개혁 전통의 주요 주제들을 담았고, 그 주제들이 우리만의 사유물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전통 외에 다른 전통들이 가진 지혜와 통찰을 배우고, 또 나누어 가지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백은 세계적이고 또한 개혁교회적인 것이 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고후 13 : 14에 있는 사도의 축복을 따라서) 삼위일체론적 고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맨 먼저 두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성령 안에서 가지는 우리의 공동생활의 기초를 삼았다.

어떤 신앙고백도 단순히 과거만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신앙고백서마다 현시점의 요구들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유산의 빛을 던져 주고, 또한 미래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개혁교회의 고백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전통 자체를 개혁하기까지도 한다. 개혁교회들은 처음부터 교회의 갱신이 반드시 인간 생활과 사회의 변혁 속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그래서 이 간추린 신앙고백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주목을 가장 절실하게 끄는 관심사들을 제기하였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만국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도록 하려고 택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건전한 신앙고백은 교회로 하여금 그러한 사명에 몰두하도록 양육할 때, 그리고 고백교회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사역에서 주시던 축복을 계속하여 주는 도구가 될 때에 입증된다.

2. 부록은 전후 참조를 제공해 주므로 독자로 하여금 간추린 신앙고백이 개혁 전통의 맥락 속에 확실한 근거를 둔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성명서

10.1

1.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3. 하나님의 사랑과,
4.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5. 우리는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믿으며
6.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긴다.

10.2

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8. 그는 완전히 사람이셨고 완전히 하나님이셨다.
9.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으며,
10.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11.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12. 말씀과 행위로써 가르치시고,
13.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14. 병든 자를 고치시고,
15. 마음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16.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시고,
17. 죄인을 용서하시고,
18.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
19. 예수는 신성 모독과 소요 선동죄로 부당하게 정죄되어,
20.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21. 인간고를 깊이 겪으시며,
22.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다.
23.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어,
24. 그의 죄없는 삶을 입증하시고,
25.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려,
26.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10.3

27.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28. 예수는 그를 아빠, 곧 아버지라 부르셨다.
29. 하나님은 주권적 사랑으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30.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지으시어,
31. 남자와 여자, 각 인종과 백성을,
32. 한 공동체로 살게 하셨다.
33.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의 창조자를 피하여 숨는다.
34.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35.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며
36. 거짓을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37. 이웃과 자연을 착취하며,
38. 우리에게 맡겨 돌보게 하신 지구를 죽음에 직면케 하고 있다.
39.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40.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공의와 자비를 베푸신다.
41. 영원하신 사랑으로,
42.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택하시어,
43. 이 땅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
44.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45.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46.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다.
47.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48.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신다.
49. 마치 젖먹이를 물리치지 않은 어머니처럼,
50.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맞으러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51.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10.4

52. 우리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53. 그는 어디서나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54. 성령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55. 우리를 자유케 하여 자신을 수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56. 우리를 모든 믿는 자와 함께 묶어
57.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되게 하신다.
58. 바로 그 성령께서
59. 일찍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감동하셨고,
60.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다스리시며,
61.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62. 세례의 물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며,
63.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64. 여자와 남자를 교회의 모든 사역에 부르신다.
65. 깨어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66.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67.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68. 모든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증거하게 하시며,
69. 교회와 문화 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폭로케 하시고,
70. 오랫동안 말 못하고 살던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71.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신다.
72.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73.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74. 거룩하고 기쁘게 살기를 힘쓰고,
75.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76.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

10.5

77. 모든 시대와 장소의 믿는 자들과 더불어,
78.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그 아무것이라도
79.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6

80.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3]

---

3. 이 줄을 읽는 대신 회중은 성삼위 송영 찬송 중의 하나를 부를 수 있다.

미국장로교회 간추린 신앙고백의 부록

전후참조

간추린 신앙고백 기안자들은 이 고백이 성경이나 신학의 어떤 고립된 혹은 특정한 본문에 기초를 두지 않고, 성경 전체의 넓은 토대와 개혁 신학의 일치한 의견에 기초를 두려고 노력하였다.

이 전후 참조는 제시된 행(行)에서 고백된 신앙의 특정한 부분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근거가 된 자료들을 지적해 준다. 그것들은 간추린 신앙고백이 성경의 교훈과 또한 이전에 나온 고백 문서들의 교훈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것들은 회중들이 그 신앙이 다양한 역사적 상황들 속에서 거듭 고백된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몇몇 구절들과 맥락들만을 지적해 준다.

성구 참조와 성경의 책명, 약칭들은 한글 개역판을 기초한 것이다. 성경구절들은 한글 성경에 나타난 순서대로 적었다. 다만 공관복음서(마태, 마가, 누가)에서 온 평행 구절들은 같이 묶어 놓았다. 우사(右斜)체로 표시된 성구 부분들은 간추린 신앙고백에 그대로 인용되었거나 거의 근사하게 풀어서 사용된 것들이다.

「신앙고백집」(*Book of Confession*)에 있는 문서들은 약자로 나타내었다: NC=니케아 신조, AC=사도신경, SC=스코틀랜드 신앙고백, HC=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SHC=제2스위스 고백, WCF=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거의 연합장로교회가 사용한 판을 따라서 번호를 매겼다.), WSC=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WLC=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BD=바르멘 신학선언, C67=1967년 신앙고백

인용문들은 「신앙고백집」에 나타난 순서대로 표시되었다.

1–6행

1	성 경	신 7 : 6–11, 시 100, 139 : 1–12, 사 43 : 1–9, 렘 31, 롬 8 : 31–39, 14 : 7–9, 고후 5 : 1–5.
	고 백	SC, 1 ; HC, q 1 ; WLC, q 1 ; BD, II, 1, 2.
2–6	성 경	출 20 : 3–6, 신 6 : 4–9, 11 : 16, 왕하 19 : 14–22, 시 56 : 3–4, 62 : 1–8, 71 : 22–24, 103, 사 10 : 20, 12 : 5–6, 17 : 7–8, 43 : 14–15, 54 : 5, 렘 17 : 5–8, 25 : 5–6, 단 3 : 28, 마 28 : 16–20, 요 3 : 16, 14 : 8–17, 행 2 : 41–42, 27 : 21–26, 고전 8 : 1–6, *고후 13 : 14,* 엡 2 : 8–10, 벧전 1 : 2–9.
	고 백	NC ; SC, I, IV ; HC, q 25 ; SHC, III, V ; WCF, II, VII, 5 ; WSC, q 6 ; WLC, qq 6–11 ; C67, "The Confession," I제1–3장.

7–26행

7–8	성 경	시 86 : 1–2, 사 12 : 2, 마 1 : 18–25, 11 : 27, 막 8 : 27–30, 14 : 61–62, 눅 2 : 1–52, 요 1 : 1–18, 5 : 1–18, 7 : 25–31, 10 : 30–39, 갈 4 : 1–7, 빌 2 : 5–11, 골 1 : 15–20, 2 : 8–10, 히 1, 2 : 14–18, 4 : 14–15, 5 : 7–10, 13 : 8, 요일 1 : 1–2.
	고 백	NC, 2nd art. ; SC, VI ; HC, qq 31, 35, 47 ; SHC, XI ; WCF, VIII, 2 ; WSC, q 21 ; WLC, qq 36–42 ; C67, I제1장1.
9–18	성 경	시 34 : 6–18, 146 : 5–9, 147 : 1–6, 사 42 : 1–7, *61 : 1*–3, 겔 34 : 15–16, 습 3 : 19, 마 4 : 23–25, 9 : 10–13, 13 : 1–58, 15 : 21–28, 18 : 21–35, 23 : 1–4, *막 1 : 14–15,* 5 : 1–20, 6 : 30–44, 9 : 33–37, 10 : 13–16, 눅 4 : 16–22(18), 5 : 17–32, 6 : 17–36, 7 : 1–27, 33–50, 8 : 1–3, 10 : 38–42, 15 : 1–32, 요 4 : 1–42, 8 : 1–11, 10 : 1–18, 11 : 1–44, 16 : 33, 행 10 : 34–43.
	고 백	SC, XIV, XVI ; HC, qq 1, 31, 74, 107 ; SHC, XIII–XV ; WCF, VIII, XII, XXV ; WSC, qq 21–30, 36 ; WLC, qq 43–50, 135 ; BD, I ; C67, I제1장1, II제1장4, III.
19–22	성 경	
	19–20행	마 26 : 57–68, 막 14 : 53–65, 눅 22 : 63–71, 마 27 : 32–37, 막 15 : 21–26, 눅 23 : 32–35, 요 10 : 22–39, 19 : 1–22, 고전 1 : 20–25.
	21–22행	시 22, 88 : 1–9, 사 52 : 13–53 : 12, 마 27 : 27–31, 39–50, 막 15 : 16–20, 29–37, 눅 23 : 11, 39–46, 막 8 : 31–35, 10 : 45, 눅 22 : 39–46, 요 1 : 29–34, 3 : 16–18, 10 : 7–18, 19 : 28–37, 롬

		5, 고후 5 : 17–21, 딤전 2 : 5–6, 히 2, 5 : 7–10, 9 : 11–22, 벧전 2 : 21–24, 3 : 18, 요일 2 : 1–2, 4 : 9–10, 계 5.
	고 백	SC, VIII, IX ; HC, qq 29–44 ; SHC, XI ; WCF, VIII ; WSC, qq 28–31 ; WLC, qq 44, 49.
23–26	성 경	
	23–24행	시 24 : 4–5, 26 : 1, 37 : 5–6, 사 50 : 4–9, 마 27 : 3–4, 28 : 1–17, 막 16 : 1–8, 눅 24 : 1–47, 요 20–21, 행 2 : 22–36, *(32)*, 17 : 16–34, 롬 1 : 1–7, 고전 15 : 3–57, 딤전 3 : 14–16.
	25–26행	시 49 : 13–15, 사 25 : 6–8, 단 12 : 2–3, 요 3 : 16–18, 5 : 19–24, 11 : 17–27, 롬 4 : 24–25, 5 : 1–21, 6 : 1–23, 8 : 1–11, 고전 15 : 20–28, 엡 2 : 1–7, 골 1 : 9–14, 2 : 8–15, 살전 4 : 13–18, 딤후 1 : 10, 히 13 : 20–21, 계 21 : 3–4.
	고 백	SC, X ; HC, qq 45–52 ; SHC, XI ; WCF, VIII, 4–8 ; WLC, qq 52–56 ; BD, II, 2–4 ; C67, I제1장1.

27–51행

27–28	성 경	왕하 18 : 5–6, 시 28 : 6–7, 71 : 5–6, 잠 3 : 5–8, 마 6 : 25–34, *막 14 : 32–36*, 눅 11 : 2–4, 롬 8 : 12–17, 갈 4 : 1–7.
	고 백	NC, 첫 항 ; AC, 첫 항 ; HC, qq 26–28 ; WCF, XII ; WLC, q 100.
29–32	성 경	
	29행	창 1 : 1–25, 시 33 : 1–9, 104, 사 40 : 21–28, 요 1 : 1–5, 골 1 : 15–20, 딤전 4 : 4.
	30–32행	창 1 : 26–2 : 25, 5 : 1–32(특히 1–5, 32), 10 : 32–11 : 1, 레 19 : 9–18, 시 22 : 25–31, 67, 133, 사 56 : 3–8, 66 : 18–21, 미 4 : 1–4, 눅 10 : 29–37, 행 17 : 22–28, 엡 1 : 9–10, 계 7 : 9–12, 22 : 1–2.
	고 백	HC, q 6 ; SHC, VII ; WCF, IV, 1–2 ; WSC, qq 9, 10 ; WLC, qq 12–17 ; C67, II제1장4a.
33–38	성 경	
	33 행	창 3 : 1–24, 4 : 1–6, 출 3 : 6, 4 : 1–17, 삿 11 : 29–40, 삼상 10 : 20–24, 시 2 : 1–3, 14 : 1–4, 사 1 : 1–6, 렘 5 : 20–25, 23 : 24, 욘 1 : 1–4, 마 5 : 14–16, 막 4 : 21–23, 눅 8 : 16–18, 마 19 : 16–22, 25 : 14–30(특히 18, 24–25), 눅 8 : 43–48, 10 : 38–42(마르

다), 롬 1 : 16−3 : 26, 히 4 : 13, 계 2−3, 6 : 12−17.

34행　창 1 : 28, 2 : 15−16, 출 20 : 1−17, 21 : 1−23 : 19, 레 19 : 1−37, 신 6 : 4−9, 10 : 19, 느 7 : 73b−8 : 18, 시 119, 169−176, 암 5 : 24, 미 6 : 8, 마 5 : 17−6 : 21, 7 : 12, 22 : 34−40, 요 13 : 34, 14 : 15, 15 : 12−17, 롬 13 : 8−10, 고전 8, 요일 2 : 3−11.

35행　창 1 : 27, 4 : 8, 6 : 11−12, 16, 21 : 9−21, 삿 19, 삼하 11, 13 : 1−20, 18 : 5−15, 시 14 : 1−4, 사 1 : 12−23, 59 : 1−8, 겔 7 : 10−11, 45 : 9, 습 3 : 1−4, 마 23 : 13−28, 25 : 31−46, 눅 16 : 19−31, 롬 1 : 28−32, 엡 4 : 17−22, 골 3 : 5−11, 딤후 3 : 1−9, 딛 1 : 15−16.

36행　창 2 : 16−17, 3 : 1−4, 욥 13 : 1−12, 시 4 : 2, 사 5 : 20−21, 28 : 14−15, 59 : 3b, 12−15a, 렘 5 : 1−3, 14 : 13−14, 요 8 : 42−45.

37−38행　창 2 : 15, 시 8, 사 5 : 7−8, 24 : 4−6, 33 : 7−9, 렘 2 : 7−8, 9 : 4−6, 호 4 : 1−3, 암 2 : 6−8, 행 16 : 16−24.

고 백　SC, II ; HC, qq 3−11, 106, 107 ; SHC, VIII, IX ; WCF, VI ; WSC, q 77 ; WLC, qq 22−28, 105, 131, 132, 136, 145, 149 ; C67, I제1장2.

39　성 경　창 6 : 5−7, 신 28 : 15−68, 30 : 15−20, 삼하 12 : 1−12, 사 1 : 24−25, 5 : 9−10, 24−25, 28 : 16−22, 59 : 9−11, 15b−19, 렘 2 : 9, 9 : 7−11, 14 : 15−16, 암 2 : 13−16, 요 3 : 16−21, 롬 5 : 18−21, 8 : 1−4.

고 백　SC, III, XV ; HC, qq 10−12 ; SHC, XII, XIII ; WCF, VI, 6 ; WSC, qq 82−85 ; WLC, q 27 ; C67, I제1장2.

40　성 경　대하 7 : 11−14, 시 34 : 22, 51, 78 : 36−39, 103 : 1−14, 130, 145 : 8−9, 사 2 : 2−4, 6 : 5−7, 11 : 1−9, 30 : 18, 51 : 4−6, 렘 31 : 20, 애 3 : 22−33, 겔 36 : 8−15, 호 11 : 1−9, 14 : 4−8, 마 1 : 18−21, 눅 1 : 67−79, 15 : 1−7, 요 3 : 16−17, 롬 5 : 15−17, 8 : 18−25, 엡 2 : 4−7, 벧전 1 : 13−21.

고 백　SC, I, IV ; HC, qq 26−28 ; SHC, VI, X ; WCF, V ; WSC, q 31 ; WLC, q 30.

41−51　성 경

41−43행　창 12 : 1−7, 15, 17 : 1−21, 18 : 1−15, 21 : 1−7, 28 : 10−17, 신 7 : 6−7, 느 9 : 6−8, 시 65 : 1−4, 사 41 : 8−10, 44 : 1−8, 51 : 1−2, 렘 31 : 3, 31−34, 마 9 : 9−13, 26 : 26−28, 롬 4 : 13−25, 11 : 고전 1 : 26−29, 갈 3 : 6−9, 엡 1 : 3−10, 살전 1, 히 11 : 8−12, 약

		2 : 5, 벧전 2 : 9–10.
	44–46행	출 2 : 23–3 : 10, 6 : 2–8, 15 : 1–21, 18 : 5–12, 20 : 1–2, 22 : 21–24, 신 7 : 8, 삿 6 : 7–16, 10 : 10–16, 대하 32 : 9–23, 스 9 : 6–9, 느 9 : 9–15, 시 18 : 1–19, 34, 77, 105 : 23–45, 107, 136, 사 40 : 3–5, 9–11, 43 : 14–21, 51 : 9–16, 단 3 : 6, 미 6 : 4, 마 6 : 13, 15 : 21–28, 막 5 : 1–20, 고후 1 : 8–11, 계 1 : 4–11, 15 : 2–4.
	47–48행	시 33 : 20–22, 36 : 7–9, 사 54 : 4–10, 63 : 7–9, 미 7 : 18–20, 마 26 : 26–29, *롬 8 : 15–17,* 38–39, 고전 11 : 23–26, 갈 3 : 15–29, 4 : 6–7, 21–31, 엡 1 : 3–6, 2 : 11–22, 히 13 : 20–21, 벧전 1 : 1–9, 요일 3 : 1–2.
	49–51행	창 33 : 1–11, 신 7 : 9, 32 : 10–12, 느 9 : 16–23, 시 27 : 7–10, 36 : 5–12, 91, 117, 사 42 : 14–16, 46 : 3–4, 49 : 7, 49 : 14–15, 66 : 13, 렘 31 : 15–20, 애 3 : 22–23, 호 11 : 3–4, 눅 13 : 34–35, 15 : 11–32(특히 20), 고전 1 : 9, 살전 5 : 23–24, 살후 2 : 16–17.
	고 백	SC, IV, V ; HC, qq12–15, 18, 19, 34, 49, 51, 52, 54, 128 ; SHC, XIII, XVII–XIX ; WCF, VI, 4, VII, VIII, 8, XVII, XVIII, XXXV, 1903년 선언문 ; WSC, q 36 ; WLC, qq 31–34, 74 ; BD, II, 2 ; C67, I제2장.

52–76행

52–53	성 경	창 1 : 1–2, 시 23, 139 : 1–12, 겔 37 : 1–14, 눅 1 : 26–35, 요 3 : 1–15, 행 2 : 1–21, 10, 롬 8 : 1–11, 고후 3.
	고 백	NC, 제 3항 ; AC, 3항 ; SC, XII ; HC, q 53 ; WCF, XX, XXXIV ; WLC, qq 58, 89, 182.
54–57	성 경	
	54행	창 15 : 1–6, 합 2 : 4, 롬 1 : 16–17, 3 : 21–28*(24–25)*, 4 : 1–5, 5 : 1–2, 갈 3 : 1–14, 엡 2 : 8–9, 딛 3 : 3–7.
	55–57행	레 19 : 18, 신 6 : 4–5, 막 12 : 28–34, 눅 10 : 25–37, 요 3 : 1–15, 롬 8 : 26–27, 12, 13 : 8–10, 고전 12 : 1–31(특히 13, 27), 13, 고후 3 : 17–4 : 2, 갈 5, 6 : 1–10, 엡 2 : 11–22, 4 : 1–6, 빌 4 : 1–7, 골 1 : 24, 3 : 12–17, 벧전 4 : 8–11, 요일 4 : 19, 5 : 5
	고 백	SC, XVI–XX ; HC, qq 1, 21, 54, 55, 86, 87 ; SHC, XV–XVII ; WCF, XI, XX, XXV, XXVI, XXXIV, XXXV ; WSC, qq 29–36 ; WLC, qq 63–66, 70–73 ; BD, II, 1–3 ; C67, I제3장1.

58-61 성 경

58-59행 민 11 : 24-30, 신 18 : 15-22, 대하 20 : 13-19, 24 : 20-22, 겔 3 : 22-27, 8 : 1-4, 11 : 5-12, 13 : 3, 미 3 : 5-8, 막 12 : 35-37, 요 20 : 19-23, 행 1 : 1-9, 2 : 1-4, 9 : 17-19a, 벧전 1 : 10-11, 벧후 1 : 20-21.

60-61행 왕하 22 : 8-13, 23 : 1-3, 시 119 : 1-16, 슥 7 : 11-12, 마 5 : 17, 막 13 : 9-11, 눅 24 : 13-27, 44, 요 5 : 30-47, 16 : 13, 행 2 : 14-36, 4 : 13-20, 8 : 4-8, 9 : 17-22, 10 : 34-44, 13 : 4-5, 17 : 1-4, 롬 15 : 17-21, 엡 2 : 19-3 : 6, 딤후 1 : 11-14, 3 : 14-17, 히 1 : 1-4, 3 : 7-11, 벧전 1 : 12, 벧후 1 : 16-19, 3 : 1-2, 계 3 : 22.

고 백 SC, XIX, XX ; HC, qq 19-21 ; SHC, I, II ; WCF, I, XXXIV, 2 ; WSC, qq 2, 3 ; WLC, qq 2-6, 108 ; BD, I, II, 1 ; C67, I제3장2, II제2장1.

62-64 성 경

62행 막 1 : 1-12, 6 : 30-52, 요 1 : 19-34, 3 : 5, 7 : 37-39, 행 2 : 38-42, 8 : 26-39, 9 : 10-19, 10 : 44-11 : 18, 롬 6 : 1-4, 고전 12 : 12-13, 갈 3 : 27-28, 엡 1 : 13-14, 골 2 : 8-15, 딛 3 : 3-7, 요일 5 : 6-8.

63행 *시 116* : 12-14, (13), 마 26 : 17-29, 막 14 : 22-25, 눅 22 : 14-20, 24 : 13-35, *요 6 : 22-59(35, 48)*, 행 2 : 41-42, 고전 10 : 16-17, 11 : 17-34, 히 9 : 11-28.

64행 창 1 : 26-27, 출 15 : 1-21, 삿 4 : 4-10, 왕하 22 : 8-20, 욜 2 : 28-32, 눅 1 : 46-55, 2 : 25-38, 8 : 1-3, 10 : 38-42, 요 4 : 7-42, 20, 행 1 : 12-2 : 47, 13 : 1-4, 16 : 1-15, 18 : 24-28, 롬 16 : 1-16, 고전 12 : 4-7, 고후 4 : 5, 갈 3 : 27-29, 엡 4 : 7-16, 빌 4 : 1-3, 벧전 2 : 9-10.

고 백 SC, XVIII, XXI-XXIII ; HC, qq 65-85 ; SHC, XVIII-XXVIII ; WCF, XXVI-XXXI ; WSC, qq 88-98 ; WLC, qq 157, 158, 164-177 ; BD, II, 1, 3-6 ; C67, II제1장1-2, II제2장.

65-71 성 경

65-66행 창 15 : 1, 시 23 : 1-4, 27 : 1-6, 46 : 1-3, 사 41 : 8-10, 학 2 : 4-5, 행 4 : 13-31, 빌 1 : 19-20, 고후 1 : 18-22.

67행 창 18 : 16-33, 삼하 7 : 18-29, 단 6, 마 6 : 5-15, 막 14 : 32-42, 눅 18 : 1-8, 요 17, 롬 12 : 12, 엡 6 : 18-20, 골 1 : 3-14, 4 : 2, 살전 5 : 16-18*(17)*, 약 5 : 13-18, 유 20-21.

68행 사 60 : 1-3, 마 28 : 19-20, 눅 24 : 45-47, 행 1 : 8, 9 : 27-29, 23 : 11, 롬 1 : 1-6, 살전 2 : 1-8, 딤후 1 : 8-14, 4 : 1-2.

69행 출 20 : 2-6, 왕상 18 : 21-39, 시 115 : 1-11, 사 31 : 1-3, 44 : 6-20, 렘 7 : 1-20, 슥 4 : 6, 마 6 : 24, 눅 18 : 18-23, 행 19 : 21-41, 고전 8 : 1-6, 빌 3 : 18-19, 골 3 : 5, 요일 5 : 20-21.

70행 창 41 : 1-45, 룻 1-4, 왕상 12 : 1-20, 렘 36, 습 3 : 1-2, 마 15 : 21-28, 막 5 : 15-20, 9 : 38-41, 16 : 9-11, 눅 7 : 36-50, 10 : 30-35, 요 4 : 27-30, 39, 20 : 11-18, 행 24, 고전 14 : 33b-35, 딤전 2 : 11-12.

71행 레 25 : 25-55, 신 15 : 1-11, 시 34 : 14, 72 : 1-4, 12-14, 사 58, 암 5 : 11-24, 미 6 : 6-8, 마 5 : 9, 25 : 31-46, 롬 14 : 17-19, 갈 5 : 13-26, 히 12 : 14, 13 : 1-3, 20-21, 약 1 : 22-2 : 26.

고 백 SC, XIII, XIV, XXIV ; HC, qq 86-129 ; SHC, IV, XVII, XXIII, XXX ; WCF, IX, XII, XIX-XXIII, XXV, XXXIV, 3, XXXV ; WSC, qq 35, 36, 98-107 ; WLC, qq 75, 76, 91-148 ; BD, II ; C67, I제2장, II제1장1, 3, 4, II제2장2.

72-76 성 경

72-74행 레 19 : 1-4, 느 7 : 73b-8 : 12, 시 68 : 32-35, 96, 100, 마 13 : 44, 눅 9 : 23, 24 : 44-53, 요 15 : 10-11, 행 1 : 8, 13 : 52, 롬 7 : 4-6, 12 : 1-3, 9-21, 15 : 13, 고전 3 : 16-17, 13, 고후 1 : 12, 엡 1 : 3-2 : 21, 살전 1 : 4-8, 5 : 16-18, 벧전 1 : 13-16.

75-76행 사 65 : 17, 66 : 22-23, 마 24 : 42-44, 25 : 1-13, 막 13 : 32-37, 눅 14 : 15-24, 고전 15 : 51-58, 16 : 21-24, 벧후 3, *계 21 : 1-22 : 5, 22 : 20.*

고 백 HC, qq 31, 32, 86, 그리고 제 3부 전체 ; SHC, XIV, XVI, XXIX ; WCF, VII, 5, XIII-XVI, XIX, XXI-XXIV, XXXIV ; WSC, qq 39-82 ; WLC, qq 56, 175 ; BD, II, 2 ; C67, I제2장, I제3장1, II제1장, III.

77-80행

77-80 성 경 시 27 : 1-10, 91, 118 : 1-6, 139 : 1-18, 사 25 : 6-9, 요 3 : 16, *롬 8 : 31-39,* 엡 2 : 1-10, 딤후 2 : 8-13, 약 1 : 12, 벧전 1 : 3-9, 요일 4 : 7-21.

고 백 NC 3항 ; AC 3항 ; SC, XVI, XVII ; HC, qq 1, 50-58 ; SHC, XXVI ; WCF, XVII, XVIII ; WLC, qq 67, 196 ; BD, II, 2 ; C67, I제2장, I제3장, I제3장1, III.

색 인

색 인

ㄹ

ㅁ

색 인

색 인

ㅋ

ㅌ

CONFESSIONAL BANNERS

신앙고백서가 채택되었을때 애브리(Richard K. Avery)목사와 뉴욕주의 포—트 절비스(Port Jervis) 장로교회 성가대 지휘자인 마—쉬(Donald S. Marsh)목사 부부가 신앙고백들을 상징하는 여덟 개의 기(旗)를 고안하였다. 또한 그들은 말씀과 음악을 통하여 그 여덟 신앙고백의 상징적 의미와 역사를 설명하는 예배의식을 저술하였다. 포—트 절비스 교회 회원들이 그 기(旗)들을 만들었으며, 그 고안들의 판권은 애브리(Avery) 목사와 마—쉬(Donald S. Marsh) 목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들을 복제(複製)하려면, 그들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80 회 총회(1968)는 다음판 신앙고백서에 상징들의 원색 사진과 설명문들을 첨가하라고 총회사무국에 지시하였다. 이제 그것들이 판권 소유자들의 허락에 의하여 여기에 첨가되었다.

이 기(旗)들과 설명이 다음 여덟 페—지에 따라 나온다.

I. 니케아 신조(The Nicence Creed, 제 4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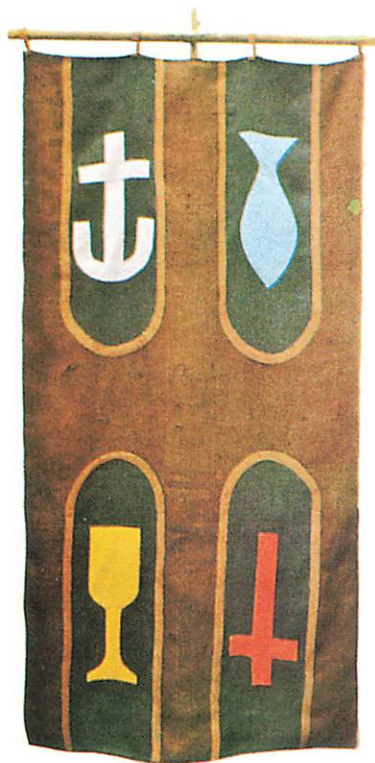
검(劒)이기도 한 십자가. 콘스탄틴 대제와 그 후계자들의 상징. 콘스탄틴 대제는 에큐메니칼 협의회를 소집하였으며, 그 회의에서 긴 토의가 시작되어 마침내 이 신조가 생겨났다. 그는 첫 번째 크리스천 황제이며, 제국적 기독교 전통을 창시한 사람이다. 십자가가 여기에 중심이 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이 신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녹색 삼각형과 동반하는 세 상징. 니케아 신조에서 공식화한 삼위일체 교리.

아래로 뻗은 손. 하나님, 아버지.

키(X)와 로(P)의 글씨도안.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어 낱말의 처음 두 글자로서, 콘스탄틴 대제가 그의 군대의 방패와 철모에 사용한 것이다.

비둘기. 성령.

왕관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

II. 사도 신경(The Apostles´ Creed)

칙칙한 갈색. 박해받던 초대 기독교회의 난관과 엄격성; 그리고 수도사적인 전통.

자색 아—취. 초대 크리스천들이 비밀리에 만나던 동굴 혹은 카타쿰의 입구; 또는 꼬틱 교회의 창문 모양.

닻 모양의 십자가. 사도들, 특히 어부였던 사도들이, 발견한 바와 같은 그리스도 안의 안전.

물고기.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고대 상징의 하나. 아마 비밀 암호였을 것이다. 물고기를 나타내는 그리스어 단어의 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글귀에 나타난 단어들의 첫 글자들과 맞먹는다.

잔(盃). 주님의 만찬. 초대 교회의 진지하고도 단순한 교제.

거꾸로 된 십자가. 사도들의 우두머리 베드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기 스승이 죽으신 모습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한다.

III. 스코틀랜드 신앙고백(The Scots Confession, 스코틀랜드, 1560)

청색 방패. 스코틀랜드 교회를 나타내는 배경 색갈.

타르탄 십자가(X형 십자가).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도 한다. 스코틀랜드에 복음을 전래한 사람이 안드레이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첫 순교자 패트릭 해밀톤(Patrick Hamilton)을 기념하는 타르탄형 즉 체크형 곧 해밀톤 가문의 상징이기도 한다.

켈트 십자가. 영국 섬의 크리스천들과 관련되어 있는 또 하나의 십자가형.

배. 교회를 상징함. 이 신앙고백은 교회에 대한 뚜렷하고도 강력한 교리를 담고 있다.

성경과 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 성령의 검"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존 녹스(John Knox)의 예리한 말씀, 설교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주요한 동력(動力)이었다.

타지만 없어지지 않는 떨기 나무. 모세의 시내산 경험을 회상케 한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불으심을 상징한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주요 상징.

IV.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 독일, 1563)

제왕색 빨강과 금색. 독일에서 요한 칼빈 추종자들을 위하여 요리문답(要理問答)서를 쓰도록 명령한 프레데릭(Frederick) 3세의 통치를 기리는 표.

가시 관. "독일" 십자가, 돌 비. 비참, 구속, 감사의 상징. 이 셋은 이 요리문답의 기본 주제이다. (돌 비는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십계명 해설에서 요리문답은 복종이 곧 감사하는 마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가르친다.)

두 개의 빛과 불. 삼위일체. 왼 편 동그라미에 있는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 오른편 동그라미에 있는 예수의 그리스어 약자(略字), 성령을 상징하는 불꽃. 이 요리문답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긴 논의가 들어있다.

V.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스위스, 1566)

청과 백. 고대 스위스의 문장(紋章)색갈들.

십자가. 이 신앙고백에는 구원에 대한 논의가 광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 깃발의 전면을 차지한다.

손과 불타는 심장. 장로교의 본향인 스위스에서 교조로의 역할을 한 존 칼빈의 전통적 상징.

등(燈). 지식과 훈련. 이것들은 스위스 교회의 두 주제인바 그것들이 그 교회를 특유하게 만들었다.

목자의 지팡이와 초장(草場). 맡은 교인들에 대한 목자적 봉사사역과 돌봄.

잔(杯)과 물결. 성찬식과 세례.

V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 요리문답
(The Westminster Confession and Shorter Catechism, 영국, 1646)

세 개의 긴 화포(畵布)와 밤색 삼각형. 삼위일체.

눈.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모든 생명과 역사의 지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뚜렷한 주제이다.

왕관. 하나님의 통치.

펼쳐진 성경. 이 신앙고백의 교훈의 기초가 되는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자.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VII. 바르멘 신학 선언 (The Theological Decaration of Barmen, 독일, 1934)

지워진 스와스티카와 떠오르는 십자가. 나치(Nazi)가 학정을 하며,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교회를 지배하려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 항거하고 증언한다는 뜻.

불. 바르멘 선언 서명자들 처럼 학정에 항거하고 믿음을 변증하는 일로 인해서 받는 수난과 죽음. 그러나 십자가는 불꽃 속에서 솟아 오르는 모양으로 그러한 박해와 전쟁의 위기를 이기고 살아 남는다.

VIII. 1967년 신앙고백(미합중국)

청색, 붉은색, 금색. 미국 연합 장로교회의 공식 문장(紋章)의 색갈들.

아래로 향한 금빛 손. (니케아 깃발을 닮은 것) 이 세상과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

왕관(웨스트민스터 깃발을 닮은 것)과 못 자욱 있는 손.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

색갈이 다른 네 개의 손, 악수한 손들과 녹색 원(圓). 십자가 밑에서 화해한 세계. 하나님의 화해 활동은 1967년 신앙고백의 출발점이며 주제이다.

청색을 배경으로 한 별들. 이 신앙고백의 상황적 배경이 되어 있는 우주시대.

IX. 간추린 신앙고백

십자가는 그리스도안에 살고있는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의 일치를 축하하는 무지개 색깔이다.

파란 바탕은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우주를 상징한다.

지구는 우리의 다양성과 분열을 상징하는 깨어짐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의 보편적 교회로 묶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은 혼란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안에 우리를 연합시킬것을 기억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성령안에서 함께하시는 삶의 토대이다.

간추린 신앙고백 (The Brief Statement of Faith)에 나타난 미국 장로교의 상징은 이 배너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상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세례를 나타내고 있다. 펼쳐진 성경의 상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례반은 세례식을 상기시키며, 탁상의 모양은 최후만찬인 성례전을 생각하게하고, 설교단은 말씀의 선포를 보여준다. 타오르는 불꽃은 불붙는 떨기나무와 오순절을 나타낸다. 그리고 전반적인 상은 팔을 펼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암시한다.